

경기도
문화재
총람



일러두기

1. 이 책은 2018년 ‘경기도문화재원형기록화사업’의 하나로 경기도 소재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총 380건을 집대성하여 편찬한 경기도문화재총람(국가지정문화재·등록문화재편)이다.
2. 제1권에는 국보 11건, 보물 160건, 국가무형문화재 11건, 국가민속문화재 22건, 제2권에는 사적 69건, 명승 4건, 천연기념물 19건, 등록문화재 84건 등을 수록하였다.
국가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 분류에서 “기타”로 분류한 것은 제외하고, 경기도지정종목 11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3. 편집은 지정종목과 지정번호 순으로 하였으며, 활용의 편의를 돕고자 시·군별 지정문화재 목록을 색인으로 작성하였다.
4. 문화재 개요는 지정명칭, 지정구분, 수량·면적, 지정일, 소재지, 소장자, 시대 순으로 명기하였고, 문화재 지정명칭은 한자를 병기하였다. 명칭과 수량 단위는 지정고시 상의 명칭과 수량에 따랐다.
5. 문화재의 기본 규격 단위는 cm 또는 m이며, 세로·가로·높이·지름·두께 등의 순으로 표기하였다.
그림은 장황을 제외한 화면의 규격, 불상은 전체 높이와 무릎의 폭, 건조물은 정면과 측면의 간수를 표기하였다.
6. 개별문화재에 대한 설명은 기존에 작성된 각종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문화재의 조영·제작 시기, 용어 등 세부 사항은 기존의 내용을 따랐다.
7. 문화재 사진은 최근(2017~2018)의 모습을 기본으로 하고,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 과거 촬영 사진도 수록하여 그 변화과정을 알 수 있게 하였다.
8. 사진 수집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문화재연구원이 보유한 사진을 검토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 및 문화재 소장기관 등으로부터 사진을 제공 받았으며, 일부는 문화재사진 전문작가에게 의뢰하여 촬영하였다. 발굴 유적의 경우 현재 모습과 더불어 문화재조사 당시의 유적·유구의 모습은 개별 문화재조사기관으로부터 현장조사 사진을 제공받아 수록하였다. 사진 수집 또는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소장자 거부 등)에는 문화재청에서 공개·제공하고 있는 사진을 활용하였다.

경기도 문화재 총 램

국가지정편 _ 2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록문화재

目次

일러두기 02

1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10	제217호	화성 당성	74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12	제223호	연천 송의전지	78
제57호	남한산성	14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80
제115호	수원 화령전	16	제251호	여주 파사성	82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18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84
제139호	김포 문수산성	24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88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26	제292호	김포 덕포진	90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28	제299호	화성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92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30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94
제162호	북한산성	32	제323호	파주 윤관장군묘	96
제191호	고양 공양왕릉	34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98
제193호	구리 동구릉	36	제342호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	100
제195호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42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102
제197호	남양주 광릉	46	제352호	하남 동사지	104
제198호	고양 서오릉	48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106
제200호	고양 서삼릉	52	제357호	광명 영화원	108
제202호	김포 장릉	54	제358호	파주 소령원	110
제203호	파주 장릉	56	제359호	파주 수길원	112
제205호	파주 삼릉	58	제360호	남양주 휘경원	114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62	제363호	남양주 광해군묘	116
제207호	남양주 홍릉과 유릉	66	제364호	구리 명빈묘	118
제209호	남양주 사릉	70	제365호	남양주 성묘	120
제210호	양주 온릉	72	제366호	남양주 안빈묘	122

2 명승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124	제10호	삼각산	188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126	제93호	포천 화적연	190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130	제94호	포천 한탄강 멩우리협곡	192
제403호	포천 반월성	132	제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194
제413호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136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140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142			
제437호	파주 칠중성	144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146			
제451호	화성 마하리 고분군	150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152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154			
제468호	연천 당포성	158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160			
제478호	수원 화성행궁	162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	164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168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172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174			
제526호	양주 대모산성	176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180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182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184			

5
천연기념물

제11호	광릉크낙새서식지	198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200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202
제209호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204
제232호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206
제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208
제253호	이천 신대리 백송	210
제278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212
제286호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214
제381호	이천 도립리 반룡송	216
제412호	연천은대리물거미서식지	218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220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222
제459호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224
제460호	포천 직두리 부부송	226
제470호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228
제504호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	230
제537호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232
제542호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234

3
등록문화재

제45호	연천역 급수탑	238
제76호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	240
제77호	파주 경의선 구 장단역 터	244
제78호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246
제79호	파주 경의선 장단역 죽음의 다리	248
제271호	구 포천성당	252
제294호	고양 구 일산역사	254
제295호	남양주 구 팔당역	256
제296호	양평 구 구둔역	258
제342호	미몽	260
제343호	자유만세	262
제344호	검사와 여선생	264
제345호	마음의 고향	266
제346호	피아골	268
제347호	자유부인	270
제348호	시집가는 날	272
제383호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A.W.Busbea) 기증 태극기	274
제399호	상주의용소방대소방차	276
제401호	신진 퍼블리카	278
제404호	용인 장욱진 가옥	280
제407호	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비	282
제408호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	284
제417호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286
제418호	협궤증기기관차 13호	288
제419호	대통령 전용 객차	290
제420호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 객차	292
제421호	협궤무개화차	294
제422호	협궤유개화차	295
제423호	대한제국기 철도 통표	296
제424호	대한제국기 경인철도 레일	297
제425호	쌍신페색기	298
제455호	고양 행주성당	300
제471호	남양주 흥국사 대방	302
제479호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304
제487호	부채를 든 자화상	306
제488호	청춘의 십자로	308
제519호	구리 한용운 묘소	310
제522호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312

제528-2호	국문정리	314	제691-8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유상규 묘소	392
제529-2호	전보장정	316	제697호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394
제532호	초동	318	제698호	수원 구 부국원	396
제533호	시골소녀	320	제708호	용인 고초골 공소	398
제535호	론도	322	제709호	구 안성군청	400
제536호	남향집	324	제729호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402
제537호	토끼와 원숭이	326	제730호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404
제538-2호	고바우영감 원화	328	제740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406
제539호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	330			
제542호	구 김포성당	332			
제553호	현대자동차 포니 1	334			
제555호	통일버 유물	336			
제559-1호	금성 라디오 A-501	338			
제560호	금성 냉장고 GR-120	340			
제561-1호	금성 텔레비전 VD-191	342			
제562호	금성 세탁기 WP-181	344			
제563호	삼성전자 64K DRAM	346			
제578호	포천 방어병커	348			
제587호	개성 복식부기 장부	350			
제592호	고양 흥국사 대방	352			
제593호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	354			
제594호	양평 지평양조장	356			
제597호	구 수원문화원	358			
제598호	구 수원시청사	360			
제599호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362			
제605호	만화 코주부 삼국지	364			
제608호	여운형 혈의	366			
제610호	석주명 유품	368			
제615호	색복장려깃발	372			
제637호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	374			
제649호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376			
제657호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378			
제688호	경기도청사 구관	380			
제689호	경기도청사 구 관사	382			
제691-1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오세창 묘소	384			
제691-2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문일평 묘소	386			
제691-3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방정환 묘소	388			
제691-4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오기만 묘소	390			



— 1 —

사적

—————

사적 제3호

수원 화성

水原 華城

조선시대(1796년)

일원

둘레 5,544m

지정구역 - 384,665㎡

석전훈축성

수원시 장안구 장안동, 영화동 외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수원 화성, 2018. 경기도지역연구회

<수원 화성>은 조선 정조가 생부인 사도세자를 장헌세자로 추봉하고 현릉원을 조성하면서 기존에 화성시 화산동(안녕동) 일대에 있던 수원의 읍치를 지금의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그 부근 주민들을 옮기면서 새로 축성되었다. 새로 이주한 백성들의 정주를 위하여 계획된 읍성은 정약용 등의 과학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선 후기 한국 성곽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으로 이룩되었다.

서쪽으로는 팔달산을 끼고 동쪽으로는 낮은 구릉의 평지를 따라 축성된 것으로, 창룡문, 화성문, 팔달문, 장안문의 사대문을 비롯하여 암문, 수문, 적대, 공심돈, 봉돈, 포루, 장대, 각루, 포사 등의 각종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다. 1794년(정조18) 2월 영종추부사인 체제공의 주관 하에 성역에 착수하여 1796년(정조20) 9월에 완공되었다. 1796년 9월 10일 감동당상과 낭관의 복명으로 성역은 끝나고 10월 9일 낙성연을 하였다.



성곽의 축조 방법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오던 전통적인 축성 경험을 바탕으로, 무기의 발달과 중국 성제城制의 장점을 종합하고 있다.

성벽은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 돌과 모래로 다진 뒤 그 위에 배흘림을 준 규형圭形의 벽을 쌓았다. 치성과 같은 시설은 중국식 성제를 따르고 있으며, 산지 부분은 차평鑿平과 사토削土를 위주로 '내탁내托'이라는 방식을 썼다. 성곽 주위의 호壕는 산지 부분에서는 두르지 않고 평지 부분만 둘렀고, 봉수대의 시설도 완벽히 갖추었다.

조선시대 성곽이 보통 때 거주하는 읍성과 전시에 피난처로 삼는 산성을 기능상 분리하고 있는 반면, 이 성곽은 피난처로서의 산성은 설치하지 않고 보통 때 거주하는 읍성에 방어력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성곽에서는 보기 어려운 많

은 방어 시설이 설치되었다.

벽돌을 축성에 사용한 점과 녹로, 거중기 등의 과학기기를 활용한 점, 용재用材를 규격화한 점, 화포를 주무기로 삼는 공용 화기의 사용에 적합한 방어구조를 갖춘 점 등은 다른 성곽과 구별되는 수원 화성만의 특징이다.

또한 수원 화성의 축조에 관한 경위와 제도, 의식 등을 수록한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순조1)가 전해오고 있어 수원 화성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 수원 화성은 축성된 이후 약 200여 년이 흐르는 동안 성벽과 파손되기도 하였으나, 축성의 전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화성성역의궤』에 따라 손실된 부분을 완벽하게 보수·복원할 수 있었다.

1963년 1월 21일 사적 제3호로 지정되었으며, 1997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高陽 幸州山城

삼국~조선시대

일곽

둘레 약 1km(잔존 415m)

지정구역 - 354,732㎡

토성, 석성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산26-1 일원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고양시

<고양 행주산성>은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덕양산의 7,8부 능선에 쌓은 테피식 토석혼축산성이다. 덕양산 정상부를 에워싼 소규모의 내성內城과 북쪽의 작은 골짜기를 에워싼 외성外城으로 이루어져 있다.

행주산성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權慄 장군이 의병義兵과 승병僧兵 2천3백명이 3만명의 왜군에 맞선 행주대첩의 격전지로 아낙네들이 치마에 돌을 옮겨 싸움을 거들어 승리한 일화로 유명한 호국항쟁의 전승지이다. 성의 남쪽으로 한강이 접해있고, 동남쪽으로는 장릉천이 돌아 한강으로 유입되어 해자壕字의 역할을 하며, 동남쪽과 남쪽은 경사가 급한 천연요새로서의 지형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정상에서는 사방이 막힘없이 조망된다.

행주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2차례(2000년·2016년)와 3차례 시굴·발굴조사(1990년·2017년·2018년)가 실시되었다. 1990년 시굴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성벽은 정상부와 동남쪽 사면, 동북쪽이 확인되고, 서쪽은 내성이 확인되나 외성은 육안식별이 어렵다. 내성 성벽은 정상부를 깎아내어 다듬은 뒤에 둘레 250m 정도의 토루土樓를 형성하고 있으며, 정상에서 동북쪽의 산등성이쪽에는 외성의 자취가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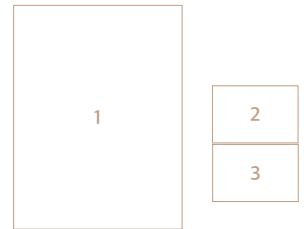


동북쪽 산등성이를 따라 남아있는 외성은 자연능선을 이용하여 성의 내부쪽에 간단한 석축 기초를 두고 점토와 마사토를 교대로 쌓는 판축版築기법을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계곡 쪽의 성벽은 유구의 흔적이 희미하게 계곡을 이룬 산 증복을 돌아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중식산성은 삼국시대 이래의 사용과 수개축의 결과로 추정된다. 삼국시대 방형투공方形透孔이 있는 단각고배류短却高杯類와 완형토기甕形土器, 인화문토기편 등과 동이류, 병 등 통일신라시대 토기들과 격자문 및 선조문 문양의 기와류가 수습되었다. 또한 어골문과 복합문 문양의 고려시대 기와류도 수습되었다.

이를 통해 삼국~고려시대 유적이 확인됨에도 행주산성은 조선시대만 부각되어 유적에 대한 편년, 성격이 제대로 규명

되지 못한 실정이었다. 이에 행주산성이 역사성을 조명하고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가 2016년부터 실시되었다. 2017년과 2018년 시굴조사와 발굴조사가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석축 성벽의 존재와 토성기저부, 석렬, 적심, 수혈유구 등을 확인하였고, 태선문·격자문·'신辛'명기와·주름무늬병·철촉·가위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석축 성벽은 풍화암반 정지면 또는 풍화암반을 굴착하고 점토를 쌓아 정지한 면에 퇴물림쌓기나 앞물림쌓기 등으로 쌓아올렸는데 석재사이에는 점토로 마감하여 견고하게 축조하였다.

행주산성 성 안에는 1603년(선조36)에 세운 행주대첩비와 1963년에 다시 세운 행주대첩비가 남아있으며, 1970년대 건립한 권율장군의 사당인 충장사忠壯祠가 있다.



1. 고양 행주산성 전경, 2019. 한양문화재연구원
2. 고양 행주산성, 2019. 한양문화재연구원
3. 고양 행주산성 토성, 2016. 문화재청



사적 제57호

남한산성

南漢山城

조선시대(1624년)
일곽
둘레 11.76km(내성 9.05km, 외성 2.71km)
지정구역 - 608,705㎡
석성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산1 일원 (하남시, 일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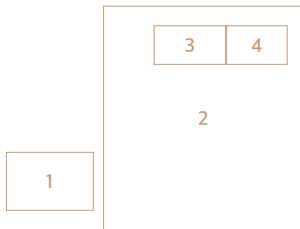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경기도

<남한산성>은 북한산성과 함께 수도 한양을 지키던 조선시대의 산성이다.

주봉인 해발 497.9m의 청량산을 중심으로 북쪽으로는 연주봉, 동쪽으로는 망월봉과 벌봉, 남쪽으로도 여러 봉우리를 연결하여 성벽을 쌓았다. 성벽의 바깥쪽은 경사가 급한데 비해 안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방어에 유리하면서도 적의 접근은 어려운 편이다. 봉암성蜂巖城, 한봉성漢峰城, 신남성新南城 등 3개의 외성과 5개의 옹성도 함께 연결되어 견고한 방어망을 구축하였다. 성벽과 성 안에는 많은 시설물과 건물이 있었지만, 지금은 동·서·남문루와 장대將臺·돈대墩臺·보루·누루·암문·우물 등의 방어 시설과 관청, 군사훈련 시설 등이 남아 있다.

1985년 지표조사 실시 이래 행궁터, 인화관터 및 성벽에 대한 발굴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대략적인 축성 시기 및 변천 과정이 파악되었다. 2005년 북문과 동장대 사이의 제4암문과 수구水口터 주변 발굴 조사 과정에서 8세기 중반에 조성된 성벽과 건물터 등이 확인되었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673년(문무왕13) 한산주에 주장성晝長城(혹은日長城)을 쌓았다고 하며,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일장산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의 남한산성이 신라 주장성의 옛터를 따라 축조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남한산성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후금後金の 위협이 고조되고 이괄李适의 난을 겪고 난 후인 1624년(인조2)이다. 인조는 대대적인 수축을 위하여 관군 이외에 전국 8도에서 승군을 동원하였으며, 승군의 사역과 보호를 위하여 장경사長慶寺를 비롯한 7곳의 사찰을 새로 건립하기도 하였다. 그 뒤 순조 때까지 여러 시설을 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1. 남한산성 내 장경사, 2013. 경기도
- 2. 남한산성, 2018. 경기도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 3. 남한산성 좌익문(동문), 2013. 경기도
- 4. 남한산성 남장대터와 제2남옹성터, 2016. _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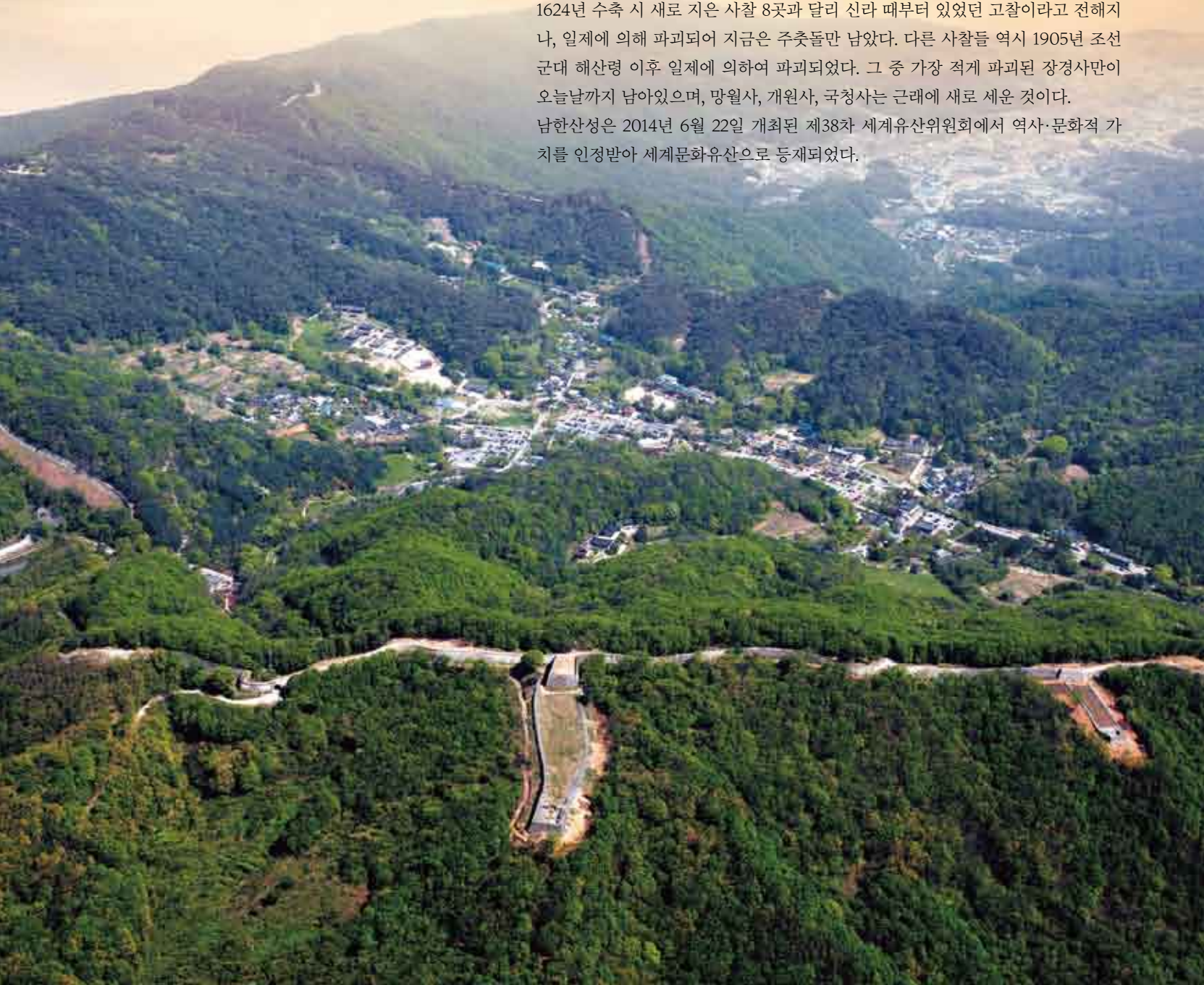




남한산성은 5군영의 하나인 수어청의 근거지이자 광주 읍치를 관리하는 행정시설이 1917년 광주 경안동 이주 전까지 290여 년간 운영되던 조선 최대의 산악 군사·행정지역이다. 또한 축성이후에도 효율적인 산성 수비를 위해 270여 년간 승군 제도를 유지했던 명실상부한 호국불교의 상징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남한산성의 축성과 관련된 사찰은 모두 10개로 이 중 옥정사 등 8개 사찰은 본성 내에, 동림사는 봉암사 내에, 영원사는 한봉성 근처에 있다. 옥정사와 망월사는 1624년 수축 시 새로 지은 사찰 8곳과 달리 신라 때부터 있었던 고찰이라고 전해지나, 일제에 의해 파괴되어 지금은 주춧돌만 남았다. 다른 사찰들 역시 1905년 조선군대 해산령 이후 일제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그 중 가장 적게 파괴된 장경사만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으며, 망월사, 개원사, 국청사는 근래에 새로 세운 것이다.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22일 개최된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사적 제115호

수원 화령전

水原 華寧殿

조선시대(1801년)
일곽
운한각(정전) - 5×4칸
이안청 - 5×2칸
풍화당(재실) - 5×2칸
목재
수원시 팔달구 신평로23번길 15

지정일 : 1963.01.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수원시

<수원 화령전>은 조선 제22대 임금인 정조의 진영眞影을 모신 전각이다. 정조 승하 후 현릉원에 봉안되었던 진영을 화성행궁으로 옮겼는데, 이를 모실 별도의 건물이 필요하게 되어 1801년(순조1)에 세웠다. 창건 당시의 화령전의 구성은 제향절차를 기록한 「화령전응행절목華寧殿應行節目」에 남아있는데, 이에 따르면 진영을 모신 정전을 비롯하여 이안청, 재실, 전사청, 향대청, 제기고, 외삼문, 내삼문, 중협문 등이 있었다.

건물의 배치는 외삼문-내삼문-정전을 일직선상에 두고 정전 우측에는 정전을 향해 이안청이 배치되었다. 정전은 단층의 팔작지붕인 익공계 건물이다. 건물의 규모는 정면 5칸, 측면 4칸이며, 전면 퇴칸은 일반 사당과 같이 벽 없이 트여 있다. 기단은 장대석을 이용하여 바른층 쌓기를 하였다. 전면에는 월대月臺를 배치하였고, 흑색을 깔았으며, 전면 3곳, 양측면 1곳, 기단 양측면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초석은 방형주초에 원형주좌를 사용하였다.

이안청은 정전에 이상이 생겼을 때 영정을 임시로 옮겨 보관하는 곳으로 정전의 전면을 바라봤을 때 우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전과 복도각으로 연결되어 있다. 재실은 헌관獻官이 머무는 건물로 정전의 우측에 있다. 현재는 별도의 담장으로 구성해 두칸의 협문을 앞에 두고 배치되어 있다. 향좌측에는 전사청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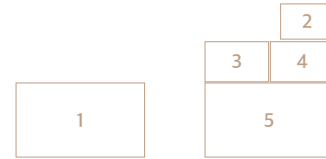
발굴조사 결과 전사청과 제기고는 별동이 아닌 같은 평면 안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재실과는 대칭으로 있고 전사청 안쪽 정전 옆으로는 제정이 있다. 그리고 제정과 전사청은 별도의 영역으로 담장이 둘러있고, 2칸의 협문을 정전 앞마당 쪽에 두고 있다. 소실되었던 전사청 영역은 2005년 복원되어 거의 제 모습을 찾았으나 향대청의 위치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재실과 전사청 영역은 내협문과 외협문 사이공간에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중문이 각각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재실 중문은 남아 있는데 전사청 중문은 아직 미발굴 상태이다. 현재 정전인 봉안각은 운한각雲漢閣, 재실은 풍화당風化堂이라는 당호가 붙어 있는데 언제부터 이러한 편액이 붙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20세기 초로 추정한다.

화령전의 제향은 정조의 탄신일과 납향일臘享日에 지냈으며, 왕이 친제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주로 수원부의 유수가 현관이 되었다. 화령전에서의 제향은 1920년 일제에 의해 정조의 진영이 창덕궁의 선원전으로 옮겨지면서 중단되었다.

화령전은 대청에 의한 격식과 기능에 따른 영역구분이 확실한 전형적인 영전의 예를 보여주며, 일부 유실된 건물을 제외하면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 조선시대 영전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 수원 화령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정전(운한각), 일제강점기. 국립중앙박물관
3. 정전과(운한각)과 이안청 사이 복도각,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정전(운한각) 내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정전(운한각),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楊州 檜巖寺址

고려시대(1328년)

일원

지정구역 - 333,233㎡

양주시 회암동 산14-3

지정일 : 1964.06.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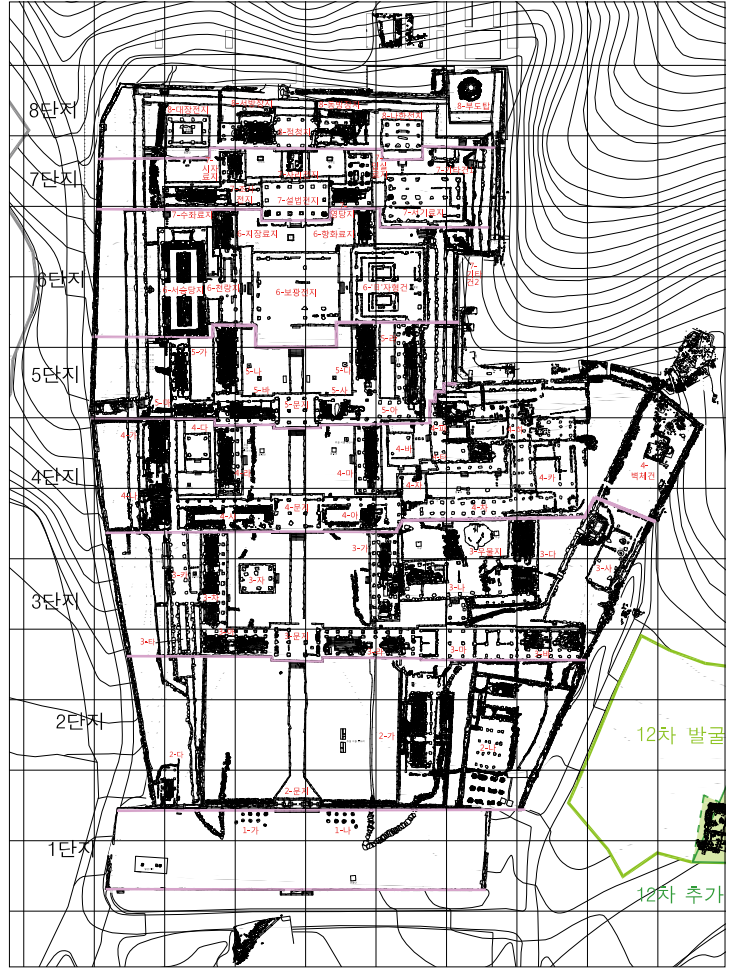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양주시





<양주 회암사지>는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천보산에 있는 고려·조선시대의 절터이다. 회암사는 불교사상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며 조선 전기 왕실의 후원을 받아 성장해 온 선종사원으로 알려져 있다. 창건에 관한 기록은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실린 금나라 사신의 방문 기록이나 목은 이색牧隱 李穡(1328-1396)의 『천보산회암사수조기天寶山檜巖寺修造記』에 따르면 1174년(명종4) 이전에 창건되었고, 1374년에서 1376년 사이에 나옹懶翁에 의해 대규모 증창불사重創佛事가 있었다. 회암사의 건물은 모두 262칸이고, 4.5m 정도의 큰 불상이 7구軀가 있었으며, 관음상觀音像의 높이가 3m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가람이었다. 조선 초에는 무학대사無學大師가 주석駐錫하기도 하였으며, 세종대에는 승려 250명에 대지가 1만여 평에 이르렀다. 이후 1434년(세종1) 효령대군孝寧大君, 1472년(성종3) 정희왕후貞熹王后 등 많은 왕실 인물들이 회암사의 불사를 후원하였다. 1563년(명종18)에서 1565년(명종20) 문정왕후文定王后의 후원으로 보우普雨는 회암사를 대대적으로 증창하여 이곳을 중심으로 불교의 중흥을 꾀하였으나 문정왕후 사후 사세寺勢가 급격하게 기울었다. 『명종실록明宗實錄』의 ‘1566년(명종21) 유생儒生들이 회암사를 불태우려 한다’라는 기록이나 『선조실록宣祖實錄』의 ‘1595년(선조28) 회암사 옛터에 불탄 종이 있다’라는 기록을 볼 때 회암사는 1566년에서 1595년 무렵 유생들의 방화放火로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회암사지에 대한 학술조사는 1997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12차 추가 발굴조사까지 14차례 실시하였다. 1~8차 발굴조사에서는 중심사역을 조사하여 1374~1376년 나옹 중창 후 200여 년간 유지해 온 사원의 면모를 밝혔으며, 7~12차 추가 발굴조사에서는 중심사역 외곽을 조사하여 언뜻지를 비롯한 별원別院으로 추정되는 건물지를 확인하였다.

회암사는 계곡부를 절토·매립하고 석축을 계단식으로 8단 쌓아 대지 조성하여 영역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역의 규모는 동서길이 300m, 남북길이 약 320m이다. 회암사의 중심사역은 중심 전각의 남북축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이 되게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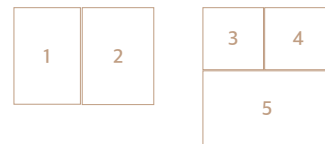
1·2단지는 사찰의 진입부로 넓은 공지에 당간지주가 남아있고 건물지와 배수로가 확인되었다. 주요 건물지는 3단지부터 노출되었는데 계단을 오르면 바로 3칸×2칸의 문지 초석과 이를 좌우로 연결하여 동서로 뻗은 남회랑지南回廊址(추정)의 초석이 남아있고, 향적전香積殿·종루鐘樓·관음전觀音殿·육실 등

의 건물지가 배치되어 있다. 4단지에는 정문正門·서료西寮·동료東寮·서객실西客室·동객실東客室·미타전彌陀殿과 긴 창고 등이 빼곡히 들어서 있다. 5단지는 주불전主佛殿인 보광전普光殿의 앞마당에 해당되는데, 정문지·정료대庭燎臺·석등좌대石燈座臺 등의 석조물과 집수구集水口 등이 확인되었다. 정문 양쪽으로 동랑東廊과 열중료悅衆寮가 길게 연결되어 중심 불전지구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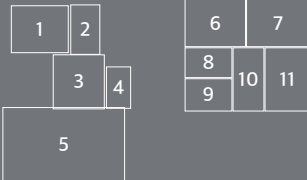
6단지는 회암사의 중심전각中心殿閣인 정면 7칸의 보광전지普光殿址가 잘 남아있는데 앞쪽에 넓은 월대月臺를 놓고 사방에 답석踏石을 깔아 비 오는 날에도 통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일반 사찰에서는 볼 수 없는 고급스러운 시설이다. 보광전의 서쪽의 서승당지西僧堂址에는 온돌구들이 남북으로 마주보며 시설되었는데 일반적인 구들과 달리 지면보다 높게 설치된 침상식 구들이다. 보광전의 동쪽에는 두 개의 중정을 가진 '日'자형 건물지가 조사되었는데, 정전과 어록을 읽으며 수행하는 중료衆寮로 추정된다. 7단지는 건물들이 조밀하게



들어선 지역이다. 중앙의 설법전說法殿 좌우로 영당影堂과 조사전 祖師殿이 놓이고, 그 주위에 서기료書記寮·입실료入室寮·수좌료 首座寮·시좌료侍者寮 등 승려들의 직책과 소임을 보여주는 승방 들이 배치되었다. 위쪽의 8단지에는 정청正廳을 중심으로 동·서 방장方丈을 배치하였다. '정청'은 사찰의 전각명으로는 드물고 궁 곁의 편전이나 침전형식과 객사의 배치가 결합된 독특한 구성으로 최고의 격식을 갖춘 거처로, 방장은 주지가 기거하거나 높은 빈객 이 방문하였을 때 거처로 보고 있다. 건물군 좌우로는 나한전羅漢 殿과 대장전大藏殿, 정청 바로 앞에는 사리전舍利殿이 놓였다. 사 리전은 위치나 방향이 일반 사찰과는 이례적인데 정청을 보호하고 통행을 위한 건물로 추정된다.



1. 양주 회암사지 전경, 2012.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양주 회암사지 유구배치도,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보광전지, 2000.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2단지 문지, 2005.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서승당지, 2000. 경기문화재단연구원



1. 막새, 200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청기와, 2003.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3·4. 잡상, 200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토수, 200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6. 석불, 2000. 경기문화재단연구원
7. 청동발, 2004. 경기문화재단연구원
8. 영락장식, 200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9. 분청사기 향완, 200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10. 금동불상, 200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11. 청동금탁, 200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회암사에서는 기와, 자기, 도기, 소조품, 금속유물, 석제유물 등 다종·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상당수의 유물에는 후원자와 제작시기, 제작배경과 편년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명문이 있다.

기와는 궁궐에서 사용되는 청기와를 비롯하여 봉황이나 용을 새긴 막새, 지붕마루에 올리는 용두龍頭·잡상雜像, 서까래를 보호하는 토수吐首, 용마루를 장식하는 취두鷲頭 등을 보면 왕실과 회암사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기는 주로 12~17세기에 제작된 것들로 고려시대 순청자와 상감청자, 조선시대 분청사기, 분원 관요에서 제작된 백자, 중국자기 등이 출토되었다. 청자는 강진 용운리와 부안 유천리 등지에서 발견되는 양식이고, 백자는 왕실자기를 공급한 분원 관요 제작에서 제작한 것으로 회암사의 위상이 왕실 수준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금속제 유물로는 청동불상靑銅佛像·청동금탁靑銅金鐸·청동발靑銅鉢·금강령金剛鈴·영락장신구瓔珞裝身具 등이 출토되었다. 보광전지에서 출토된 청동금탁은 2단으로 구성된 본체와 건물에 매달기 위한 연결부로 구성되는데 본체의 상단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왕사묘엄존자王師妙嚴尊者 조선국왕朝鮮國王 왕현비王顯妃 세자世子’라는 명문이 세로로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1394년(태조3) 6월 공덕주功德主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이득분李得芬이 쓴 발원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를 통해 검교시중檢校侍中 이승李崇 등 5인의 시주자명과 청동금탁의 제작연대를 알 수 있다. 영락장신구는 8단지 정청지에서 일괄로 출토되었는데 고려 불화를 대표하는 수월관음도水月觀音圖와 조선 전기 불화에서 보이는 영락장식과 유사한 형태이다.

사적 제139호

김포 문수산성

金浦 文殊山城

조선시대(1694년)

일원

둘레 약6,123m(잔존구간 4,640m)

지정구역 - 288,018㎡

석성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산36-1 일원

지정일 : 1964.08.29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김포시

<김포 문수산성>은 강화도의 갑곶진甲串津을 마주보고 있는 해발 376m의 문수산文殊山의 험준한 정상부에서 서쪽의 산줄기를 따라 염하鹽河까지 연결한 포곡식 석축산성이다. 명칭은 인근에 위치한 문수사文殊寺라는 절에서 유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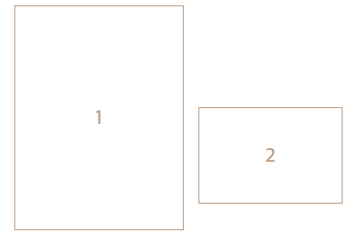
문수산이 위치한 곳은 한강·임진강·예성강이 서해와 만나고, 정상부 서면 김포, 강화, 인천, 서울, 고양, 파주 그리고 옹진반도 일대가 한 눈에 들어오는 군사, 교통의 요지이다. 문수산성 남쪽에는 남산봉수·덕포진·수안산성·수안봉수·대릉리토성·백선산봉수 등이, 마주하고 있는 강화에는 하음산성·고려중성·강화산성, 강화외성·덕진진·초지진 등이 위치하고 있다.

문수산성은 『일성록日省錄』, 『대동지지大東地志』, 『여국비지興國備志』, 『사찬읍지私撰邑誌』,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의 문헌에 산성의 축조시기, 배경 등이 기록되어 있다. 문헌에 따르면 성은 1694년(숙종20)에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삼군에 의해 축조되어 1812년(순조12)에 대대적인 중수가 있었으며, 규모는 둘레 5,529보, 여장女牆 2173첩堞, 취에루取豫樓(서문), 희우루喜雨樓(남문), 공해루控海樓(북문) 3개의 문루가 있었고, 강화부에 소속되어 별장別將 한 사람과 군관軍官 161명, 사병士兵 56명, 둔군墩軍 6명, 수첩군守堞軍 80명, 모입군募入軍 72명이 수비하였다.



1866년(고종3) 병인양요 때 치열한 격전을 치룬 곳으로 프랑스 함대가 갑곶진에 상륙하여 강화성을 함락시킨 후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 문수산성을 공격하였으나 봉상시사 奉常寺事 한성근韓聖根이 광주의 별파군別破軍 50명을 이끌고 물리쳤다. 이 격전으로 해안가의 성벽과 문루가 소실되었고, 나머지 구간의 성벽과 시설물 등은 산등성이를 따라 남아있다.

문수산성에 대한 조사는 유적 정비와 복원을 위한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1995년부터 4차례 실시되었다. 그간의 조사를 보면 문지 3개소, 암문 3개소, 장대지將臺址가 있으며, 성벽의 축조는 능선과 평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능선상에는 암반을 정지한 다음 기단석을 놓고 그 위에 성돌을 쌓았으나 평지인 서벽은 기저부에 기단을 두지 않고 1m 크기의 화강암 석재로 쌓았다. 성벽의 폭은 구간마다 차이가 있고, 내벽과 뒷채움 방식을 위한 성벽 절개조사에서 내벽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벽과 남벽이 접하는 곳에서 길이 16m, 폭 10m의 장방형 치雉가 확인되었다. 현재 북문과 남문은 복원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성벽에 대한 보수공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다. 서해, 강화도, 파주, 서울, 김포, 인천 등이 한눈에 조망되는 문수산성의 최정상부에는 해병대 관측소가 설치되어 있고, 장대지가 있던 지점은 헬기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1. 김포 문수산성 성벽, 2018. 김포시
2. 김포 문수산성 장대, 2018. 김포시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烏山 禿山城과 洗馬臺址

삼국시대
일원
독산성 - 둘레 1,100m
세마대 - 3×2칸
지정구역 - 37,269㎡
석성
오산시 지곶동 산120-2, 162-1 외

지정일 : 1964.08.29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오산시

독산성은 오산시 지곶동 독산의 정상부와 7-8부 능선을 이용하여 축조한 테피식 석축산성이다.

기록에 의하면 독산성은 원래 백제가 쌓았던 성으로 통일신라·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도 계속 군사상 요지로 이용되었다. 임진왜란 당시인 1593년(선조26) 7월에 전라도 관찰사 겸 순변사였던 권율權慄(1537~1599)이 2만명의 근왕병勤王兵을 모집하여 북상하다가 이 성에서 진을 치고 왜군을 물리친 것으로 유명하다. 1594년(선조27) 백성들이 합심하여 허술한 성의 모양을 다시 갖추었고, 임진왜란 이후 독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1602년(선조35) 수원부사 변응성邊應星의 지휘 하에 수축하였으며, 1796년(정조20) 수원성 축조와 함께 개축하였고, 1804년에는 산성의 남쪽에 암문을 설치하였다.

성벽의 둘레는 약 1,100m이며, 바깥쪽은 석재를 이용하여 정연하게 쌓았으나 안쪽은 내벽을 축조하지 않고 막돌과 흙으로 채운 편축식이다. 성돌은 자연석을 조금씩 다듬었으나 정연하지는 않고, 길이가 약 2m에 이르는 바위까지 다양한 편이다. 성벽의 높이는 대부분 2m 정도나 동쪽 수구, 남동쪽 치는 5-9m 정도이고, 성벽 위에는 여장이 설치되었으며 치는 7개소이다. 출입시설로는 동서남북의 성문 4곳과 암문 1곳이 있으며 남문과 서문에는 문루門樓가 있고, 배수를 위한 수문은 3곳, 우물은 6-7기가 있었으나 수량이 풍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한다.



물이 부족하여 대군의 주둔이 어려운 것이 독산성의 가장 큰 결점으로 지적되었는데, 이로 인해 세마대의 전설이 생겼다. 1593년 권율이 이 성에 주둔하고 있을 때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가 이끄는 왜군은 벌거숭이산[秃山]에 축조한 이 성에 물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물 한 지계를 산 위로 올려보내 조선군을 조롱하자 권율은 물이 풍부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백마를 산 위로 끌어올려서 쌀을 말에 끼얹어 목욕시키는 시늉을 하였다. 이를 본 왜군은 산꼭대기에서 물로 말을 씻을 정도로 물이 풍부한 것으로 보고 퇴각하였으며, 이때부터 세마대라고 불렀다고 한다.

세마대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파괴되었으나 1957년에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단층 누각으로 복원하였다. 북쪽에는 '洗馬臺' 현판이, 남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쓴 '洗馬台' 현판이 달려있다.



1. 오산 세마대,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오산 독산성 전경(동문쪽에서), 2014. 오산시
3. 오산 독산성 동문,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오산 독산성 북문,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144호

고양 벽제관지

高陽 碧蹄館址

조선시대(1476년)
일원
지정구역 - 4,150㎡
정형 3×2칸
좌·우익헌 3×2칸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5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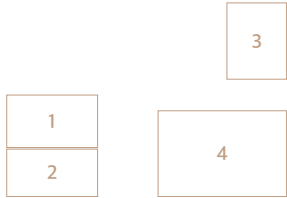
지정일 : 1965.02.02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고양시

<고양 벽제관지>는 1476년(성종7)에 세워진 조선시대 역관驛館의 터로, 한양으로 오가는 길목에 세워져 중국 사절使節들을 머물게 하였던 곳이다.

조선시대에 중국으로 가는 관서로關西路(또는 의주로義州路, 연행로燕行路) 등에는 이와 같은 역관이 10여 군데 있었는데, 한양에 들어오기 하루 앞서 반드시 이 곳 벽제관에서 숙박하고 다음날 예를 갖추어 입성하는 것이 정례定例였다. 또한 중국으로 통하는 중요한 길목에 있어 중국으로 가는 조선의 사신들도 벽제관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제릉齊陵(태조비 신의왕후)에 친제親祭하러 가는 길에 국왕이 머물던 숙소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벽제관의 초축 시기는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에 의하면, 세종 때 크게 개축하였다. 현재의 벽제관지는 1625년(인조3) 고양군의 읍치를 옮기면서 함께 지은 객관客館으로 이 후의 증건重建에 대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에 의하여 건물 일부가 헐렸고 한국전쟁 때 모두 불에 타 소실되었다. 다만 1960년 무렵까지 객관문이 남아있었으나 무너져 내려 지금은 관사의 윤곽과 터만 남아있다.

건물구조는 중앙의 청사와 좌우의 익사로 구분되는데, 모두 정면 3칸, 측면 2칸의 평면규모를 가지며 횡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마치 솟



- 1. 고양 벽제관, 일제강점기. 국사편찬위원회
- 2. 고양 벽제관, 1920년대. 국사편찬위원회
- 3. 고양 벽제관, 2000. 경기도박물관
- 4. 고양 벽제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을삼문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의 문지는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초석이 배열되었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고맥이석과 기단석 등이 남아있다. 또한 초석의 일부에는 고맥이의 자리가 파여있는 주좌住坐가 있고 중앙칸의 기단부분에는 지대석과 면석이 잘 남아있어 당시의 치석기법 및 건물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또한 이 곳 벽제관지는 임진왜란 때인 1593년(선조26) 이여송 李如松이 이끄는 명나라군과 왜군이 격전을 벌인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한편 벽제관의 부속 정자인 육각정六角亭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 제2대 총독이었던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에 의해 1918년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어 현재 야마구치현山口縣에 이와쿠니시岩國市の 공원에 위치하고 있다. 육각정은 벽제관지와 관련하여 유일하게 남아있는 건축물로서, 고양시는 육각정의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양 벽제관지는 관서로에 설치된 첫 역관이었다는 점 외에도, 국왕이 중국사신을 친히 전송하던 모화관慕華館과 더불어 한중외교사韓中外交史의 현장이라는 의의와 가치를 지닌다.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坡州 德隱里 住居址와 支石墓群

청동기시대

일원

지정구역 - 12,906㎡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663 외, 주월리 309-2 외

지정일 : 1966.03.22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파주시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은 문산천汶山川 서안으로 이어지는 해발 82m 정도의 야산에 산등성이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 선사시대의 주거지 및 지석묘 유적이다.

1965년 봄 국립박물관 조사단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조사 중 지석묘 밑에서 커다란 주거지를 발견하였다. 주거지와 무덤이 함께 밝혀짐으로써 한국 선사시대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어 사적으로 지정되었다.

지석묘는 비교적 크기가 작은 편이고 형식은 북방식이다. 20여 기가 확인되었으며, 능선 위의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지석묘가 가장 크고 그 주변에 10여기가 분포하고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지석묘는 개석蓋石의 크기가 길이 330cm, 너비 190cm, 두께 40cm이다. 발굴조사 당시



에는 모두 무너져 있던 것을 조사 후 현재 상태로 복원하였다. 발굴조사된 지석묘에서는 납작한 돌도끼[扁平單刃石斧]·양날 돌도끼[兩刃石斧]·숫돌[砥石]·돌칼조각[石刃片] 등의 유물이 출토·수습되었다.

주거지는 길이 15.7m, 너비 3.7m로 동서로 긴 평면형태이며 깊이는 40~90cm에 달한다. 이러한 장방형 주거지는 중부지방에서 주로 보이는데, 서울 역삼동 유적, 파주 교하리 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주거지 내부에는 바닥에 얇게 진흙을 깔았고 네 벽선을 따라서 작은 기둥구멍이 있으며, 동쪽으로 약간 치우쳐 바닥을 움푹 파내어 만든 화덕자리 2개가 있다. 벽면에 붉게 탄 자국이

있고 바닥에서 재와 숯이 많이 나온 것으로 보아 집이 불에 타 버린 것으로 추측된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구멍무늬토기[孔列紋土器] 파편을 비롯하여 돌칼[磨製石劍]·돌촉[磨製石鏃]·돌가락바퀴[石製紡錘車]·돌도끼[石斧]·갈돌[礪石]·숫돌 등 석기류가 많이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상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특히 주거지에서 나온 숯에 대한 방사성 탄소연대측정 결과 주거지의 연대는 기원전 7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적의 층위관계에 따라 주거지가 그 위에 있는 지석묘보다 먼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사적 제162호

북한산성

北漢山城

삼국시대
일곽
둘레 11.6km(성벽축조구간 8.63km)
지정구역 - 515,224.9㎡
석성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일원

지정일 : 1968.12.05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서울시, 고양시

<북한산성>은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시에 걸쳐있는 삼각산三角山에 축조된 조선시대의 산성이다. 외침에 대비해 수도 외곽에 건설한 성곽이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전란 후의 혼란을 극복하고 강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조선 후기 사회의 열망이 담긴 방위시설이다. 조선 숙종, 영조, 정조가 산성에 행차하였는데, 특히 영조는 왕세자 시절을 포함해 세 번이나 행차하는 등 산성 관리에 힘을 쏟았고, 정조는 왕세손 시절 영조를 호위하며 행차해 행궁을 둘러보고 동장대東將臺에 오르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였다.

『삼국사기三國史記』의 ‘132년(개루왕5)에 북한산성을 쌓았다’는 기록 등을 근거로 북한산성의 역사를 삼국시대로 소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에 속하는 유물이 확인되지 않아 『삼국사기』에 언급된 북한산성의 존재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지금의 북한산성 터에 중흥산성中興山城이라 불리는 성곽시설이 있었는데, 이는 『고려사

高麗史』 등의 각종 문헌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정밀지표조사와 발굴조사에서 일부 구간이 확인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북한산은 도성인 한양을 호위하는 진산이자 수도를 지키는 관방지關防地로 주목을 받았으며 꾸준히 축성이 논의되었으나, 1711년(숙종37)에서야 축성이 이루어졌다.

1745년(영조21) 성능聖能이 편찬한 『북한지北漢誌』(1745)에는 북한산성과 행궁의 규모와 시설, 위치, 건립연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고, 수록된 북한도北漢圖를 통해 북한산의 지세와 시설물의 위치 및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북한지에 따르면 북한산성은 체성體城 둘레 7,620보, 여장女牆은 2,807첩, 성문 14개소, 장대 3개소, 성랑 143개소의 규모였고, 성내에는 행궁을 비롯하여 창림倉廩 8개소, 사찰 21개소, 교량 7개소, 못 26개소, 우물 99개소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북한산성 내의 시굴·발굴조사는 성벽과 성랑지 일부, 행궁지, 중흥사지와 서암사지, 어영청유영지, 부왕사지 등이 이루어졌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성벽 전체와 내부 시설에 대한 정밀지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발굴조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구간별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북한산성 성벽은 조선 속중 때 쌓은 것으로, 성벽 위에 낮게 쌓은 여장은 대부분 허물어졌으나 성벽은 아직도 많은 부분이 잘 남아있다. 성 내부에서는 성문을 비롯하여 행궁지·성랑지·수문지·우물지 등의 시설이 확인되고 있으며, 중흥사와 서암사, 부왕사, 월각사 등 사찰의 건물터와 부속시설이 확인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집선문기와, 창해파문기와 등 조선시대 후기에 제작된 평기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부왕동암문 구간 성벽절개지 조사에서 문헌에 기록된 중흥산성의 일부가 확인되었다. 붕괴되어 유실된 북한산성 성

벽의 기저부 밑에서 성벽과 성돌의 크기, 축조방법, 진행방향 등이 전혀 다른 성벽이 노출되었고, 어골문기와, 격자문기와 등 북한산성 축조시기보다 앞선 고려말~조선전기로 편년되는 유물이 수습되어 문헌기록으로만 남아있던 중흥산성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증자료를 확보하였다.

북한산성은 백운대·인수봉·만경대 일대가 '삼각산'이라는 명칭으로 명승 제10호로 지정되는 등 자연경관이 빼어난 곳에 자리하였으며, 북한산성 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5건, 북한산 중흥사지 등 경기도 지정문화재 7건, 북한산 3·1운동 암각문 등 고양시 향토문화재 3건 등의 지정문화재를 비롯하여, 60여 건에 달하는 비지정문화재가 분포하고 있다.

사적 제191호

고양 공양왕릉

高陽 恭讓王陵

조선시대(1416년)

일원

쌍릉, 석상2, 장명등, 석호, 문인석4, 비석1, 묘표2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65-1, 산65-6

지정일 : 1970.02.28

소유자 : 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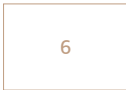
관리자 : 고양시

<고양 공양왕릉>은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왕恭讓王(1345~1394)과 순비 노씨順妃盧氏(?~1394)의 무덤이다. 1394년(태조3) 조성되었으며, 쌍릉 형식이다. 공양왕은 이성계 등에 의해서 즉위한 이름뿐인 왕이었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공양왕은 공양군으로 격하되어 조선 건국 직후 원주로 추방되었다가 1394년 삼척에서 두 아들과 함께 살해당하였다. 1416년(태종16)에 공양왕으로 봉하고 고양현에 무덤을 마련하며 능호를 고릉高陵이라고 하였다. 순비는 노진盧稹의 딸로 소생으로는 숙녕·정신·경화 세 공주와 창성군이 있으며, 고려가 멸망한 후 왕과 함께 폐위되었다.

봉분 앞에는 묘표와 석상을 각각 1좌씩 놓았고, 두 봉분 사이에는 비석과 장명등, 석호를 놓았으며 봉분 양쪽으로는 조각양식이 다른 문인석 2쌍을 세웠다. 능침의 석물은 양식과 수법이 대체로 소박한 한편, 석호는 조선 초기의 왕릉인 건원릉健元陵이나 현릉獻陵의 석호와 유사한 점이 주목된다.

봉분 앞의 묘표는 처음 능을 조성할 때 세운 것으로 보이며, ‘고려공양왕고릉高麗恭讓王高陵’이라는 글씨가 있는 비석은 조선 고종 때에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3
4	5



1. 고양 공양왕릉,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공양왕릉 묘지석,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순비 노씨 묘지석,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석호,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장명등,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6. 문인석(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九里 東九陵

조선시대

- *건원릉 - 1408년
 - *현릉 - 1452년, 1512년
 - *목릉 - 1600년, 1630년, 1632년
 - *휘릉 - 1688년
 - *승릉 - 1674년, 1684년
 - *혜릉 - 1718년
 - *원릉 - 1776년, 1805년
 - *수릉 - 1855년, 1890년
 - *경릉 - 1843년, 1849년, 1904년
- 구리시 인창동 66-1 일원

지정일 : 1970.05.26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일원

- *건원릉 - 단릉, 병풍석, 난간석, 혼유석, 고석5,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2, 배석, 소전대
- *현릉 - 동원이강릉, 병풍석(문종릉), 난간석 각1, 혼유석 각1, 고석 각4, 망주석 각2, 장명등 각1, 문인석 각2, 무인석 각2, 석양 각4, 석호 각4, 석마 각4, 비석
- *목릉 - 동원이강릉, 병풍석(선조릉), 난간석 각1, 혼유석 각1, 고석 각4, 망주석 각2, 장명등 각1, 문인석 각2, 무인석 각2, 석양 각4, 석호 각4, 석마 각4, 비석
- *휘릉 - 단릉, 난간석, 혼유석, 고석5,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2
- *승릉 - 쌍릉, 난간석2, 혼유석2, 고석8,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 *혜릉 - 단릉, 난간석,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 *원릉 - 쌍릉, 난간석2, 혼유석2, 고석8,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3
- *수릉 - 함장릉, 난간석,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2
- *경릉 - 삼연릉, 난간석3, 혼유석3, 고석12,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구리 동구릉>은 7명의 왕과 10명의 왕후(추존 포함)가 안장되어 있는 조선왕조의 왕릉으로, 건원릉健元陵, 현릉顯陵, 목릉穆陵, 휘릉徽陵, 송릉崇陵, 혜릉惠陵, 원릉元陵, 수릉綏陵, 경릉景陵을 이른다.

1408년(태종8) 조성된 태조 이성계의 건원릉健元陵을 시작으로 조선왕조의 왕릉으로 조성되기 시작했다. 동구릉이라는 이름은 1855년(철종6) 문조의 수릉이 아홉 번째로 들어서면서 '도성都城 동쪽에 있는 아홉기의 왕릉'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며, 그 전에는 능이 늘어나는 대로 동오릉東五陵, 동칠릉東七陵 등으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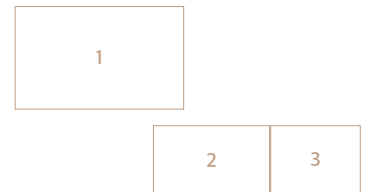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대의 왕릉군으로 서오릉과 함께 2009년 2월 27일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① 건원릉健元陵

<건원릉>은 조선 1대 태조太祖(1335~1308)의 단분릉으로, 조선 왕릉 제도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고려 공민왕의 능인 현릉玄陵의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고려 왕릉에는 없던 곡장을 봉분 주위에 두르는 등 세부적으로 석물의 조형과 배치에서 변화를 보인다. 봉분에는 다른 왕릉처럼 잔디가 아닌 억새풀을 덮었는데, 『인조실록』에 태조의 유교遺敎에 따라 청안靑藪(억새)을 덮었다는 기록이 있다.

능침에는 12면의 화강암 병풍석이 둘러싸고 있는데, 병풍석에는 십이지신과 영저靈杵, 영탁靈鐸 등을 새겼다. 병풍석 밖으로는 12칸의 난간석을 돌렸고, 난간석 밖으로는 석호와 석양이 네 마리씩 교대로 배치되어 있다. 석호와 석양은 밖을 향하고 있는 형상으로 수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봉분 앞에는 혼유석이 있는데, 혼유석 밑에는 나어두문羅魚頭紋을 새긴 북모양의 고석 5개가 놓여 있고 양 옆으로는 망주석 한 쌍이 서 있다. 중계에는 장명등과 석마 한 필씩이 달려 있는 문인석이 놓여 있고, 하계에는 무인석과 석마가 양쪽에 놓여 있으며 가운데에는 배석拜石이 있다.

능 아래에는 구리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보물 제1741호), 비각, 수복방, 수라간, 홍살문, 판위 등이 배치되어 있고, 비각 안에는 태종대에 세운 구리 태조 건원릉 신도비(보물 제1803호)와 대한제국 선포 후 태조고황제로 추존되며 세운 능표석이 세워져 있다.



1. 구리 동구릉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3. 건원릉(태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② 현릉顯陵

<현릉>은 문종文宗(1414~1452)과 현덕왕후顯德王后(1418~1441)의 무덤으로,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이다. 서쪽에 문종, 동쪽에 현덕왕후가 위치한다. 1452년(문종2) 문종이 사망하자 수양대군, 황보인, 김종서 등의 대신과 풍수지리관이 현지를 답사하고 건원릉 남동쪽에 현릉을 조성하였다. 현덕왕후는 1441년(세종23) 세자빈 신분으로 사망하여 본래 안산에 왕세자빈묘로 먼저 조성하였으나, 문종 즉위 후 왕후로 추존되며 능의 이름을 소릉昭陵이라 하였다. 이후 단종 복위 사건에 어머니와 남동생이 연루되어 폐위되었다가 1512년(중종7)에 복위되며 사후 72년 만에 왕의 곁으로 천장되었다.

문종 능침의 능제는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따라 곡장과 봉분, 병풍석, 난간석, 박석 등을 모두 갖추고 있다. 『국조오례의』에 따라 조성된 왕릉은 세종의 능으로 조성되었던 구舊 영릉英陵이 첫 번째이나 영릉이 여주로 천도됨에 따라 현릉이 『국조오례의』를 따른 가장 오래된 왕릉이 되었다. 병풍석 면석 중앙에는 십이지신상을 새기고 주변을 영저와 영탁 대신 운문雲紋으로 장식하였다. 고석의 수량도 4개로 줄었다.

현덕왕후 능침은 난간석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병풍석은 생략했다. 봉분주변으로 석양, 석호, 장명등, 망주석, 문인석, 무인석 등의 석물이 배치되었다. 석양과 석호는 서로 엇바꾸어 두 쌍씩 여덟 마리를 배치했는데, 문종의 능침과 양상이 다른 것은 종종 때 추봉되어 천장하면서 당시의 양식을 따랐기 때문이다.

입금의 사적이 모두 국사國使에 실리기 때문에 세울 필요가 없다는 논의 때문에 신도비는 세우지 않았다. 표석의 본문은 1754년(영조30) 형조판서 홍계희洪啟禧가 썼고, 전문은 우참찬 홍봉한洪鳳漢이 써서 건립하였다. 현재 수라간은 소실되었으며 수복방은 터만 남아있다.

③ 목릉穆陵

<목릉>은 선조宣祖(1567~1608)와 원비元妃 의인왕후懿仁王后(1555~1600)·계비繼妃 인목왕후仁穆王后(1584~1632)의 무덤으로 동원이강릉이다. 가장 왼쪽 언덕이 선조, 가운데 언덕이 의인왕후, 오른쪽 언덕이 인목왕후의 능이다.

임진왜란 직후인 1600년(선조33) 의인왕후가 사망하자 현 위치에 유릉裕陵이라는 능호로 조성되었다. 선조 사후 건원릉 서쪽 산줄기(현 경릉)에 목릉이라는 능호로 조성했다가 1630년(인조8) 터가 좋지 않다는 심명세沈命世의 상소에 따라 현 위치로 다시 옮기고 의인왕후의 유릉과 합하여 목릉이라 하였다. 1632년(인조10) 인목왕후 사후 현 위치에 능을 조성하고 혜릉惠陵이라 하였다가 목릉과 능역을 합치자는 의논으로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선조의 능은 기본적인 왕릉상설에 맞게 조성되어 병풍석과 난간석, 혼유석, 망주석, 석양 및 석호가 배치되어 있다. 두 왕후의 능은 병풍석만 생략했을 뿐 상설은 선조의 능과 같다. 다만, 의인왕후의 능은 임진왜란을 겪은 후 처음 조성한 능이었기 때문에 석물들의 조각미가 다소 떨어지지만 망주석과 장명등 중대에 새겨진 화문花紋은 처음 선보인 양식으로 이후의 왕릉 조영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자각은 원래 의인왕후의 능 앞에 있었다. 1630년(인조8)에 선조의 능이 천장되면서 기존의 정자각을 이진移建하게 되자 의인왕후 능 앞에 있던 정자각은 헐려 현재는 터만 남아있다. 이후 인목왕후의 능이 조성되면서 치우친 정자각을 다시 옮기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번거롭다 하여 참도만 정자각에 접하도록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현재 목릉의 정자각은 선조의 능을 향하면서 참도는 세 능으로 모두 뻗어 있다. 목릉 정자각은 유일하게 다포식 공포로 지어진 정자각으로 보물 제 1743호로 지정되었다. 수라간과 수복방은 일반적으로 향·어로를 향해 서로 마주보고 있으나 목릉의 수라간은 정자각 남서쪽으로 약 15m 떨어진 곳에 있고, 수복방은 인목왕후 능침 아래 남서쪽에 위치하는 것이 특이하다.



④ 휘릉徽陵

<휘릉>은 인조의 계비繼妃 장렬왕후莊烈王后(1624~1688)의 무덤이다. 1635년(인조13)에 인조의 첫 번째 왕비가 세상을 떠나자 1638년(인조16)에 계비로 책봉되었다. 1649년 인조가 승하하고 효종이 즉위하자 자의왕대비가 되었으며, 숙종 때까지 살아 왕실의 어른으로 지냈다. 그 후 1688년(숙종14)에 창경궁 내반원에서 65세로 세상을 떠났다.

능침 공간은 삼계로 상계에 3면 곡장, 난간석, 혼유석, 망주석, 석양, 석호를, 중계에 장명등, 문인석, 석마를, 하계에 무인석과 석마를 배설하였다.

봉분은 단릉 형식으로, 병풍석을 생략하고 십이지를 새겨 방위를 표시한 난간석만 둘렀다. 봉분 주변의 석양과 석호는 아담한 크기에 다리가 짧아 배가 바닥에 거의 닿을 정도이다. 혼유석을 받치고 있는 고석은 5개를 배치하였다. 건원릉이 5개이고 영릉英陵 이후에는 4개로 줄었는데, 휘릉에 와서 다시 건원릉의 예를 따랐다. 장명등은 조선 초기 8각 장명등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후에는 4각으로 변화한다.

능침 아래에는 정자각, 비각, 홍살문 등이 배치되었다. 휘릉 정자각은 다른 왕릉의 정자각과 달리 정전 양 옆에 익랑을 추가하여 웅장함을 더하였다. 정자각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약 70m 거리에 수라간과 수복방이 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수복방 터만 확인할 수 있다.

⑤ 승릉崇陵

<승릉>은 현종顯宗(1641~1674)과 명성왕후明聖王后(1642~1683)의 무덤이다. 1674년(현종15) 현종이 먼저 사망하여 능을 조성했고, 1683년(숙종9) 명성왕후가 사망하자 이듬해 쌍릉雙陵으로 능을 조성했다. 봉분은 병풍석을 생략하고 두 능을 함께 두르는 난간석만 상설되었다. 능침 앞에는 혼유석이 각각 1좌씩 놓여 있다. 그 밖의 석양, 석호, 망주석, 문·무인석, 석마 등의 석물은 효종의 영릉寧陵이 여주로 천장될 때 땅에 묻었던 것들로 다시 꺼내 사용하였다. 이는 기존 석물을 재사용한 첫 사례에 해당된다. 석물은 일반적인 조선왕릉의 형태로 배치되었다.

망주석에는 화려한 모란문과 연화문을 장식했으며, 위쪽에는 세호細虎가 뚜렷하게 조각되어 있다. 장명등은 4각으로 격석에 보기 드물게 모란문을 새겼다. 표석은 1721년(경종1) 건립한 것으로 방부개석의 농대석, 한옥 지붕 모양을 본뜬 가침석, 비신으로 이루어진 모습이다. 이러한 표현양식은 이후 제작되는 능표의 기준 양식이 되었다.

능침 아래에 있는 정자각은 조선왕릉 40기 중 유일하게 남은 팔작지붕 정자각으로, 보물 제1742호로 지정되었다.

승릉(현종과 명성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⑥ 혜릉惠陵

<혜릉>은 경종景宗의 비妃 단의왕후端懿王后(1686~1718)의 무덤이다. 단의왕후는 1696년(숙종22)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나 경종 즉위 2년 전인 1718년(숙종44) 소생 없이 사망하였다. 1720년 경종이 즉위하자 왕후에 추봉되었다.

왕세자빈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전의 순회묘(순창원)와 소현세자묘(소경원)의 예를 참조하여 묘를 조성하였다. 추봉 후 능호를 혜릉으로 추승하고 1722년(경종2) 왕릉의 격식에 맞게 무인석과 석수, 난간석, 망주석 등 석물을 추가로 배설하였다. 추가 배설된 석물은 명릉을 따랐고, 처음 조성된 석물과 4년 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재질이나 조각기법이 확연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혜릉의 석물은 규모는 작지만 선이 굵고 입체감이 넘치며 당당해 보이는 모습이다. 그 중 무인석은 허리에 표범가죽을 두르고 있는 형상으로, 조선왕릉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 무인의 용맹한 모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장식으로 추측된다.

현재 장명등은 망실되어 터만 남아있고 정자각은 광복 후 소실되었다가 1995년에 새로 복원하였다.

⑦ 원릉元陵

<원릉>은 영조英祖(1694~1776)와 계비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1745~1805)의 무덤이다. 쌍릉 형태로 서쪽이 영조, 동쪽이 정순왕후의 능이다. 이 곳은 원래 효종의 구舊 영릉寧陵 자리였는데 1673년(현종14) 풍수가 좋지 않다는 상소가 제기되어 천릉되었고, 1776년 영조 사후 원릉을 이 곳에 조성하였다. 영조는 원비 정성왕후貞聖王后가 잠든 홍릉弘陵 옆에 묻히기를 바랐으나 정조가 현 위치로 정한 것이다.

능침은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돌렸으며, 왕과 왕비의 능 앞에 각각 혼유석 1좌씩을 배치하였다. 망주석 기반부에 조각된 화문花紋은 세련되고 화려한 모습인데, 오른쪽 망주석에 새겨진 세호는 위를 향하고 왼쪽 망주석에 새겨진 세호는 아래를 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장명등은 사각옥개형으로 화사석火舍石과 옥개석 부분을 제외하고 상·중·하대석 부분은 화문으로 장식했다. 영조의 원릉은 이전에 조성된 조선왕릉과는 달리 중계와 하계 사이의 단을 없애고 문인석과 무인석을 한 단에 같이 배치하였다.

능침 아래의 비각에는 1776년 영조 승하 후에 세운 영종대왕 표석, 1890년(고종27) 묘호가 영종에서 영조로 바뀌면서 세운 영조대왕 표석, 1805년(순조5)에 세운 정순왕후 표석이 있다. 원릉의 표석 3기는 18세기에 조성된 표석 중 크기가 가장 크며, 조형적 측면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원릉(영조와 정순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⑧ 수릉綏陵

<수릉>은 추존 문조文祖(1809~1830)와 신정왕후神貞王后(1808~1890)의 무덤이다.

문조는 1812년(순조12) 세자로 책봉되어 1827년(순조27) 부왕을 대신하여 대리청정을 하였다. 그러나 1830년(순조30)에 22세의 나이로 사망하여 시호를 효명孝明라 하였다. 이후 아들 현종이 왕위에 오르며 익종대왕으로 추존되었다. 조대비趙大妃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신정왕후는 1818년(순조19)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1827년 현종을 낳았다. 1863년 철종이 후사 없이 사망하자 고종을 양자로 입적시켜 왕위에 올렸으며, 12세인 고종을 대신해 3년 간 수렴청정을 하였다. 1890년(고종27) 83세로 세상을 떠났다. 두 사람은 대한제국 선포 후 1899년(광무3) 고종의 직계 5대 조상 추존으로 문조익황제와 신정익황후로 추존되었다.

처음 문조 사망 후 의릉懿陵 왼편에 연경묘延慶墓라는 이름으로 묘를 조성하였는데, 1834년(헌종1) 익종翼宗으로 추존된 후에는 능 이름을 수릉이라 하였다. 1846년(헌종12) 풍수상 불길하다하여 양주 용마봉(현 광진구 용마산)으로 천장했다가 1855년 현 위치에 마지막으로 조성되었다. 이후 1890년(고종27) 신정왕후가 사망하자 수릉에 합장으로 능을 조성하였다.

수릉은 한 봉분에 왕과 왕비를 함께 안치한 합장릉 형식으로, 합장릉은 혼유석을 각각 따로 2좌씩 놓는 것이 기본이었으나, 조선 후기에는 1좌로 줄어 수릉에도 1좌만 설치되었다. 일반적으로 왕릉은 우상좌하右上左下, 우왕좌비右王左妃의 형식을 따르나 수릉은 문조가 왼쪽, 신정왕후가 오른쪽에 자리한다. 이는 세상을 떠날 때의 신분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문인석은 복두관복幘頭冠服에서 금관조복金冠朝服으로 변화하였다.

⑨ 경릉景陵

<경릉>은 현종憲宗(1827~1849)과 원비元妃 효현왕후孝顯王后(1828~1843), 계비繼妃 효정왕후孝定王后(1831~1904)의 무덤이다. 이 곳은 원래 구舊 목릉 자리였는데, 목릉에 물길이 있고 터가 좋지 않다는 심명세의 상소로 천릉을 확정하고 현궁玄宮을 열어보니 물기가 없어 불길론이 해소되었다. 이후 효현왕후가 1843년(현종9) 세상을 떠나자 현 위치에 능을 처음 조성하였다. 6년 후 현종이 사망하며 그 옆에 묻혔고, 1904년(광무8) 효정왕후가 묻히며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경릉은 조선왕릉 중 유일한 삼연릉三連陵의 형태로, 우왕좌비의 원칙에 따라 왼쪽이 현종, 가운데가 효현왕후, 오른쪽이 효정왕후의 능이다. 세 봉분 모두 병풍석을 생략하고 서로 연결된 난간석을 돌렸다. 혼유석은 각 봉분 앞에 1좌씩 따로 설치하였고, 상설의 제도는 영조가 제정한 『국조상례보편제도國朝喪禮補編制度』를 따랐다.

능침 아래에는 정자가, 비각, 홍살문, 판위 등을 배치하였다. 비각 안에는 대한제국 선포 후 황제 추존으로 바꾼 표석이 있다. 표석의 전면에는 '대한大韓 현종성황제憲宗成皇帝 경릉慶陵 효현성황후孝顯成皇后 부좌附左 효정성황후孝定成皇后 부좌附左'라고 쓰여 있다.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驪州 英陵과 寧陵

조선시대

*영릉(英陵) - 1446년, 1469년

*영릉(寧陵) - 1659년, 1673년

일원

*영릉(英陵) - 합장릉, 난간석, 혼유석2, 고석8,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영릉(寧陵) - 동원상하릉, 난간석 각1, 혼유석 각1, 고석 각4, 망주석 각2, 장명등 각1, 문인석 각2, 무인석 각2, 석양 각4, 석호 각4, 석마 각4, 비석

여주시 능서면 왕대리 901-2, 901-3 일원

지정일 : 1970.05.27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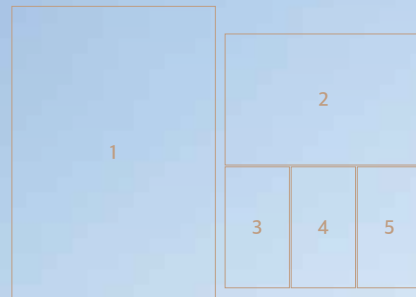
①영릉英陵

<영릉>은 조선 세종世宗(1397~1450)과 소헌왕후昭憲王后(1395~1446)의 무덤이다. 조선왕릉 중 최초로 한 봉우리에 다른 방을 갖춘 합장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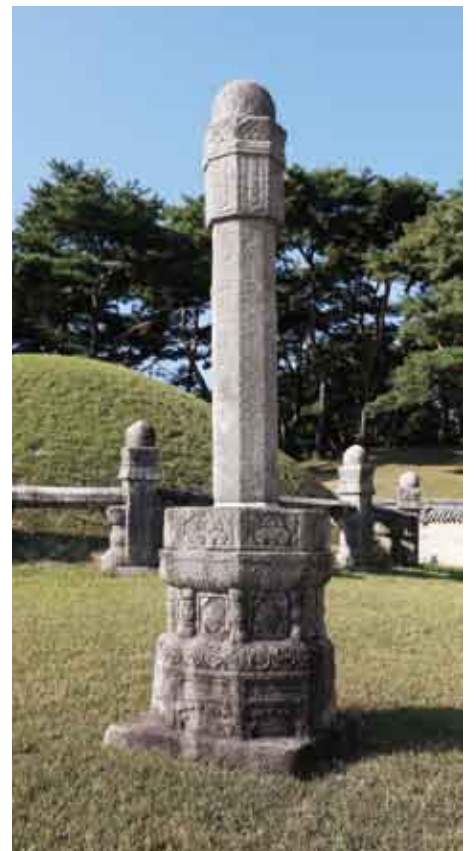
1446년(세종28) 소헌왕후가 사망하자 현릉獻陵의 서쪽 기슭에 쌍실의 능을 조성하였다. 서쪽 석실은 미리 조성하였다가 세종이 사망하자 합장하였다. 문종 대부터 터가 불길하다는 이유로 능을 옮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실현되지 못하다가 1469년(예종1) 현 위치로 옮겨왔다. 천릉하면서 원래 있던 상석, 망주석, 문·무인석, 석수, 신도비 등은 그 자리에 묻어두었다.

최초 능침의 배치는 쌍릉 형식으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배치되었다고 하나, 천릉으로 인해 확인할 수 없다. 1469년 천릉 시 세조의 유명遺命에 따라 병풍석을 두르지 않고 난간석만 설치하였으며, 봉분 안은 석실이 아닌 회격灰隔으로 바꾸었다. 또한 기존 왕릉에서 난간석에 십이지신상을 조각하여 방위를 표시한 것과 달리 간소화하여 십이지를 문자로만 표현하였다. 석물은 단릉의 형식으로 배설되었으나 혼유석만은 2좌로 배설된 것이 특징이다.

세종대왕 영릉 신도비(보물 제1805호)는 조선왕릉에서 마지막으로 세워진 신도비로, 앞면의 비명은 정인지鄭麟趾, 뒷면의 음기는 김조金鉞가 지었으며, 글씨는 안평대군安平大君이 썼다. 이후의 왕들은 검소한 능역 조성을 위해 신도비를 따로 세우지 않고 표석만 세웠다. 구舊 영릉 신도비는 여주 천릉 시 매장하였다가 영조 때 다시 세우기 위해 발굴하였으나, 많은 글씨가 손상되어 다시 묻었다. 1974년에 이르러서야 발굴되어 세종대왕기념관으로 옮겨졌으며, 2011년 보물 제1805호로 지정되었다.



1. 무인석(좌),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2. 영릉(세종과 소헌왕후),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3. 장명등,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4. 문인석(좌),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5. 망주석,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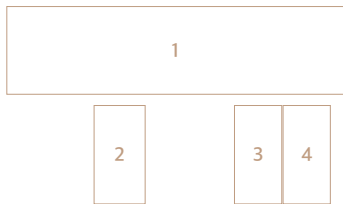




②영릉寧陵

<영릉>은 조선 효종孝宗(1619~1659)과 인선왕후仁宣王后(1618~1674)의 무덤이다. 조선왕릉 최초의 동원상하릉同圓上下陵의 형식으로, 이는 풍수지리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효종 사망 후 건원릉 서쪽 산줄기에 능을 조성하였으나, 1673년(현종14) 병풍석에 틈이 생겨 빗물이 스며들 염려가 있다고 하여 현 위치로 옮겼다. 천릉 이듬해 인선왕후가 사망하여 효종릉 아래에 인선왕후의 능을 조성하였다. 효종릉의 봉분 주위로는 곡담이 설치되어 있지만 인선왕후릉에는 곡담이 없다. 이는 두 능을 한 공간에 위치한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효종릉과 인선왕후릉 모두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돌렸으며, 난간석 기둥에 방위를 표시하는 십이지를 문자로 새겼다. 세조의 유언에 따라 능제가 간소화되어 십이지상을 새긴 병풍석을 대신 난간석 기둥에 십이지를 문자로 새겼는데, 선릉宣陵(성종)의 조성시 십이지신상 병풍석이 다시 등장하게 된다. 이후 십이지상을 새긴 병풍석이 조성되다가 영릉 조성에 이르러 다시 십이지를 문자로 새긴 간소화 경향이 나타나게 된다. 표석은 1674년 처음 세웠다가 전면의 전서를 쓴 북창군福昌君이 역모죄로 사사되자, 1682년 다시 건립하였다. 방부개석, 공포의 특징만 간략하게 표현한 가침석과 두터운 비신은 조선 초기 양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능표 양식으로 이후 왕릉 표석의 기준이 되었다.





- 1. 영릉(효종과 인선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2. 문인석(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3-4. 무인석(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197호

남양주 광릉

南楊州 光陵

조선시대(1468년, 1483년)

일원

동원이강릉, 난간석 각1, 혼유석 각1, 고석 각4, 망주석 각2, 장명등 각1, 문인석 각2, 무인석 각2, 석양 각4, 석호 각4, 석마(세조릉 4, 왕후릉 3), 비석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46-2, 246-3

지정일 : 1970.05.26

소유자 : 국유, 공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남양주 광릉>은 조선 세조世祖(1417~1468)와 정희왕후貞熹王后的 무덤으로 왼쪽이 세조릉, 오른쪽이 정희왕후릉이다. 조선왕릉 최초로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1468년(예종1) 세조 사망 후 주엽산(죽엽산) 아래 처음 광릉을 조성하였고, 1483년(성종14) 정의왕후가 사망하며 광릉 동쪽 언덕에 능을 조성하였다.

광릉은 “석실이나 석곽을 사용하지 말고, 병풍석을 세우지 말라.”는 세조의 유명遺命에 따라 능계를 간소화하였다. 석실을 회격灰隔으로 바꾸어 봉분에 두르던 병풍석을 생략하였으며 병풍석에 새겼던 십이지신상을 난간석의 동자석주에 옮겨 새기는 등 상설 제도를 개혁함으로써 부역 인원을 반으로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였다.

석인은 문인석과 무인석이 각각 2기씩으로, 문인석은 중계에, 무인석은 하계에 자리한다. 모두 복두공복幞頭公服형이다. 왕후릉 좌측 무인석 뒤에 있는 석마는 거의 파괴되어 형태가 온전하지 않은데, 1930년대 사진에서는 비교적 온전한 형태인 것으로 보아 그 이후에 손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능침 아래에는 정자각, 비각, 홍살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향로와 어로는 유실되었다. 정자각은 원래 세조 능역 앞에 지었다가 정희왕후 능을 조성할 때 두 능의 사이로 옮겨지었다.



1

2			
3	4	5	6

1. 남양주 광릉(세조와 정희왕후) 전경, 2018. 경기도지역연구회
2. 광릉(세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세조능 문인석(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세조능 무인석(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정희왕후능 문인석(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6. 정희왕후능 무인석(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高陽 西五陵

조선시대

*경릉 - 1457년, 1504년

*창릉 - 1470년, 1499년

*익릉 - 1681년

*명릉 - 1701년, 1720년, 1757년

*홍릉 - 1757년

일원

*경릉 - 동원이강릉, 난간석(왕후릉), 혼유석 각1, 고석 각4, 망주석(왕후릉)2, 장명등 각1, 문인석 각2, 무인석2, 석양6(덕종릉2, 왕후릉4), 석호4(왕후릉), 석마6(덕종릉2, 왕후릉4), 비석

*창릉 - 동원이강릉, 난간석 각1, 혼유석 각1, 고석 각4, 망주석 각2, 장명등 각1, 문인석 각2, 무인석 각2, 석양 각4, 석호 각4, 석마 각4, 비석

*명릉 - 동원이강릉으로 조성된 쌍릉과 단릉, 난간석3(숙종·인현왕후릉2, 인원왕후릉1), 혼유석3(숙종·인현왕후릉2, 인원왕후릉1), 고석12(숙종·인현왕후릉8, 인원왕후릉4), 망주석각2, 장명등 각1, 문인석 각2, 무인석 각2, 석양 각4, 석호 각4, 석마 각4, 비석

*익릉 - 단릉, 난간석,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홍릉 - 합장릉, 난간석,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산30-1 일원

지정일 : 1970.05.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고양 서오릉>의 서오릉이라는 이름은 ‘도성都城 서쪽에 있는 다섯 기의 왕릉’이라는 뜻이다. 구리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왕릉군으로, 2009년 다른 조선왕릉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오릉五陵에는 창릉昌陵·경릉慶陵·명릉明陵·익릉翼陵·홍릉弘陵을 이른다. 서오릉 내에는 그 밖에 순창원順昌園, 수경원綏慶園, 대빈묘大嬪墓가 있다.

① 경릉敬陵

<경릉>은 추존 덕종德宗(1438~1457)과 소혜왕후昭惠王后(1437~1504)의 능이다. 경릉은 서오릉에서 가장 먼저 조성되었다.

덕종은 1457년(세조3) 왕세자의 신분으로 사망하여 의경세자의 시호를 받았고, 둘째 아들인 자율산군者乙山君이 왕위에 오르자 덕종으로 추존되었다. 소혜왕후는 덕종 사후 사가에서 생활하다가 자율산군이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진봉되었으며, 1475년(성종6)에는 인수왕대비가 되었다. 연산군 즉위 후 대왕대비가 되었으나 1504년(연산군10)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경릉은 동원이강릉의 형식으로 일반적인 왕릉 배치와 달리, 오른쪽이 왕릉, 왼쪽이 왕후릉으로 조성되었다. 이는 덕종은 왕세자의 신분으로, 소혜왕후는 대왕대비의 신분으로 사망하여 사망 당시의 신분에게 능을 조성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덕종릉은 문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석양, 석호만 배치하고 나머지 석물은 생략하였다. 이렇게 석물이 단출한 것은 덕종이 세자 신분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왕릉으로 조성되지 못한 까닭도 있고, 이 시기에 세조의 명으로 능제를 간소화하였기 때문이다.

반면 소혜왕후는 생전에 왕비로 책봉되어 능도 왕비릉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봉분은 난간석을 둘렀고,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를 배치하였다.

1 2

1. 경릉(추존 덕종),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2. 경릉(소혜왕후),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② 창릉昌陵

<창릉>은 예종睿宗(1450~1469)과 안순왕후安順王后(?~1498)의 무덤으로, 서쪽이 예종, 동쪽이 안순왕후의 능이다. 동원이 강릉同原異岡陵의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예종은 세조의 둘째 아들로, 형인 의경세자(후준 덕종)가 20세의 나이로 일찍 사망하자 1457년(세조3)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1468년(세조14) 즉위하였으나 재위 13개월 만에 사망하였다. 안순왕후는 예종의 계비로, 세자빈이 1461년(세조7) 사망하자 1462년 소훈昭訓에 간택되었다가 1468년 예종이 특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성종 즉위 후 1471년(성종2) 인혜대비仁惠大妃가 되었고, 1497년(연산군3) 명의대비明懿大妃가 되었다.

창릉의 진입 및 제향공간에는 홍살문, 판위, 향로와 어로, 정자각, 수복방, 수라간, 비각이 배치되었다. 능침 공간은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에 따라 조성되었으며, 왕릉과 왕후릉의 양상이 비슷하다. 봉분 주변에는 곡장을 돌렸으며,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돌렸다. 난간석에는 십이지를 문자로만 새겼으나 마모가 심해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혼유석을 받치는 고석에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나어두문羅魚頭紋 대신 문고리를 조각했다. 비석과 비각은 1754년(영조1) 함께 건립되었다. 비각은 작은 규모인데도 초익공 형식의 공포를 쓰고 추녀 끝에 토수를 설치하는 등 일반적인 비각에 비해 격이 높은 의장적 특징을 보여준다. 현재 예종 능침의 장명등은 지붕돌이 없어진 상태이고 수복방과 수라간은 소실되어 현존하지 않는다.



1
2

1. 창릉(예종),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창릉(안순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1
2

1. 명릉(숙종과 인현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명릉(인원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③ 명릉明陵

<명릉>은 조선 숙종肅宗(1661~1720)과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仁顯王后(1667~1701), 세 번째 왕비 인원왕후仁元王后(1687~1757)의 무덤이다. 오른쪽 언덕이 숙종과 인현왕후의 쌍릉이고, 왼쪽 언덕이 인원왕후의 단릉이다. 1701년(숙종27) 가장 먼저 인현왕후의 능을 조성하였는데, 이때 오른쪽 능침을 비워두었다가 1720년(숙종46) 숙종이 사망하자 합장하였다. 1757년(영조33) 인원왕후가 사망하자 숙종릉의 왼쪽 언덕에 능을 조성하였다. 능침은 모두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돌렸으며,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 등의 석물을 배치하였다. 명릉의 석물은 다른 능의 석물보다 규모가 작는데, 소박한 후릉厚陵(정종과 정안왕후)의 제도를 따라 석물을 간소화하여 능역에 드는 인력과 경비를 줄이고자 했던 숙종에 뜻을 따른 것이다. 대표적으로 8각 장명등이

4각 장명등으로 바뀌었고, 표석도 규모를 줄이고 처마의 가첨석을 간략하게 표현하였다. 이러한 명릉의 사례는 18세기 이후 능제의 기준이 되었다.

원래 명릉 능역은 지금보다 더 넓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재실은 전면 행랑채 일부와 재실 본동만 남기고 모두 훼손된 상태이며, 근래 보수를 거쳐 새롭게 단장하였다.

④ 익릉翼陵

<익릉>은 조선 숙종의 원비 인경왕후仁敬王后(1661~1680)의 무덤이다. 인경왕후는 1671년(현종12) 세자빈으로 책봉되어 1674년 숙종이 즉위하며 왕비가 되었다. 두 공주를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는 비운을 겪었고, 인경왕후 역시 1680년(숙종6) 천연두로 인해 2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1
2
1:2. 익릉(숙종비 인경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능침은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둘렀으며, 난간석의 동자석 주 상단부에 십이간지를 글자로 새겼다. 그밖에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 등을 2단으로 나누어 배치하였다. 석물 제작에는 이희선, 이후선 등 17세기를 대표하는 석수石手들이 많이 참여하였으며, 17세기 중후반 유행하던 조각양식의 전통을 따랐다.

익릉의 특징은 8칸 정자각이다. 17세기 초까지 영악전과 정자각을 별도로 세웠기 때문에 5칸으로 조영되었으나, 광릉 이후 정자각이 영악전을 대신하며 규모가 8칸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숙종이 5칸 정자각을 부활시켰고 영조 이후 『국조상례보편國朝喪禮補編』을 편찬하며 5칸 정자각을 규정화하였

다. 그러면서 8칸 정자각 역시 대부분 5칸으로 수리하였는데, 익릉은 본래의 배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귀중한 사례이다. 또한 서오릉 내의 정자각 중 유일하게 익릉이 설치되었다. 금전교와 재실은 파괴되었고, 수라간과 수복방도 훼손되었으나 최근 수복방이 복원되었다.

⑤ 홍릉弘陵

<홍릉>은 조선 영조의 원비 정성왕후貞聖王后(1692~1757)의 무덤이다. 정성왕후는 1704년(숙종30)에 연잉군과 가례를 올려 달성군부인에 봉해졌고, 1724년에 영조가 왕위에 오르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정성왕후는 조선 역대 왕비 중에서 중전 재임을 가장 오래 하였으나 영조 사이에서 소생을 낳지는 못하였다. 효장세자(추존 진종)와 사도세자(추존 장조)가 왕세자로 책봉될 때 양자로 입적하기도 하였으며, 영조와 사도세자가 대립하게 되자 그 중심에 서서 갈등을 풀기 위해 노력하였다. 1757년(영조33)에 66세로 사망하였다.

1757년 정성왕후 사후 창릉 동쪽 언덕인 현재의 자리에 능을 조성하였다. 홍릉은 단릉이지만 석물은 쌍릉의 형식으로 배치되었는데, 애초에 영조가 쌍릉 형식으로 홍릉을 조성하였기 때문이다. 영조는 자신의 능 자리를 미리 잡아 오른쪽 자리를 비워두고, 빈 자리에는 십자十字모양을 새긴 조각을 묻어 표시하였다. 그러나 1776년 정조가 장지를 효종의 구舊 영릉 자리로 결정하며 홍릉의 오른쪽 자리는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숙종의 명릉을 따라 간소하게 조성되었으며, 능침은 병풍석을 생략하고 난간석만 둘렀다. 그밖에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 등의 석물을 배치하였다. 홍릉에 배치된 석물의 가장 큰 특징은 세부 장식을 많이 하고 신체적 특징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등 현실감이 반영되었다는 점이다. 무인석의 경우 삼지창이 꽃힌 투구를 쓰고 화려한 꽃장식을 새긴 견갑을 착용하였으며 매듭지어 올린 포두가 돋보이는 모습으로, 18세기 중반 능묘 석물조각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1 2
1:2. 홍릉(영조비 정성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高陽 西三陵

조선시대

*희릉 - 1537년

*효릉 - 1545년, 1578년

*예릉 - 1863년, 1878년

일원

*희릉 - 단릉, 난간석,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효릉 - 쌍릉, 병풍석, 난간석2, 혼유석2, 고석8,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예릉 - 합장릉, 난간석2, 혼유석2, 고석8,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7-1 일원

지정일 : 1970.05.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고양 서삼릉>은 ‘도성 서쪽의 세 개의 능’이라는 뜻으로, 희릉禧陵, 효릉孝陵, 예릉睿陵이 조성되면서 이러한 명칭을 얻게 되었다. 서삼릉 내에는 그밖에 의령원과 효창원, 소경원(소현세자), 회묘(폐비윤씨)를 비롯한 후궁들과 그 자녀들의 묘, 그리고 태실이 있다.

① 희릉禧陵

<희릉>은 조선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章敬王后(1491~1515)의 무덤이다. 장경왕후는 1506년(중종1) 후궁으로 간택되어 숙의淑儀에 책봉되었다가 원비 단경왕후가 폐위되면서 이듬해 왕비로 책봉되었다. 소생으로 효혜공주와 인종이 있으며, 1515년(중종10) 인종을 낳고 산후병이 악화되어 25세로 사망하였다.

1515년 장경왕후 사후 헌릉獻陵 서쪽 언덕에 능을 조성하였으나, 1537년(중종32) 능 조성시 문제가 있다는 김안로金安老의 주장에 따라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였다. 이후 1544년(중종39) 중종이 세상을 떠나자 동원이강릉同原異岡陵 형식으로 오른쪽 언덕에 중종의 능을 조성하고 이름도 정릉靖陵으로 고쳤다. 그러나 1562년(명종17) 중종의 능을 천장하면서 다시 희릉으로 부르게 되었다.

능침은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둘렀으며,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를 배치하였다. 무인석은 큼직한 이목구비와 당당하고 위엄 있는 자세로 칼을 쥐고 있으며, 갑옷에는 작고 섬세한 문양들을 촘촘히 새겼다. 문인석 역시 큼직한 체구에 맞게 홀 역시 크게 묘사되어 있으며 두 손은 홀을 맞잡고 있는 모습이다. 일반적으로 무인석은 왼손이 오른손을 덮고 문인석은 오른손이 왼손을 덮는 것과 다르게 희릉은 문·무인석의 구분 없이 오른손이 위로 올라온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희릉(중종비 장경왕후),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건축물은 정자각, 수라간, 수복방, 비각, 홍살문, 전사청, 제기고, 안향청, 재실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 남은 것은 정자각과 비각, 홍살문뿐이다.

② 효릉孝陵

<효릉>은 조선 인종仁宗(1515~1545)과 인성왕후仁聖王后(1514~1577)의 능으로 왼쪽이 인종, 오른쪽이 인성왕후의 능인 쌍릉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1545년(인종1) 인종 사후, 부왕의 곁에 묻히기 원한 그의 유명 遺命에 따라 서삼릉 내의 정릉靖陵 서쪽 언덕에 능을 조성하였다. 인종의 능을 조성할 때 인성왕후의 능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가 1577년(선조10)에 인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 쌍릉으로 능을 조성하였다.

능침은 『국조오례의』의 형식을 따라 조성되었다. 두 봉분은 하나의 곡장 안에 안치되었고, 왕릉은 병풍석, 왕후릉은 난간석을 돌렸다. 봉분 앞의 혼유석은 각각 1좌씩 놓았고, 그밖에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망주석, 석양과 석호 등의 석물은 두 능이 공유하고 있다. 효릉은 왕후릉의 봉분 규모가 왕릉 봉분과 유사해 장대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석물은 이전 시기에 비해 규모가 축소되었지만 조각수법이 더 사실적이고 세밀해졌다. 건축물은 정자각, 비각, 홍살문이 남아있고 수복방은 터만 확인된다.

③ 예릉睿陵

예릉은 조선 철종哲宗(1831~1863)과 철인왕후哲仁王后(1837~1878)의 능으로 왼쪽이 철종, 오른쪽이 철인왕후의 능인 쌍릉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예릉은 마지막으로 『국조오례의』와 『국조상례보편』에 의거해 조성된 조선왕릉으로, 1863년(철종14) 철종이 사망하자 이듬해 구舊 정릉靖陵 자리에 능을 조성하였으며, 1878년(고종15) 철인왕후가 사망하자 쌍릉으로 능을 조성하였다. 능침은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돌렸으며,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를 배치하였다. 예릉의 석물 중 일부는 중종의 구 정릉 천장 시 묻어두었던 석물을 다시 꺼내어 사용한 것이고, 일부는 1878년 왕후릉 조성 당시 제작한 것이다. 이 때문에 예릉의 석물은 당당하고 육중한 느낌이 두드러지는 16세기 중반의 석물과 규모가 작고 장식성이 뛰어난 19세기 중반의 석물이 혼재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장명등은 일반적인 배치와 달리 능침 앞쪽으로 배치한 것이 독특한데, 이는 조선왕릉 중 유일한 배치방법이다.

비석은 1908년에 세운 추승비 1기가 남아있다. 1864년에 세운 표석은 현재 소실되었으나, 탁본이 전하고 있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재실, 수라간 등은 소실되었으며, 수복방은 일부 터만 확인된다.

예릉(철종과 철인왕후),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金浦 章陵

조선시대(1626년, 1627년, 1632년)

일원

쌍릉, 혼유석 2, 고석 8,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김포시 풍무동 666-1, 666-2 일원

지정일 : 1970.05.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김포 장릉>은 추존 원종元宗(추존, 1580~1619)과 인현왕후仁獻王后(1578~1626)의 능으로 왼쪽이 원종, 오른쪽이 인현왕후의 능인 쌍릉의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원종은 선조의 다섯째 아들이자 선조와 인빈김씨의 셋째 아들로, 1587년(선조20) 정원군에 봉해졌으며 1604년(선조37)에는 임진왜란 중 왕을 호종한 공으로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봉해졌다. 광해군 즉위 후 황해도 수안군수 신경희가 정원군의 셋째 아들 능창군을 왕으로 추대하려 했다는 무고로 인하여 커다란 옥사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능창군은 자결하였고, 정원군은 화병으로 1619년(광해군11) 40세로 세상을 떠났다. 1623년(인조1)에 인조반정으로 첫째 아들 능양군이 왕위에 오르자 정원대원군에 추존되었다가 1632년(인조10)에 인조의 정통성 문제로 인해 원종으로 추존되었다. 이는 조선 최초로 건국 이래 왕세자를 역임하지 않고 왕으로 추존된 사례이다. 인현왕후는 1590년(선조23) 정원군과 혼인하여 연주군부인에 봉해졌으며, 인조가 반정으로 왕위에 오르자 연주부부인에 책봉되고 계운궁啓運宮이라는 궁호를 받았다. 이후 1626년(인조4) 49세로 세상을 떠났으며, 1632년 원종이 왕으로 추존되자 인현왕후로 추존되었다.

1619년(광해군1) 정원군이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에 양주 곡촌리(현 남양주시 금곡동)에 묘를 조성하였는데, 별도의 묘호는 정하지 않았다. 1626년(인조4)에 연주부부인이 사망하자 현 위치에 육경원毓慶園을 조성하였으며, 이때 정원대원군 묘호는 흥경원興慶園이라 하였다. 이듬해 흥경원을 지금의 자리로 옮겨 쌍릉을 조성하고 원의 이름을 흥경원으로 정하였고, 1632년(인조10)에 정원대원군을 원종으로 추존하면서 능의 이름을 장릉이라 하였다. 이때 능을 왕릉제도에 맞게 새로 조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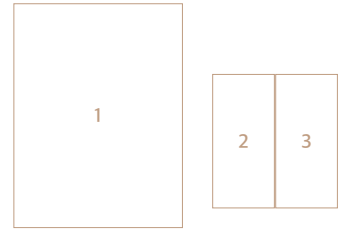
김포 장릉의 진입 및 제향공간에는 홍살문, 판위, 향로와 어로, 수복방, 정자각, 비각이 배치되어 있다. 홍살문과 정자각 사이의 향로와 어로는 직선으로 경사졌으며, 중간에 계단을 두는 등 지형에 따라 설치하였다.

능침은 병풍석과 난간석 없이 사대석만 돌렸다. 사대석은 원종이 왕으로 추존 되기 이전 흥경원을 조성할 때 썼던 것으로, 호석처럼 아무 문양도 새기지 않은 소박한 모양이다. 그밖에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 등은 왕으로 추존된 이후에 새로 설치한 석물이다.



장릉의 문·무인석은 목릉의 인목왕후 능의 것과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해 크기가 클 뿐 아니라 세부 장식도 화려하게 조각되어 소박한 목릉의 석인상과는 대조를 이룬다. 그러나 몸체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신체의 굴곡이나 자연스런 인물 표현이 사라지고 형식화되는 경향이 짙다. 다만 복식의 세부 구성물과 장식품에 다양한 꽃문양을 새겨 기존 왕릉 석인상에 비해 화려한 의복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석수 역시 형체가 경직되어 있고, 얼굴이나 신체의 세부표현에서 도식화되고 정형화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장릉에는 1753년(영조29)에 건립한 한 기의 표석이 있다. 전서는 홍계희洪啓禧, 음기는 종실 낙풍군 이무洛豊君 李樛가 썼다. 그 옆에는 육경원에 세워져 있던 비석의 농대석壘臺石이 남아있는데, 네 면에 걸쳐 영지와 구름, 연주문을 새기는 등 17세기 표석의 화려한 장식성이 돋보인다. 재실, 연지, 정자각, 비각은 잘 보존되어 있는 반면 어정과 수라간은 터만 남아있다.



1. 김포 장릉(추존 원종과 인현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3. 김포 장릉 문·무인석(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파주 장릉

坡州 長陵

조선시대(1636년, 1649년, 1731년)

일원

합장릉, 병풍석, 난간석, 혼유석 2, 고석 8,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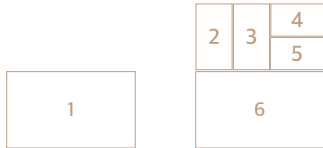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25-1, 25-16

지정일 : 1970.05.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 1. 파주 장릉(인조와 인렬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2-3. 파주 장릉 문·무인석(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4. 연꽃문 병풍석,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5. 기와모양의 와첨상석,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6. 파주 장릉,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파주 장릉>은 조선 인조仁祖(1595~1649)와 원비 인렬왕후(1594~1635)의 능이다. 합장릉의 형식인데, 지금의 자리로 천릉하기 전에는 쌍릉 형식으로 조성하였다가 1731년(영조7)에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면서 합장릉으로 조성하였다.

1635년(인조13)에 인렬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인 1636년에 파주 운천리에 능을 조성하였다. 이때 인조는 자신의 능자리를 미리 공사하였다가 1649년(인조27)에 세상을 떠난 후 쌍릉의 형태로 능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장릉에 화재가 자주 일어나고 백과 전갈이 능 주위에 무리를 이루고 석물 틈에 집을 짓는 등 변이 계속되자 1731년(영조7)에 현재의 자리로 천장하였다.

파주 장릉의 진입 및 제향공간에는 홍살문, 향로와 어로, 수라간, 수복방, 정자각, 비각 등이 배치되어 있다.

능침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모두 돌렸고, 석물로는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망주석, 석양과 석호를 배치하였다. 혼유석은 합장릉의 형태로 2좌를 배치하였다. 대부분의 석물은 1636년 인렬왕후릉 조성 시 제작한 것을 다시 사용하였으나, 병풍석과 난간석은 천장할 때 새로 제작하였다. 병풍석은 십이지신상과 운문 대신 모란문과 연꽃문을 새긴 것이 특징이다. 그 배경에는 공민왕릉에서 유래된 십이지신상과 운문이 불교식 전통이라는 유학자들의 인식이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병풍석 주위를 두르는 상석裳石은 와첨상석瓦簷裳石 형태로 제작되는 등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봉분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후대의 왕릉 조영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병풍석 제작에는 18세기 왕릉 석물 제작에 여러 번 참여해 이름을 떨친 장인 최천약(崔天若)이 참여하였다. 당대에도 호평 받은 장릉의 병풍석은 결구가 매우 견고할 뿐만 아니라, 문양이 화려하고 정교하게 조각되었다.

그 외에도 장릉의 석물은 각법(刻法)이 깊고 섬세할 뿐 아니라 장식적인 문양이 많이 새겨져 있어 화려한 것이 특징이다. 문·무인석은 다부진 신체에 현실감 있는 표정, 갑주의 화려한 문양이 돋보이며, 망주석은 비례감 있는 안정된 구도에 연꽃, 영지, 모란, 당초 등을 돌을 새김하여 완성도를 극대화하였다. 또한 장명등은 건축물의 공포(拱包)를 그대로 재현하려한 듯 2단의 침차(檐遮)와 주두(柱頭), 소로(小櫨)를 정교하게 조각하였다.



사적 제205호

파주 삼릉

坡州 三陵

조선시대

*공릉 - 1462년, 1470년

*순릉 - 1474년

*영릉 - 1726년, 1752년, 1776년

일원

*공릉 - 단릉, 혼유석, 고석4, 장명등, 문인석2, 석양2, 석호2, 석마2, 비석

*순릉 - 단릉, 난간석,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영릉 - 쌍릉, 혼유석2, 고석8,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석양2, 석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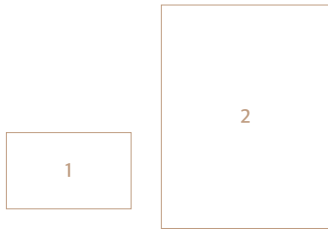
석마2, 비석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 3, 1, 2-1, 2-2 일원

지정일 : 1970.05.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1. 공릉(예종비 장순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공릉의 절선축형 배치, 2009. 국립문화재단연구원

<파주 삼릉>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에 위치한 조선왕릉군이다. 삼릉은 공릉恭陵, 순릉順陵, 영릉永陵을 이르며, 각 능의 호를 따 공순영릉恭順永陵으로도 불린다.

① 공릉恭陵

<공릉>은 예종의 원비 장순왕후章順王后(1445~1461)의 무덤으로 단릉의 형식이다. 장순왕후는 한명회의 딸로 1460년(세조6)에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으나, 이듬해인 1461년 원손 인성대군을 낳고 산후병으로 인해 사망하였다. 1462년 현재의 자리에 묘를 조성하였으며, 이후 1470년(성종1)에 장순왕후로 추존하고 능의 이름을 공릉이라 하였다.

공릉은 애초에 세자빈의 묘로 간소하게 조성되었으며, 왕후로 추존된 후에도 별다른 정비를 하지 않았다. 능침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였고, 문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석양과 석호를 1쌍씩 배치하였다. 문인석은 복두공복형幞頭公服形이며, 얼굴과 신체의 세부표현을 많이 생략하여 단순하고 밋밋하다.

공릉은 홍살문의 축과 봉분과 정자각이 이루는 축이 꺾여있는 절선축형 배치를 이루고 있으며, 참도도 ‘ㄱ’자로 꺾여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는 지형지세에 따른 배치로, 조선왕릉 중 참도가 꺾인 곳은 공릉이 유일하다. 현재 수복방이나 수라간 등의 시설은 소실되어 남아 있지 않고 비각 안에 1817년(순조17) 조성된 표석 1기가 남아있다.





② 순릉順陵

<순릉>은 조선 성종의 원비 공혜왕후恭惠王后(1456~1474)의 능이다. 공혜왕후는 왕비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공릉은 파주 삼릉 내의 능 중 유일하게 왕릉의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공혜왕후는 한명회의 딸이자 예종비 장순왕후의 동생이다. 1467년 성종이 자을산군이던 시절 가례를 올렸으며, 1469년 성종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1474년(성종5) 19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이듬해인 1475년 공릉(장순왕후) 부근에 능을 조성하였다.

능침은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돌렸고,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을 배설하였다. 석양과 석호는 2쌍씩 엇갈리게 배치하였다. 장명등은 공릉의 장명등과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어 세부적인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조선 전기 장명등의 전반적인 모습을 잘 드러내주고 있는 점에서 비슷하다.

무인석은 머리에 투구를 쓰고 양손에는 칼을 쥐고 있다. 갑옷의 장식으로 맹수의 얼굴 대신 꽃무늬와 넝쿨줄기를 새겼다. 조각선은 뚜렷하지만 조각양식은 간략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문인석은 복두공복형幘頭公服形으로, 이후 시기 제작된 문인석에 비해 규모가 약간 작은 편이다.

순릉의 재실은 일제강점기 때 훼손되어 터만 추정할 수 있다. 표석은 영조대에 두 차례 건립이 논의되었으나 결국 건립되지 못하였고, 1817년(순조17)에 이르러서야 비각과 함께 건립되었다.

순릉(성종비 공혜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③ 영릉永陵

<영릉>은 추존 진종眞宗(추존, 1719~1728)과 효순왕후孝順王后(1715~1751)의 능으로 왼쪽이 진종, 오른쪽이 효순왕후의 능인 쌍릉의 형식으로 조성되었다.

진종은 영조와 정빈이씨의 아들로 1724년(영조1) 경의군에 봉해지고 이듬해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나 1728년(영조4) 10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양자인 정조가 즉위하자 진종으로 추존되었고, 1908년 진종소황제로 추존되었다.

효순왕후는 1727년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고 1735년(영조11) 현빈賢嬪에 봉해졌다. 이후 1751년(영조27) 37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영조는 왕세자빈에게 효순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정조 즉위 후 효순왕후로 추존되었고, 1908년 효순소황후로 추존되었다.

1728년에 진종이 왕세자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 지금의 자리에 묘를 조성하였다. 이후 1751년에 효순왕후가 왕세자빈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인 1752년(영조28)에

효장세자묘 왼쪽에 묘를 조성하였다. 그 후 1776년에 정조가 왕위에 오르자 추존되면서 능의 이름을 영릉이라 하였다.

진종과 효순왕후 두 사람 모두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신분으로 사망하였기 때문에, 영릉은 애초에 묘제에 따라 간소하게 조성되었으며 추존 후에도 석물을 추가로 시설하지 않았다. 능침은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였고 문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를 1쌍씩 배치하였다. 문인석은 복두 공복형으로 얼굴에 비해 몸은 왜소하여 비례가 맞지 않으며, 아자대也字帶에는 새끼줄무늬縹紋를 새긴 것이 독특하다.

영릉의 비각 안에는 3기의 능표석이 있다. 1비는 효장세자孝章世子の 비, 2비는 진종대왕眞宗大王의 비, 3비는 진종소황제眞宗昭皇帝의 비로, 추존될 때마다 능표석을 새로 세웠다. 3기의 표석은 모두 가침석과 비신, 농대석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조성왕릉의 능표형식을 하고 있지만, 규모와 글씨체가 조금씩 달라 19세기 말~20세기 초의 능표 양식 변화를 보여준다.

영릉(추존 진종과 효순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華城 隆陵과 健陵

조선시대

*용릉 - 1789년, 1816년, 1899년

*건릉 - 1800년, 1821년

일원

*용릉 - 합장릉, 병풍석,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2, 석호2, 석마2, 비석2

*건릉 - 합장릉, 난간석,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양4, 석호4, 석마4, 비석

화성시 안녕동 187-40, 187-45 일원

지정일 : 1970.05.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①용릉隆陵

<용릉>은 추존 장조莊祖(1735~1762)와 헌경왕후獻敬王后(혜경궁홍씨, 1735~1815)의 능으로 합장릉의 형태이다.

1762년(영조38)에 세자가 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뒤주 속에 갇혀 세상을 떠나자,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리고 배봉산 아래에 묘를 조성하였다. 이후 묘의 이름은 수은묘垂恩墓라 하였으며, 1776년에 정조가 즉위하자 장헌莊獻으로 추존하고 묘를 원園으로 격상하여 이름을 영우원永祐園이라 하였다. 1789년(정조13)에 원을 현 위치로 옮기면서 현릉원顯隆園이라 하였다. 1815년(순조15)에 헌경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이듬해 현릉원에 합장하여 원을 조성하였다. 그 후 1899년 추승되며 원을 능陵으로 격상시켜 용릉이라 하였다.

능침은 난간석 없이 병풍석만 돌렸다. 병풍석의 면석은 장릉長陵(인조)의 형태를 따랐고, 인석은 연꽃형태로 조각하였다. 석물은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를 두 단으로 배치하였다. 용릉의 장명등은 팔각으로, 연꽃과 모란을 비롯하여 불로초, 국화 등 다른 능에서는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꽃을 새겼다. 문인석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갖추었는데, 기존 왕릉에는 없던 도상이다. 또한 무인석은 1789년 현릉원 조성 시 세운 것으로, 이는 원의 격식으로 무인석을 설치한 유일한 사례이다. 이러한 용릉 석물들은 입체적이고 화려한 조각과 섬세한 문양을 자랑하는 수작으로, 당대의 뛰어난 예술성을 그대로 나타낸다.

표석은 1789년 정조가 현릉원 천원遷園 후 세운 표석 1기와 1900년 고종이 세운 용릉 표석 1기가 건립되었다.

용릉은 풍수적인 논리에 의해 조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왕릉에서 정자각과 능침이 일직선상에 놓이는 반면 용릉은 일직선을 이루지 않으며, 일반적인 왕릉의 연못은 방지원도方池圓島의 형태인데 반해 용릉의 곤신지坤申池는 원형으로 조성되었다.

정자각, 비각, 홍살문은 비교적 원형이 남아 있으며, 소실되었던 수복방은 2002년 복원되었다.





1	2	3	4
		5	6
		7	8
		9	

1. 용릉 전경,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용릉(추존 장조와 헌경왕후),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문인석(우),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무인석(우),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장명등,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6. 병풍석,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7. 인석,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8. 고석,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9. 석마,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② 건릉健陵

<건릉>은 조선 정조正祖(1752~1800)와 효의왕후孝懿王后(1753~1821)의 합장릉이다.

1800년(정조24)에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현릉원 동쪽 언덕에 능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순조가 왕위에 오른 후 건릉 불길론이 있었고, 1821년(순조 21)에 효의왕후 김씨가 세상을 떠난 후 건릉 천장이 결정되었다. 현릉원 서쪽 언덕으로 능자리가 결정되면서 합장릉의 형태로 능을 조성하였다.

능침은 병풍석 없이 난간석만 돌렸으며, 문·무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 등을 배치하였다.

표석은 본래 1800년 정조릉 조성 시 세운 것이 있었으나 전해지지 않고 1900년 고종이 황제로 추승하면서 세운 표석 1기만 남아있다.

건축물은 정자각, 비각, 홍살문이 비교적 원형을 유지하며 남아있고, 수복방은 용릉 수복방과 함께 2002년 복원되었다. 현재 용건릉 입구의 건물이 건릉의 재실로 알려져 있으나 이에 대해 이건된 재실이라는 견해와 원래의 재실이 화재로 소실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면서 변경된 것이라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다.

2011~201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한 구舊 건릉 발굴조사를 통해 능의 위치와 구조, 부장품 등이 발견되었다. 조선왕릉에서 부장품이 최초로 발굴됨으로써 『건릉산릉도감의궤健陵山陵都監儀軌』의 「퇴광배설도退曠排設圖」에 그려진 물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1	2	3
	4	5 6 7 8

1. 건릉(정조와 효의왕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문인석(좌),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무인석(좌),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장명등,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석주,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남양주 홍릉과 유릉

南楊州 洪陵과 裕陵

조선시대

*홍릉 - 1900년, 1919년

*유릉 - 1926년, 1966년

일원

*홍릉 - 합장릉, 병풍석, 난간석,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마4, 비석, 동물상10, 향로석1

*유릉 - 합장릉, 병풍석, 난간석,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무인석2, 석마4, 비석, 동물상10

남양주시 금곡동 141-2, 141-3 일원

지정일 : 1970.05.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남양주 홍릉과 유릉>은 마지막으로 조성된 왕릉이자 유일한 황릉 皇陵으로, 고종高宗(1852~1919)과 명성황후明成皇后(1851~1895)의 홍릉, 순종純宗(1874~1926)·순명황후純明皇后(1872~1904)·순정황후純貞皇后(1894~1966)의 유릉을 함께 이르는 명칭이다. 홍릉과 유릉 주변으로 의민황태자·의민황태자비가 합장된 영원英園과 황세손 이구의 회인원懷仁園 등 2기의 원 및 의친왕, 덕혜옹주, 귀인 장씨, 삼축당 김씨, 광화당 이씨, 수관당 정씨, 수인당 김씨 등 왕자녀와 후궁의 묘가 있어 대한제국 황실의 가족묘역이라고도 할 수 있다.

① 홍릉洪陵

<홍릉>은 조선 26대 왕이자 대한제국 초대 황제인 고종과 명성황후의 무덤이다.

1895년(고종32)에 명성황후는 일본에 의해 시해된 후 시신이 궁궐 밖에서 소각되었다. 이후 일본의 압박으로 폐서인되었다가 다시 복위되고 동구릉 내 승릉 근처에 숙릉肅陵이라는 능호로 산릉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홍집 내각이 붕괴되고 고종이 아관파천하자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1897년 대한제국 선포 후 명성황후로 추존하여 홍릉洪陵이라는 능호로 청량리에 새로 능을 조성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1900년에 홍릉의 불길론이 제기되어 현재의 남양주 금곡 홍릉에 새로운 산릉공사를 시작하였다가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공사가 또 다시 중단되었다. 그 후 고종이 1919년 세상을 떠나자 중단되었던 공사를 다시 진행하여 명성황후를 먼저 천장한 후 고종을 합장하여 능을 조성하였다.



홍릉은 기존 조선왕릉의 형식과 다르게 대한제국 황제릉의 형식으로 조성되었는데, 조선왕릉 고유의 제도에 명명의 황제릉 제도를 아울러 개혁신 독특한 형식이다. 능침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혼유석, 망주석, 장명등을 설치하였다. 기존의 왕릉 능침공간에 있던 석물은 제향공간 앞으로 배치하고 종류와 개수를 늘렸는데 기존에 배치하던 석수들과는 달리 중국황릉에 설치하던 기린석, 코끼리석, 사자석, 해태석, 낙타석 등을 배치하였다. 기존 조선왕릉과 달리 향로香路가 가운데에 깔려 있고, 판위는 홍살문을 기준으로 왼쪽에 놓여 있다. 제향공간에는 정자각 대신 일자형 침전을 세우고, 안에는 당가唐家를 설치하였다. 그 밖에 수복방, 수라간, 비각, 예감, 어정 등을 능역 안팎으로 배치하였다.

홍릉 표석은 1922년 고영근高永根이라는 홍릉 참봉에 의해서 세워졌다. 표석이 처음 제작된 시기는 1898년이었는데, ‘대한大韓’이라는 국호를 표기하는 문제로 조선총독부와 이견이 있어 세우지 못하던 것을 자의적으로 건립하였다가 파지 당하였다. 뒷면 상단의 훼손된 부분은 고종이 국왕이 아니라고 왜곡하고자 조선총독부가 일본 연호年號를 새긴 내용을 지운 흔적이다.

청량리에 조성되었던 명성황후의 홍릉은 청량리역에서 경희대학교로 들어가는 초입 일대에 해당된다. 아직도 ‘홍릉길’이라고 부르는 이 곳에는 현재 국립산림과학원이 들어서 있다. 석물 중 일부는 유릉裕陵 조성 시 사용하기 위해 옮겨왔으며, 유릉 뒤편에 당시 쓰고 남은 석물 부재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4

1

2

1. 홍릉 전경, 2018. 경기도지역연구회
2. 홍릉(고종과 명성황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1897년 청량리 부근에 조성되었던 홍릉(명성황후), 1909 국립중앙박물관
4. 홍릉에 참배하고 돌아가는 영친왕 일행, 일제강점기 국립중앙박물관





② 유릉裕陵

<유릉>은 조선 27대 왕이자 대한제국 2대 황제인 순종과 순명황후, 순정황후의 능이다. 유릉은 유일하게 한 봉분 안에 세 분을 같이 모신 동봉삼실同封三室 합장릉의 형태이다. 홍릉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조선왕릉을 계승하면서 명나라의 황제릉을 인용한 대한제국의 황제릉으로 조성하였다.

처음 순명황후가 1904년(광무8)에 세상을 떠나자, 양주 용마산(현 어린이대공원)에 유강원裕康園을 조성하였다. 순종 즉위 후 유강원은 유릉으로 추봉되었고, 순종이 1926년에 세상을 떠나자 용마산에 있던 유릉을 홍릉 동쪽 언덕으로 천장하고 순종을 합장하였으며, 그 후 순정황후가 1966년에 세상을 떠나자 유릉에 합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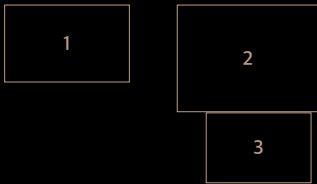
능침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두르고 혼유석, 망주석, 장명등을 설치하였다. 홍릉에 비해 능역 규모가 작지만, 구성 및 배치는 공통된 구조이다. 침전, 비각, 재실 등의 건물과 일부 석물은

구舊 유릉(유강원)의 것을 옮겨왔고, 병풍석 조성을 위해 청량리 홍릉의 석물을 일부 가져와 사용하였다. 그러나 황제릉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하여 1927년 새로 조성하였다.

유릉의 석물은 아이바 히코지로相羽彦次郎 등 일본인들에 의해 제작되었기 때문에 근대 조소기법을 적용한 사실적인 표현양식을 가지고 있다. 문·무인석은 조선왕릉의 전통적인 도상을 가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서구적인 미감을 보여준다. 석수는 전통적인 조각 수법과 전혀 다르게 다리 사이를 막지 않고 윤곽을 드러나게 하여 사실적으로 묘사했다.

제향공간에는 침전, 석물, 비각, 홍살문을 세웠다. 일반적으로 조선왕릉은 능침공간과 제향공간의 축이 일직선을 이루는 데 반해 유릉의 경우 축이 다른 것이 독특하다.

비각에는 1968년 건립한 1기의 표석이 있으며, 뒤뜰에는 구舊 유릉에 세우려 했던 표석이 남아있다.



1. 유릉(순종과 순명황후·순정황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유릉 전경, 2018. 경기도지적연구회
3. 유릉의 석수,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209호

남양주 사릉

南楊州 思陵

조선시대(1521년, 1698년)

일원

단릉,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장명등, 문인석2, 석양2, 석호2, 석마2, 비석

남양주시 진건읍 사능리 107

지정일 : 1970.05.26

소유자 : 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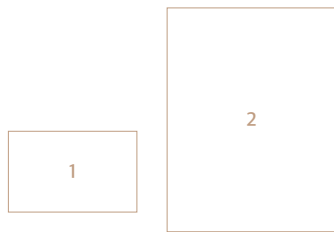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남양주 사릉>은 조선 단종의 비 정순왕후定順王后(1440~1521)의 무덤이다. 정순왕후는 1454년(단종2) 왕비로 책봉되었으나 이듬해 단종이 수양대군에게 선위하고 상왕이 되자 의덕왕대비로 책봉되었다. 1457년(세조3)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영월에 유배되고, 정순왕후는 군부인으로 강등되어 정업원淨業院에서 생활하였다. 그 후 1521년(중종16) 82세로 사망하였고, 1698년(숙종24) 왕후로 복위되었다.

정순왕후는 군부인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 대군부인의 예로 장례를 치렀다. 따라서 사릉은 애초에 능제가 아닌 묘제에 맞추어 조성되었다. 묘소는 단종의 누나 경혜공주의 시댁인 해주 정씨의 선산(양주 군장리)에 조성하여 해주 정씨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1698년 복위되며 단종의 장릉張陵과 함께 능으로 추봉되었다. 복위 후 천장하지 않고 기존의 묘역을 능제에 맞게 다시 조성하였으나, 후릉厚陵(정종과 정안왕후)을 따라 간소하게 조성되어 규모가 작고 아담한 모습이다.

능침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였고, 석양, 석호, 망주석, 문인석 등의 석물을 2단으로 배설하였다. 일반적으로 석양과 석호는 두 쌍씩 배치하는 것과 달리 사릉의 경우 한 쌍씩만 배치하였으며, 무인석도 생략하였다.

현재 건축물은 홍살문과 정자각, 비각만 남아있다. 정자각으로 연결되는 향로와 어로는 중간에 끊어져 있고, 수라간과 수복방은 소실되었다.



1. 사릉(단종비 정순왕후),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2. 사릉 전경,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楊洲 溫陵

조선시대(1557년, 1739년)

일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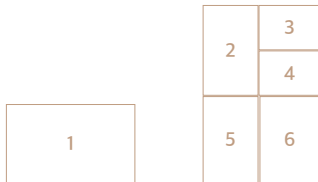
단릉, 혼유석, 고석4, 망주석2, 장명등, 무인석2, 석양2, 석호2, 석마2, 비석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3-1, 13-2

지정일 : 1970.05.26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 1. 온릉(중종비 단경왕후),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 2. 무인석(좌),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 3. 석양,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 4. 석호,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 5. 망주석,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 6. 장명등,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양주 온릉>은 조선 중종의 원비 단경왕후端敬王后(1487~1557)의 무덤이다. 단경왕후는 익창부원군益昌府院君 신수근愼守勤의 딸로, 1499년(연산군5) 성종의 둘째 아들 진성대군晉城大君과 혼인하여 부부인府夫人에 봉해졌으며, 1506년 반정으로 진성대군이 즉위하자 왕비로 책봉되었다. 그러나 아버지 신수근이 매부妹夫人 연산군을 위해 반정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고, 단경왕후도 공신들의 압력에 의해 책봉 7일 만에 폐위되었다. 1515년(중종10) 계비 장경왕후가 사망하자 폐비 신씨(단경왕후)의 복위론이 있었으나 무산되었고, 결국 생전에 복위되지 못하고 사가에서 홀로 살다가 1557년(명종 12) 71세로 세상을 떠났다. 사후 182년이 지난 1739년(영조15)에 복위되었다.

폐비의 신분으로 사망하여 친정집인 거창 신씨 묘역에 묘를 조성하였다. 1739년 복위 후 능호를 온릉溫陵이라 하고 정릉貞陵(태조비 신덕왕후)과 사릉思陵(단종비 정순왕후)의 예에 따라 새롭게 조성하였다.

능침에는 병풍석과 난간석을 생략하였고, 무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망주석, 석양과 석호를 2단으로 배설하였다. 정릉과 사릉의 예에 따라 석양과 석호는 한 쌍씩만 배치하였고, 무인석도 생략하였다. 『영조실록』에 의하면 온릉 봉릉 당시 표석 건립을 시도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현재 비각에 있는 표석은 1807년(순조7) 건립한 것으로, 한국전쟁 시기에 총탄을 맞은 흔적이 표석 전면에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은 정자각과 홍살문 뿐이다. 수라간과 재실은 소실되었고, 수복방은 터만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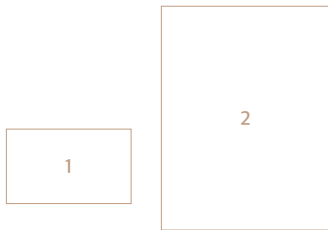
사적 제217호

화성 당성

華城 唐城

삼국시대
일원
둘레 약1.2km
지정구역 - 134,545.46㎡
석성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산32

지정일 : 1971.04.15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화성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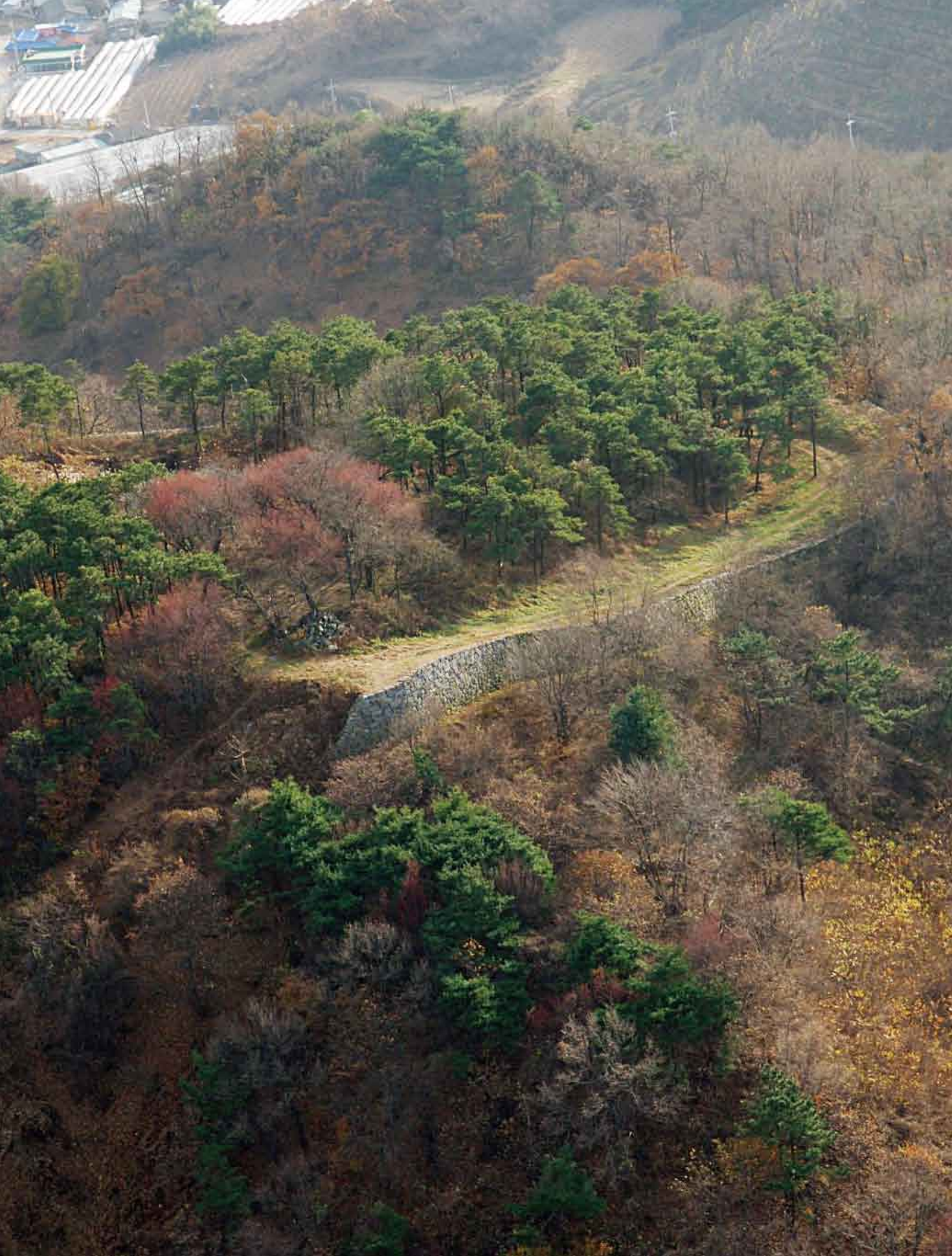
1. 화성 당성 전경, 2016_한양대학교박물관
2. 당성의 복원 성벽, 2015_화성시

<화성 당성>은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 구봉산九峰山 위에 있는 삼국시대의 석축산성으로 삼국시대부터 중국과의 교역 창구인 당항성으로 비정되고 있다.

당성은 남양반도의 해안가에 위치한 해발 165m의 구봉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동향한 계곡 및 서남쪽 능선을 에워싼 3중의 성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성의 전체 모양은 남북으로 길다란 장방형에 가까우며, 시대를 달리하여 테뫼식[山頂式]과 포곡식包谷形으로 축성되었다. 당성 주변에는 백곡리토성白谷里土城, 남양장성南陽長城, 청명산성淸明山城, 용두리성龍頭里城, 화양진성華梁鎭城 등 여러 관방유적이 위치하고 있어 당성이 서해 해상교통로의 중요한 입지임을 증명하고 있다.

『고려사高麗史』,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동국지리지東國地理志』,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 등의 기록에 의하면 당성이 위치한 지역은 475년 고구려의 남정 때 고구려의 당성군唐城郡이라 지칭되다가 삼국통일 후인 757년(경덕왕16)에 당은군唐恩郡으로 개칭하였으며, 829년(흥덕왕4)에는 군사적인 거점으로서 당성진唐城鎭이 설치되었다. 그런데 『대동지지大東地志』의 내용을 바탕으로 백제의 당항성黨項城이었으며 고구려에 편입되면서 당성군이 되었다는 견해가 있어 당항성을 당성으로 본다면 현재의 당성은 백제, 고구려, 신라의 순으로 점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1993년 지표조사가 실시되었고, 1998년 1차발굴조사를 시작으로 5차에 걸쳐 발굴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시기를 달리하는 2개소의 성벽을 확인하였다. 1차 성벽은 구봉산의 정상부와 남서쪽 능선, 계곡부 일부를 포함시켜 축조한 석축산성으로 둘레는 약 600m 정도이다. 성벽 축조는 조사구간 마다 수 개축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대체로 암반면을 정지한 후 가공된 장방형 면석을 '品'자형 기법으로 쌓아 올렸다. 2차 성벽은 구봉산 정상부와 북쪽, 동쪽으로 뺀 능선과 계곡부를 둘러싼 포곡식 토축성으로 둘레는 약 1,000m 정도이다. 성벽 축조는 대외면에 기단석을 일렬로 배치하고 상단에 판축토루를 구축하였는데 기단석 외측과 토루 내측에서 기둥구멍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정상부 위치한 망해루지望海樓址, 문지 2개소 및 성벽 4개소, 건물지, 집수지 등이 확인되었다.

유물은 당성의 성격과 기능을 추정할 수 있는 당唐명, 본피모本彼謀명 기와, 한산漢山명 기와, 신라시대 관청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관사官舍명 기와 명문기와를 비롯하여 6세기 후반에서 고려시대에 이르는 다종 다양한 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중국과 교류를 증명하는 당나라의 백자다완이 출토되었다. 당성은 서해상의 여러 섬들과 남쪽으로 태안반도의 산맥이 조망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중국과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기반이 되었고, 나아가 통일신라시대에는 사신과 승려들이 이곳을 통해 중국에 왕래하며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하여 중국의 문화가 한반도로 들어오는 첫 번째 창구역할을 한 곳이라 할 수 있다.



2	
3	4
5	6



1. 1차성벽 복벽, 2016. 한양대학교박물관
2. 2차성벽(토축성), 1998. 한양대학교박물관
3. 토제마, 2014. 화성시
4. 망해루 출토 접시형 시루, 2016. 한양대학교박물관
5. '본피모'명 기와, 2017. 화성시
6. '한산'명 기와, 2017. 화성시

사적 제223호

연천 송의전지

漣川 崇義殿址

조선시대(1397년)

일원

송의전(정전) - 3×3칸

양암재(재실) - 3×1칸

배신청 - 3×2칸

이안청 - 3×2칸

전사청 - 3×1칸

목재

연천군 미산면 송의전로 382-27

지정일 : 1971.12.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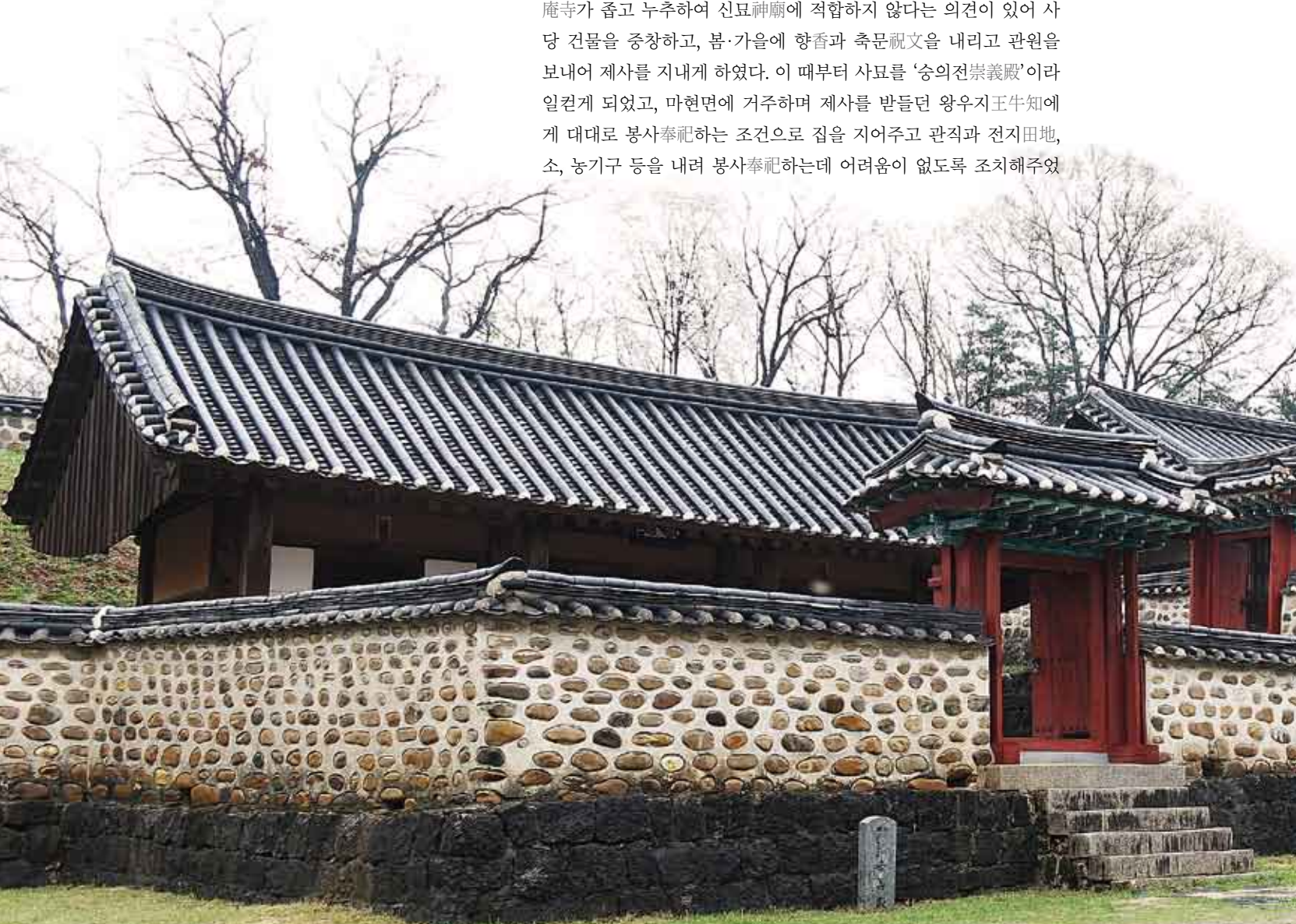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연천군

<연천 송의전지>는 조선시대에 의례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전조前朝에 대한 예우와 고려 왕족 및 고려 유민 등에 대한 회유를 목적으로 고려의 8왕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이다.

조선시대 고려 왕조의 사당과 관련된 기록은 『태조실록』에서 처음 등장한다. 1397년(태조6) 태조는 마전현麻田縣(지금의 연천군 미산면)에 고려 태조의 사당을 건립하도록 명하는데 이 시기에 사당건립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듯하다. 1399년(정종1) 정종이 재차 마전현에 사당을 세울 것을 명하고, 고려 태조太祖와 혜종惠宗·성종成宗·현종顯宗·문종文宗·충경왕忠敬王(원종)·충렬왕忠烈王·공민왕恭愍王 등 8왕에게 제사지내게 한다. 하지만 1413년(태종13) 당시 조선의 종묘가 5실五室인데 전조前朝의 주주 8위八位를 모신다는 것이 합당치 않아 5위는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고 세종대에 와서 고려 태조를 포함한 오주五主만 모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때 남은 오주五主는 고려 태조, 현종, 문종, 충경왕(원종)으로 태조는 남향, 현종은 동쪽, 문종은 서쪽, 충경왕은 동쪽에 모셨는데, 고려 태조는 초상肖像을, 나머지 왕들은 위판位版을 모셨다는 기록이 있다.

1452년(문종2)에는 건국 초기 고려왕조의 제사를 지내던 양암사仰庵寺가 좁고 누추하여 신묘神廟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사당 건물을 중창하고, 봄·가을에 향香과 축문祝文을 내리고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이 때부터 사묘를 ‘송의전崇義殿’이라 일컫게 되었고, 마현면에 거주하며 제사를 받들던 왕우지王牛知에게 대대로 봉사奉祀하는 조건으로 집을 지어주고 관직과 전지田地, 소, 농기구 등을 내려 봉사奉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해주었



다. 이후에도 조선의 역대 왕들은 승의전의 개수改修와 중수重修를 지원하였고 지방관을 보내 치제致祭하였다.

『여조왕릉등록麗朝王陵騰錄』(1638~1690)에 기록되어 있는 승의전의 각 건물은 배향청, 재실청, 제기고 등으로 숙종 때 승의전의 배면 세 칸이 파손되고 풍관이 손상되었다는 내용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승의전은 3칸 이상의 규모로 맞배지붕이었음을 알 수 있다. 『마전군읍지麻田郡邑誌』(1899)에 기록되어 있는 승의전의 각 건물과 그 규모는 정전 18칸, 배신청 2칸, 전사청 2칸, 이안청8칸, 수복가 7칸으로 현재의 건물과 규모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중 건물이 전소하였으나 1972년부터 정전과 이안청, 배신청, 삼문 등을 연차적으로 복원·수리하여 현재의 모습이 되었다.

현재의 승의전은 승의전이 있는 영역을 기준으로 좌측으로 3개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승의전이 위치한 중심 영역으로 천수문을 들어서면 정면에 고려 4왕의 위패를 모신 승의전이 있고 승의전의 좌측에는 위급한 상황 시 승의전의 위패를 옮겨놓는 건물인 이안청, 고려 16공신의 위패를 모셔놓은 배신청이 있다. 두 번째 영역에는 제례 때 사용할 제수를 준비하는 곳인 전사청이 단독 건물로 있고, 세 번째 영역에는 제례 때 사용하는 향, 축, 폐 등을 보관하고 제관들이 제례준비를 하는 양암재가 단독 건물로 놓여있다.



1. 연천 승의전지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연천 승의전,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244호

연천 경순왕릉

漣川 敬順王陵

조선시대

일원

단분, 호석,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2, 석양2, 묘표, 신도비(추정)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 산18-1, 산18-2

지정일 : 1975.06.25

소유자 : 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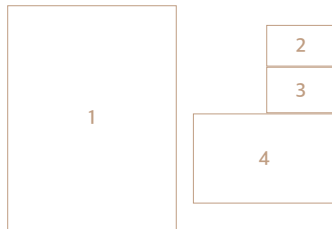
관리자 : 연천군

<연천 경순왕릉>은 신라의 제56대 경순왕敬順王(?~978)의 무덤이다. 신라왕릉 중 유일하게 경주를 벗어나 경기도 지역에 조성되었다. 경순왕은 신라의 마지막 왕으로, 이름은 부傳이다. 927년(경애왕4) 후백제 견훤甄萱의 침공으로 경애왕景哀王(?~927)이 살해된 뒤, 견훤에 의해 옹립되었다. 그러나 재위 8년 만인 935년 고려에 항복하고 왕위에서 물러났다. 이로써 신라는 992년 만에 멸망하게 되었다. 그 후 고려 태조太祖의 딸 딸 안정숙의공주安貞淑義公主와 혼인하고, 슬하의 딸(현숙왕후)을 고려 경종과 혼인시키기도 하면서 고려의 왕족으로 예우를 받았다. 고려 태조太祖로부터 관광순화위국공신觀光順化衛國功臣 상주국上柱國 낙랑왕樂浪王 정승政丞에 봉해지고 경주 사심관事審官으로 임명되었다. 태조부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등 고려의 왕이 여러 번 바뀔 때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978년(경종3) 4월에 세상을 떠났다.

경순왕릉은 고려시대에 조성되었으나 조선시대에 이르러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실전失傳되었고 이후 1746년 경순왕릉의 묘비와 석물이 발견되어 능을 재정비하였다. 『영조실록』에는 경순왕의 후손인 김효대金孝大 등이 장단長湍에서 신라 경순왕릉의 지석과 신도비를 찾았고, 고려의 여러 왕릉의 예에 따라 수총군守塚軍 5인을 두고 관리하였으며, 승지를 보내 경순왕릉에 치제致祭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후 한국전쟁으로 다시 소실되었다가 1973년 이곳에 주둔한 육군 25사단이 일대를 수색하던 중 파손된 경순왕릉의 묘표를 발견하였고 1987년 묘표가 발견된 일대를 현재의 모습으로 정비하였다.



경순왕릉은 상·중·하 3단이 계체석으로 구분되어 있다. 상계에는 판석을 이용해 호석을 두른 봉분과 봉분의 삼면을 두른 곡장, ‘신라경순왕지릉新羅敬順王之陵’이라고 쓰인 묘표, 혼유석을 배치하였다. 중계에는 좌우에 석양, 망주석 1쌍, 중앙에는 4각 평면의 장명등을 배치하였다. 묘역 앞의 비각에는 신도비로 추정되는 비석이 1기 있는데, 마모가 심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1. 연천 경순왕릉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연천 경순왕릉 묘표,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연천 경순왕릉 신도비,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연천 경순왕릉,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251호

여주 파사성

驪州 婆娑城

삼국시대
일원
936.5m
지정구역 - 35,504㎡
석성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산9

지정일 : 1977.07.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여주시

<여주 파사성>은 여주시 대신면 천서리 해발 230m의 파사산 정상 부를 중심으로 능선을 따라 축조된 테피식산성이다. 파사성은 지리적으로 남한강변의 육상과 하천교통로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며 파사산 밑을 흐르는 남한강의 상류와 하류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고 적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한 최적의 천연적 요새라 할 수 있다. 성의 둘레는 약 936m이고, 높이는 주변 지세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4.5m 안팎이며 부정형에 가까운 형태이다.

성의 이름이 신라 제5대 파사이사금婆娑尼師今과 같아 이 시기 축성된 것으로 전해지며, 위치로 보아 신라의 북진 과정과 관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임진왜란 때에는 류성룡柳成龍(1542~1607)의 건의에 따라 승군총섭僧軍總攝 의암義巖이 승려를 동원하여 쌓았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 후기에는 남한산성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파사성에 대한 중요성이 감소하였다.

파사성은 1999년부터 지속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성벽 및 성내부의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이 파악되었다. 성벽은 내외협축으로 축성되었는데, 초축성벽과 수축성벽이 구분된다. 초축성벽 일부 구간에서는 ‘ㄱ’자형과 단면 삼각형 등 2가지 방법의 기반보축이 확인되는데, 보축방법의 차이는 수축 시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초축성벽이 허물어진 곳에 쌓은 수축성벽 역시 축조법이 약간씩 달라 수축이 수차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3	4
5	6



1. 여주 파사성,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여주 파사성 발굴조사 전경, 2002.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내성벽, 2011.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외성벽 및 보축성벽, 2011.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포루, 2001. 경기문화재단연구원
6. 남문지, 2011.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성의 시설물은 문지 2개소, 포루 3개소, 우물지와 수구지, 곡성지 각 1개소, 추정 건물지 8개소가 확인되었다. 성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통로의 하나인 동문지는 방형의 웅성(甕城)이 구비된 개방형으로, 기단부에 2회 이상의 수축 흔적이 있다. 포루는 기존에 치雉로 알려진 구조물로 남벽과 북벽에서 확인되었다. 성 내부에서는 동벽과 서벽 주변에서 주거지 2기, 구들 23기, 건물지 4기, 저장공 1기 및 축대 등을 확인하였다. 주거지는 청동기시대 장방형주거지와 백제주거지이다. 백제주거지는 한강이 조망되는 구릉의 암반을 파고 수혈식으로 조성되었다. 구들은 방형 혹은 세장방형으로 괴임돌 위에 장방형의 면석을 구들장으로 사용한 구조이다. 건물지는 4기 중에서 2기가 2칸 규모의 소형이고, 1기는 15×5m의 크기이다.

파사성에서는 토기류, 자기류, 기와류, 철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무문토기와 경질무문토기, 승석타날문토기 등 백제 토기와 삼국시대의 단각고배, 통일신라시대의 원점문토기와 주름무늬병 등이 있고, 자기류는 고려시대 초기의 청자와 조선시대 중기의 백자가 주를 이루고, 분청사기는 소량 확인되었다. 기와류는 통일신라시대 기와와 조선시대 기와가 대부분이고, 철기류는 화살촉과 소도, 철절, 호미 등이 수습되었다.

사적 제268호

연천 전곡리 유적

漣川 全谷里 遺蹟

선사시대

일원

지정구역 - 778,296㎡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515, 529 외

지정일 : 1979.10.02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연천군

<연천 전곡리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에 있는 전기 구석기시대의 유적이다. 한탄강과 임진강 줄기를 따라 분포하고 있는 구석기시대 유적 중 가장 큰 유적이며, 유럽과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발견되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동북아시아 구석기문화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전곡리 유적은 1978년에 당시 동두천 주둔 미군인 보웬(Bowen,G)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1979년의 첫 번째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크고 작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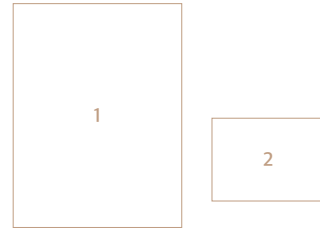
유적은 전곡리 남쪽 일대의 한탄강이 U자 모양으로 감싸고도는 현 무암대지 위에 분포하고 있으며 수리적인 위치는 동경 127°3', 북위 38°1'에 해당된다. 유적이 위치한 전곡리 일대는 서울과 원산을 연결하는 좁고 긴 추가령지구대의 서남부로서 이 추가령 구조곡은 그 길이가 약 180km에 이르는 남북을 갈라놓고 있는 구조곡이다.



이 지역에는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편마암과 화강암이 지질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전곡리 일원을 포함한 한탄강 유역에는 그 위를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현무암층이 광범위하게 덮고 있다. 이 현무암은 철원·평강지역에 산재하는 소분화구의 하나인 오리산(鴨山)으로부터 천천히 분류(噴流)하여 고기(古期) 한탄강·임진강을 따라 흘러갔고 하류인 문산까지 진출하며 평탄한 현무암대지를 만들었다.

전곡리 유적의 연대와 관련하여 현무암 및 퇴적층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전곡리를 비롯한 파주 임진강 유역의 현무암은 같은 시기의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한탄강 하류지점에서 두 개의 연대가 얻어져 주목된다. 최근 연구결과에서 전곡리유적의 현무암의 연대는 약 50만년전이라고 알려진 반면에 은대리 부근의 연대는 17만년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곡리 유적의 전체적인 퇴적양상은 용암이 흐르다 식어 형성된 현무암대지 위에 수성 퇴적물인 모래층이 쌓이고 그 위로 수성 혹은 풍성 기원의 점토 퇴적물이 쌓여 있는 양상으로 지점에 따라서 모래층 없이 점토 퇴적물만 확인되기도 한다. 이들 퇴적물에 대한 열형광연대측정으로 연대 값이 얻어졌는데, 연천 전곡리와 포천 영평천 부근에서 얻어진 것들은 5만년전 내외로 알려져 있지만 과거의 것이라 신뢰도가 높지 않다. 인근의 파주 가월리·주월리 유적에서 얻어진 연대는 20만년전까지 올라간다. 아직 열형광연대 측정의 연대 값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적어도 갱신세 중기 후반의 연대가 얻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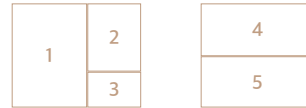


1. 연천 전곡리 유적 전경, 2018. 경기도지적연구회
2. 한탄강과 전곡리 유적, 2003. 연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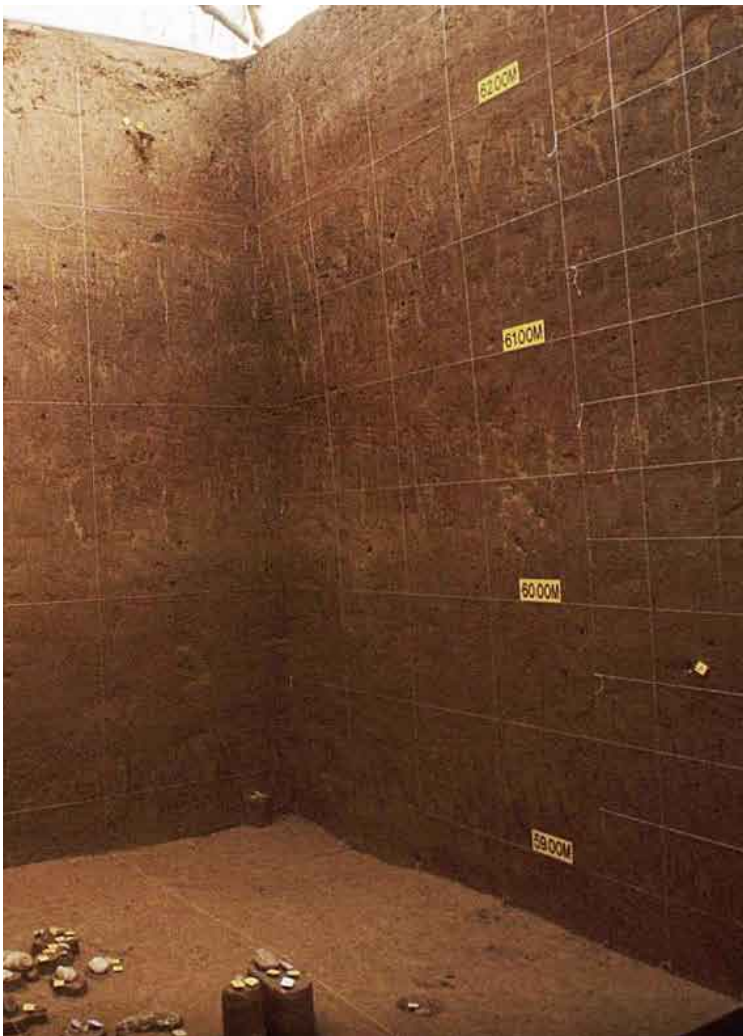


비교적 최근에 전곡리의 퇴적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2만 5천년전에 분출한 아이라-탄자와 화산재(始良Tn火山灰, AT)가 퇴적층의 최상층에서 나오는 반면 지표 아래 1m 정도의 지점에서는 약 10만년전에 분출한 기타이-토주라하라 화산재(鬼界葛原火山灰, K-Tz)가 발견되어 이 정도 깊이의 퇴적물은 적어도 9만 5천년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아래의 퇴적물은 이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그 하부에서 확인되는 수성 퇴적물이 상부의 퇴적물과 그 성격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현무암의 연대가 50만년전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석기는 이 현무암층 위에 퇴적된 퇴적층 내에서 산발적으로 확인되었다. 발굴조사에서는 4천 여 점 이상의 석기가 출토되었고, 지표에서도 많은 수의 석기가 채집되었다. 석기의 돌감은 석영맥암과 규암을 주로 이용하였으며 이외에도 현무암, 편마암이 확인된다. 재료는 대부분 강바닥에서 채집한 강자갈로, 경우에 따라서는 1m 정도 크기의 자갈들도 있다.



- 1-2. E55S20pit 층위, 2000. 한양대학교박물관
- 3. E55S20pit 층위 하위 현무암층 노출모습, 2000. 한양대학교박물관
- 4. 전곡리 유적 출토 주먹도끼, 2011. 전곡선사박물관
- 5. E6S4pit 유물 집중면, 1992. 한양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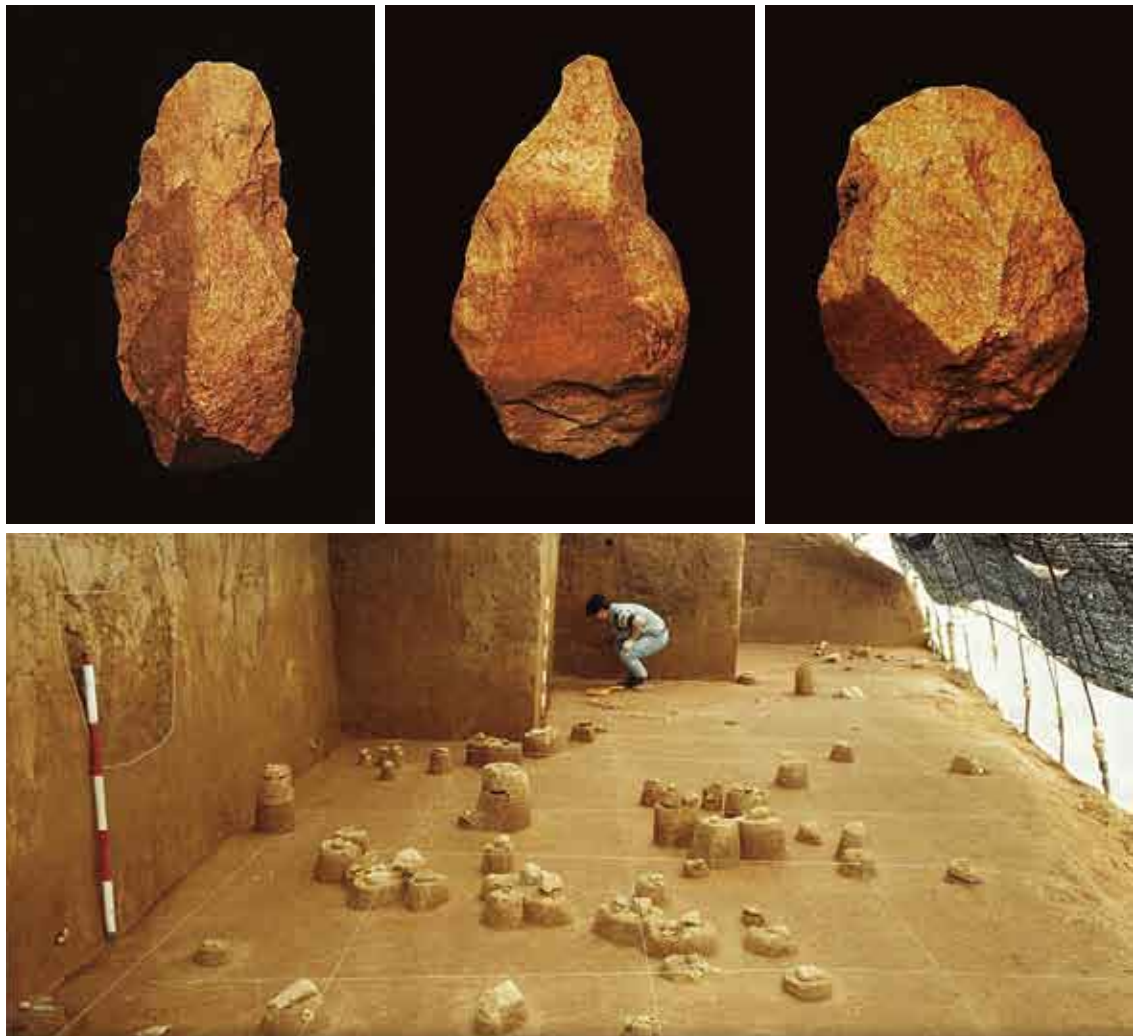


전곡리 유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석기는 아슐리안(Acheulian) 주먹도끼이다. 아슐리안은 프랑스의 생따술(St. Acheul) 지방에서 처음으로 확인된 전기 구석기시대를 대표하는 석기공작이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타원형 또는 삼각형 모양으로 양쪽면을 모두 고르게 손질가공(Biface)하여 석기의 옆면이 마치 두 손바닥을 모은 모습인 것이 특징이다. 전곡리에서 확인된 주먹도끼의 날 형태는 양면가공된 것과 단면가공된 것이 있으며, 평면 형태는 타원형과 첨두형이 모두 있다.

이외에도 가로날도끼와 찍개, 뿔족끝찍개 등의 대형석기와 긁개, 찌르개 등의 소형석기를 비롯하여 많은 수의 몸돌, 격지 등이 발견되었다. 석기의 제작에는 대부분 직접타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주먹도끼 등의 대형석기를 제작할 때는 모루떼기법도 사용되었다. 석기 공작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아슐리안형 석기 공작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석기에 가공이 적고 형태적으로 정형성이

높지 않은 특성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석재의 제약성과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온대환경의 적응 과정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들은 동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것이다. 이는 1970년대 말까지 유행한 구석기문화권을 아슐리안 주먹도끼의 존재유무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유럽으로 양분하던 모비우스(H. Movius Jr.)의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로, 세계 구석기 학계의 고인류에 대한 문화적인 발전과정 연구에 새로운 면을 제시하였다. 또 동아시아에서도 구석기공작을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불러일으켰다. 한반도 내에서는 빈약한 전기구석기시대의 석기공작 연구에 풍부하고도 획기적인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중부홍적세의 고인류 생활 양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사적 제269호

하남 미사리 유적

河南 羨沙里 遺蹟

선사시대
일원
지정구역 - 56,479㎡
하남시 미사동 557번지 외

지정일 : 1979.10.25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하남시

<하남 미사리 유적>은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에 있는 신석기~백제시대의 생활유적이다. 이 유적은 1960년에 처음 발견되었다. 발견 당시에는 신석기시대의 유물만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여러 차례에 걸친 발굴 조사를 통하여 여러 시기에 걸친 유적이 층위를 달리하면서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유적이 있는 미사리는 한강 중상류의 남북 4km, 동서 1.5km의 타원형 섬으로, 서쪽 지류에 올림픽 조정경기장을 만들면서 동쪽 본류의 수량이 늘어나자 섬의 동쪽 일부를 잘라 강폭을 넓히는 한강 유역 종합개발사업이 계획되면서 1988년~1993년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유적의 층위는 각 지점에 따라 미묘한 차이는 있지만 크게 신석기시대 층위, 청동기·원삼국시대 층위, 백제시대 층위로 나누어지며, 각 시기별 층위는 다시 몇 개의 간층으로 형성되었다. 따라서 이 유적은 각 시기별 유적의 변천과정이 비교적 명확하고 유구 간의 중복관계가 상당히 심한 편이어서 동일 층위 내에서의 선후관계를 밝히기에도 매우 용이하기 때문에 한국 중부 지역 선사시대의 변천상 및 집락의 형성과 소멸 등 당시의 전반적인 사회상을 살피는 데 표준유적이 되었다.

신석기시대의 집터와 화덕자리 그리고 많은 종류의 석기와 빗살무늬토기가 발굴되었다. 이 곳의 신석기시대 문화 성격은 미사동보다 약간 하류 쪽에 있는 암사동 유적과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청동기시대 지층에서는 집터와 화덕자리, 목책유구 등이 조사되었으며, 다양한 석기와 민무늬토기, 붉은간토기, 검은간토기, 구멍무늬토기, 덧띠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목책유구는 미사리유적에서 처음 확인되었는데, 주거 집락 북쪽의 강안을 따라 분포하고 있어 강한 바람의 흐름을 제어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시기는 기원전 8세기~기원전 3세기 전후로 추정된다.



원삼국 시대의 지층에서는 움집과 지상 가옥의 집자리, 부뚜막 시설 등이 확인되어 고대 건축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여러 종류의 철제 유물, 토기, 석기, 옥제품 등과 함께 유리구슬을 만드는 데 쓰인 거푸집과 1세기 무렵으로 보이는 청동거울도 이 시기의 문화층에서 나왔다. 또한 상하층으로 구분되는 대규모의 밭이 발견되었다.

백제시대 미사리유적은 한강변의 충적대지에 위치한 취락유적으로, 신석기시대 이래로 백제시대까지 긴 시간동안 유구가 층서를 이루며 형성되어, 선사시대에서 역사시대에 이르는 한강하류 유역 취락 발전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미사동 유적에서 드러난 백제시대의 대규모 경작지는 한성 백제의 왕도로 비정되는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의 생산기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평가되어 당시의 사회 경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1	2
---	---

3	4
5	6
7	8
9	

1. 미사리 옛 모습, 1972_ 하남역사박물관
2. 미사리 현재 모습, 2019_ 구글어스
- [신석기]
3. A지구 화덕자리, 1992_ 한양대학교박물관
4. 각종 빗살무늬 토기편, 1997_ 서울대학교박물관 [청동기]
5. A지구 4호 집자리, 1991_ 송실대학교박물관
6. 구멍무늬토기, 1991_ 서울대학교박물관 [원삼국]
7. 1호 집자리, 1993_ 한양대학교박물관
8. 1호 집자리 출토 큰항아리, 1993_ 한양대학교박물관
- [백제]
9. 밭 유구 및 도랑 유구 윤곽모습, 1992_ 서울대학교박물관

사적 제292호

김포 덕포진

金浦 德浦鎮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 48,829㎡
김포시 대곶면 신안리 산105 일원

지정일 : 1981.09.25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김포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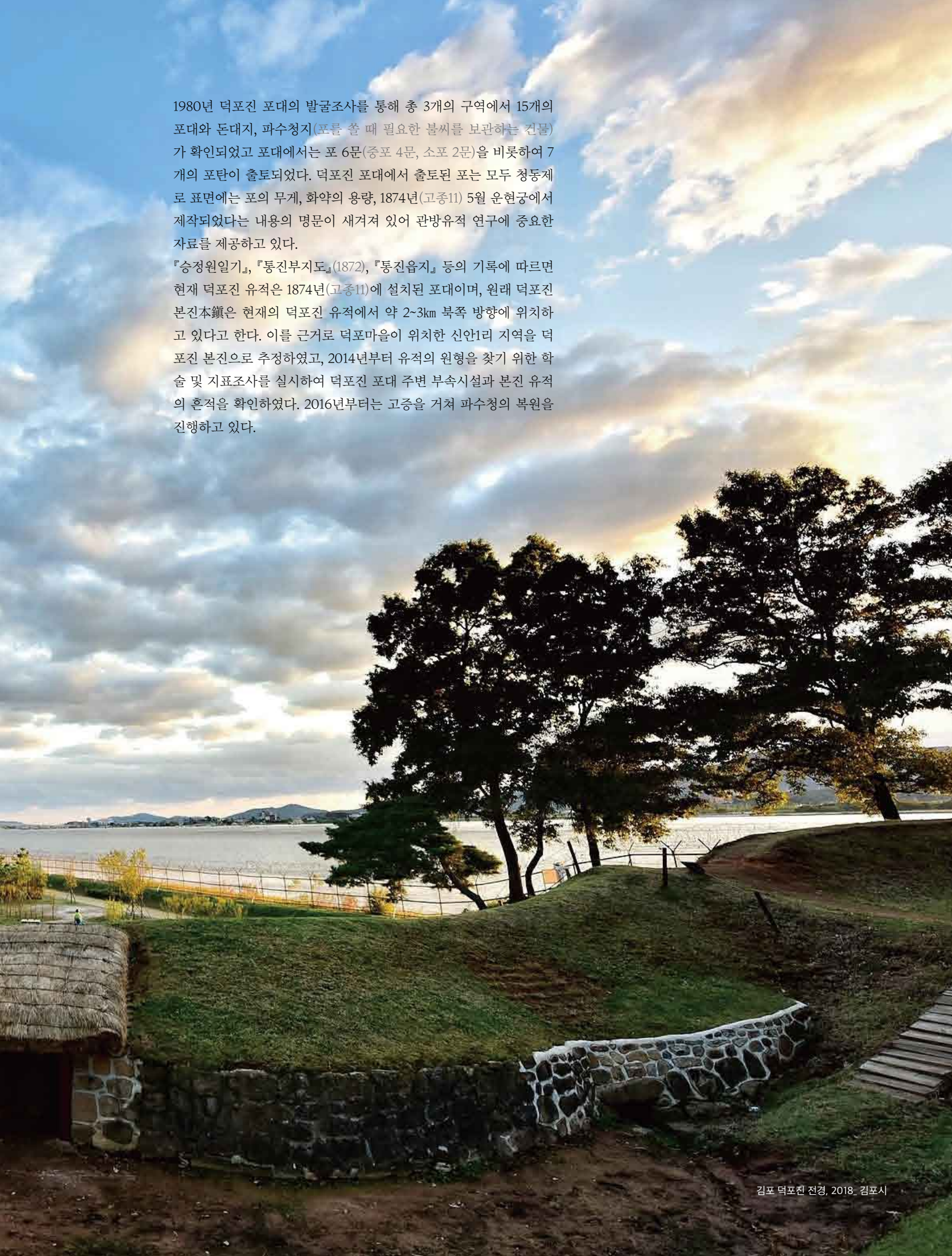
<김포 덕포진>은 강화해협을 통해 서울로 진입하려는 외세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설치된 조선시대의 군영으로 외적의 침입 시 덕포진과 마주하고 있는 강화도의 광성보, 덕진진, 초지진과 함께 양쪽에서 포를 쏘서 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강화와 김포 일원의 해상방어시설은 '진(鎭)-보(堡)-돈대(墩臺)-포대(砲臺)'의 체계로 구성된다. 포대는 포가 배치된 시설물로 돈대와 돈대 사이의 이격거리가 큰 경우 설치한다. 돈대는 적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시설물로 보통 해안가 및 산지 등에 입지한다. 진과 보는 군사행정단위로 첨사(종3품)나 만호(종4품)가 파견된 곳이 진(鎭), 별장(종9품)이 파견된 곳이 보(堡)이며, 2~4개의 돈대로 구성된다. 『선조실록』에 처음 덕포를 설치했다는 기록이 등장한다. 덕포진은 철곶진鐵串鎭, 정포진井浦鎭과 함께 강화에 예속된 진으로 1666년(현종7) 통진通津으로 위치가 옮겨졌으며, 1682년(숙종8)에는 주진으로 승격되어 영종永宗과 안흥安興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1866년(고종3) 병인양요丙寅洋擾, 1871년 신미양요辛未洋擾 때는 덕포진이 격전지가 되었으며 두 차례의 서구 열강과의 전투 이후 1874년(고종11)에는 방어력 강화를 위해 군제를 개편하고 연안의 포대시설을 확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95년(고종32) 일제에 의해 수영水營, 진보鎭堡 등이 철폐될 때 함께 폐쇄된 후 방치되었다.



1980년 덕포진 포대의 발굴조사를 통해 총 3개의 구역에서 15개의 포대와 돈대지, 파수청지(포를 쏠 때 필요한 불씨를 보관하는 건물)가 확인되었고 포대에서는 포 6문(중포 4문, 소포 2문)을 비롯하여 7개의 포탄이 출토되었다. 덕포진 포대에서 출토된 포는 모두 청동제로 표면에는 포의 무게, 화약의 용량, 1874년(고종11) 5월 운현궁에서 제작되었다는 내용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관방유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승정원일기』, 『통진부지도』(1872), 『통진읍지』 등의 기록에 따르면 현재 덕포진 유적은 1874년(고종11)에 설치된 포대이며, 원래 덕포진 본진本鎭은 현재의 덕포진 유적에서 약 2~3km 북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근거로 덕포마을이 위치한 신안1리 지역을 덕포진 본진으로 추정하였고, 2014년부터 유적의 원형을 찾기 위한 학술 및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덕포진 포대 주변 부속시설과 본진 유적의 흔적을 확인하였다. 2016년부터는 고증을 거쳐 파수청의 복원을 진행하고 있다.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華城 堤岩里 3·1運動 殉國 遺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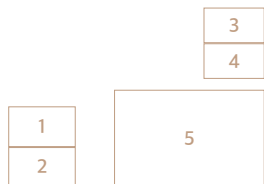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일원
지정구역 - 607㎡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2-4

지정일 : 1982.12.21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화성시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은 1919년 4월 15일, 일제가 3·1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 교회에 주민들을 감금시키고 학살한 곳이다.

1919년 3·1독립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자 3월 10일 경 안종린·안정옥 등 제암교회 청년들이 서울에서 독립선언문과 격문을 입수하였고, 4월 5일 발안장날에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든 시간에 교회 청년들이 발안주재소 앞에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장터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독립만세를 따라 외쳤다. 이에 당황한 일본 경찰이 무력으로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무차별 사격과 매질을 가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과 마을 주민들은 밤마다 제암리 뒷산에 올라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계속 벌였다. 발안장터 독립만세운동이 있고 열흘 후인 4월 15일 오후 2시, 일본군은 제암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15세 이상의 남자를 모두 교회당으로 모이게 한 후, 출입문과 창문을 밖에서 잠그고 교회당에 총을 난사하여 주민들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일본군의 통제로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못할 뻔 했으나 인근 수촌리 교회 방화사건 현장을 확인하러 나섰다가 제암리의 참상을 목격한 미국 영사 커티스와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등에 의해 처음 외부에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선교사 스코필드(Frank William Schofield)는 제암리를 수차례 왕래하며 사후 수습을 돕는 한편 제암리 사건 보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암리 학살



- 1. 파괴된 제암리 교회, 1919 국가보훈처
- 2. 1970년대 일본인들의 모금으로 다시 지어진 제암리 교회, 1982_경기도
- 3. 화성 제암리3.1운동 순국 유적, 2014_경기도
- 4. 화성 제암리3.1운동 순국 유적 전시관, 2014_경기도
- 5. 화성 제암리3.1운동 순국 유적 전경, 2014_경기도



사건의 참상을 해외에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광복 이후에도 한동안 사건의 진상과 수습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1954년 4월에 이르러서야 예배당 터에 3·1운동 순국기념탑이 세워졌고, 1970년 9월에는 일본의 기독교인과 사회단체들이 속죄의 뜻을 담아 보내온 성금으로 교회를 새롭게 조성할 수 있었다. 1982년 9월에는 민족수난현장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제암리 학살 사건의 목격자인 전동례(1907~1992)의 증언을 통해 이 지역 일대에 대한 유해발굴을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23위位的 유해와 희생자들의 조끼단추, 동전, 못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이들 유골은 유족의 입회하에 모두 대형관에 입관되어 합동장례식을 치르고 제암교회 뒤편에 마련된 합동묘지에 안장하였다.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은 화성 제암리에서 일제의 만행으로 희생된 선열들을 애도하고 그 뜻을 기릴 수 있는 공간이자 독립운동의 역사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로 1982년 사적 제299호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제암리 3·1운동 및 제암리 사건과 관련된 국내외 여러 자료를 수집하여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을 조성하였다.



사적 제314호

광주 조선백자 요지

廣州 朝鮮白磁 窯址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 382,738㎡

퇴촌면·초월읍·곤지암읍·도척면·남종면·남한산성면 일원

지정일 : 1985.11.07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광주시

<광주 조선백자 요지>는 1467년(세조13) 처음 만들어져 이후 500여 년 동안 왕실과 관청에서 사용하는 양질의 자기를 제작하던 조선 자기 생산의 중심지이다. 관요官窯를 광주에 설치한 이유는 기록이 전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양과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한강과 그 지류를 끼고 있어 수로를 통한 물자와 자기의 운송이 가능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광주에는 300여 곳에 요지가 남아있으며 퇴촌면, 중부면, 초월읍, 도척읍, 실촌면, 남한산성면 등 각 읍면에 골고루 분포하고 있다. 요지의 수는 15~16세기에 설치된 곳이 상대적으로 많은데 이는 수요 증가에 따른 제작량의 증가로 추정된다. 관요는 설치 이후부터 16세기까지는 '사기소沙器所' 혹은 '사옹원 사기소司饔院 沙器所'로 불리었으며, 17세기부터는 사옹원의 지점이라는 의미의 '분원分院'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관요의 이설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재료인 백토와 찻감의 조달이며, 이는 현재 광주에 가마터가 많이 분포하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1676년(숙종2)의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가마의 이설 주기는 대략 10년이었으나 반드시 지켜지지는 않았으며, 경우에 따라 짧거나 긴 기간 동안 운영된 곳도 다수 존재한다. 18세기에 이르러서 관요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되었는데, 18세기 초 무렵에는 우천강변

1

2

1. 광주 조선백자 요지 전경, 2016. 광주시
2. 광주 조선백자 요지 가마터, 2015. 광주시



의 금사리에 약 30여 년간 정착되었다가 1752년(영조28) 남종면 분원리로 이전되어 1884년(고종21) 민영화되기 전까지 운영되었다.

15세기에 운영되었던 초기의 번천리, 도마리, 무갸리, 우산리, 오전리 요지에서는 정교한 상품上品의 백자와 청화백자편이 수집되는 한편, 질과 제작기술이 좋지 못한 백자도 많이 발견된다. 번천리 9호에서는 ‘천지현황天地玄黃’ 명문이 새겨진 백자 파편과 갑발이 발견되었고, 인접한 5호에서는 명문이나 갑발은 출토되지 않고 포개구이하는 등 상대적으로 조질의 백자가 생산된 것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초기의 관요는 왕실에서 사용하기 위한 양질백자를 제작하는 가마를 중심으로 관청 및 사대부들이 사용하기 위한 조질백자를 제작하는 여러 개의 가마를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16세기 중엽부터 말에 이르기까지 백자를 생산한 가마는 관음리, 대쌍령리, 도수리, 정지리 등에 설치되었다. 이 곳에서는 ‘별別’·‘좌左’·‘우右’ 등 명문을 새긴 굽다리 조각과 다양한 기형의 백자가 출토되었다. 17세기에 ‘간지좌干支左’·‘간지우干支右’·‘간지별干支別’ 등의 명문이 새겨져 있어 제작시기와 장소, 가마의 변천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간지가 있는 백

자와 함께 청화백자, 철화백자鐵繪白瓷, 청자가 출토되었는데, 모두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이고, 구연은 약간 외반하며 유색은 회백·청백을 띤다. 특히 선동리 2호 가마에서는 1640년부터 1649년까지 10년에 걸친 간지가 적힌 백자 파편이 다수 출토되어 관요를 10년 주기로 이설했다는 문헌기록을 입증하였다.

18세기부터 19세기까지 운영된 요지는 18세기 초의 오향리 요지와 1721년경부터 1752년까지 운영된 금사리 요지가 있다. 이 두 요지에서 제작된 백자는 가는 모래받침의 수직굽으로 약간 푸른색이 감도는 설백의 유색에 빙렬이 많이 나 있다. 특히 금사리 요지에서는 각이 있는 병, 제기와 우수한 청화백자가 많이 출토되어 분원리 요지와 함께 매우 중요한 곳으로 평가된다.

분원리 요지는 1752년부터 1884년 민영화되기 전까지 운영된 곳으로 오늘날 남겨진 대부분의 백자와 청화백자는 이 곳에서 제작되었다. 대체로 초기 제작품은 금사리요지와 비슷한 푸르스름한 백자이며, 문방구·제기·병·호 등의 기종이 많이 제작되었다. 분원리 요지는 조선시대 후기의 가장 큰 규모의 요지로서 도자사 연구의 중요한 유적이나 일제강점기에 그 자리에 학교가 들어서면서 파괴되었다.



사적 제323호

파주 윤관장군묘

坡州 尹瓘將軍墓

고려시대

일원

단분, 호석, 석상, 향로석, 장명등, 망주석2, 동자석2, 문인석(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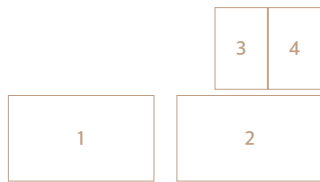
문인석(신)2, 무인석2, 석양2, 석마2, 묘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산4-1

지정일 : 1988.02.27

소유자 : 파평윤씨 종중(사유)

관리자 : 파주시



- 1. 파주 윤관장군묘,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2. 재실,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3. 문인석(좌),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4. 망주석(우),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파주 윤관장군묘>는 고려시대 문신 윤관尹瓘(?~1111)의 묘이다. 윤관의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동현同玄, 고려 태조太祖를 도운 삼한공신三韓功臣 윤신달尹莘達의 현손으로 아버지는 검교소부소감檢校小府少監을 지낸 윤집형尹執衡이다. 문종文宗 때 문과에 급제하여 습유拾遺·보궐補闕 등 여러 관직을 거쳤으며, 1095년(숙종1)에는 좌사낭중佐司郎中으로 요나라에 파견되어 숙종의 즉위를 알리기도 하였다. 1104년(숙종9)에는 동북면행영도통東北面行營都統이 되어 국경을 침입한 여진을 제압하기 위해 북방에 진출했으나 강한 기병騎兵을 이끄는 여진에게 패배하였다. 이후 여진정벌을 위해 별무반別武班을 편성하여 훈련하였고, 1107년(예종2) 천리장성 동북방으로 출진하여 여진과의 전투마다 대승을 거두었다. 이때 탈환한 각지에는 장수들을 보내고 경계비를 세워 국토를 확정하였으며 9성을 축조하였다.

『영조실록』에 따르면 윤관의 묘는 오래전에 실전失傳되었지만 그 묘 자리가 후손들에게 전해내려 왔다고 한다. 그런데 윤관의 묘지에 심지원의 묘가 조성되었고, 윤관의 후손들은 윤관의 묘갈墓碣 파편을 증거로 심지원의 후손들과 산송山訟을 벌이게 된다. 1764년(영조 40) 두 집안의 산송이 격해지자 영조는 양쪽을 모두 만류하여 묘를 새로 조성하고 똑같이 치제致祭하였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현재 윤관 장군묘의 묘역에는 최근에 조성된 곡장 아래로 원형의 호석을 두른 봉분이 있다. 봉분 앞에는 상석, 향로석, 장명등이 놓여 있고, 좌우측에는 망주석, 동자상, 문인석, 석양, 석마 각 1쌍과 문인석 2쌍이 배치되어 있으며, 좌측에는 묘비가 세워져 있다. 묘비는 1766년(영조42)에 세워진 것으로 묘소를 찾게 된 경위가 기록되어 있다. 석물 가운데 묘비와 호석, 망주석, 문인석 1쌍만 오래된 것이고, 나머지는 후대에 묘역을 정비하면서 새로 추가하여 설치한 것이다.



사적 제329호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

龍仁 西里 高麗白磁 窯址

고려시대

일원

지정구역 - 18,979.4㎡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23-11

지정일 : 1989.01.14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용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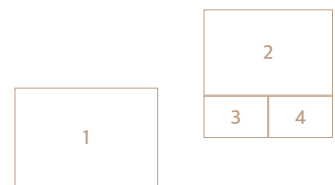
<용인 서리 고려백자요지>는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에 있는 고려시대의 백자 가마터이다. 용인서리의 요지는 중덕마을과 상반마을 두 곳에 나뉘어 있는데, 사적으로 지정된 것은 중덕마을 요지이다.

서리 중덕마을에 위치한 고려백자요지는 1930년대 일본인 도자사 학자인 아사카와淺川伯教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1960년대에 정양모 선생이 고려초기요지임을 재차 확인하면서 학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 요지는 호암미술관이 1984년, 1987년, 1988년 세 차례에 걸쳐 발굴조사하였으며, 건물지와 가마유구, 퇴적층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발굴조사전 중덕 고려백자 요지는 갑발匣鉢, 갑발받침, 가마벽체, 도자기 파편 등 폐기물이 퇴적된 길이 80m, 폭 50m, 높이 5m의 2개의 거대한 구릉이 'M'자형을 이루고 있었고, 요지는 이 퇴적구堆積丘의 양쪽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요지는 13도의 경사면에 축조된 등요登窯로 하층에는 벽돌가마, 상층에 진흙가마가 중첩된 상태로 초기에는 벽돌가마를 사용하다가 이후 그 위에 진흙가마를 축조하여 사용하였다. 하층의 벽돌가마는 길이 약 40m, 너비 1.8m로 7×15×32cm에 달하는 장방형의 벽돌을 사용하여 축조하였고, 그 위에 개축한 진흙가마는 길이 83m, 너비 1.2-1.5m에 달하는 대형으로 진흙과 갑발을 사용하여 축조하였으며, 측면출입구가 23개소 확인되었다.





이 중덕 고려백자 요지는 우리나라 최초로 알려진 벽돌가마이고 진흙가마로는 최대 규모이며 발굴조사에서 4개의 자연층위를 확인하여 우리나라 자기의 발생 및 변화과정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자료를 확보하였다. 출토유물은 주류를 이루는 완盪을 비롯해서 발鉢, 화형접시花形接匙, 합盒, 제기祭器, 유병油瓶, 향완香盪 등이 있으며 갑발과 가마 부속 도구 등도 다량 출토되었다. 퇴적층의 유물출토 상황으로 보면 처음에는 청자를 굽는 가마에서 백자를 같이 굽게 되고 이어 백자만 굽는 가마로 변화하며, 우리나라 청자나 백자의 가장 이른 굽형식으로 알려진 해무리굽보다 더 이른 시기의 선해무리굽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중덕 고려백자 요지는 도자사 연구에 있어서 고려백자의 발생과 전개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으로 가마의 운영시기는 10세기 중반부터 11세기 전반까지로 추정하고 있다.



1.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1980년대. 호암미술관
3. 전축요와 토축요, 1980년대. 호암미술관
4. 토축요와 갑발, 1980년대. 호암미술관

사적 제342호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

軍浦 山本洞 朝鮮白磁 窯址

조선시대
일원
지정구역 - 2,348㎡
군포시 산본동 1057-4

지정일 : 1991.01.09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군포시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요지>는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에 위치한 조선시대 가마터이다. 이 유적은 산본지역 택지개발 조성계획에 따라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지표조사 당시 인근의 당성사 주지스님의 제보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백자파편과 가마의 폐기물들이 퇴적되어 있었다.

발굴조사는 1990년 7월에 실시되었으며, 조사는 크게 층위 확인 및 퇴적층 확인을 위한 트렌치, 가마, 작업장 조사의 세 부분으로 나뉘었다. 퇴적층 조사는 구릉의 정상부를 기점으로 하여 동서방향으로 트렌치를 설정하였는데, 조사결과 퇴적층은 가마유구 주위에 집중적으로 쌓여있었고, 주변으로는 거의 없었다.

가마는 사용시기의 선후관계에 따라 봉통부만 남아있는 앞선 시기의 가마를 A가마로, 거의 완벽하게 유구가 노출된 남서지역의 뒷 시기 가마를 B가마로 구분하였다. A가마는 정상부에 위치하여 퇴적의 유실이 심하였고, 이후에 작업장이 설치되었기 때문인지 가마 앞쪽의 바닥면과 2기의 봉통부 극히 일부만 남아있었고, B가마는 구릉의 경사면을 이용하여 구지표면을 약 30cm 정도 파고 구축한 반지하식이며 칸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가마벽은 진흙을 이용하여 쌓았는데, 벽두께는 약 5cm로 앞의 3cm 가량이 유리질화되어 있고 뒤쪽은 빨갭게 익어 있으며, 가마벽에는 사용 전에 미리 백토를 귀얄에 묻혀 전체를 바른 듯 귀얄자국이 뚜렷하다. 외벽의 두께는 약 30~35cm 정도로, 외벽측조는 분명하지 않으나 일부 내벽에 잇대어 돌을 쌓아 보강한 흔적이 남아 있다.

작업장은 A가마 운용 시 사용된 곳과 B가마 운용 시 사용된 구릉 위쪽의 작업장 등 두 곳이 확인되었다. A가마 작업장은 유실이 심하여 명확한 유구파악이 힘들지만 백토가 얇게 깔린 바닥면과 고래시설이 확인되었다. B가마 작업장은 A가마 북서방향 위쪽에 위치하며 A가마 폐기 후 퇴적층을 파서 만들었다. 백토 건조용 온돌시설과 아궁이 등이 발견되었다.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 전경,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출토유물은 대부분 백자류로 기형은 발鉢과 접시류가 많고, 이외에 청화백자편·철화백자편·청자·분청사기·토기류 등이 극소량 출토되었다. A가마에서는 연질의 백자류와 청자편이 많이 출토되었으며 태토빛음받침에도 작은 것들이 많다. B가마에서는 기형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연질계 백자는 전혀 없고 푸른색이나 회색을 띠는 경질의 백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태토빛음받침도 굵은 편이다.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는 한 유적에서 시기와 방향, 위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가마유구가 공존하고 있고, 봉통부 축조에 돌과 진흙을 섞어 사용한 점, 봉통 높이가 1m 이상인 점, 가마벽에 유약을 발라 보열保熱 효과를 높인 점 등 조선 전기 가마구조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서 주목되며, 특히 선후관계가 뚜렷한 두 개의 퇴적층이 조사되어 조선 전기 백자의 변천 연구에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B가마 부근에서 확인된 청화백자는 광주 관요 이외의 지역에서 청화백자가 확인된 최초의 사례이다. 이 가마에서 출토된 청화백자는 소량이지만 지방 가마가 중앙 관요의 영향 아래 청화백자를 제조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게 하여 도자사적으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적 제351호

파주 오두산성

坡州 烏頭山城

삼국시대
일원
둘레 620m
지정구역 - 463,890㎡
석성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산86 외

지정일 : 1991.08.24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파주시

<파주 오두산성>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백제시대의 산성이다.

오두산성은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고려와 조선시대까지 사용되었다. 이 지역은 임진강과 한강이 합류하는 지점이며, 한강이나 임진강을 따라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다. 오두산성은 검단산 기슭과 접해 있고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서쪽은 한강 너머 김포, 남쪽은 탄현면 일대, 북쪽은 임진강 너머 개풍군 장단면 일대가 조망된다. 오두산성은 남쪽의 최고봉을 중심으로 한 봉우리와 북쪽으로 이어지는 줄기의 정상부와 8부 능선을 따라 퇴피식으로 축조하였다. 오두산성의 명칭은 문헌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조두성鳥頭城으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오두산성鷲頭山城으로, 『세종실록』 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오조성烏鳥城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으로는 오두산성의 위치와 지형이 유사하여 「광개토왕릉비廣開土王陵碑」와 『삼국사기三國史記』 백제본기百濟本記에 등장하는 백제 관미성關彌城으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

오두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통일동산 조성 사업에 따라 1990년 지표조사, 1991년 발굴조사를 시작으로 2006년과 2007년에 정비사업으로 추가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2007년에는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해 내성과 외성으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으며, 현재 통일전망대가 위치한 북쪽 봉우리를 기점으로 삼각형인 외성 내부에 내성이 포개진 형태이다. 규모는 외성이 둘레 1,228m, 동서 320m, 남북 380m이고, 내성이 둘레 1,240m, 동서 320m, 남북 280m이며, 평면 형태는 성벽이 동남쪽으로 향한 3개의 능선을 따라 감아 돌고 있어 새의 발 모양이다.



- 1. 파주 오두산성, 2006_ 파주시
- 2. 파주 오두산성,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3. 파주 오두산성 세부, 2006_ 파주시





성벽의 축조방식을 외성과 내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외성은 동벽·서벽·북벽으로 나뉜다. 동벽은 정상부에서 동남쪽으로 시작되는 2개의 계곡을 가로지르며 축조되었고, 서벽은 강안과 접하는 능선을 따라, 북벽은 정상부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능선 사면에 축조되었다. 외성의 동벽은 석축성벽과 토축성벽이 확인되는데 석축성벽은 계곡사면에, 토축성벽은 추정 문지 측면에 남아있다. 석축성벽은 높이 4m의 기저 암반 위에 축조하였다. 서벽은 300m 정도 통일전망대 서쪽 축대부분과 일치하고, 강안 절벽과 접해 있으며, 북벽은 오두산 정상에서 동쪽으로 흘러내리는 능선의 북쪽 사면을 따라 축조되었다. 내성은 외성의 북벽 회절점에서 남쪽으로 280m 지점까지를 서벽으로, 동벽은 동남쪽으로 흐르는 2개의 계곡 상부를 따라 축조되었다. 동벽은 산성 내 아스팔트길 포장 등으로 훼손되거나 복토되어 그 원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성벽의 높이는 3.5~4m, 폭은 5m 정도이다.

성내 시설물은 추정 수구지 및 문지 2개소, 건물지 7개소, 우물지 1개소, 산성 밖 유물 산포지 1개소가 확인되었다. 추정수구지 및 문지는 외성의 남벽 중에서 가장 낮은 곳, 계곡의 바닥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지는 외성에 2개소, 내성에 5개소 확인되며, 외성은 수구지와 인접한 곳에, 내성은 능선 상면을 따라 조성되어 있다. 우물은 해발고도가 낮은 동벽에 접해 있다.

유물은 대호 경부·동체부편 등 토기류와 기와, 방추차, 철촉 등이 출토되었다. 동체부편에는 제작처에서 병 30개를 납입했음을 뜻하는 ‘병삼십입甁三十八’라는 명문銘文이 있다. 기와는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상초上草·초하草下·천정泉井 등의 명문와가 확인된다. 오두산성은 통일전망대 이외의 지역은 군사시설이어서 접근이 제한되어 있다.

사적 제352호

하남 동사지

河南 桐寺址

삼국시대
일원
지정구역 - 44,587㎡
하남시 춘궁동 456 외

지정일 : 1991.08.24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하남시

<하남 동사지>는 하남시 춘궁동 고골저수지와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는 절터이다. 지정 당시 명칭은 ‘하남 춘궁동동사지’였으나 2011년 7월 28일 ‘하남 동사지’로 변경되었다. 사역일대에는 1963년에 지정된 동사지오층석탑(보물 제12호), 동사지삼층석탑(보물 제13호)이 위치해 있고 현재 사찰(대원사)의 법당이 조성되어 있다.

동사지는 1988년 판교-구리간 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의 일환으로 동국대학교박물관이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4개구역에서 건물지를 확인하였고, ‘동사’同寺(桐寺)라는 글자가 새겨진 명문銘文기와가 출토되었다. 문헌에서는 ‘동사’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통일신라말~고려초에 창건되어 조선 전기까지 거대한 규모로 유지되다가 이후 폐사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발굴조사는 1,2,3,4사지로 구분하고 건물지와 건물의 규모를 확인하였는데 건물지가 중첩된 부분과 현재의 법당이 위치한 곳은 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제1사지는 절터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삼층석탑과 오층석탑이 조성되어 있고, 금당지金堂址를 포함하여 3기의 건물지가 확인되었다. 금당지는 현재의 법당과 맞물려 있어 일부 살펴볼 수 밖에 없는데 남아있는 초석으로 어칸 너비가 6.3m인 정면 7칸(28.9m), 측면 6칸(20.8m) 건물로 기단부의 규모가 정면 34.3m, 측면 26.3m나 되는 대형 건물지임이 밝혀졌다. 특히 금당지 내부에서 불상대좌佛像臺座의 기단부로 파악되는 팔각구조물八角構造物이 확인되었다.





팔각구조물은 장대석長臺石으로 조성되었으며, 중앙부에 한 변의 길이가 2.1m인 심초석心礎石이 놓여있고 심초석의 중심에는 원형 구멍이 뚫여 있다. 3기의 건물지는 회랑回廊, 승방지僧房址 등으로 추정된다. 제2사지는 제1사지 아래에 위치하며 배밭으로 조성되어 파괴가 심하여 건물지 일부와 기와, 토기편, 자기편, 저울추 등이 확인되었으며, 제1사지보다 시기적으로 앞서는 기와편들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백제시대의 옛 절터일 가능성이 크다.

제3사지는 현재 법당의 오른쪽 산자락 마애불磨崖佛이 위치한 곳으로 1987년 금동불상金銅佛像 2구가 발견되었으며, 발굴조사에 계단지와 고식 기와편들이 많이 확인되었다. 석탑 동쪽 순환고속도로변 언덕에 길게 형성된 제4사지는 원형圓形 초석들이 남아 있다. 1~3사지는 하나의 사역으로 추정되며, 1971년 병·완·화로·향로·접시·발·잔·대야 등 약 200여 점의 청동불구류靑銅佛具類들이 도굴되었다가 국가에 귀속되어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발굴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은 기와가 대부분이고 전塼·소조불상편塑佛像片과 소조나발塑彫螺髮·토기 및 자기편·철못 등이 있다. 기와는 막새·평기와·명문기와·귀면와鬼面瓦·연목기와가 있으며, 막새의 문양은 화문·당초문·연화문·봉황문 등이 있다. 봉황문 수막새는 두 마리의 봉황이 서로 대칭으로 마주 보고 있는데, 긴 부리에 'S'자형 몸체, 큼직한 날개와 긴 꼬리를 하여 비교적 세련된 모습을 보여준다. 입에는 해바라기 모

양의 꽃을 물고 있으며, 발밑과 머리 위쪽으로는 넝쿨 꽃을 표현하였는데 주위로 구름 모양의 꽃무늬를 둘러 뒤 테두리를 둘러 화려함과 함께 경직된 면은 보인다. 수막새의 연화문은 5엽·8엽·12엽 복판연꽃화문과 8엽·10엽 단판연화문 나누어진 다. 서까래 끝부분 마구리에 다는 연목기와는 금당지에서 출토된 것으로 자방부가 큼직한데 비해 꽃잎이 상대적으로 작고 표면에는 녹색계통의 유약이 산화된 채 남아 있다. 암·수평기와는 많은 종류가 발견되었는데, 암기와와 경우 대개 두껍고 어골문魚骨紋과 빗살문이 주를 이룬다. 흙으로 구워 만든 소조불상편과 소조나발은 금당지 팔각구조물과 제1사지 2건물지 축대 주변에서 집중 출토되었는데 나발의 크기가 크고 주먹코인 것으로 보아 금당에 모셨던 본존불상은 대형이었음이 짐작된다.



1. 하남 동사지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서쪽에서 본 팔각대지, 1988. 하남역사박물관
3. 동사지 출토 동사 '瘡' 명기와, 2012. 하남역사박물관
4. 동사지 출토 연화문막새, 2012. 하남역사박물관

사적 제356호

남양주 순강원

南楊州 順康園

조선시대(1613년, 1755년)

일원

단분, 호석, 석상, 향로석, 장명등, 망주석2, 문인석2, 동자석2, 석양2,

석호2, 석마2, 묘표1, 표석1, 신도비1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2로 84-31

지정일 : 1991.10.25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남양주 순강원>은 조선 선조의 후궁이자 추존 원종元宗의 생모인 인빈김씨仁嬪金氏(1555~1613)의 무덤이다.

인빈김씨의 본관은 수원水原이며 김한우金漢佑의 딸이다. 외사촌 언니이자 명종의 후궁인 경빈이씨慶嬪李氏가 김씨를 데려다가 궁중에서 양육했는데, 명종의 비인 인순왕후仁順王后的 눈에 들어 1573년(선조6) 숙원에 책봉되었다. 이후 소용, 숙의, 귀인을 거쳐 1604년(선조37) 인빈에 책봉되었다. 선조 승하 후 사저로 나가 살다가 1613년(광해군5) 59세로 사망하여 현재의 위치에 안장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손자 능양군이 왕위에 오르며 왕의 조모가 되었으며 1632년(인조10) 셋째 아들 정원군이 원종으로 추존되며 왕의 사친私親이 되었으나, 왕의 사친으로의 추존제도 성립 이전이라 1636년(인조14) 신도비를 세우는 것으로 인빈 추존은 종결되었다. 이후 1755년(영조31) 앞서 추송된 영조의 생모 숙빈최씨의 격에 맞추어 시호를 경혜敬惠, 궁을 저경궁儲慶宮, 묘를 원으로 높여 순강원으로 정하였다. 위패는 칠궁七宮 내 저경궁에 봉안되었다.

순강원의 봉분 구조는 단분이며, 원형 호석을 설치하고 주변으로 3면의 곡장을 둘렀다. 봉분 앞에는 묘표, 석상 등을 설치하였다. 처음의 묘호는 인빈묘로, 석수 없이 동자석이 배치된 일반 후궁의 묘로 조성되었다. 현재의 모습처럼 단장한 것은 1755년 영조가 원으로 추봉할 때인데, 기존에 없던 석양, 석호, 석마와 봉원 비석을 추가 설치했으며 구舊 표석과 석물은 소령원昭寧園의 예에 따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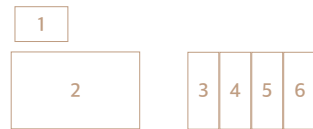


대부분 석물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나, 석상은 1684년(숙종10) 파손되어 새로 제작한 것이다. 파손된 원래 석상은 동쪽 문인석과 망주석 사이에 옮겨놓고 주준석酒樽石이나 배설석排設石처럼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족석과 향로석은 17세기의 양식으로 이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향로석은 왕릉이나 원소園所에 사용되지 않는 석물로, 순강원이 처음 조성될 때 원이 아닌 일반 묘제에 따라 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장명등과 문인석, 동자석 또한 17세기 전반 일반 사대부묘에서 주로 찾을 수 있는 형태로, 순강원이 왕과 세자보다 격을 낮추어 사대부묘에 준하여 제작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특히 동자석은 16세기 초반부터 조성되어 18세기까지 한시적으로만 만들어진 석물유형으로, 그 중에서도 순강원 동자석은 묘주를 모시고 향을 피워 사자를 공양하는 모습을 우수한 조각솜씨로 형상화한 수작이다. 석수石獸는 1755년 원으로 추방한 이후 추가로 설치된 석물이며, 18세기 중엽의 사실주의 양식을 잘 반영한다. 순강원의 석수 조각은 의령원懿寧園(의소세손), 은릉(단경왕후), 흥릉(정성왕후), 명릉(인원왕후)과 양식적으로 유사하며, 18세기 중엽 활동한 석물 장인집단의 활동을 증명하는 중요한 작품이다. 비석은 총 3기로, 1613년 인빈 사망 후 곧바로 세운 묘표 1기, 1636년에 세운 신도비 1기,

1755년에 세운 원표 1기가 있다. 봉분 바로 앞에 있는 묘표는 현재 방부개석方趺蓋石 양식을 갖추고 있지만 원래는 개석이 없는 방부원수方趺圓首 양식으로 1755년 원표를 세울 때 기존의 묘표 위에 팔작지붕 형태의 개석을 추가로 얹은 것이다.

1636년에 세운 신도비는 순강원 입구의 비각에 안치되어 있다. 신평군新豐君 장유張維(1587-1638)의 글에 인빈김씨의 아들인 의창군義昌君 이광李珖(1589-1645)이 글씨를 쓰고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1588-1644)이 전액을 썼다. 비신 우측면 서두에 비문의 제목을 기록하고 그 옆줄에 의창군 이광, 동양위 신익성, 신평군 장유의 이름을 나란히 열거하였다. 찬자撰者를 먼저 적은 후 서자書者, 전자篆者를 밝히는 일반적인 표기법과 달리 인빈김씨 신도비는 서자, 전자, 찬자의 순으로 표기한 것이 주목되는데, 의창군은 왕자이고 신익성은 왕의 사위, 장유는 공신이므로 각자의 신분의 고하에 따라 순서를 정한 것이다. 순강원표는 영조가 직접 비석에 새길 글을 짓고 글씨를 썼다. 1753년(영조29)에 세운 소령원昭寧園表와 양식이나 형식이 거의 같아 이에 준하여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1. 순강원 전경, 2018. 경기도지적연구원
 2. 순강원(선조 후궁 인빈김씨),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문인석(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5. 동자석(좌·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6. 망주석,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357호

광명 영회원

光明 永懷園

조선시대(1646년, 1719년, 1870년)

일원

단분, 석상, 장명등, 문인석2, 석양2, 석호2, 석마2

광명시 노은사동 산 141-20

지정일 : 1991.10.25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광명 영회원>은 조선 인조의 맏아들인 소현세자昭顯世子的 비 민회빈강씨愍懷嬪姜氏(1611~1646)의 무덤이다.

민회빈강씨의 본관은 금천衿川으로, 우의정 강석기姜碩期的 딸이다. 1627년(인조5) 12월에 세자와 가례嘉禮를 올리며 왕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병자호란 이듬해인 1637년 남편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 심양瀋陽에 볼모로 가게 되었다. 소현세자는 심양에 머무는 동안 청의 고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청적親淸的 입장을 취하였다. 이로 인해 인조는 청이 자신을 폐하고 소현세자를 즉위시키지 않을까 의심하게 되었고, 1643년(인조21) 부친의 사망으로 잠시 귀국한 세자빈의 왕곡住哭을 막고 돌아가게 하기도 했다. 1645년(인조23) 2월에 소현세자와 함께 귀국하였지만, 두 달 후에 소현세자가 급작스럽게 사망하였다. 이후 민회빈강씨는 인조의 후궁인 소용조씨昭容趙氏의 모함으로 조씨 저주사건의 주모자 및 임금의 음식에 독약을 넣었다는 죄목을 받아 후원 별당에 유폐되었다가 친정으로 내쫓겼으며, 결국 1646년(인조24) 3월 15일에 폐위되어 사사賜死되었다. 가족들과 노비들은 장살杖殺되었고 어린 세 아들은 제주로 유배되었다가 그 중 둘은 병으로 사망하였다. 1718년(숙종44)에 무혐의가 인정되어 복위되고 ‘민회’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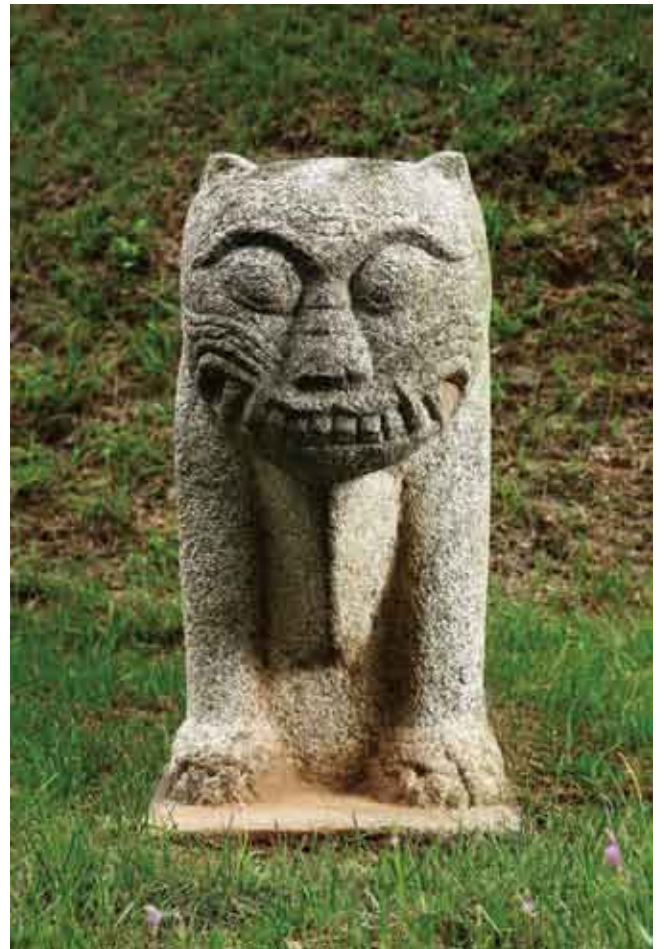


영회원은 원園 중에서 유일하게 복위된 무덤이자 유일하게 남편의 무덤과 떨어져 한강 이남에 조성된 무덤이다. 1646년 폐세자빈의 신분으로 세상을 떠나 친정인 금천 강씨 묘역에 묘를 조성했다가 1718년 복위 후 세자빈묘의 형식에 맞게 묘를 새롭게 조성하였다. 1870년(고종7)에 묘를 원으로 격상시키며 영회원으로 개칭하였다. 능침에는 곡장을 두르고 문인석, 장명등, 혼유석, 석양 1쌍, 석호 1쌍, 석마 1쌍을 배치하였다. 영회원의 석물은 다른 왕릉이나 원묘 석물의 석재에 비해 색이 밝고 푸른빛이 나며, 돌의 결정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석물 종류는 소경원昭慶園(소현세자)을 따랐으나, 형태는 18세기 당시의 양식을 반영해 제작되어 장명등은 소경원과 달리 8각이 아닌 4각으로 제작되었다.

문인석은 복두공복幞頭公服을 갖춘 집홀관복형執笏冠服形이다. 평면적이면서 형식화된 17세기 말의 양식을 계승하면서 부분적으로는 현실의 장식요소를 반영하기 시작하는 18세기 중기 이후 사실주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석수는 석양, 석호, 석마를 각 1쌍씩 조성하였다. 대체로 평면적이고 도식화된 17세기 초반의 양식으로 표현하였으나, 석호의 경우 민화풍의 호랑이 얼굴을 구현하여 호랑이의 위엄과 벽사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이 특징이다.



1. 영회원(소현세자비 민회빈 강씨),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2. 장명등,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3. 석호, 2012.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적 제358호

파주 소령원

坡州 昭寧園

조선시대(1718년, 1753년)

일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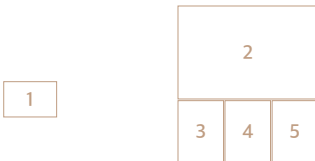
단분, 석상, 향로석, 장명등, 망주석2, 문인석2, 석양2, 석호2, 석마2, 묘표1, 표석2, 신도비1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지정일 : 1991.10.25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1. 소령원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소령원(숙종 후궁 숙빈최씨),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문인석(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묘표,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장명등,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파주 소령원>은 조선 숙종의 후궁이자 영조의 생모인 숙빈최씨淑嬪崔氏(1670~1718)의 무덤이다.

숙빈최씨의 본관은 해주海州이며, 영의정에 추증된 최효원崔孝元의 딸이다. 1676년(숙종2) 7세의 나이 궁녀로 입궁하여 1693년(숙종19) 숙종의 후궁이 되었다. 그해 아들 영수군永壽君을 낳았으나 영수군은 두 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1694년(숙종20) 연잉군을 낳았다. 그해에 숙의淑儀가 되었으며, 1695년(숙종21) 귀인貴人을 거쳐 1699년(숙종25) 숙빈이 되었다. 1718년(숙종44) 사망하여 양주楊州 고령洞高嶺洞 웅장리瓮場里에 묘소가 마련되었다. 영조 즉위 후 17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송되었다. 1725년(영조1) 신도비를 세우고, 1744년(영조20) 묘호廟號를 ‘육상’, 묘호墓號를 ‘소령’이라고 했다. 그 후 1753년(영조29) ‘화경和敬’의 시호를 받고, 묘廟는 궁宮, 묘墓는 원園으로 승격되었다.

소령원은 현전하는 원園 중에서 가장 먼저 원으로 추송한 사친의 무덤으로 원제 형식의 기본 체제를 구축한 무덤이다.

봉분 뒤로 곡장을 돌렸고 호석과 난간석은 설치하지 않았다. 석상의 앞쪽은 두 개의 축석이 받치고 있고 뒤쪽은 계체석 위에 걸쳐져 있으며, 앞쪽에는 봉분의 좌향인 ‘묘향卯向’이 크게 각자되어 있다.

장명등은 4각형으로 옥개석은 십자각 형태로 조각되었으며 체석의 상대에는 화문, 하대에는 운족이 명확하게 조각된 18세기 초 작품이다. 상대 앞·뒤에는 연꽃 두 송이, 좌우에는 모란으로 추정되는 꽃들을 한 송이씩 조각했는데, 한쪽에 두 송이를 조각한 것은 매우 특별한 예이다. 또한 중대에는 안상眼象을 조각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소령원 장명등은 구름을 조각한 점 역시 독특하다.

문인석은 숙종 이후의 석물 간소화 경향을 반영하여 규모가 작다. 형태는 금관조복金冠朝服을 갖춘 집흉관복형執笏冠服形으로 18세기 중반 왕릉에서는 제작되지 않는 형태라 1718년 묘를 조성할 때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작은 규모에 신체는 불안정하고 표현은 평면적이지만, 관복표현은 사실적이고 세밀하여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 사이의 과도기적 특징을 보여준다.

석수는 1753년에 추가제작한 것으로 18세기 중반 주요 석물장인들이 제작했다. 사실적이고 정교하여 조각의 완성도가 높아 조선왕실 능원 석수의 수작으로 불릴 만하다.

비석은 1718년 숙빈 최씨 사후에 바로 세운 묘표를 비롯하여 1725년 건립한 신도비와 1744년 숙빈 최씨의 묘호를 ‘소령’으로 격상시키며 세운 소령묘갈, 그리고 1753년 숙빈 최씨가 후궁에 봉작된지 60년이 되는 해를 기념하여 원으로 승격시키면서 입석한 소령원표 등 총 4기가 있다. 영조는 비석 건립에 왕실 관련 인물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사친의 체면을 세웠다. 능원묘陵園墓에서 소령원처럼 비석 4기를 한 곳에 세운 예가 없어 능원묘 비석 연구의 희귀 사례로서 주목된다.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坡州 綏吉園

조선시대(1721년, 1778년)

일원

단분, 석상, 장명등, 망주석2, 문인석2, 묘표1
파주시 광탄면 소령원길 41-65

지정일 : 1991.10.25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서부지구관리소

<파주 수길원>은 조선 영조의 후궁이며 추존 진종眞宗의 생모인 정빈이씨靖嬪李氏(1694~1721)의 무덤이다.

정빈이씨는 좌찬성 이준철李俊哲의 딸로 1694년(숙종20)에 태어났다. 1701년(숙종27)에 8세로 입궁했고, 1719년(숙종45) 영조의 첫째 아들 효장세자를 낳았다. 경종 즉위 후 영조가 왕세제로 책봉되며 소훈昭訓이 되었으나 책봉 석 달 후인 1721년(경종1) 28세로 세상을 떠났다. 영조 즉위 후 소원昭媛에 추증되었으며 1725년(영조1)에 아들이 왕세자로 책봉되자 정빈에 추존되었다.

수길원은 처음에는 묘로 조성되었으나 정조 즉위 후 효장세자가 진종으로 추존되자 1778년(정조2)에 왕의 생모로 추존되어 원으로 승격되었으며, 시호는 '온희溫禧', 공호는 '연호延祜', 원호를 '수길'로 추봉되었다. 위패는 칠궁七宮 내 연우궁 연호궁延祜宮에 봉안되었다. 봉분은 단분으로 난간석이나 호석없이 곡장만 설치하였다. 사망 당시 신분이 왕세제의 후실인 종5품 소훈昭訓이었고, 영조 즉위 후에도 장명등과 곡장 이외의 석물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석물은 매우 간소하다. 현재 정자각, 수복방, 수라간은 소실되어 터만 남아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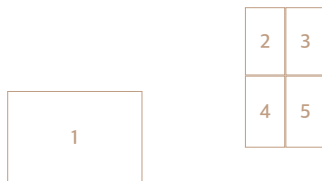
석상 앞면에 ‘口向’이라는 글자를 새겼는데, 앞 글씨는 총탄에 의해 파손되었으나 수길원 봉분 배치로 보아 곤坤으로 짐작한다. 이처럼 묘소의 좌향을 석물에 새기는 것은 영조와 관련된 묘소에 특히 많이 남아있다.

수길원의 망주석은 대체로 몸체와 대석을 분리해 제작하는 것과 달리 크기도 작고 대석과 일체형으로 제작되었다. 장명등은 4각형으로, 옥개석은 십자각 형태로 조각되었으며 체석의 상대에는 화문, 하대에는 호족虎足 형태의 운족이 명확하게 조각된 18세기 초 작품이다.

문인석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갖춘 집홀관복형執笏冠服形으로 작은 규모에 신체비례는 불안정하고 표현은 평면적이지만, 관복표현은 사실적이고 세밀하여 17세기 후반, 18세기 전반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동쪽 문인석의 흉배에는 구름에 가려진 해 문양, 서쪽 문인석의 흉배에는 파도 위로 날개를 펼친 단학문을 조각하는 등 동·서 문인석의 흉배 문양을 서로 다르게 조각한 점, 복식의 구성요소를 다양화하여 장식성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조복에는 착용하지 않는 흉배, 무, 야대 등이 표현되어 있는 점이 특이하다.

봉분 앞에 세워진 방부개석형方趺蓋石形 묘표는 오석 재질의 비석 전면에 두 줄로 ‘대한大韓 온희정빈溫僖靖嬪 수길원綏吉園’이라고 새겼다. 후면에는 정빈이씨의 생애를 약술한 10행의 음기가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래 1725년 영조가 건립한 어제어필製御筆 묘표가 있었으나 마모되자 1909년 비신만 바꾸어 글을 그대로 옮겨 새겼다고 한다.

수길원은 유사한 시기, 근접한 장소에 제작된 ‘소령원’과 양식이 매우 비슷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1. 수길원(영조 후궁 정빈이씨),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장명등,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묘표,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문인석(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문인석(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360호

남양주 휘경원

南楊州 徽慶園

조선시대(186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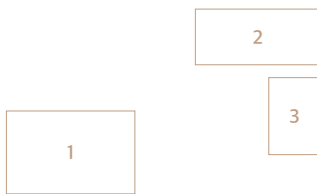
일원

단분, 호석, 석상, 장명등, 망주석2, 문인석2, 석양2, 석호2, 석마2, 표석1
남양주시진접읍부평리267

지정일 : 1991.10.25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1·2. 휘경원(정조 후궁 유비박씨),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3. 망주석,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남양주 휘경원>은 조선 정조의 후궁이자 순조의 생모인 유비박씨* 綏嬪朴氏(1770~1822)의 무덤이다.

유비박씨는 좌찬성 박준원朴準源과 원주 원씨原州元氏의 딸로 1770년(영조46)에 태어났다. 1787년(정조11) 후궁 간택에서 일등으로 뽑혀 유빈에 봉해지고 가순궁嘉順宮이라는 호를 받았다. 1790년(정조14) 순조, 1793년(정조17) 숙선옹주를 낳았다. 1800년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11세의 순조가 즉위하자 왕의 생모로서 예우를 받으며 살다가 1822년(순조22) 창덕궁 보경당에서 53세로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현목顯穆, 공호는 경우궁景祐宮, 원호는 휘경원이다. 1901년(광무5)에 유비綏妃로 추봉되었고, 위패는 칠궁七宮 내 경우궁에 봉안되었다. 장지는 양주군 배봉산 아래로 정했으나 1855년(철종6)과 1864년(철종14) 두 차례 천장을 거쳐 현재의 위치에 자리하게 되었다.

유비 박씨는 후궁이지만 왕의 생모이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 묘가 아닌 원으로 장례를 치렀다. 따라서 휘경원은 현존하는 원 중 처음부터 원으로 조성된 첫 번째 무덤이라고 할 수 있다.

휘경원은 유비 박씨 홀로 안장된 단분이다. 봉분은 처음 조성될 때부터 호석을 설치했는데, 왕릉 병풍석屏風石이 12면인데 반해 휘경원의 호석은 24면이다. 원의 형식에 따라 문인석은 생략하였고, 문인석, 석마, 장명등, 혼유석 등의 석물을 배치하였다.

* 綏의 음은 ‘수’ 또는 ‘유’이나, 1823년(순조23)에 작성된 <유빈박씨 진향문>에 한글로 ‘유빈’이라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유’로 기재한다.





휘경원 조성에 사용된 석물은 대부분 새로 제작하지 않고, 1789년 (정조13) 영우원永祐園(사도세자)을 현릉원으로 천장하면서 땅에 묻어두었던 상설象設을 다시 꺼내어 사용하였다. 『휘경원원소도감 의궤徽慶園園所都監儀軌』(1823)등 기록에 의하면 돌의 품질도 우수하고 조각도 아름다워 약간의 수리로도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한다. 휘경원의 석상을 받치고 있는 족석에는 사자獅를 조각하였다. 망주석 운두의 여의두는 각 면에 하나씩만 조각하였고, 운두 전체를 가득 채우는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세호細虎는 조각하지 않았다. 장명등은 18세기 후반에 제작된 장명등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규모는 기록과 실제 양상이 다른데, 휘경원 의궤에는 휘경원 장명등 개석蓋石의 높이가 3척(약 90cm), 각 면의 너비가 1척 3촌(약 39cm)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 실제 개석의 높이는 74.4cm, 너비는 79.4cm로 큰 차이가 있다.

문인석은 복두공복형幘頭公服形으로 규모는 아담한 편이나 신체 구조는 안정적이다. 신체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연결된 의복 표현과 세밀하고 선명한 얼굴 표현은 18세기 중·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사실주의 양식의 전형으로 손꼽힌다. 석수는 안정적인 신체비례를 가지고 있으며,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모습으로 제작되었다.

표석은 1823년 휘경원을 조성하면서 처음 세운 이래, 천장할 때마다 비신 후면의 내용만 고쳐 다시 세우면서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건립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2차 천장 때 세운 것으로, 비신에 찬서자를 밝히지 않았지만 의궤에 의하면 대호군大護軍 신석우申錫愚(1805~1865)가 글을 짓고 형조판서 조휘림趙徽林(1808~1874)이 글을 썼다고 한다.



사적 제363호

남양주 광해군묘

南楊州 光海君墓

조선시대(1623년, 1641년)

일원

쌍분, 석상2, 향로석2, 장명등1, 망주석2, 문인석2, 묘표2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37-4

지정일 : 1991.10.25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남양주 광해군묘>는 조선의 제15대 광해군光海君(1575~1641)과 그의 비인 문성군부인 유씨文城郡夫人柳氏(1576~1623)의 무덤이다.

광해군은 조선의 제15대 왕이자 두 번째 폐군이며, 재위기간은 1608년부터 1623년까지이다. 선조의 둘째 아들로 어머니는 공빈김씨恭嬪金氏이며, 비는 관운 유자신柳自新의 딸이다.

원비 의인왕후 박씨懿仁王后朴氏와의 소생이 없자 세자 책봉 문제로 형인 임해군과 갈등을 빚었다. 1592년(선조25)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국난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평양에서 세자로 책봉되어 국가 안위를 위해 노력하였다. 전쟁 후 선조가 영창대군永昌大君을 세자로 책봉하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 임진왜란 동안 많은 공을 세운 광해군이 대북파의 지지를 받아 1608년 왕위에 올랐다. 광해군은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은 형 임해군과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유배 후 살해하고, 인목대비仁穆大妃를 서궁西宮에 유폐하였다. 이러한 정치 행위는 서인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결국 서인 주도의 반정에 의해 1623년 폐위 당하였으며, 폐위 후 군으로 강등되어 강화로 유배되었다. 함께 유배되었던 아들 폐세자와 폐세자빈은 1623년 탈출기도 실패 후 자결하였으며, 부인 문성군부인 유씨도 같은 해 10월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이후 다시 제주도에 이배移配되어 1641년(인조19)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숙의윤씨淑儀尹氏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 전주 이씨가 광해군 사후 박징원朴徵遠(1625~1690)과 혼인하여 이들에 의해 광해군 봉사와 묘소 관리가 이루어졌다.



봉분은 광해군이 서쪽, 군부인이 동쪽에 위치한 쌍분雙墳이다. 봉분 뒤쪽으로 곡장이 있으며 상계에는 봉분과 표석, 혼유석이 놓여있고, 하계에는 석상,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 장명등이 배설되어 있다.

석상은 광해군과 문성군부인묘 앞에 각각 설치되어있으며 족석은 마모가 심해 일반적으로 고석에 사용되는 문양은 보이지 않는다. 족석 아래 지대석처럼 사용되는 대리석판은 표석과 재질이 유사해 묘 조성 시 제작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석상의 화강암 판석은 후대에 다시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향로석은 평면이 4각형으로 18세기 향로석과 유사한 형태적 특징을 보여 18세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측된다. 망주석은 대석과 주

신이 일체형이나 주신이 파손되어 접합해놓은 상태이다. 17세기 사대부묘의 망주석처럼 주신의 세호細虎를 단순하게 표현하였다.

장명등은 평면이 4각형으로 별도의 지대석 위에 세워져 있으며 상대에 조각된 모란과 연꽃이 특징적이다. 양식적으로 19세기 전반의 작품으로 추측된다.

문인석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갖춘 집홀관복형執笏冠服形으로 문성군부인의 상례 때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방부운수형方趺雲首形의 묘표는 각각의 봉분 앞에 건립되었다. 문성군부인 유씨의 묘표는 1623년경에, 광해군묘표는 1641년경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1. 광해군묘(광해군과 문성군부인 유씨),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광해군묘 묘표,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문성군부인 유씨묘 묘표,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장명등,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문인석(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364호

구리 명빈묘

九里 明嬪墓

조선시대(1479년)

일원

단분, 석상1, 향로석1, 문인석2, 묘표1

구리시 아천동 333-3

지정일 : 1991.10.25

소유자 : 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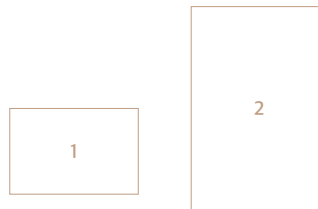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구리 명빈묘>는 조선 태종의 후궁인 명빈김씨(明嬪金氏(?~1479)의 무덤이다.

명빈 김씨는 한성판윤(漢城判尹)과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지낸 안정공(安靖公) 김구덕(金九德)의 딸로, 본관은 안동(安東)이다. 출생연도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1411년(태종11) 11월 빈으로 책봉되어 1479년(성종10)에 세상을 떠났다고 전해진다. 태종부터 성종까지 7대에 걸쳐 내명부를 지켰으나 태종과의 후사는 없다.

묘의 시설은 호석이나 곡장 없이 일반 후궁묘제의 형식으로 조성되었으며 봉분, 석상, 묘표석, 향로석 각 1기와 한 쌍의 문인석이 갖추어져 있다. 묘표 전면에는 ‘明嬪金氏之墓(명빈김씨지묘)’, 뒷면에는 ‘楊州□□面成化己亥七月初七日(양주□□면성화기해칠월초칠일)’이라고 새겨져 있어 1479년에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1. 명빈묘(태종 후궁 명빈김씨),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2. 문인석(좌),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사적 제365호

남양주 성묘

南楊州 成墓

조선시대(1577년, 1610년)

일원

단분, 난간석, 석상, 장명등, 망주석2, 문인석2, 무인석2, 석양2, 석호2, 석마2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312-8

지정일 : 1991.10.25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남양주 성묘>는 조선 선조의 후궁이자 광해군의 생모인 공빈김씨 恭嬪金氏(1553~1577)의 무덤이다. 공빈김씨는 의정부 영의정 해령 부원군海寧府院君 김희철金希哲의 딸로, 궁인으로 입궁해 선조의 승은을 입은 뒤 소용昭容이 되었다. 숙의淑儀일 때 임해군을 낳아 귀인貴人에 봉해졌고, 1575년(선조10) 차남 광해군을 낳아 빈嬪에 책봉되었으나 2년 만에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공빈김씨의 아들인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자숙단인공성왕후慈淑端仁恭聖王后로 추존되었다. 그러나 1623년(광해군23)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왕후로서의 시호와 능호가 추탈되고 빈으로 격하되었다.

봉분은 단분이며, 원형의 호석과 12면의 난간석을 돌렸다. 원형 호석은 일반적으로 사대부묘에 사용되며, 왕후릉에는 사용되지 않지만 의궤儀軌가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

상계에 봉분, 곡장, 석양, 석호, 망주석이 배설되어 있으며 석상이 봉분 정면에 있다. 중계에 문인석, 하계에 무인석이 설치되었다. 향로석은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는 성릉으로 봉릉되었을 때 왕릉 체제를 따랐기 때문이다.



망주석은 규모나 형태가 목릉(의인왕후) 망주석과 매우 닮아 있어 성묘를 왕후릉에 준하여 조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명등 또한 목릉의 것과 장식문양이 유사한 점이 많아 이를 변용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장명등 최하단에는 문양을 조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성묘 장명등은 5각 지대석 각 모서리에 용두龍頭를 조각한 것이 특이하다.

문인석은 복두공복을 갖춘 집홀관복형執笏冠服形으로 동·서 문인석의 인상이 다르고 세부 표현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이는 조선 전기 왕릉의 석물조각 작업시 좌·우로 작업과정을 나누는 것이 17세기 전반까지 지속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인석은 앞 차양이 있는 침주簷甬를 쓰고 피박皮膊을 두른 집검갑주형執劍甲冑形이다. 머리카 크고 어깨가 좁아 신체비례가 부자연스럽고, 문양도 문인석보다 더 평면적이고 산만하다. 이처럼 형식화되고 경직화된 석물조각 양식은 임진왜란 이후 미처 정비되지 못한 공장제도와 흥례절차 등 사회적인 배경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1-2. 성묘(선조 후궁 공빈김씨), 2018. 경주문화재연구원



사적 제366호

남양주 안빈묘

南楊州 安嬪墓

조선시대(1693년)

일원

단분, 석상, 향로석, 장명등, 망주석2, 문인석2, 동자석2, 묘표1
남양주시 진건읍 송능리 471-1

지정일 : 1991.10.25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남양주 안빈묘>는 조선 효종의 후궁인 안빈이씨(安嬪李氏(1622~1693)의 무덤이다. 안빈이씨의 본관은 경주(慶州)이고, 공조참의(工曹參議) 이응헌(李應憲)의 딸이다. 효종이 봉림대군으로 있을 때 측실이 되었으며, 효종이 심양(瀋陽)에 볼모로 갔을 때 끝까지 배종(陪從)하였다. 훗날 효종의 손자인 숙종은 이 공을 높이 사 안빈이씨를 조천(祧遷)하지 말도록 명하고 후대의 왕들이 계속 제사를 지내도록 하였다. 1661년(현종2) 숙의(淑儀)로 품계가 올라갔고, 이후 귀인(貴人)이 되었다가 1676년(숙종12) 빈으로 승격되었다. 1693년(숙종19) 72세로 세상을 떠나자 소생인 숙녕옹주(肅寧翁主(1649~1668)의 묘 인근에 안빈묘를 조성하였고, 장례는 선조의 후궁 온빈한씨(溫嬪韓氏)의 예에 따라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석물은 1694년 표석 건립과 함께 조성하였으며, 어색한 고석의 구조, 혼유석과 석상의 상태로 보아 후대에 개수한 것으로 추측된다.

봉분은 단분으로 조성되었으며, 계체석은 없으나 묘역은 2계로 명확하게 구분되었다. 곡장을 두른 봉분 앞에는 묘표와 혼유석, 석상, 향로석, 장명등이 배설되어있고, 한 단 아래에는 문인석, 동자석 등이 있다.



향로석은 4각으로 상단 정면에 당초唐草, 좌우에 연화蓮花를 조각했으며 아래로 복련覆蓮, 운족雲足 등을 조각했다. 운족 끝 부분이 납작하고 안에 여의두如意頭같은 문양을 조각하였는데 이는 17세기 후반 최고급 향로석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망주석은 대석과 주신이 한 돌로 제작되었으며, 일반적인 세호細虎의 모습과 반대로 좌강우승左降右陞의 형태를 하고 있다. 장명등은 4각 평면에 낮은 십자각이 개석에 표현된 17세기 후반의 작품이다. 화창火窓이 앞뒤로만 뚫려 있으며 좌우 화창의 자리에는 연꽃을 작게 조각했다.

문인석은 금관조복金冠朝服을 갖춘 집홀관복형執笏冠服形이다. 신체표현은 경직된 반면 얼굴과 관복 등 각종 장식물의 표현이 매우 세밀하다. 금관, 폐슬, 후수, 패옥, 각대에 화려한 문양을 도드라지게 양각하여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동자석은 문인석과 유사한 도상이지만, 1m 내외의 작은 규모, 석상 좌우에 근접한 위치, 연화대좌, 세부 복식표현 등 전형적인 동자석의 특징을 보인다. 동자석은 왕릉에서는 조성하지 않았고 원묘에서는 16세기에서 18세기 사이 한시적으로 조성

한 유형이다. 조선 전기에는 불교 동자상의 천의와 유사하게 표현하였으나 갈수록 문인석의 영향을 받은 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묘표는 방부원수方趺圓首 양식으로 봉분 바로 앞에 건립되었다. 애석艾石으로 만든 비신의 전면 중앙에 큰 해서체로 “조선국朝鮮國 안빈安嬪 경주이씨지묘慶州李氏之墓”라고 쓰여있다. 후면에는 기록이 없어 정확한 건립연대를 알 수 없으나 전후 사정을 보아 1693년으로 추정된다.



1. 안빈묘(효종 후궁 안빈이씨),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3. 동자석(좌·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南楊州 寧嬪墓

조선시대(1735년)

일원

단분, 호석, 석상, 장명등, 망주석2, 문인석2, 묘표1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리 175 외

지정일 : 1991.10.25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문화재청 조선왕릉 동부지구관리소

<남양주 영빈묘>는 조선 숙종의 후궁 영빈김씨寧嬪金氏(1699~1735)의 무덤이다.

영빈김씨의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성전부사成川府使 등을 지낸 김창국金昌國의 딸이다. 조부는 공조참판 등을 지낸 김수증金壽增으로 작은 할아버지인 김수홍과 김수항은 모두 영의정을 지냈으며, 당숙 김창집은 영의정, 김창협은 성균관 대사성에 예조 판서, 김창흠은 이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즉, 영빈김씨는 서인西人 노론老論의 영수 김수항의 종손녀로 당시 최고의 권세가 출신이었다.

1686년(숙종12) 인현왕후仁顯王后的 추천으로 숙의淑儀에 간택되었으며, 입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귀인貴人이 되었다. 영빈김씨의 입궁은 당시 숙종의 총애를 받던 희빈장씨禧嬪張氏를 견제하기 위해 이루어졌으나, 숙종의 총애를 받지는 못했다. 결국 기사환국己巳換局 한 달 뒤 김수항, 홍치상洪致祥 등과 공모하여 왕의 기밀과 궁중 기밀에 관한 정보를 친정에 빼돌리고 희빈장씨의 어머니에 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폐출廢黜되어 궁에서 쫓겨났다. 그러나 1694년(숙종20)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서인이 다시 집권하며 귀인으로 복위되었다. 인현왕후 사후 1702년(숙종28) 인원왕후仁元王后가 책봉될 때 빈嬪으로 진봉進封되었다.



숙종 사후 경종이 즉위한 뒤 관례에 따라 궐 밖으로 나와 사가에 거주하였다. 1724년 경종이 즉위 4년만에 죽자 영빈김씨가 경종의 급성중독사건의 배후로 지목되어 소론少論의 탄핵을 받았으며, 신임사화辛壬士禍(1721) 때에는 처형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나 인원왕후의 비호로 무마되었다. 1735년(영조11) 6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자 어렸을 때 영빈김씨를 어머니처럼 따랐던 영조는 성대히 장례를 치르도록 명했으며, 자신의 서녀庶女인 화유옹주和柔翁主를 봉사손奉祀孫으로 삼았다.

영빈묘의 묘역은 곡장을 두르고 그 안에 봉분과 석물을 조성하였다. 봉분은 단분으로 호석을 돌렸으며 그 앞에는 묘표, 혼유석, 석상, 향로석, 장명등을 놓고 좌·우에 망주석과 문인석을 배치하였다.

봉분 앞 묘표는 팔작지붕 모양의 옥개석을 얹은 형태로 1737년(영조 13) 세웠으며 이의현李宜顯이 비문을 짓고 썼다. 묘표 전면에 두 줄로 ‘유명조선국有明朝鮮國 영빈안동김씨지묘寧嬪安東金氏之墓’라 새겨져있고, 후면에는 빈의 출생, 사망 및 장의 등에 관한 비문이 새겨져 있다.



1. 영빈묘(숙종 후궁 영빈김씨),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장명등,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망주석,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문인석(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驪州 高達寺址

통일신라시대
일원
지정구역 - 60,033㎡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 411-1 외 일원

지정일 : 1993.07.23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여주시

<여주 고달사지>는 여주시 북내면 상교리에 있는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명맥을 유지한 절터이다.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의 기록에 의하면 고달사는 764년(경덕왕23)에 창건되었다고 전하나 명확하지는 않다. 원감대사圓鑑大師 현욱玄昱이 개성연간(836~840) 말에 혜목산에 있던 기존의 사원(또는 당우)을 수리하여 개창하였고, 진경대사眞鏡大師 심희審希와 원종대사元宗大師 찬유璨幽가 법맥을 이어가면서 선종사원의 종풍을 유지해 나갔다. 고려 광종 대에는 왕실의 비호를 받아 부동사원不動寺院으로 정해지면서 더욱 확고한 위상을 갖추었으며, 12세기 초 의천이 천태종을 개창할 때 회합된 5대 사원 안에 포함될 정도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선종사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얼마 되지 않아 의천이 입적하자 다시 산문山門으로 돌아와 크게 중창하였으며, 17세기 전반까지는 명맥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고달사가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척약재집惕若齋集』에는 김구용金九容이 여강 누각 위에서 고달사의 진상인眞上人에게 보내는 시가 실려 있고, 『유향시집柳巷詩集』과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한수韓修가 고달 옛 정사(古精舍)에 들러 정취를 느끼며 지은 시가, 『운곡행록耘谷行錄』에는 원천석元天錫이 고달사의 이대 선사李大禪師에게 보내는 시가 담겨있어 최소 14세기까지 경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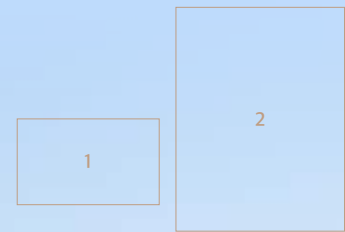
또한 16세기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고달사가 취암사·상원사와 함께 혜목산에 있다는 기록이 있고, 이식李植의 『택당선생별집澤堂先生別集』 제11권 「계산지啓山志」의 천장잡록遷葬雜稿에는 ‘고달원高達院’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 밖에 『범우고梵宇攷』(1699)에서 비로소 여주 고달사가 폐사되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 후기 간행된 지리지인 『여주읍지驪州邑誌』(1699), 『여지도서輿地圖書』(1757~1765), 『경기지지京畿誌』(1842~1843), 『경기읍지京畿邑誌』(1871)에는 ‘樁面〇三十里高達洞’이라는 기록만이 보이고, 이들 지리지에 실린 지도와 『해동지도海東地圖』(1760), 『청구도靑丘圖』(1834)에는 신록사만 표시되어 있을 뿐 고달사는 표시되어 있지 않다.

폐사 후 사역 내 민가가 들어서거나 경작지로 변모되는 등 유구의 훼손이 진행됨에 따라, 경기도와 여주시는 사역의 정비와 보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시·발굴조사를 의뢰하였다. 발굴조사는 경기도박물관(1~2차)과 경기문화재연구원(1~9차)에서 1998년부터 2016년까지 9차에 걸쳐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법당지와 불전지, 승당지, 욕실, 요사채 등을 비롯한 건물터 28동, 담장지 4기, 고달사지쌍사자석등지 1기, 탑지 2기, 축대 9기 등이 발굴되었다. 유적은 지형을 따라 크게 3단의 축대 위에 3구역으로 나뉘어 조성되었으며, 각각의 구역은 다시 여러 개의 원院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축조나 계획은 일률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존속기간도 각기 다르다. 곧 이들은 석조물과 짝을 이루는 몇 개의 주요 전각이 여러 개의 축과 원을 이루면서 영역을 구성하고 전체적인 질서를 갖추어 나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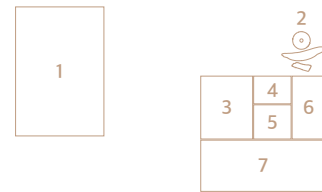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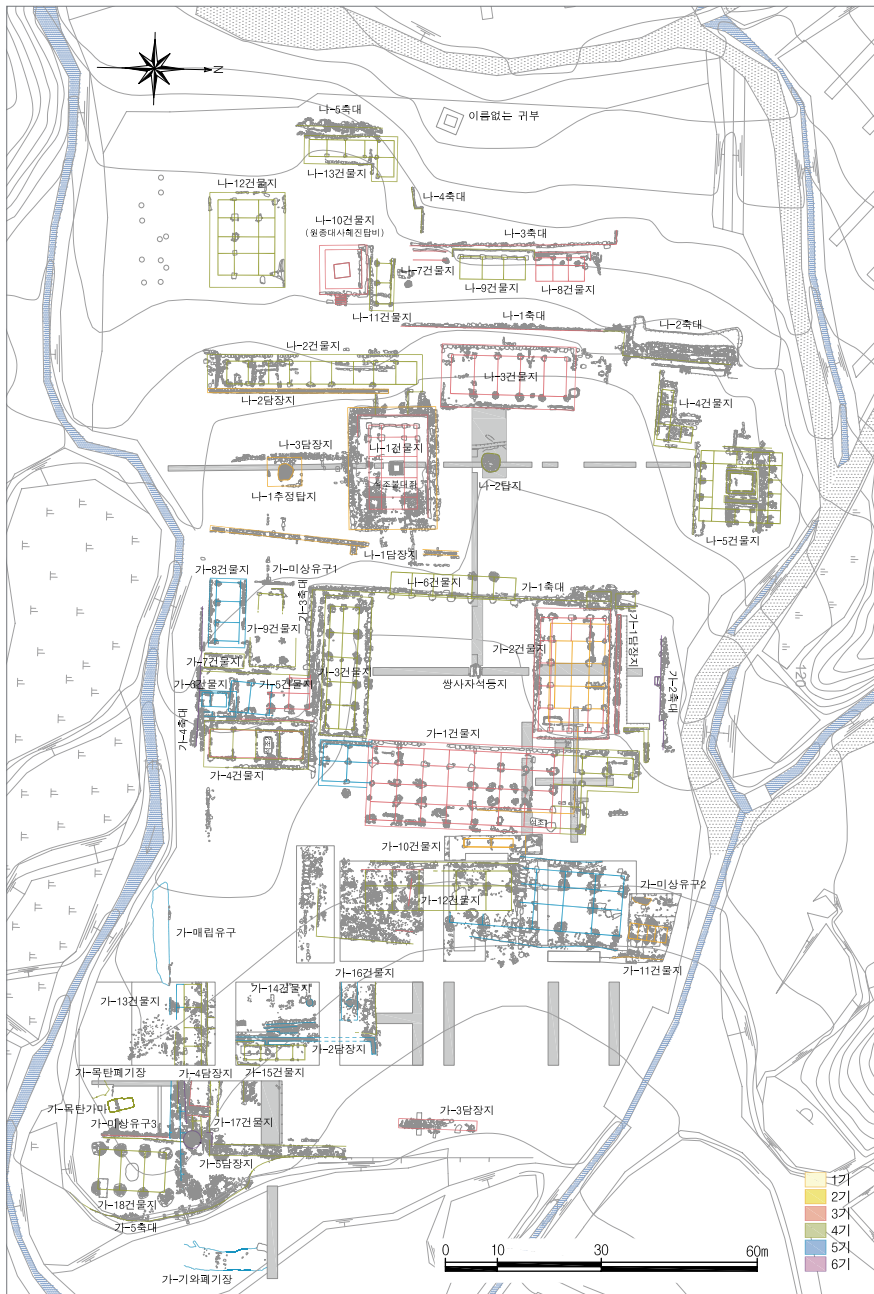
1~2차 발굴조사구역인 나 구역에서 고려 초에 증창된 것으로 추정되는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보물 제8호)가 안치된 나-1 건물터를 중심으로 그 남쪽과 북쪽에 각 1기의 탑지가 발굴되었고, 주변으로 건물터를 덧붙여 나가거나 새로운 건물터가 축조되는 등 변화를 겪으며 중심영역 및 좌향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나-3건물터 내부에는 우물이, 나-5건물터 내부에는 방형으로 구획된 부석시설이 남아 있어 의례 및 제례와 관련된 행위가 이루어진 건물터로 추정되어 주목받았다.

이와 더불어 조사가 진행된 다 구역에서는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제6호)를 중심으로 그 북쪽에는 동향한 3동의 건물터가 증복되어 있고, 남쪽에는 남향한 건물터가 위치해 있다. 이들은 사역의 서쪽 끝에 위치하며, 일부 건물터는 주좌와 고막이좌가 잘 표현되어 있거나 주변 건물터의 기단석과 동일한 석재로 기단을 조성한 것으로 보아,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제6호)와 성격 및 조성 시기 면에서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여주 고달사지 항공사진, 2007. 경기문화재연구원
2. 여주 고달사지 전경,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1. 여주 고달사지 가람변천 추정 배치도, 2016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철제 약연, 2014.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이종구연호, 2014.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청자화형전략, 2014.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명문기와, 200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6. 청동여래입상, 200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7. 암막새, 2014.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6차 발굴조사구역인 가 구역은 가-1축대 아래로 법당과 승당을 중심으로 수행공간으로 추정되는 3동의 건물터가 쌍사자석등이 놓인 마당을 향해 배치되어 원을 이루고 있다. 그 남쪽으로는 시내 가까이 생활공간으로 추정되는 여러 동의 건물터들이 중첩되어 위치해 있는데, 이 가운데에는 구들과 마루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건물터도 발굴되었다. 또한 가-1건물터 동쪽에는 가-12건물터를 비롯한 6동의 건물터가 발굴되어 사역이 동쪽으로 계속 연장되었으며, 몇몇 건물터와 쌍사자석등지, 탑지의 하부를 조사하여 그 축조기법 및 축조시기를 추정

하였다. 또한 4차 및 6차 발굴조사 과정에서 이보다 앞서는 나 말여초시대 건물터와 유구들도 일부 확인됨에 따라 고달사지의 초창시기와 관련하여 살펴볼 자료가 확보되었다. 고달사의 가람 변천은 크게 6기로 나눌 수 있다. 창건 초창기인 1~2기 가람(8~10세기 중엽), 사세가 변창한 3기 가람(10세기 중엽~11세기), 천태종 회합 후 산문으로 돌아와 다시 중창을 이룬 4~5기 가람(12~13세기), 폐사 전까지 경영된 6기 가람(14~17세기 전반)으로 구분된다.

출토유물은 와전·자기·도기·금속기 등 다종다양하다. 와전류로는 연화문·귀목문 수막새와 당초문·인동당초문·초엽문 암막새·귀면와, 그리고 '高達寺'와 '一不絶絶 正而傳嵩福禪 眞空禪師'가 새겨진 여러 점의 명문와, 평기와, 전 등이 있다. 도기류는 생활용기 및 매납도기로 사용된 반구병, 대옹, 도기호, 동이, 도기병, 매병편 등 기종이 다양하다. 자기류는 청자선해무리완, 외벽을 세로로 길게 눌러 요철을 나타낸 고려백자 화형접시·청자음각국화문화형잔탁을 비롯하여 자기, 중국자기, 청동향로, 청동여래입상, 철제 약연 등이 출토되었다.

또한 고달사지 내에는 여주 고달사지 승탑(국보 제4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비(보물 제6호), 여주 고달사지 원종대사탑(보물 제7호), 여주 고달사지 석조대좌(보물 제8호), 여주 고달사지 쌍사자 석등(보물 제282호, 국립중앙박물관), 여주 고달사지 석조(유형문화재 제247호), 이름 없는 귀부 등이 남아 있다. 이것들은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유물과 함께 고려시대 선종사원의 역사적 가치와 특징을 밝혀내는 실마리와 미술사·고고학·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에 중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해 준다.



사적 제389호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坡州 佳月里와 舟月里 遺蹟

선사시대

일원

지정구역 - 41,565㎡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95-6 외, 주월리 309 외 일원

지정일 : 1994.12.21

소유자 : 공유, 사유

관리자 : 파주시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은 1988년 서울대학교 조사단이 임진강 유역 일대를 지표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유적 발견 직전에 이루어진 경지정리 작업으로 퇴적층이 깎이면서 많은 석기가 지표에 노출되었으며, 주먹도끼를 비롯한 찌개·굽개·몸돌·흙날 등 크고 작은 각종 석기가 다량으로 수습되었다. 수습된 유물은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의 여러 구석기 유적에서 발견된 석기와 같은 성격이다.

1차 조사는 사적지정을 위한 사전조사의 일환으로 1993년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서 실시하였다. 2차 조사는 파주-적성 간 37번 국도 개설 공사 구간에서 실시되었는데, 2002년에 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주도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2003년 발굴조사에는 서울대학교 조사단이 합류하였다.

연천군 남계리 부근에서 합수한 임진강과 한탄강은 남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중성산, 국사봉 등 감악산 줄기에서 뺀어 내린 산지 지형의 영향으로 두 차례 큰 사행운동蛇行運動을 하며 흐른다. 유적은 임진강이 파주시 적성면에 이르러 크게 사행운동을 하는 정점의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적성면 일대의 현무암층



1. 파주 가월리 유적 출토 주먹도끼, 2011. 파주시
2. 파주 가월리 유적 유물토출 광경, 2002
_ 한양대학교박물관
3. 파주 가월리 유적 대표총위, 2003
_ 한양대학교박물관

은 상류에서와는 달리 임진강 분류에 근접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발견된다. 임진강에 가까운 주월리 유적 일대에서 현무암은 퇴적층 아래에서 해발 22m부터 확인된다. 그러나 하천에서 떨어져 있는 가월리 유적 일대에서는 같은 고도에서 두터운 하천퇴적층이 관찰된다. 이는 용암이 하류로 흘러내리며 그 양이 크게 줄어든 결과로, 용암이 하곡河谷을 메운 전곡리 일대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유적의 층위는 현무암층 위로 자갈 혹은 모래, 실트(silt) 및 점토가 확인되고 있어 연천 전곡리 유적, 연천 남계리 유적, 파주 금파리 유적 등의 층위와 비슷하다. 용암대지의 형성 이후에 이루어진 하천운동을 말해주는 자갈층은 위치에 따라 해발 21m에서 26~27m 사이에 노출되어 있다. 자갈층 위로는 전형적인 하상 퇴적 모래층이 해발 28m 정도의 높이까지 계속되며, 그 위로는 실트가 쌓여있다. 실트층 위에 발달한 점토층은 임진강 유역의 여러 구석기시대 유적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붉은 색조이나 밝고 어두운 부분이 반복되는 양상이다.

1차 조사에서는 지표 및 퇴적층에서 주먹도끼를 비롯해 가로날도끼, 찍개, 대형 긁개, 훔날석기, 몸돌, 격지로 만든 소형 석기 등이 모두 600여 점 수습되었다. 2차 조사에서도 주먹도끼를 비롯한 각종 크고 작은 석기가 800여 점이 수습되었으며, 그 중에서는 유적에서 석기의 제작이 이루어졌음을 알려주는 접합석기도 발견되었다. 또한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에서는 20여 점의 주먹도끼가 확인되었는데, 동아시아에서 발견된 주먹도끼 중 비교적 정제된 형태로 주목된다. 커다란 규암 자갈을 양방향으로 가공해 평면과 단면 형태의 대칭성이 매우 높은 것, 원석 형태를 최대한 이용해 몇 차례의 타격을 가한 것, 짧고 비스듬하게 가로로 날을 만든 것 등 가공형태 또한 다양해서 동아시아 구석기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유적의 연대에 대해, 1993년의 1차 조사 보고자는 퇴적 상황과 전곡리 부근에서의 발광연대측정 결과 및 상대적으로 낮은 시기의 유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5만~4만 년 전 무렵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이후 용암대지가 약 4만 년 전 무렵 형성되었음을 말해주는 연대자료가 알려졌다. 2차 조사에서 실시된 광발광IRSL 연대측정 결과 유물포함층 하부에서 $78,000 \pm 24,000$ BP, 상부에서 $51,000 \pm 23,000$ BP 및 $47,000 \pm 10,000$ BP의 측정값이 나왔다. 그런데 용암대지가 약 4만 년 전 무렵 형성되었음을 말해주는 연대 자료가 알려져,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을 비롯한 임진강 유역에서 용암 분출 이후에 형성된 모든 구석기시대 유적의 연대와 유물군의 성격을 새로이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되었다.



사적 제403호

포천 반월성

抱川 半月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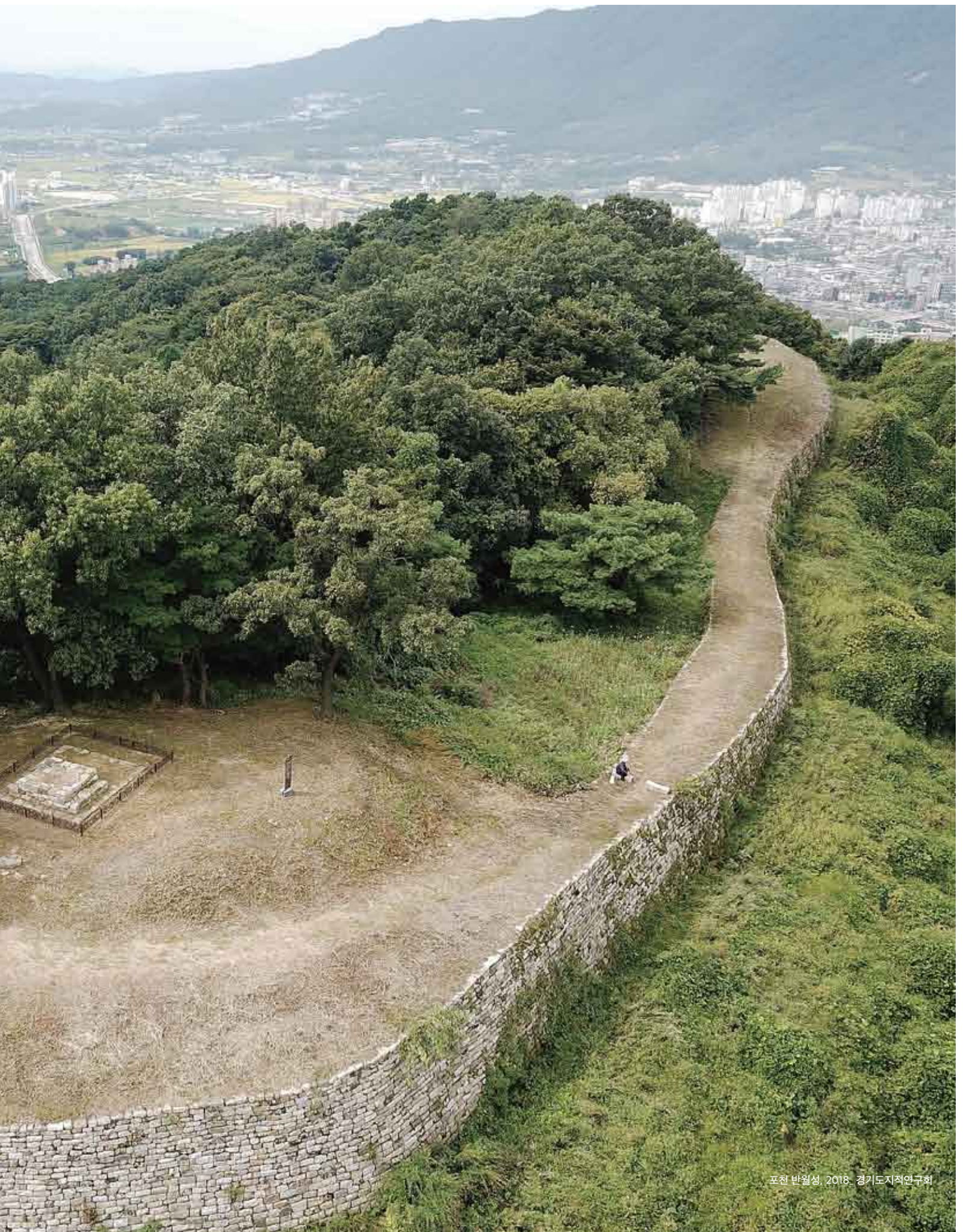
삼국시대
일원
둘레 1,080m
지정구역 - 116,305㎡
석성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3290번길 19 외

지정일 : 1998.02.20
소유자 : 국유, 공유
관리자 : 포천시

<포천 반월성>은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산 5-1번지 일원에 위치하는 삼국시대의 성터이다. 청성산靑城山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7부에서 9부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는 테피식 산성이며, 전체적인 형상이 동서로 긴 반달에 가까운 모습을 하고 있어 반월산성이라 불리는데 인근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성이다.

반월성에 대한 문헌은 조선 후기에 편찬되었던 『대동지지大東地志』·『연려실기술櫻藜室記述』·『포천군읍지抱川郡邑誌』·『견성지堅城誌』 등에 고성古城·산성山城·반월산성半月山城·靑城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대동지지』와 『연려실기술』에는 1618년(광해군10)에 판관判官 이성구李聖求가 성을 개축하였고 중군中軍을 설치하였다가 1623년(인조1)에 혁파하였다는 내용이 있어, 이 때 군사적인 용도가 다한 것으로 추측된다. 양사언楊士彦(1517~1584) 생존 당시에는 성내에 삼대三臺가 있었고, 장령將領, 기우제단祈雨祭壇, 성황사城隍祠, 등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포천군읍지』에는 ‘古城 半月山城은 돌로 쌓은 것으로, 둘레가 1937자[尺]이고, 가운데에 우물이 2개소 있다’고 되어있어 성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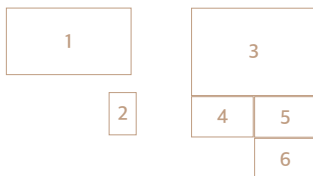


반월성의 축성 시기는 기록이 없어 후삼국시대後三國時代 봉태封의 궁에弓裔가 쌓은 것으로 전해져 왔으나 1994년 지표조사 결과 산성 내부에서 다량의 삼국시대 토기와 기와가 수습됨에 반월성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고 복원자료를 확보하고자 1995년부터 2001년까지 6차례의 발굴조사와 2차례의 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결과 반월성은 둘레 1,080m, 동서너비 490m, 남북너비 150m의 규모이며, 문지 2개소, 치성 4개소, 건물지 6개 지역, 우물지 및 수구지 2개소, 장대지 및 망대지 2개소를 확인하였다. 성벽은 외성벽과 내성벽으로 나눌 수 있다. 축성방법은 협축법夾築法과 편축법片築法을 사용하였으며,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 지형에는 암반을 굴착하여 수직에 가깝게 단을 조성한 후 그 위로 성벽을 축조하였고, 일부 경사가 급한 곳은 단을 만들어 쌓았다. 축성 재료는 산성 주변에 풍부함 화강암을 이용하였다. 여러 차례의 발굴조사 결과 많은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백제 토기는 대부분 파편상태여서 전체형태를 파악하기 어려우나 6차 조사지역인 동문지 주변에서 장란형토기·심발형토기·원저단경호 등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초반의 토기가 출토되어 초축시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였다. 특히 2차 조사에서

출토된 ‘馬忽受解空口單(마홀수해공구단)’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기와는 고구려의 지명과 관련하여 고대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신라토기는 6세기 중엽에서 10세기 초엽까지의 시기에 걸쳐 나타나는데, 특히 7세기에서 8세기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정치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고 통일한 시기로 반월성에서는 주변 유적에 비해 7세기 후반 경에 해당하는 유물이 다량이라는 점에서 신라의 지배체제와 관련한 반월성의 지위를 예측해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 반월성은 백제가 축조하여 4세기 후엽까지 사용하다가, 광개토대왕 시기에 이르러 이 지역이 고구려 영토로 편입되면서 백제성곽에 고구려 건축물이 세워졌고, 마홀군이라는 지명이 명시된 기와도 그 과정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진흥왕 이후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면서, 반월성이 신라의 북방진출에 중요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 포천 반월성 전경, 2018. 경기도지역연구회
2. '마홀수해구단' 명문기와, 2009.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반월성 동문지 주변 건물지 전경, 2000.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4. 반월성 남벽, 1998.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5. 반월성 남문지, 1996.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6. 반월성 남문지,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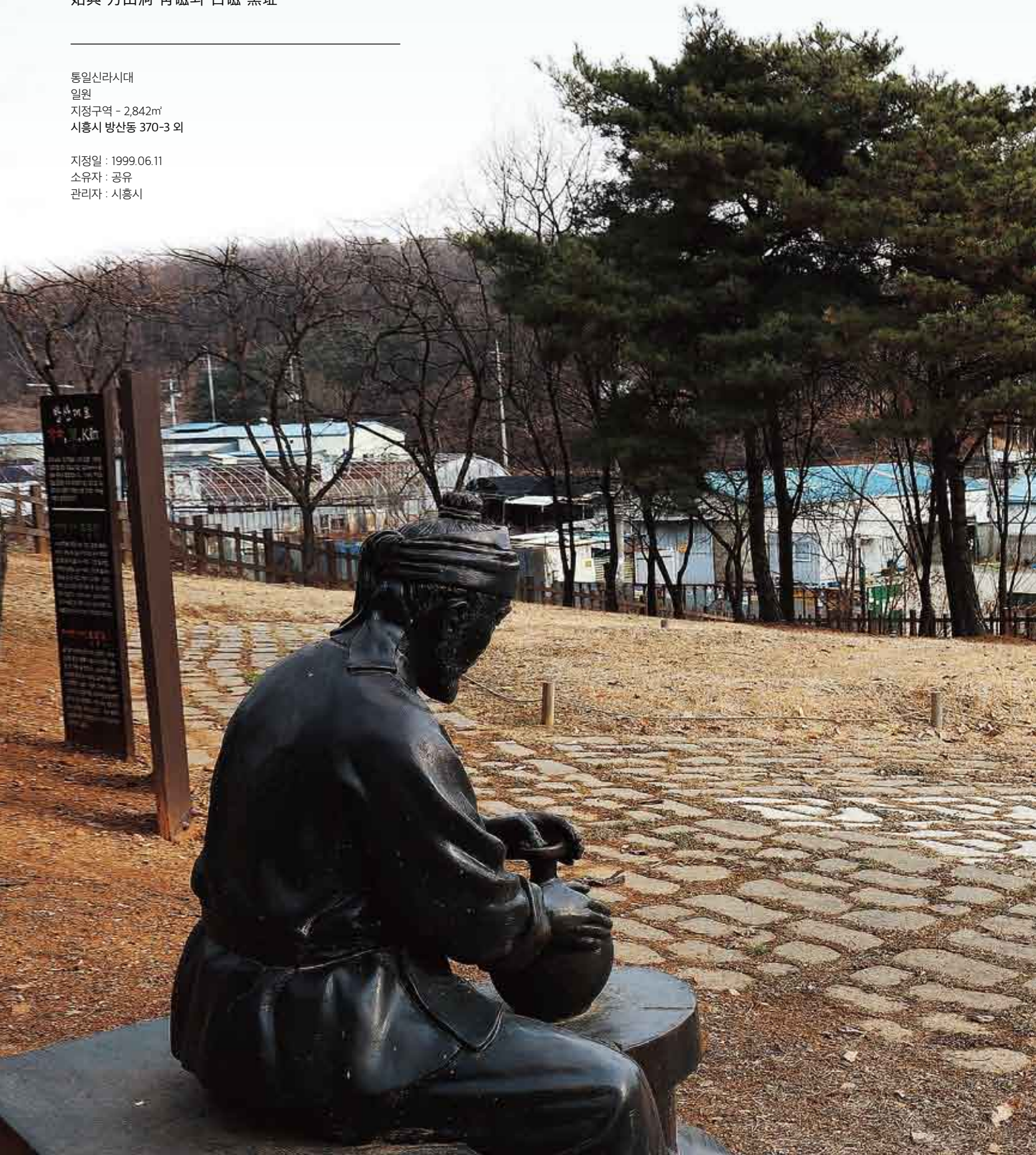
사적 제413호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始興 芳山洞 靑磁와 白磁 窯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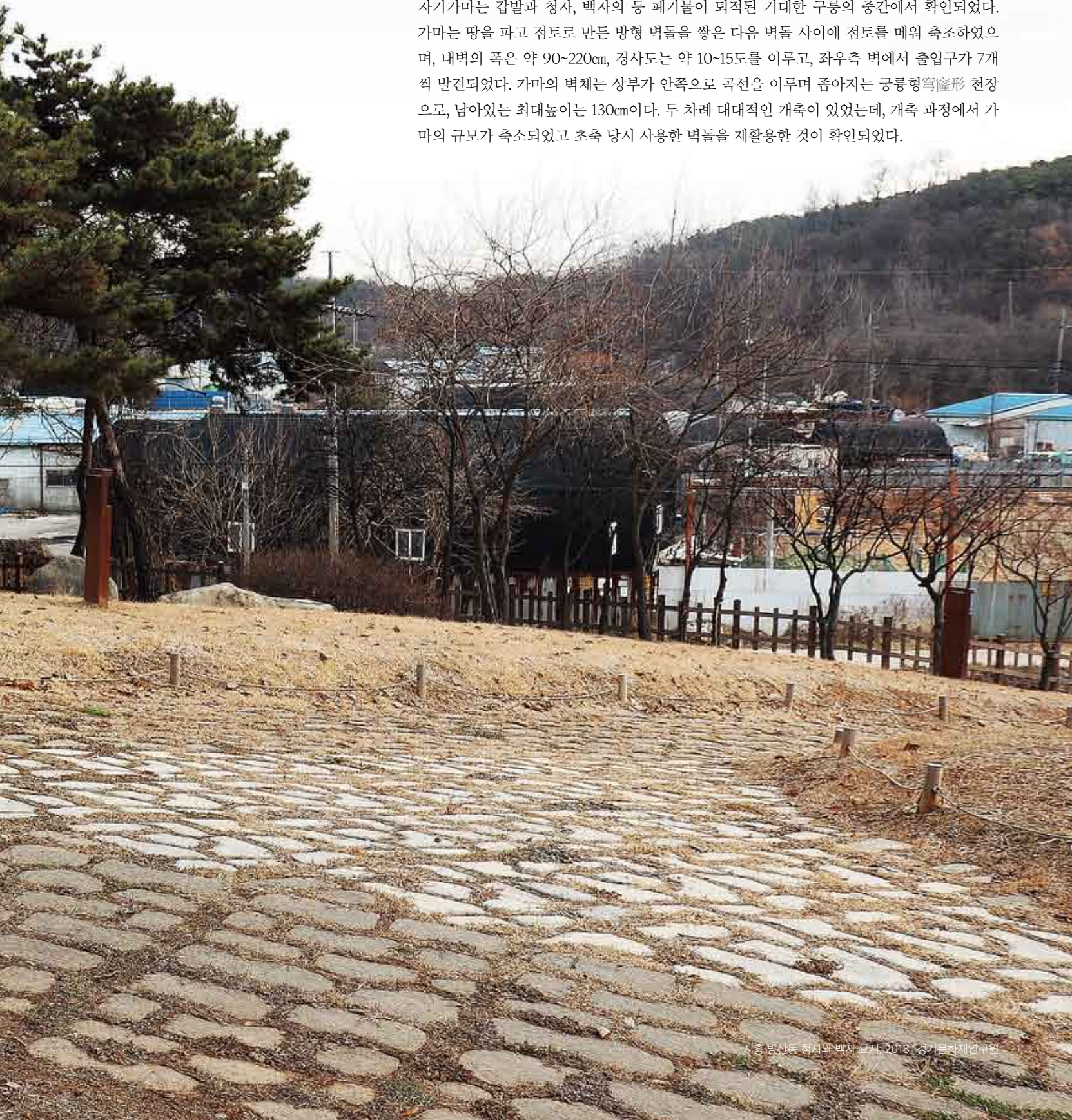
통일신라시대
일원
지정구역 - 2,842㎡
시흥시 방산동 370-3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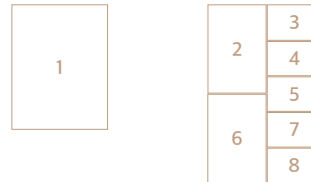
지정일 : 1999.06.11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시흥시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는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에 있는 청자와 백자를 굽던 가마터이다. 해강도자미술관에 의해 1997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발굴하여 청자와 백자를 함께 제작하던 자기가마 1기와 토기가마 2기가 확인되었고, 인근에서도 유사한 성격의 요지가 다수 발견되어 이 일대가 집단적인 도자기 제작지임이 밝혀졌다. 방산대요로 명명된 자기요지는 천정부가 함몰되었을 뿐 구조가 완전하게 남아 있었고, 해무리굽 완을 비롯하여 초기 청자와 백자의 총체적인 형태를 밝힐 수 있는 다양한 유물이 수집되어 초기 청자가마의 한 유형인 벽돌가마 규모와 운영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자가가마는 갑발과 청자, 백자의 등 폐기물이 퇴적된 거대한 구릉의 중간에서 확인되었다. 가마는 땅을 파고 점토로 만든 방형 벽돌을 쌓은 다음 벽돌 사이에 점토를 메워 축조하였으며, 내벽의 폭은 약 90~220cm, 경사도는 약 10~15도를 이루고, 좌우측 벽에서 출입구가 7개씩 발견되었다. 가마의 벽체는 상부가 안쪽으로 곡선을 이루며 좁아지는 궁륭형穹窿形 천장으로, 남아있는 최대높이는 130cm이다. 두 차례 대대적인 개축이 있었는데, 개축 과정에서 가마의 규모가 축소되었고 초축 당시 사용한 벽돌을 재활용한 것이 확인되었다.





2.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전경, 1998. 해강도자미술관
3. 아궁이 축벽 축조상태, 1998. 해강도자미술관
4.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출토 청자발, 완류, 1998. 해강도자미술관
5.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출토 각종 요도구류, 1998. 해강도자미술관
6. 도기요지 가마, 2002. 해강도자미술관
7. 도기요지 가마 아궁이, 2002. 해강도자미술관
8. 도기 요지 출토 유물, 2002. 해강도자미술관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의 벽돌가마 축조법은 고려시대의 전형적인 요지 축조 방식인 토축식土築式과는 확연히 다른 중국의 전통적인 자기가마 축조 방식이며 우리나라에서는 배천군 원산리를 비롯한 초기청자요지에서 확인된다. 이는 중국 당말 오대唐末五代 월주요越州窯 가마와 유사하며 우리나라 초기 청자가마 계통의 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토기가마는 자기가마에서 남쪽으로 약 10m 지점에서 확인되었으며, 풍화암반층을 깎아 가마의 하부를 만들고 천장을 내화토로 빚어서 덮은 등요登窯이다. 가마의 규모는 길이 6.9m, 너비 2.9m의 타원형이며 봉통 앞에 직경 1m 내외의 수혈 통로가 있다. 퇴적층 조사 결과 토기가마가 자기가마 보다 시기적으로 앞선 것을 확인하였다.

유물은 청자와 백자가 함께 출토되나 청자가 주를 이루고, 기종은 대접, 접시, 발, 완, 잔, 뚜껑, 잔탁, 제기, 장고 등 20여종이 있으며 완이 5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선해무리굽완, 화형접시, 오대五代 연간의 월주요산越州窯産 청자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또한 완, 병 등의 굽안바닥과 감발의 바닥면에 음각으로 十(십), 田(전), 三(삼), 村(촌), 봉화奉化, 오월吳越 등의 명문과 기호가 새겨진 것이 확인되는데 중국 월주요의 하나인 오월국의 봉화요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되어 주목된다.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는 가마의 구조나 축조방법, 자기제작에서 중국의 자기 제작기술을 적극 수용한 것을 확인시켜 주고, 청자와 백자가 한 가마에서 소성되었다는 점에서 백자의 발생이 청자와 맥을 같이하고 있음을 밝혀주는 중요한 유적이다.



사적 제422호

하남 이성산성

河南 二聖山城

삼국시대
일원
총길이 1,925m
지정구역 - 237,250㎡
석성
하남시 춘궁동 산36 외

지정일 : 2000.09.16
소유자 : 산림청 외
관리자 : 하남시

<하남 이성산성>은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에 있는 해발 209.8m의 이성산 정상부에서 남쪽으로 계곡을 감싼 포곡식 산성으로, 북쪽으로는 한강 유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정확한 축성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한 축성 기법과 출토유물을 통해 신라가 6세기 중반 경 처음 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1차 저수지에서 출토된 합습과 단각고배短角高杯 등이 황룡사에서 출토된 유물과 매우 유사하여 황룡사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553년(진흥왕14) 신라가 한강유역을 장악하게 되는 역사적 맥락과 부합되기 때문이다. 553년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신주新州를 설치한 해로 신주의 치소는 광주廣州일대로 추정되며, 그 치소성이 이성산성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성산성 학술조사는 1985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1986년부터 2010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발굴조사 결과 성벽은 두차례에 걸쳐 쌓았고 치 1개소, 문지 2개소, 건물지 11기, 저수지 3개소, 저장구덩이 3개소, 의례유구 4개소 등이 확인되었다.

1차 성벽을 쌓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성이 붕괴되자 1차 성벽에 덧붙여 2차 성벽을 쌓았다. 1차 성벽은 생토면을 ‘ㄴ’자 형태로 다듬은 후 바깥쪽에 면을 맞추어 안쪽으로 7~8m 너비로 뒷채움돌을 채우면서 쌓아 올렸는데 생토면과 뒷채움돌 사이에는 점토를 다져서 채워 넣었다. 전체적인 형태는 사다리꼴형이며, 성벽의 높이는 7m 정도, 기울기는 81~84도로 거의 수직에 가깝다. 성돌은 화강편마암이 주류를 이루는데 크기는 너비 40~50cm, 두께 15~24cm 정도 장방형으로 모서리 부분은 다듬지 않았다. 뒷채움돌은 마름모꼴로 양쪽을 뾰족하



게 다듬었으며, 상호 치밀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성 안쪽을 향하여 길이 방향으로 쌓았다. 2차 성벽은 바닥을 점토와 잡석으로 다진 후 1m 정도 크기의 기단석을 놓고 성돌을 쌓아올렸다. 성돌은 1차 성벽과 달리 질 좋은 화강암을 뿌리가 긴 사각추 모양으로 만들고 표면은 옥수수알 모양으로 다듬었다. 성돌의 크기는 너비 30cm, 두께 20cm 내외이고 성벽의 경사는 69도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문지는 남문지와 동문지가 조사되었으며, 사다리를 걸쳐놓고 올라가야 하는 현문식懸門式이다. 동문지는 3.5m 높이의 성벽위에 성문을 만들어졌는데 너비가 1차 문지는 6.2m, 2차 문지 3.56m로 축소되었으며, 바닥에는 배수시설이 있다.

치雉는 동문지에 접하여 북쪽으로 연결되는 성벽에서는 능선 방향으로 성벽과 같이 2차에 걸쳐 구축되었으며 1차는 너비 13.2m, 길이 2.1m, 2차는 너비 24.5m, 길이 5.1m이다.

건물지는 행정이나 의례 등 기능에 맞게 건립된 것으로 보이며, 발굴된 것은 11기이나 20여 기 이상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건물지의 영조척營造尺은 장방형 건물지는 고구려척高句麗尺을, 다각형多角形 건물지는 당척唐尺을 사용하였음이 밝혀졌고, 1999년 C지구 저수지에서 길이 29.8cm의 당척이 실물로 출토되었다.

저수지는 A지구와 C지구에서 확인되었다. A지구의 저수지는 2차에 걸쳐서 축조되었는데 1차 저수지는 산성의 축조와 동시에 형성된 것으로 54×30m의 타원형이고, 2차 저수지는 1차

저수지가 퇴적으로 기능이 상실되자 내부를 파내고 축조하였는데 크기는 18×27m, 깊이 230cm 내외이며, 바깥에는 물이 새지 못하게 2m 두께로 점토를 다졌다.

의례유구는 건물의 초석이나 초석에서 가까운 곳에 큰 돌을 올려놓고 그 주변으로 돌아가며 잔돌을 쌓아 놓았는데 2기에서는 17마리의 토제마와 철제마가 출토되었다.

유물은 6~8세기경의 신라토기와 기와가 주류를 이루며, 토제벼루, 철제도끼, 쇠스랑, 짚신, 목제인형, 바구니, 팽이, 요고腰鼓, 등 다양한 생활도구들이 다량 출토되어 당시의 생활과 예술, 풍습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특히 ‘무진년戊辰年’, ‘남한성南漢城’, ‘수성須城’, ‘도사道使’, ‘촌주村主’ 등의 글자가 새겨진 목간木簡이 출토되었는데, 목간은 이성산성의 이름이 ‘남한성’이었을 가능성과 함께 축성 시기, 신라의 지방지배 체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유물로 알려져 있다.

이성산성은 성벽과 저수지, 건물지 등의 축조 양상과 출토유물을 통해 보면 신라가 한강 하류지역으로 진출한 이후 설치하는 신주의 치소성으로 구축되어 한산주의 치소성으로서 행정과 군사 중심지 역할을 하였으며, 7세기 후반~8세기 초반에 대대적인 개축이 이루어진 후 고려 초기 이전에 폐기되어 기능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하남 이성산성 내부 전경, 2018_ 경기도지적연구회
 2. 이성산성 남벽, 1999_ 한양대학교박물관
 3. 2차 저수지, 1990_ 한양대학교박물관
 4. 1차 저수지 출토 목간, 1990_ 한양대학교박물관

사적 제423호

이천 설봉산성

利川 雪峯山城

삼국시대

일원

둘레 1,079m(부성① 530m, 부성② 330m)

지정구역 - 142,224㎡

석성

이천시 사음동 산24 외

지정일 : 2000.09.16

소유자 : 산림청 외

관리자 : 이천시

<이천 설봉산성>은 삼국시대의 테피식 석축산성으로, 부학산성浮鶴山城, 무학산성舞鶴山城, 관고리성官庫里城으로도 불린다. 산성은 이천의 진산鎭山인 설봉산 정상에서 북동쪽으로 약 700m 정도 떨어져있는 봉우리의 7~9부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으며 서쪽에 있는 설봉산 정상부 봉우리와 북쪽 봉우리에도 2개의 부성副城을 두고 있다. 주성主城은 해발 322~246m 사이의 능선을 따라 축조되었는데, 남·서쪽은 높고 북·동쪽은 낮은 편이다. 북쪽으로는 원적산과 용문산, 동쪽으로는 이천, 남쪽으로는 장호원과 망이산성이 한눈에 바라다 보인다. 서쪽은 설봉산 정상에 가로막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상 주변에 부성을 배치하여 서쪽의 용인과 안성 일대의 조망권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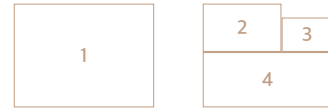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학술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성곽의 잔존 상태와 축조 기법, 그리고 성 안의 장대지, 서문지 등을 비롯하여 저수시설, 저장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성벽은 지형 조건에 따라 편축법片築法과 협축법夾築法으로 수직에 가깝게 쌓았는데 기저부가 암반인 곳은 'L'자형으로 파고 그 위에 성벽을 쌓았고, 풍화암반인 곳은 하단부에 목조 가구 시설을 설치한 후 쌓았다. 성돌은 화강암을 규격에 맞게 치석하여 2~3단 쌓고서 중간에 판상석을 교대로 쌓은 뒤 뒷채움돌과 맞물리게 하였다. 성 내부시설로는 문지 1개소, 건물지 5개소, 치성 1개소가 남아있다.

서문지에서는 문지 축조 이전에 축조된 초축 성벽과 수구지水口址가 함께 확인되었다. 수구지 조사 결과 성벽은 최소 3차례의 수·개축을 거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능선부에서는 석축으로 조성된 편축 성벽과 토루로 조성된 성벽이, 계곡부에서는 성벽 축조 후 내부에 조성된 토축에서 목재 기둥을 비롯한 부엽층, 성벽과 연결된 암거暗渠 2기가 조사되었다. 부엽공법浮葉工法은 주로 백제 토성축조에 주로 나타나는 공법이고 수구

지에서 신라유물은 확인되지 않고 백제토기만 출토되고 있어 석성이 축조되기 전 백제 토축성이 축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유물은 성벽과 성내부에서 다양한 종류의 토기를 비롯하여 철제 솥과 용기, 뚜껑 등의 취사용기류와 보습, 벼, 살포, 낫, 도끼, 망치 등의 철제 농공구류, 다양한 형식의 철촉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이점으로 미루어보아 산성은 신라에 의해 축성된 뒤 통일신라시대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설봉산성은 백제가 먼저 축조하여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후반까지 활용하였고,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 이후에는 전략 요충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신라의 지방군사조직인 10정十停 중 하나인 남천정南川停이 설치될 만큼 행정·군사상의 요지였다.



1. 이전 설봉산성 성벽, 1999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 석곽고, 1999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석곽고, 1999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4. 성벽 1구간, 1999_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坡州 七重城

삼국시대
일원
둘레 603m
지정구역 - 면적 55,223㎡
석성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산148 외

지정일 : 2002.01.29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파주시

<파주 칠중성>은 해발 147m의 중성산 정상부와 서봉西峰의 8~9부 능선을 따라 축성된 삼국시대의 테피식 산성이다. 성은 말안장 형태와 비슷하며 정상부에서 호로그루성, 육계토성과 주월리 일대 적성면과 감악산, 파평산 일대를 조망할 수 있으며, 북동쪽이 가장 높고 동벽의 진입로 부분이 낮다.

칠중성이 위치한 지역에 대한 명칭은 백제시대에는 ‘난은별難隱別(높은 별)’, 고구려가 점거하면서 ‘칠중성현七重城縣’으로 불렸다. 신라는 처음 칠중성현으로 부르다가 경덕왕(?~765) 때에 ‘중성重城’으로 개칭하였고 고려시대에 ‘적성積城’으로 고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성의 명칭 또한 토탄고성吐呑古城·성산·칠중성七重城·낭비성娘臂城 등으로 불리었다.

칠중성에 대한 기록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등장하며 칠중하七重河라는 명칭이 먼저 나온다. 칠중하는 임진강을 지칭하며 기원전 1년 백제 온조왕(?~28)과 말갈의 전투가 최초 기록으로, 그 후 선덕여왕(?~647) 때에 신라와 고구려 사이의 전투(638), 태종무열왕(604~661) 때의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전투(660), 문무왕(626~681) 때의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전투(675)가 이 지역에서 벌어졌다. 특히 신라와 당나라의 전투는 나당전쟁의 분기점이 되었는데 당은 거란족·말갈족과 합세해 칠중성을 포위, 공격했으나 실패했다.



칠중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1994년 육군박물관과 2001년 단국대매장문화재연구소에서 실시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군사 시설이 들어서면서 훼손되어 정확한 구조를 알기가 어렵지만 성벽은 석축이며 내벽과 보축, 외성벽이 여러 차례 중복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동벽과 남벽에서는 내벽과 보축이 확인되었고, 외성벽 전체 구간에 걸쳐 토루와 석축단이 조사되었으며 석축 일부 구간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 개축된 보축성벽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성 내부에서는 문지 2개소, 추정 수구지(또는 문지) 1개소, 추정 건물지 5개소, 우물지 2개소 등을 확인하였다.

수습된 유물은 기와류와 토기류, 소량의 철제품도 있다. 칠중성은 백제의 낭비성으로 비정되어 백제가 처음 쌓았고, 이후 고구려와 신라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 백제와 고구려 유물은 소량이고 7세기 이후의 신라유물이 주를 이룬다. 성벽조사에서도 신라의 특징이 가장 많이 나타나 초축 및 수·개축도 신라에 의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고대산성이 있지만 관련 기록이 남아 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파주 칠중성은 『삼국사기』에 기록된 수많은 성중에서 ‘삼년산성三年山城’(사적 제235호)과 함께 위치가 명확히 비정되는 곳으로 역사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크다.

1	2	3
	4	5

1. 파주 칠중성 전경, 2010. 문화재청
- 2·3. 파주 칠중성 동벽, 200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4. 파주 칠중성 남벽, 200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5. 파주 칠중성 출토 기와, 2012.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사적 제441호

시흥 오이도 유적

始興 烏耳島 遺蹟

선사시대
일원
지정구역 - 434,981.7㎡
시흥시 정왕동 183 외

지정일 : 2002.04.01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시흥시

<시흥 오이도 유적>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오이도에 있는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이다.

오이도는 시흥시에서 약 4km 떨어진 남북이 긴 섬이었으나 1932년 갯벌을 염전으로 이용하면서 육지화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말 시화공단을 조성하며 완전히 육지화 되었으며, 제부도·대부도·소래포구 등과 연결되어 있다.

시흥 오이도 유적은 수자원공사에서 오이도 추가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 지표조사는 1988년 명지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1월과 3월에 걸쳐 2차례 실시되고, 발굴조사는 1988년부터 2001년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4차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신석기시대, 초기 철기시대, 백제시대의 패총과 통일신라시대의 주거지가 확인되었다.

오이도의 패총은 1960년 안말(배다리) 패총이 발견된 이래 현재까지 소래벌 패총, 신포동 A·B·C 패총, 가운데살막 가·나·다 패총, 뒷살막 패총, 작은소래벌 A·B·C 패총 등 6개 지역 12개소에서 확인되었는데, 주로 신석기시대 패각층 위에 삼국시대 패각층이 퇴적된 양상을 보이며, 초기 철기시대, 통일신라시대 이후의 패각층도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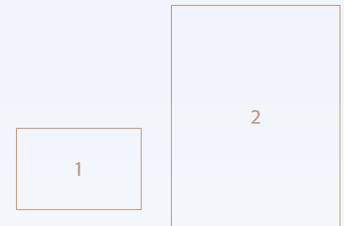
오이도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편 대다수는 신석기시대 빗살무늬토기로 암사동식 구분문계 토기와 단치單齒 또는 다치어골문多齒魚骨紋을 시문한 서해안식 토기가 모두 보이지만 유적마다 출토양상은 다르다.



신포동 패총은 A·B·C 세 지점 중 B패총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A패총은 조사 이전에 이미 훼손되었고, C패총은 군부대 안에 위치하고 있어 지표조사만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야외노지 3기를 확인하였고, 빗살무늬토기편 400여 점과 마제석부 2점, 굴 따는 도구 1점, 마제 석촉 1점, 골촉 1점 등 모두 405점의 유물을 수습하였다. 소래벌 패총의 패각 더미는 오이도 내 패총을 파헤쳐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모아두었던 것으로 판명되었다. 패각 사이에서 소량의 빗살무늬 토기편과 무문토기편이 수습되었다.

가운데살막 패총에서는 수혈주거지 3기, 야외노지 4기 등의 유구를 비롯하여 빗살무늬토기편과 석기류 등 1,000여 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가·나·다 패총 가운데 ‘가’·‘다’는 발굴 전에 이미 훼손되어 ‘나’패총을 중심으로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나’패총에서는 야외노지 4기가 확인되었고, 유물은 주로 구연부에 단사선문, 기복부에 중주어골문이나 횡주어골문을 시문한 전형적인 암사동식 구분문계 토기가 출토되었다. 일반적으로 서해 도서지방의 신석기 시대 유적들이 후기로 편년되어 있는 것에 반해 이 지역 패총의 절대 연대 값은 B.C.2920~2660년으로 이른 시기에 속한다.

뒷살막 패총에서는 신석기시대 야외노지 7기, 수혈주거지(추정) 1기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빗살무늬토기편과 백제토기편·갈돌·갈판·고석·석부편·굴 따는 석기 등 석기류 유물 500여 점이 수습되었다.



1. 오이도 유적 전경, 촬영일미상_문화재청
2. 오이도 유적 전경, 2017. 시흥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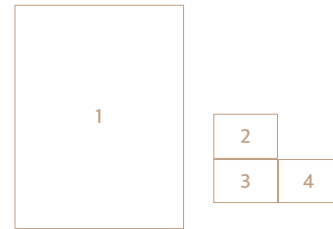




안말 주택밀집지역 시굴 및 발굴에서는 흑요석 박편이 1점 확인되었으며, 신석기와 청동기시대·백제 및 통일신라시대의 유구와 수백 여 점의 유물이 확인되었다. 발굴조사는 A·B·C 세 지역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A의 해안 사구에서 발견된 신석기 패총에서는 화덕자리 36곳과 수백 점의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되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황해도 지탑리 유적에서 출토된 바 있는 'W'자 모양이 새겨진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B지역의 청동기 패총에서는 다량의 점토대토기류와 발화석(發火石)으로 여겨지는 흙이 과인 돌 기점 및 생선뼈·사슴뼈 등이 출토되었으며, C지역의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는 14개의 원형 집터가 확인되었는데, 이 중 5곳은 온돌구조가 완전히 남아있었다. 또한 인화문토기와 물레자국이 확연한 대부완 등 신라 토기가 다량 출토되었다.

일반적으로 서해안의 신석기 패총은 구릉을 등지고 바라보는 해안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오이도 유적의 패총은 해안 사구까지도 널리 나타남으로써 분포의 광대함과 다양성을 알 수 있다.

오이도 유적은 서해안 지역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신석기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이용되었으며 우리나라 해안지역 주민의 생활상과 서해안 도서지역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유적이다. 또한 초기 철기시대의 점토대토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점토대토기의 기원과 확산, 서해안 중서부지역에 등장하는 과정과 내륙 또는 남해안으로 퍼져 나가는 과정 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다.



1. 오이도 유적 전경, 2017_ 시흥시
2. 오이도 작은소리벌 패총, 2001_ 서울대학교박물관
3. 신포동 패총(B지구 패각층), 1988_ 서울대학교박물관
4. 빗살무늬 토기편, 1997_ 서울대학교박물관



사적 제451호

화성 마하리 고분군

華城 馬霞里 古墳群

원삼국~삼국시대
일원
지정구역 - 76,672㎡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산40 외

지정일 : 2003.08.29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화성시

<화성 마하리 고분군>은 화성시 봉담읍 마하리 태봉산(泰峰山) 남쪽 구릉에 위치한 백제의 고분군이다. 1995년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에 대한 지표조사에서 확인되어 시굴조사 후 발굴조사되었다.

발굴조사는 1996~1999년에 실시되었으며 조사결과 목곽묘 6기, 목관묘 15기, 석곽묘 49기, 석실묘 1기, 옹관묘 1기 등이 확인되었다. 고분은 장축이 등고선과 평행한 것과 직교하는 것이 혼재하며, 등고선과 평행한 것이 대체로 이른 시기에 조성된 것이다.

봉분 규모는 무덤조성 시의 바닥면보다 깊게 파인 도랑으로 짐작할 수 있다. 목관묘는 봉분이 원형 또는 타원형으로 지름 3~5m, 높이 1~3m로 추정된다. 토기류의 부장위치는 묘광 외부의 봉토 속, 묘광 벽과 목관 사이, 부장갱 등 3가지로 분류되며, 토기류 이외에 도자·유리구슬 등이 부장되었다. 특이하게 주로 석곽묘에서 보이는 장벽의 중간부에 횡으로 바닥보다 약간 높게 굴광하여 토기 부장공간을 별도로 마련한 것도 1기 있다. 목곽묘는 묘광의 크기가 길이 395cm 너비 24cm, 깊이 78cm이며, 'ㅂ'자형으로 결구하여 북쪽에 부장공간을 따로 마련하였다. 석곽묘의 봉분은 원형 내지 타원형으로 지름은 목관묘보다 크다. 대부분 바닥에서 목관을 안치할 때 고이기 위한 횡목시설이 관찰된다. 유물부장은 묘광 외부의 봉토, 석곽 내부, 묘광의 벽면 일부, 외벽에 덧붙인 공간 등을 이용하였으며, 내부보다 묘광 외부에 부장한 것이 많다.



석실묘는 횡혈식으로 봉분의 지름은 약 10m로 추정된다. 석실은 너비 470cm, 길이 475cm의 정방형이며, 잔존 깊이는 105cm이다. 연도는 석실의 오른쪽에 위치하며, 길이 150cm, 너비 80cm이며, 입구의 폐쇄석은 2단 정도만 남아있다. 시상부는 4개가 확인되는데 서쪽의 제1시상부는 3개의 관받침 판석을 설치하였고, 중앙의 제2시상부는 관받침으로 작은 판석을 전면에 깔았다. 북쪽의 제3시상부는 5개의 관받침 판석을 설치하였고, 동쪽의 제4시상부는 관 받침이 없다. 옹관묘는 석곽묘의 배장묘로 묘광이 길이 112cm, 너비 60cm이며, 횡침선없이 승문만 타날된 것과 횡침선없이 승문과 정격자문이 타날된 장란형토기를 합구시켰다.

유물은 토기류와 철기류, 장신구류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원저호와 심발형토기가 주를 이루며, 한성백제양식인 직구단경호도 확인된다. 장신구류는 금제 이식·수정제·유리제 구슬이 확인되며, 철기류는 성시구·철모·마구류, 철검·살포·철부·철정鐵釘 도자 등이 출토되었다.

유구의 주위에 원형으로 나타나는 흑갈색 부식토와 유물의 변화양상을 통해 6기로 세분된다.

화성 마하리 고분군은 당시의 묘제와 토기의 변천과정, 편년 연구 및 한강유역에 한정되었던 초기 백제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는 유적으로 평가된다.

1	2	3
	4	5

1. 화성 마하리 고분군 전경, 201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화성 마하리 고분군, 1996. 문화재청
3. 석실분, 1996. 문화재청
4. 목관묘, 1996. 문화재청
5. 9호 석곽묘 토기 부장 상태, 1996. 문화재청



사적 제464호

파주 혜음원지

坡州 惠蔭院址

고려시대

일원

지정구역 - 111,597㎡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234-1

지정일 : 2005.06.13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파주시

<파주 혜음원지>는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고려시대의 원院 터이다. 혜음원은 수도인 개경과 남경南京 사이를 왕래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립한 국립숙박시설이다. 사찰과 함께 국왕의 행차를 위한 시설로 별원別院(행궁)도 갖추어 규모가 매우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및 조선시대에 중요한 교통로로 이용되었던 혜음령惠蔭嶺이라는 명칭의 유래에서 그 위치가 추정되어 오다가 1999년 ‘혜음원’이라는 명문이 새겨진 암막새기와가 수습됨에 따라 현재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었으며,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0차례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혜음원에 관련된 문헌자료로는 『동문선』 권64 「혜음사신창기惠蔭寺新創記」와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이 있다. 「혜음사신창기」는 혜음원의 창건 배경 및 그 과정과 이에 공헌한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은 대체로 동문선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내용이 간추려 축약되었고, 약간의 차이도 있다. 『여지도서』에는 ‘옛 터만 있다’라 하여 폐사된 상태만 간단히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혜음원에 대한 여러 기록 중 『동문선』에 실려 있는 「혜음사신창기」가 가장 자세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혜음사신창기」에 의하면, 혜음원은 예종이 비구 응제應濟와 제자 민청敏淸 등에게 명령하여 1120년(예종15)에 공사를 시작한 뒤 2년 만에 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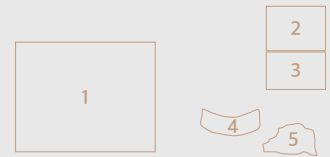


공하였다고 한다. 혜음원과 함께 있었던 절은 인종(仁宗 재위 1122~1146)이 이름을 내려 '혜음사(惠陰寺)'라고 불렀다고 전한다. 하지만 인종 이후에 큰 화재로 모두 불탔는데, 몽골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약탈하고서 불을 놓은 것으로 추정된다.

발굴조사 결과 혜음원 경역은 행궁지와 원지, 사지로 구분되는 건물일곽임을 확인하였다. 동서 약 100m, 남북 약 129m에 이르는 면적에서 11개의 단으로 이루어진 경사지에 35개의 건물지와 외곽담장지, 수로, 집수정, 우물, 화계시설, 연못지 등 다양한 유구가 확인되었다.

행궁지는 북동쪽에 1~4단 위치하며 원지를 헐고 조성한 흔적이 확인되어 원지보다 나중에 축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장 위쪽에 정전, 입구쪽에 연회나 모임을 위한 대형 누각지가 위치하는데 두 건물지의 중앙을 연결하는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룬다. 외곽 담장과 별도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내곽 담장을 시설하였다. 사지와 원지는 같은 건물군으로 앞쪽(5~9단)에 원지가, 뒤쪽(3~4단)에 사지가 있다. 금당지, 중정이 있는 건물지 등 축조방법이나 석재가 원지 건물지와 차이가 있으며 경전을 보관하는 윤장대와 청자 등 생활유물이 집중 출토되기도 하였다. 원지는 2x1칸이 하나의 방을 이루고 있는데 2칸에 하나씩 한쪽으로 치우쳐 4각형의 화덕과 같은 난방시설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남쪽에 혜음원의 정문으로 볼 수 있는 주출입문이 있다. 유물은 정전지 주변에서 용두·취두·잡상 등 건축재가, 전역에서 귀면와·막새·명문와·청자·중국자기·금동불·칠기굽접시 등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혜음원지는 문헌기록과 유구, 유물을 통해 고려시대 원의 구조와 형태 및 운영 실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왕실, 귀족, 평민 등 각 계층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유적으로서, 고려 전기 건축 및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 파주 혜음원지 전경,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2. 행궁지, 200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3. 4-4건물지, 2004.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4. 막새기와, 2012. 한백문화재연구원
5. 청자상형개구리편, 2012. 한백문화재연구원



사적 제467호

연천 호로고루

漣川 瓠蘆古壘

삼국시대
일원
둘레 약401m
지정구역 - 107,258㎡
토석혼축성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1257-1 외

지정일 : 2006.01.02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연천군

<연천 호로고루>는 연천군 장남면에 있는 고구려 성곽이다. 임진강 북쪽 기슭의 현무암 단애斷崖 위에 있는 삼각형 모양의 강안평지성 江岸平地城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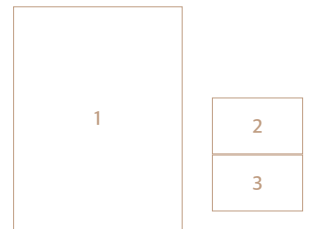
『삼국사기』에는 호로고루가 있는 고랑포 일대를 과천·호로하 또는 표하瓢河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읍지京畿邑誌』나 『대동지지大東地志』 등에는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고구려와 신라, 신라와 당나라 사이의 전투 기록이 여러차례 나온다. 임진강은 하류로 가면 서 강폭이 넓어지고 수심이 깊어지는 데다가 현무암대지를 따라 높이가 10~15m 정도의 수직 절벽이 형성되어 있어 임진강 일대는 별도의 성벽을 구축하지 않더라도 적을 막아낼 수 있는 군사적으로 중요한 천혜의 요충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특히 호로고루는 임진강 하류방면에서 배를 타지 않고 건널 수 있는 최초의 여울목에 접해있어, 육로를 통해 개성에서 서울 지역까지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에 해당한다. 조선시대 후기에도 호로탄瓠蘆灘이라 하여 장단을 통해 개성으로 들어가는 주요 길목이었다.



호로그루는 1991년 문화재연구소가 실시한 군사보호구역내의 문화유적 지표조사를 통해 고구려유적이 알려졌으며, 2001년부터 토지주택박물관에 의해 4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성벽과 목책유구木柵遺構, 지상건물지, 우물지 등을 확인하였다.

호로그루의 성벽 축성에는 토성과 석성을 결합한 독특한 토목기술이 적용되었다. 우선 지반을 평탄하게 다진 뒤 성벽을 쌓은 구간을 전체적으로 1m 정도 높이로 판축해서 쌓은 후 석축으로 체성벽을 쌓아 올렸다. 그리고 체성벽 외면에는 힘을 분산시켜 성벽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암반에서부터 보축성벽을 쌓고 보축성벽 바깥에는 경사지게 판축하여 보축성벽을 보강하였다. 이러한 축성기법은 인접한 당포성과 은대리성에서도 확인되며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國內城과 평양 대성산성大城山城등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축성이 용이하다는 토성의 장점과 내구성과 방어력이 뛰어난 석성의 장점을 결합한 고구려의 뛰어난 축성기술을 보여준다.

또한 체성벽 안쪽에서는 기둥홈이 있는 내성벽內城壁이 확인되었는데, 대성산성과 당포성에서도 확인된 바 있는 기둥홈의 기능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압 완화, 무기 거치 등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었으나 호로그루 발굴을 통해 석축성벽의 축성공정과 관련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저부의 판축도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목주를 세우고 구획한 다음 그 안에 석재를 채움으로써 견고하고 효율적으로 성벽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연천 호로그루 전경, 2009. 토지주택박물관
2:3. 연천 호로그루 동벽, 2006. 토지주택박물관

한편 보축성벽 외면에는 기저부에서 5m 정도 거리를 두고 신라성벽을 덧붙여 쌓았다. 고구려 성벽에는 근처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무암 성돌이 주로 사용된 것에 비하여 신라 성벽은 화강편마암이 주류를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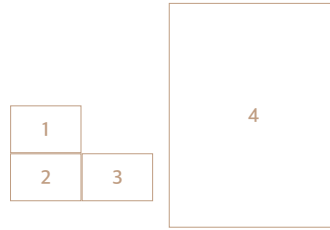
목책木柵은 동벽 구축 전 이곳에 처음 방어시설을 구축했던 고구려군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목책 조성 당시에는 호로그루 내부가 지금처럼 평탄하지 않았으므로 자연지형을 따라 목책을 세웠으며, 내부에는 초병들의 숙소로 사용된 토광이 있다.

지상전물은 성내부에 대한 대대적인 토목공사를 시행하여 목책을 제거하고 조성하였다. 전체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잔돌로 적심을 놓고 그 위에 초석을 올려놓았으며, 지붕에는 기와를 얹었다. 내부에는 난방과 취사를 위하여 ‘ㄱ’자 형태의 온돌시설이 구축되었다.

호로그루에서는 구석기시대의 주먹도끼를 비롯하여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는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다. 출토유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고구려기 와로, 현재까지 조사된 남한지역의 고구려유적 중 가장 많은

양이 출토되고 층위도 명확히 구분되어 고구려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기와는 대부분 붉은색이나 황갈색을 띠고 있으며, 기와의 문양은 승문, 거치문, 격자문, 사격자문, 횡선문 등으로 다양한데 좁은 판자로 만든 와통을 사용하여 내면에 모골模骨이 요철을 이루며 찍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호로그루에서는 연화문 와당과 치미, 착고기와나 전돌과 같은 건축물부재 등이 출토되었다. 치미는 지금까지 조사된 고구려 유적 중에서도 왕궁이나 사찰로 추정되는 일부 건물터 외에는 거의 발견된 사례가 없어 주목되며 건축부재는 호로그루에 화려하고 수준 높은 건물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기와 외에도 삼족벼루를 비롯하여 호자虎子, 고구려 관모 형태의 토제품, 흙으로 만든 북 등이 각종 생활용구와 고구려병사들의 식생활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는 각종 탄화곡물과 소·말·개·멧돼지·사슴·노루 등 다양한 동물의 뼈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고구려의 축성기술과 함께 생활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



1. 동벽의 수직기둥 홈, 2011. 토지주택박물관
 2. 집수시설, 2011. 토지주택박물관
 3. 연천 호로그루 기와 집중 퇴적지, 2009. 토지주택박물관
 4. 연천 호로그루 전경, 2011. 연천군





사적 제468호

연천 당포성

漣川 堂浦城

삼국시대
일원
둘레 약450m
지정구역 - 35,174㎡
토석혼축성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778 외

지정일 : 2006.01.02
소유자 : 공유
관리자 : 연천군

<연천 당포성>은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일대의 임진강 북안에 위치해 있다. 당포성에 관하여 조선시대에 편찬된 각종 지리지에는 전혀 언급이 없으며 유일하게 미수眉叟 허목許穆(1595~1682)의 『기언별집記言別集』에 '마전 앞의 언덕 강벽 위에 옛 진루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위에 총사가 있고, 그 앞의 나무를 당개라 하는데 큰물이 흘러 나룻길로 통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당포성은 1994년 육군박물관의 지표조사를 통하여 처음 알려졌고, 2003년 이후 2차에 걸친 발굴조사를 통하여 성의 구조가 밝혀지게 되었다.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 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안평지성江岸平地城으로 입지조건과 평면 형태와 축성방법은 호로그루·은대리성과 매우 유사하다.

당포성은 파주 방면에서 신계방면으로 가는 교통로에 위치하고 있어 양주방면에서 북상하는 적을 방어하는데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임진강을 건너 양주방면으로 남하하는 적을 방어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위치이므로 신라가 진출하여 당포성 외벽에 석축벽을 덧붙여서 보강하며 계속 활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포성은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직 단애斷崖를 이루지 않은 동쪽에만 석축성벽을 쌓았는데 동성벽은 길이 50m, 높이 6m 정도이며, 동벽에서 성의 서쪽 끝까지의 길이는 약 200m, 전체 둘레는 450m 정도로 호로그루보다는 약간 큰 규모이다.



동벽은 남단부가 석축으로 마감되어 있어 호로그루와는 축성 기법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단면 확인조사 결과 호로그루와 마찬가지로 기저부와 중심부는 판축으로 구축되었다. 판축토 위에 체성벽이 올라가고 체성벽 바깥쪽에 암반 층에서부터 쌓아올린 보축성벽을 쌓아서 체성벽의 중간부분까지 이르도록 하고 보축성벽의 바깥쪽에는 중간부분부터 다시 점토를 덧대어서 보강을 한 구조이다. 당포성도 호로그루와 마찬가지로 보축성벽과 보강토의 기저부에서 2m 정도 이격된 지점에서부터 신라가 새로운 성벽을 덧붙여 쌓았다.

당포성의 성돌도 호로그루와 마찬가지로 고구려 성벽은 현무암 성돌을 사용한 반면, 신라성벽의 성돌은 화강편마암을 사용하였다. 신라의 와적층은 화강편마암이 덧붙여쌓은 신라 성벽기저부에서부터 동쪽으로 길게 연결되며 두텁게 쌓여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층위상으로 볼 때 발굴에서 확인된 해자는 고구려성벽의 해자가 아니라 신라성벽의 해자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체성벽의 외면에는 수직 홈이 일정한 간격으로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수직홈은 평양의 대성산성에서도 확인되며, 호로그루에서도 같은 모양의 확돌이 확인되어 호로그루의 체성벽에도 수직홈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출토유물은 선조문과 격자문이 타날된 회색의 신라기와와 경질토기편이 주류를 이루지만 고구려 토기편과 기와편도 확인된다. 고구려 기와편은 대부분 적갈색을 띠고 있으며 호로그루와 달리 승문(繩文)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이한 점은 기와 내면에 모골와통에 의한 모골흔과 함께 횡방향으로 2차 타날된 승문이 찍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모골와통에 의하여 요철이 심하게 된 기와 내면을 2차 정면하기 위하여 등근 방망이에 노끈을 감아서 타날한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제작기법은 무등리 1보루에서도 확인되었다.

당포성은 호로그루·은대리성과 함께 강안의 단애 위에 구축된 삼각형의 강안평지성으로서 구조적으로 매우 독특한 형태이다. 당포성은 특히 임진강의 당개나루를 방어하기 위하여 구축된 성으로서 호로그루와 함께 고구려의 국경을 방어하는 중요한 성곽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 연천 당포성 전경, 2018. 경기도지역연구회
2. 연천 당포성 동벽 외벽 발굴조사, 2006. 연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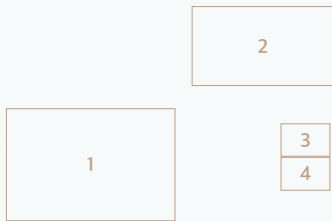
사적 제469호

연천 은대리성

漣川 隱垞里城

삼국시대
일원
외성길이 1,005m, 내성길이 230m
지정구역 - 90,876㎡
토석혼축성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577 외

지정일 : 2006.01.02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연천군



- 1. 연천 은대리성 동벽, 2012. 연천군
- 2. 연천 은대리성 전경, 2018. 경기도지적연구회
- 3. 동벽1 내벽, 200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 4. 동벽2 내벽, 2003.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천 은대리성>은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에 있는 고구려성이다. 은대리성이 있는 곳은 차탄천이 한탄강에 합류하는 지점으로, 성은 두 하천에 의하여 형성된 삼각형의 침식대지 위에 축조되어 있다. 유적을 감싸고 남서향하는 한탄강은 곧 입진강에 합류하고 서울과 원산을 잇는 교통로로 활용되어 왔던 추가령 구조곡에 접하여 있다. 따라서 이곳은 한반도의 중부지역과 동해안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삼국사기三國史記』의 기록에 의하면 추가령 구조곡을 이용한 말갈족靺鞨族의 침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다.

은대리성에 관한 문헌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1995년 연천문화원에서 발간한 『향토사료집』에 최초로 보고되었다. 이후 육군박물관에 의한 지표조사에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었고, 2003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성벽의 구조를 알 수 있게 되었다.

조사는 성 내부의 유구확인을 위한 시굴조사와 동벽에 대한 단면 확인 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동쪽과 북쪽 성벽은 상당부분 훼손되었으나 내부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은대리성의 평면은 삼각형이며 남벽과 북벽의 일부는 강변의 자연 단애斷崖를 이용하였고, 동쪽의 평탄지에만 성벽을 구축하였다. 동벽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체 규모는 동서 400m, 남북 145m로 총 둘레가 1,005m이며 면적은 32,592㎡이다. 이 중에서 내성은 둘레가 총 230m이며 내부면적은 2,770㎡이다.

은대리성의 성벽은 호로고루나 당포성에 비해 견고하지 않고 높이가 낮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 발굴조사에서 노출된 성벽의 단면을 보면 성벽의 기저부와 중간부분은 점토와 모래로 판축版築하였고, 성의 내·외벽만 석축으로 조성하였다. 이런 형태의 축성기법은 대성산성에서도 확인되는 고구려의 특징적인 축성기법으로, 축성이 용이한 토성의 장점과 방어력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석성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이다. 반면 동벽의 외벽에 보축성벽을 쌓지 않은 점과 남벽과 북벽에도 동일한 구조로 지상성벽을 쌓은 점은 다르다. 또한 호로고루나 당포성은 7세기 후반 신라에 점유되어 동벽 바깥에 석축성벽을 덧붙여 쌓은 흔적이 확인되지만 은대리성은 후대에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이후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성 내부에서는 문지 3개소를 비롯하여 대형 건물지 1개소, 치성 2개소가 확인되었다. 문지는 북벽과 남벽의 비교적 지형이 낮은 곳에서 확인되었는데, 북벽에 있는 2개의 성문은 배수기능을 겸했을 것으로 보인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고구려 토기편이며, 소량의 철제 유물이 확인되었다. 이 중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두 개의 가로날 손잡이가 달리고 외반된 구연에 평저 바닥을 갖춘 전형적인 고구려 토기의 어깨면에는 음각 물결무늬와 점렬문點列紋이 찍혀 있다. 이러한 문양은 인접한 고성산 보루와 호로그루의 목책 단계, 몽촌토성 등에서 확인되는 고구려 토기와 유사하며 비교적 이른 시기의 고구려 토기에 나타난다.

은대리성은 고구려군의 남진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을 고려할 때 6세기 중엽 고구려가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이후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를 하면서 한탄강변에 있었던 은대리성은 신라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후 전략적 가치의 상실로 인하여 폐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적 제478호

수원 화성행궁

水原 華城行宮

조선시대(1789년, 1790년, 1794년, 2003년 복원)

일원

지정구역 - 37,179㎡

신평루(정문) - 2층 6칸 누문

봉수당(정전) - 8×4칸

낙남헌 - 5×3칸

목재, 석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25

지정일 : 2007.06.08

소유자 : 국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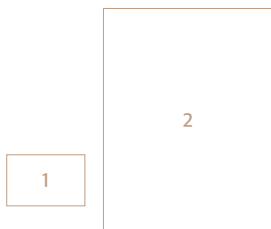
관리자 : 수원시

<수원 화성행궁華城行宮>은 정조가 현룡원顯隆園 행차시 머무르는 임시 처소로, 1789년(정조13)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양주 영우원永祐園에서 수원부 치소가 있던 화산華山 아래로 옮겨 현룡원을 조성함에 따라 수원부의 읍치를 옮기면서 함께 조성되었다. 수원부의 명칭이 화성으로 바뀐 것은 1793년(정조17) 1월 12일 정조가 봉수당奉壽堂에서 ‘수원도호부水原都護府를 화성유수부華城留守府로 승격시킨다’는 하교를 내리고 직접 쓴 ‘華城行宮’ 현판을 걸면서부터이다.

화성행궁은 1789년에 장남헌張南軒(이후 봉수당奉壽堂)과 팔달관八達館(이후 우화관于華觀)을 비롯한 150여 칸의 건물로 구성되었으며, 1794년(정조18)부터 1796년(정조20)까지 화성華城이 새로이 축성될 때 치소治所 건물을 대대적으로 증축·수리하고 여러 공해公廨와 군영軍營 등 420여 칸을 신축하면서 576칸으로 확장되었다.

화성행궁 건물의 조성과정과 규모, 재료 등은 『일성록日省錄』(1789), 『수원신읍영건공해간수성책水原新邑營建公廨間數成冊』(1791년 추정),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1785), 『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1791), 『기전영지畿甸營誌-수원부읍지水原府邑誌-』(1895), 『수원부읍지水原郡邑誌』(1899), 『원행을묘정리의궤園行乙卯整理儀軌』(1797),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1801)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당시에는 봉수당奉壽堂과 경룡관景龍館·복내당福內堂·유여택·노래당老來堂·신평루·남북군영·강무당講武堂·무고武庫·수성고修城庫·집사청執事廳·서사청書史廳·비장청婢將廳·우화관于華館·득중정得中亭·행각行閣 등 많은 건물들이 있었다.

1874년(고종11) 2만 냥을 들여 행궁 지붕을 고쳤다는 기록이 존재하는 등 잘 유지되어 왔으나, 이후 일제강점기 때 봉수당에 서양식 의료기관인 자혜의원이 들어서면서 모두 파손되고 낙남헌만 남게 되었다. 광복 후에도 독립병원으로 증축·사용되면서 행궁의 면모를 완전히 잃었다. 유일하게 남은 낙남헌은 한때 수원군청의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신평초등학교 내에 남아 교사校舍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 수원 화성행궁, 1999. 경기문화재연구원
2. 수원 화성행궁 전경,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이처럼 화성행궁은 한동안 자취를 잃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도립병원이 이전되는 것을 계기로 화성행궁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발굴조사 및 복원공사를 시작하였다. 발굴조사는 1995년에 시작되어 2001년까지 5차에 걸쳐 이루어졌다. 발굴 결과 행궁의 가장 뒤쪽 담장유구가 확실하게 확인되었으며 그 밖에 봉수당 주변행각을 비롯해서 유여택의 건물 기반부가 거의 완전하게 노출되었다. 또한 중앙문에서 봉수당에 이르는 어도와 어도에 깔았던 전돌이 일부 확인되었다. 출토유물은 대부분 18세기 이후에 제작된 자기류가 확인되었으며 기와편이 다수 출토되었지만 행궁에서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생활잡기는 확인된 것이 없었다.

소실된 건물에 대한 복원은 발굴이 진행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 복원에는 주로 『화성성역의궤』의 기록을 참고하였으며, 20세기 초에 촬영한 행궁 전경 사진이 지상부 건물 복원의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또한 발굴에서 확인된 건물터를 통해서 복원 건물의 위치를 선정하였다. 1996년 화성축성 200주년을 맞아 수원시가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으로 복원공사를 시작하였고, 2003년 7월 말 봉수당, 득중정, 궁녀와 군인들의 숙소 등 482칸의 복원을 완료한 1단계 공사가 끝났다.

『화성성역의궤』나 19세기 읍지 기록에는 봉수당, 장락당, 유여택은 단청을 칠하지 않고 신평루, 낙남헌 등은 채색이 이루어졌다고 명시되었으나 2002년 준공을 기하여 행궁의 격식을 높이고 외관을 통일하기 위해서 주요 건물에는 모두 단청 칠을 하였다.

2018년 현재 진행 중인 2단계 사업에서는 신평초등학교가 위치한 우화관과 맞은편에 위치한 별주, 내포사 등 화성행궁의 나머지 3개 건물 94칸과 행궁담장 등을 발굴·복원하여 화성행궁의 원형을 되찾게 할 계획이다.



사적 제479호

북한산성 행궁지

北漢山城 行宮址

조선시대(1712년)

일원

지정구역 - 11,388㎡

내정전 - 7×4칸

외정전 - 7×4칸

목재, 석재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169

지정일 : 2007.06.08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고양시

<북한산성 행궁지>는 북한산성 내에 있는 조선시대의 행궁行宮터로, 북한산성 내 남쪽에 자리하고 있으며, 상원봉上元峯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

행궁은 왕이 거동할 때 임시로 머무는 별궁別宮 또는 이궁離宮을 뜻하며, 북한산성 행궁은 북한산성 성곽 공사의 감독을 맡았던 김우항金宇杭이 산성 안에 유사 시 임금의 피난처 및 지휘소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 궁궐을 지어야한다고 주청하여 축조하게 되었다. 북한행궁 축조는 1711년 8월 공사를 시작하여 그 이듬해인 1712년(숙종38) 5월에 완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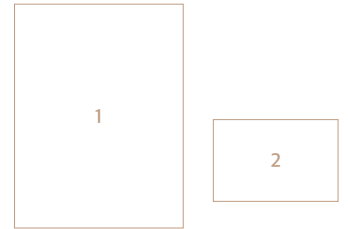
1745년(영조21) 성능聖能이 편찬한 『북한지北漢誌』에는 북한산성과 행궁의 규모와 시설, 위치, 건립연대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북한지』에 기록된 행궁의 전체 규모는 115칸으로 내전內殿과 외전外殿, 그리고 부속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내전은 정전 28칸과 좌우 각 방·청廳·대문·수자칸水刺間 등 부속 건물 26칸으로 총 54칸이고, 외전 역시 28칸이며 제도는 내전과 같고 외행각방外行閣房·누·청·곳간·대문 등 부속건물 33칸으로 총 61칸이 있었다.



북한산성 행궁은 창건 이후 개축과 증축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1879년(고종16) 홍수로 훼손된 것을 총융청 조희복趙羲復의 발의에 따라 개건하였고, 1893년(고종 30) 5월에도 중수가 이루어졌다. 한편 행궁 영역에 왕실 족보를 보관하기 위한 보각이 조성되었는데, 더 나아가 고종연간에는 사고史庫로 전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산성 행궁의 장서목록인 『북한책목록北韓冊目錄』(1909)을 통해 알 수 있고, 또한 목록에서 확인되는 서적의 상당 부분이 고종 연간의 것이다. 병인양요 때 외규장각이 소실되자 이후 왕실의 주요 서적이거나 어보, 어책 등의 보관 기능을 행궁 내 사고에서 담당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행궁은 이후 1912년 영국 성공회에 10여 년간 임대되었다가 1915년 대홍수로 완전히 유실되고 파괴되었다.

북한산성 행궁에 숙종은 1번, 영조는 2번 행차하였다. 숙종은 북한산성이 완공된 이듬해인 1712년(숙종38), 새롭게 축성된 북한산성과 완공 단계에 이른 행궁을 살펴보기 위해 들러 대신과 제신이 입성한 가운데 성의 서북변에 중성中城을 축성하라고 지시하고, 산성 내 사찰 건립 시 공명첩空名帖의 발행과 양항糧餉 문제를 결정하였다. 영조는 1760년(영조36)과 1772년(영조48)에 북한산성 행궁에 행차하였다.

20세기 초까지 남아 있던 행궁은 1915년 8월의 대홍수 때 건물이 붕괴된 이래 지속적인 호우로 인하여 행궁 영역 내 계곡의 물줄기가 형성됨에 따라 많은 양의 토사와 암괴가 유입되어 파괴 및 매몰이 진행되었다. 이후 북한산성 행궁에 대한 정비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행궁 복원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행궁지에 대한 지표조사(1998)를 실시하고 종합정비기본계획(2009)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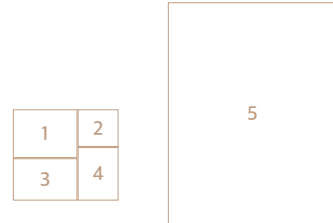
1. 북한산과 북한산성 행궁지 전경, 2014
 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북한산성 행궁지(조선명소엽서), 일제강점기
 _ 국립문화재연구소



발굴조사는 5차례 실시되었으며, 조사 결과 건물의 구성과 배치는 『북한지』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외전터로 추정되는 건물터와 축대 일부, 외대문, 좌우의 담장터 등을 확인하였으며, 영역 곳곳에서 많은 양의 기와를 수습하였다. ‘壽(수)’자가 새겨진 수막새나 ‘櫛(옹)’자가 새겨진 암막새가 확인되었고, 초화문·봉황문·거미문 등의 각종 막새기와를 비롯하여 치미·용두·잡상 등의 기와류, 다양한 명문을 새긴 기와가 확인되었다. 그 외에 건축물에 사용한 철물이 다량 출토되었다. 한편 외전 영역에서는 영국성공회가 북한산성 행궁을 여름피서지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램프와 스토브 같은 서양유물도 출토되었다.

북한행궁은 소실되었으나 일부는 초석이 잔존하는 등 건물 기초의 원형이 남아있고, 주변으로는 창고지와 군사시설 비롯한 주변의 시설이 잘 남아있어 구체적인 배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900년 이후에 촬영된 흑백사진이 여러 장 전해지고 있어 당시 행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인 세키노다다시(関野貞是)는 1902년(광무 6) 한국의 건축유적을 조사할 목적으로 내한하여 북한산성 행궁을 살펴보고 그 결과를 『한국건축조사보고』(1904)에 수록하였는데, 팔각지붕의 내외 정전을 축으로 하여 부속건물이 질서 정연하게 배치된 당시 행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산성은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왕이 행행하여 도성 방어책을 논의하는 등 도성 방비의 중요한 거점이었으며, 행궁은 북한산성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시설로 조선시대의 산성과 행궁 운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1. 북한산성 행궁지 내전, 1910년대 - 성공회대학교박물관
2. 램프, 2015.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북한산성 행궁지, 1902. 한국건축조사보고
4. 북한산성 행궁지 외-우행각지 출토 봉황문 수막새, 2015.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북한산성 행궁지 전경, 2013.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사적 제480호

남한산성 행궁

南漢山城 行宮

조선시대(1625년)

일원

지정구역 - 87,548㎡

내행진 - 7×4칸

외행진 - 7×4칸

정전 - 5×3칸

영녕전 - 5×3칸

좌승당 - 6×3칸

일장각 - 4×3칸

목재, 석재

광주시 남한산성로 784-29 일원

지정일 : 2007.06.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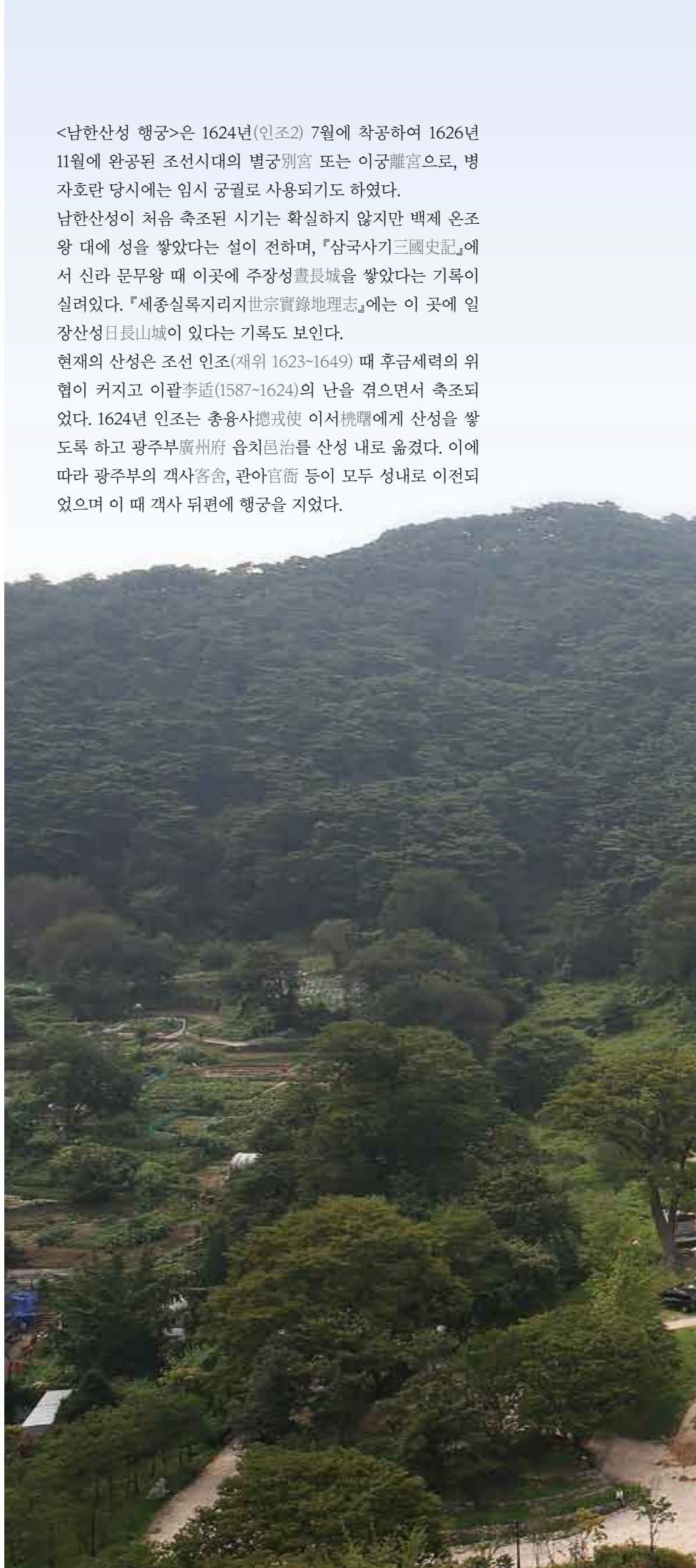
소유자 : 경기도 외

관리자 : 경기도

<남한산성 행궁>은 1624년(인조2) 7월에 착공하여 1626년 11월에 완공된 조선시대의 별궁別宮 또는 이궁離宮으로, 병자호란 당시에는 임시 궁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남한산성이 처음 축조된 시기는 확실하지 않지만 백제 온조왕 대에 성을 쌓았다는 설이 전하며, 『삼국사기三國史記』에서 신라 문무왕 때 이곳에 주장성晝長城을 쌓았다는 기록이 실려있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에는 이 곳에 일장산성日長山城이 있다는 기록도 보인다.

현재의 산성은 조선 인조(재위 1623~1649) 때 후금세력의 위협이 커지고 이괄李适(1587~1624)의 난을 겪으면서 축조되었다. 1624년 인조는 총융사摠戎使 이서棼에게 산성을 쌓도록 하고 광주부廣州府 읍치邑治를 산성 내로 옮겼다. 이에 따라 광주부의 객사客舍, 관아官衙 등이 모두 성내로 이전되었으며 이 때 객사 뒤편에 행궁을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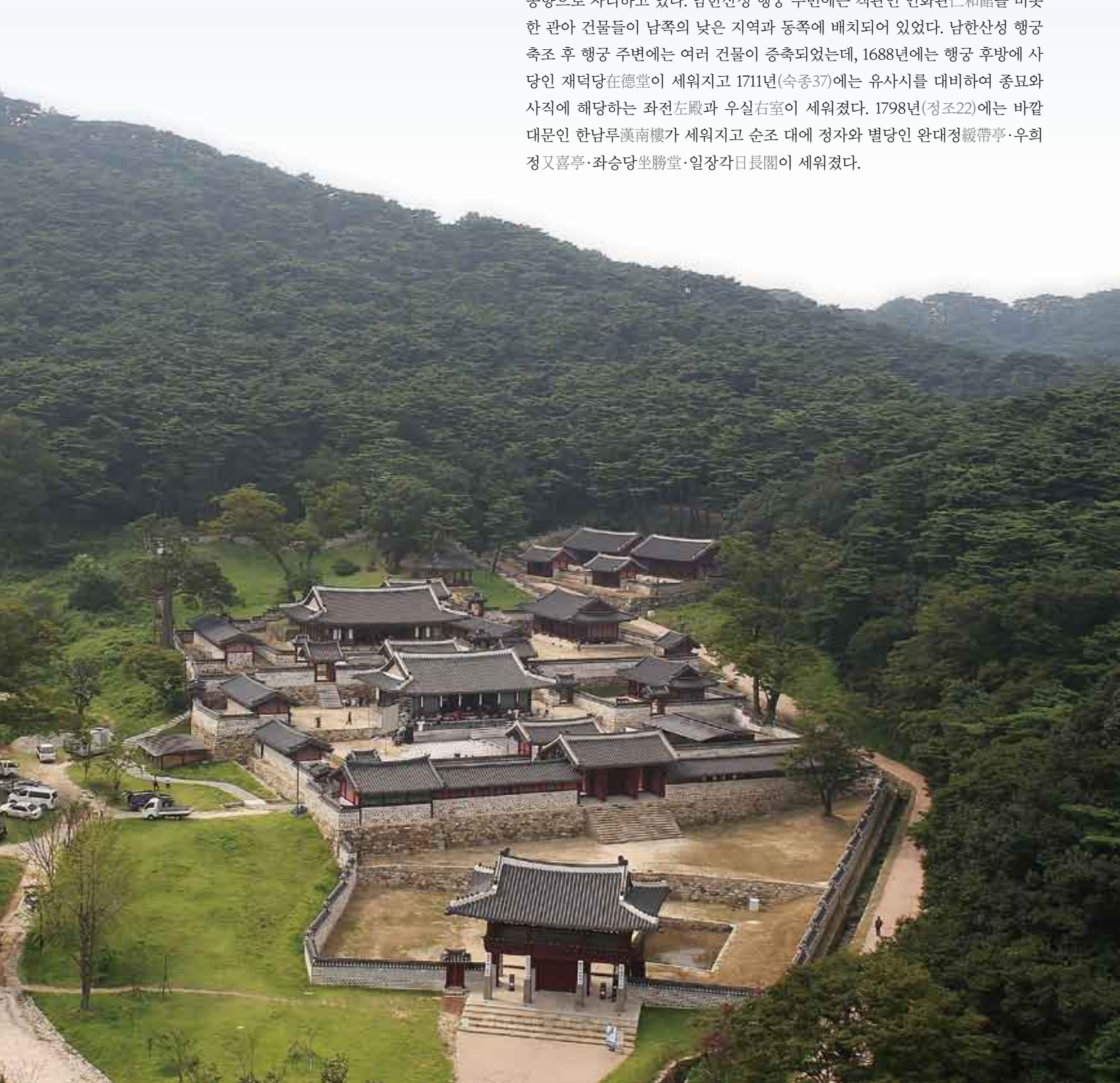


1. 남한산성 행궁, 일제강점기. 국립중앙박물관
2. 남한산성 행궁 전경, 2013. 경기도



1636년(인조14) 국호를 청淸으로 고친 후금後金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왕은 세자와 모든 관료를 거느리고 남한산성으로 피하여 행궁에 머물며 항전하였으나 추위와 굶주림으로 항복하고 47일 만에 산성에서 나왔다. 병자호란 이후에는 숙종, 영조, 정조 등을 비롯한 역대 왕들이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을 참배하러 오가는 길에 남한산성 행궁에서 유숙하였다. 1688년(숙종14)에는 숙종이 행궁에 머물고 1730년(영조6)에는 영조가, 1779년(정조3)에는 정조가 남한행궁에서 유숙하였으며 1862년(철종13)과 1867년(고종4)에는 철종과 고종이 인근 현릉獻陵과 인릉仁陵에 참배하면서 유숙하였다.

남한산성은 동서로 긴 형태를, 성내는 서쪽에서부터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동쪽으로 물길이 흘러 나가는 형세를 하고 있다. 행궁은 서쪽의 약간 높은 곳에 동향으로 자리하고 있다. 남한산성 행궁 주변에는 객관인 인화관仁和館을 비롯한 관아 건물들이 남쪽의 낮은 지역과 동쪽에 배치되어 있었다. 남한산성 행궁 축조 후 행궁 주변에는 여러 건물이 증축되었는데, 1688년에는 행궁 후방에 사당인 재덕당在德堂이 세워지고 1711년(숙종37)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종묘와 사직에 해당하는 좌전左殿과 우실右室이 세워졌다. 1798년(정조22)에는 바깥대문인 한남루漢南樓가 세워지고 순조 대에 정자와 별당인 완대정緩帶亭·우희정又喜亭·좌승당坐勝堂·일장각日長閣이 세워졌다.



행궁이 처음 지어졌을 때의 규모는 잘 알 수 없다. 1760년경에 편찬된 『여지도서輿地圖書』에는 행궁 전체는 231칸이고 좌전 左傳 29칸, 우실右室 4칸으로, 1846년(헌종12)에 편찬된 『중정남한지重訂南漢志』에는 상궐이 좌우방과 가운데 대청 및 익랑을 포함해서 70여 칸으로, 19세기의 『광주부읍지廣州府邑誌』(1899)에는 상궐 72칸 반·하궐 154칸, 재덕당 7칸, 좌승당 14칸, 일장각 8칸, 한남루 3칸에 좌정이 26칸, 우실이 4칸으로 기록되어 있다.

한편 『조선고적도보朝鮮古跡圖譜』에 실린 20세기 초의 사진에 의하면 상궐과 하궐은 모두 정면 7칸의 익공식 건물이며 여러 단의 장대석 기단 위에 세워지고 중앙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방을 두고 사면에 퇴가가 감싸는 형태를 취한 모습으로 그 외관은 궁궐의 침전寢傳과 유사하다. 대문인 한남루도 사진이 전하는데, 장초석 위에 2층 구조를 이룬 3칸의 문루 형식을 취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국방유적으로서 남한산성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경기도에서 행궁의 정비와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

립하였다. 이에 따라 사유지를 매입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는 1998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박물관에서 2008년까지 8차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발굴조사를 통해 행궁의 전모가 드러났다.

조사결과 상궐은 정면 7칸, 측면 4칸이며 중앙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우에 정면 2칸의 온돌방이 대청으로 놓여있고 사방은 툇마루가 감싸는 형태이다. 이 평면은 창경궁昌慶宮의 통명전通明殿이나 환경전歡慶殿과 유사한 것이어서 상궐 건물이 궁궐 침전을 모범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사당인 재덕당은 정면 3칸에 측면 1칸 반으로 전면 퇴칸을 개방한 전형적인 사당 형식을 취하였다. 좌전 및 주변 행각들도 초석이 대부분 그대로 노출되었다. 좌전은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이 각각 독립된 울타리 안에 놓였고, 규모는 모두 정면 5칸, 측면 3칸이다. 하궐 일대는 선대 연못지 위에 행각이 들어서는데 등 유적이 중첩된 부분도 있고 교란된 곳도 있었으나 전체 건물 규모를 추정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확인되었다.



하궐의 중심 건물 역시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궁궐 침전 평면 형식을 그대로 따랐다. 한남루지와 중문지 및 중문 좌우의 행랑 등이 확인되고 전돌이 깔린 어도(御道) 일부도 노출되었다. 특히 하궐지의 초석 하부 약 1.5m 아래에서 통일신라시대 대형 건물지가 노출되었고, 초대형 기와가 다량 출토되었다. 이 건물지는 정면 14칸, 측면 4칸으로 기둥과 벽체가 특수한 구조여서 주목되었다. 후면의 15개 기둥열에는 바닥이 한단 낮은 외부 기둥열이 있고, 안쪽에는 두께 1m의 흙벽이 올라가서 그 안에 목조 기둥이 세워진 구조였다. 전면 기둥열은 거의 멸실되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구조는 창문을 두지 않은 창고와 같은 건물에서 볼 수 있으며 군창(軍倉) 용도로 지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건물지에서 출토된 기와는 장변 길이가 64cm에 달하고, 무게가 20kg이 넘는 초대형으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보고된 기와 중 가장 크고 무거운 것이다. 기와는 건물지 바깥 한 곳에 나란히 정렬된 상태로 350편 가량 출토되어 저장해 두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한산성 행궁지에 대한 정비와 주요 건물 복원 작업은 2001년 시작되어 2010년 일단락을 지었다. 건물은 상궐과 하궐, 재덕당·좌전·좌승당과 일장각 및 주변의 부속 행각을 모두 복원하였으며 한남루와 연못 등도 복원하였다. 특히 하궐 건물터 아래서 출토된 통일신라시대 창고 추정 건물지는 유구의 일부분을 노출시켜서 하궐 복행각 위치에 신라시대 건물터 일부를 노출시키고 저장되어 있던 기와도 본래 위치에 재현해 두었다.

남한산성 행궁이 위치한 남한산성은 2014년 6월 22일 제3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1. 남한산성 행궁 발굴조사 및 복원 정비, 2004. 토지주택박물관
2. 하궐지, 2004. 토지주택박물관
3. 통일신라시대 건물지, 2007. 토지주택박물관
4. 기와저장소, 2007. 토지주택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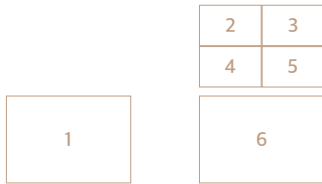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龍仁 寶亭洞 古墳群

신라시대
일원
지정구역 - 19,190㎡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산121-2

지정일 : 2009.06.24
소유자 : 공유, 사유
관리자 : 용인시



1. 용인 보정동 고분군 전경, 2018. 경기도지적연구회
2. 다-23호(6호)분 부장품 출토 현황, 2004. 토지주택박물관
3. 다-19(9호)분 조사후 모습, 2004. 토지주택박물관
4. 용인 보정리 고분군 전경, 2004. 토지주택박물관
5. 조사유구 모습, 2004. 토지주택박물관
6. 용인 보정동 고분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용인 보정동 고분군>은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분포되어 있는 삼국시대의 신라 고분군이다. 고분은 소실봉에서 남쪽으로 뻗은 능선 말단부의 동남쪽 사면을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

2002년에 처음 발견되었으며, 2003년 정밀지표조사 결과 80여 기의 고분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고분군의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봉토분 2기를 발굴한 결과, 6세기 후반에 축조된 횡구식석곽분橫口式石槨墳으로 당시 지배계층의 무덤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지-신갈간 도로 개설에 따라 고분군의 동쪽 부분을 조사하여 신라~통일신라시대의 횡구식석곽분과 석실분石室墳 10여 기를 확인하였다. 이외에 북쪽으로 약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소실봉 동사면 아파트 부지에서도 횡구식석곽분, 횡혈식석실분橫穴式石室墳 등이 조사되었는데, 축조방법이나 출토유물의 상태로 보아 보정동 고분군의 일부로 여겨진다.

유구의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하고, 유물도 다수 출토되었다. 출토 유물은 6세기 후반에서 8세기로 추정되는 대부장경호臺附長頸壺, 단각고배短脚高杯, 완盃, 대부발臺附鉢 등 토기가 대부분이며, 청동대금구靑銅帶金具, 철검鐵劍, 도자刀子, 관정棺釘 등의 금속류도 출토되었다. 보정동 고분군은 한강 유역에서 조사되는 신라 고분군들 중 여주 매룡리 고분군, 파주 성동리 고분군에 필적하는 대규모 고분군으로 보정동 일대가 6세기 중엽 경 한강 유역을 점령하고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던 신라의 중심지 중 하나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유적이다.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坡州 李珣 遺蹟

조선시대
일원(자운서원, 이이가족묘역, 울곡이이 신도비)
지정구역 - 317,055㎡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 5-1

지정일 : 2013.02.21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파주시

<파주 이이 유적>은 울곡 이이栗谷李珣(1536~1584)를 배향한 자운서원紫雲書院과 가족묘소, 자운서원 묘정비紫雲書院廟庭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7호), 이이선생신도비李珣先生新道碑(파주시향토유적 제6호), 울곡기념관 등이 자리하고 있는 곳이다.

이이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숙헌叔獻, 호는 울곡栗谷·석담石潭·우재愚齋, 아명은 현룡見龍이다. 1564년(명종19) 13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고 이후 모두 아홉 차례 장원 급제하여 구도장원공으로 불렸으며 대사간, 대사헌, 대제학, 형조·병조·이조판서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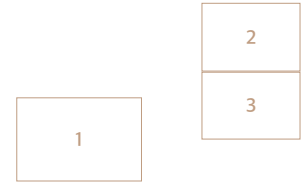
파주 울곡리는 이이의 아버지인 이원수李元秀의 본가가 있는 곳이다. 이이는 어머니 신사임당申師任堂의 본가인 강릉에서 태어나 자라다가 6세 때 본가가 있는 파주 울곡으로 와 줄곧 이곳에서 학문을 닦았으며, 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다시 돌아와 49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거주하였다.

자운서원은 1615년(광해군7) 이이의 학문과 덕행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유림들에 의해 창건되었다. 1650년(효종1) '자운紫雲'이라는 사액賜額을 받고 1713년(숙종39)에는 이이의 후학인 김장생金長生과 박세채朴世采를 추가 배향配享하였다. 그러나 1868년(고종5)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손되어 빈 터에 묘정비만 남아 있다가 1970년 유림의 기금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사당과 강당, 동재, 서재, 협문, 내삼문, 외삼문 등을 복원하였다.



묘역에는 이이와 부인 광산노씨의 묘가 위·아래로 인접해 있다. 묘 오른쪽에는 묘비가 있고, 좌우로는 망주석望柱石과 문인석이 한 쌍씩 배치되어 있다. 신도비는 1631년(인조9)에 세워진 것으로 비문은 이항복李恒福이 짓고 글씨는 신익성申翊聖이 썼으며, 전액은 김상용金尙容이 썼다. 가족 묘역에는 이이 묘 이외에도 신사임당 묘를 비롯한 가족묘 13기가 함께 조성되어 있다.

1973년 자운서원, 울곡이이묘, 신사임당묘가 각각 경기도문화재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2월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으로 승격되었다.



1. 파주 이이 유적 전경, 2018. 경기도지역연구회
2. 파주 이이 묘역, 2018. 경기도지역연구회
3. 자운서원, 2018. 경기도지역연구회



사적 제526호

양주 대모산성

楊洲 大母山城

삼국시대
일원
둘레 1,400m
지정구역 - 57,742㎡
석성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9

지정일 : 2013.06.21
소유자 : 국유, 사유
관리자 : 양주시

<양주 대모산성>은 신라에 의해 6세기 중엽 이후 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피식 산성으로 양주시 유양동과 백석읍 방성리에 연접하여 있는 대모산 정상부에 위치한다.

양주는 임진강과 한강유역을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삼국시대 이전부터 군사·교통의 중심지로, 대모산성은 군사상 전략적 중요성과 행정을 겸하는 거점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모산성에 대한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만기요람萬機要覽』, 『경기지京畿誌』, 『경기읍지京畿邑誌』, 『여도비지輿圖備志』, 『대동지지大東地志』 등의 문헌에서 양주 대모성산大母城山, 대모산성大母山城으로 확인되며, 한편으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 『세종실록世宗實錄』 등을 근거로, 신라의 대당對唐 항전지인 매초성買肖城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대모산성에 대한 학술조사는 매초성의 흔적을 확인하고자 1980년부터 1998년까지 7차에 걸친 발굴조사와 종합정비 학술용역조사(2005), 정밀실측조사(2012)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문지 3개소, 건물지 11개소, 수혈유구 30개소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고, 1,300여 점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양주 대모산성 전경, 2018. 경기도지적연구회



성의 규모는 둘레 1,400m, 높이 3m, 너비 5~6m 정도이며, 성벽은 부분적으로 훼손되었으나 비교적 잘 남아 있다. 성벽은 체성벽體城壁과 보축성벽補築城壁으로 나누어지는데 체성벽은 화강암을 장방형으로 치석하여 정연하게 축조하였으며, 보축성벽은 치석된 석재를 들여쌓기하여 단면이 삼각형을 이루도록 체성벽에 붙였다. 이러한 축성 방법은 주로 5~6세기 중엽의 산성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형태로 경기도에서는 반월산성, 칠중성, 이성산성 등에서 확인되며 대모산성은 이러한 형태의 성벽 중 가장 모범적인 것으로 축조 시기는 6세기 중엽 이후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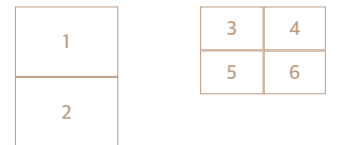


문지는 개구부가 성벽 중간에 '凹'자형으로 만들어진 현문식懸門式으로 삼국시대의 전형적인 성문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파괴되거나 소실되어 문지의 형태와 구조를 짐작하기 어려운 산성이 많은 데 비해 대모산성은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보수·사용되어 측벽이나 바닥이 양호하게 남아있어 주목된다. 성 내부의 건물지는 할석으로 조성한 기단, 초석, 적심석의 일부만 남아 있어 용도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렵다.

유물은 건물지 내부와 저장공, 문지 주변에서 출토되었는데 삼국이 영토확장 과정에서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곳인 만큼 토기류, 무기류, 농기구류, 마구류, 건축부재, 일반 생활용구 등 다종다양하다.

삼국시대 유물은 백제, 신라계가 주를 이루며, 이후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유물이 고루 분포한다. 특히 건물지에서는 德部(덕부)·德部舍(덕부사)·官(관)·草(초)·富部(부부)·大浮雲寺(대부운사)·城(성) 등 명문이 새겨진 기와를 비롯하여 많은 양의 기와편이 출토되고 있어 대모산성이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건물지 내부에서 발견된 저장공은 기와건물지 축조 이전에 수혈식 건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며, 특히 건물지 하층의 풍화암반층 주변에서 출토된 반월형 석도는 산성 축조 전부터 이미 방어적 목적으로 인간의 거주가 시작되었던 사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1. 서문지 남서쪽 체성 외벽, 1998_ 양주시
2. 서문지 북쪽 외성벽, 1998_ 양주시
3. 동문지, 1995_ 양주시
4. 서문지, 1998_ 양주시
5. '부부'·'덕부' 명문기와, 2012_ 양주시
6. '대부운사'·'부부' 명문기와, 2012_ 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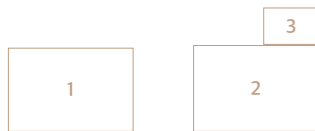
사적 제530호

용인 심곡서원

龍仁 深谷書院

조선시대
 일원
 사당 - 3×2칸
 일소당(강당) - 3×3칸
 거인재(동재) - 3×2칸
 유의재(서재) - 3×2칸
 장서각 - 3×1칸
 목재
 용인시 수지구 심곡로 16-9 일원

지정일 : 2015.01.28
 소유자 : 심곡학원(사유)
 관리자 : 심곡서원



1. 용인 심곡서원 전경, 2013. 용인시
 2. 용인 심곡서원 사당,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사당 내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용인 심곡서원>은 1650년(효종1) 조광조趙光祖(1482-1519)의 학덕 學德과 충절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된 서원이다.

조광조는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효직孝直, 호는 정암靜菴이다. 김굉필金宏弼에게 수학하였으며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金宗直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士林派의 영수가 되었다.

1510년(중종5)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진사로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1515년(중종10)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전적典籍·감찰監察을 역임하였다. 이때부터 중종의 신임을 받으며 유교로서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治主義에 입각한 왕도정치 王道政治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향촌의 상호부조를 위해 ‘여씨향약呂氏鄉約’을 8도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1518년(중종13) 부제학이 되어서는 유학의 이상정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미신타파를 내세우며 소격서昭格署의 폐지를 강력히 주청하였고,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혁파하는데 성공하였다. 같은 해 대사헌으로 승진되어 신진사류를 정계에 과감히 등용하고 이들과 함께 훈구세력의 타도와 구제舊制의 개혁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 수립에 나섰다. 1519년(중종14)에는 정국공신靖國功臣의 훈공을 대폭 삭제하는 등 급진적 개혁을 단행하여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이에 훈구파의 김전金詮, 남곤南袞 등에 의해 정치적 반격이라 할 수 있는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났다. ‘주초위왕走肖爲王’ 사건으로 능주에 유배되었다가 사사賜死되었다. 1569년(선조2) 선원되어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문묘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용인은 조광조가 부친을 장례한 후 여막을 짓고 시묘侍墓하던 곳이며, 조광조의 묘소가 있는 곳이어서 일찍부터 서원을 세우기 위한 논의가 있었으나 재력이 부족하여 포은 정몽주圃隱鄭夢周(1337~1392)를 제향祭享하던 충렬서원忠烈書院에 입학立學하여 오다가, 1650년에 들어서 묘소 인근에 서원을 건립하고 '심곡深谷'이란 사액을 받으면서 위패를 옮겨오게 되었다. 이후 서원은 1871년(고종8)에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이 내려졌을 때에도 훼손되지 않고 존속하였다. 1953년 심곡서원의 치사제治事齋, 강당, 동·서재를 개조하여 심곡학원과 문정중학교의 교사로 사용하였다. 1972년 경기도유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되면서 내삼문, 외삼문, 강당, 담장, 사당, 서무 등이 중수되고 복원되었다.

심곡서원은 광교산光敎山과 형제봉兄弟峰에서 이어지는 마을 뒤 경사지에 서향하여 위치해 있다. 홍살문을 지나 외삼문外三門에 들어서면 강당講堂인 일소당日昭堂이 보이고, 그 뒤로는 장서각藏書閣과 재실인 치사제治事齋 및 사당祠堂 영역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담장 밖 좌측(남쪽)에는 연당蓮塘이, 우측(북쪽)에는 고직사庫直舍가 놓여있다.

사당은 전면 3칸, 측면 2칸의 익공계 맞배집으로 전면에 트인 퇴칸이 있으며 측면과 배면에는 방화벽을 설치하였다. 장대석기단에 놓인 정형 초석 위에 민흘림기둥을 세웠으며, 기둥머리에는 초익공을 결구하고 지붕은 오량五樑가구로 짜올렸다.

익공의 형태와 가구 수법으로 볼 때 17세기 경의 건물로 추정되나, 전면 익공은 20세기에 개변된 듯하다.

강당은 서원 안의 여러 행사와 유림이 모여 회의와 학문을 토론하던 장소이다. 강당은 전면 3칸, 측면 3칸의 익공계 팔작집으로 사면이 모두 판벽과 판문으로 되어 있어 필요시 전부 열 수 있게 하였다. 기둥에 약한 배흘림이 있으며 익공의 형태도 매우 간결하다.

심곡서원은 1871년 서원철폐령에도 훼손되지 않고 운영된 서원으로 조선시대 서원의 전형적인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어 역사적, 건축사적 가치가 높다. 또한 『정암집』, 「치제문」(1650), 「강당기」(1673), 「도암선생본원학규」(1747)를 비롯하여 사당과 강당을 중수하면서 1636년과 1657년에 작성된 상량문上樑文 등 심곡서원의 역사와 내력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함께 남아있어 심곡서원의 가치와 위상을 더욱 높이고 있다.



사적 제536호

안성 도기동 산성

安城 道基洞 山城

삼국시대
일원
길이 약130m
지정구역 - 169,475㎡
목책성
안성시 도기동 산51-3

지정일 : 2016.10.24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안성시

<안성 도기동 산성>은 경기도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삼국시대의 산성이다. 도기동산성은 안성천 남쪽에 잇닿은 해발 78m 구릉지의 동서방향의 주된 산줄기 북동쪽과 북서쪽 산줄기 위치한다. 구릉지의 정상부는 넓고 편평하며, 사면부는 안성천과 연결한 북쪽은 경사가 급한 반면 남쪽은 완만한 경사로 평지와 연결된다. 산성은 구릉의 주된 산줄기를 기준으로 정상에서 중앙의 곡저부로 이어지는데 부 일부와 북쪽 사면부, 남쪽 산줄기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사방으로 안성분지 일대의 조망이 용이하다.

도기동산성은 2015년 참고부지 조성에 따른 구제발굴조사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나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인정되어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 학술·정비목적으로 긴급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 결과 일부 구간이 유실되었으나 4개 구간에서 길이 130m 정도 남은 목책성木柵城이 확인되었다. 성벽은 수·개축 과정을 거치면서 외목책성에서 이중목책성으로 변모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목책성은 토루를 쌓고 그 위에 목책을 세운 구조이다.

초축성벽은 구릉의 경사면을 단이 지게 굴토한 후 성토하여 토루土壘를 쌓고 상부에 목책을 설치하였다. 이후 초축성벽 상부를 정지한 후 축조한 목책은 안팎이 서로 연결된 이중목책 구조로 바깥쪽 목책에 점토를 바른 석축을 덧대고 외부에 성토하여 목책을 보강한 구조이다. 토루 바깥면을 'L'자 혹은 비스듬히 절취하고 보강한 석축벽은 단면이 직각 삼각형 모양인데은 깎돌을 3~4단 정도 쌓고 벽면에 점토를 두텁게 바른 후 점토덩어리를 겹겹이 쌓고 불탄 흙을 다져 올려 마무리한 구조로 고구려 목책성인 세종시 부강면의 남성골산성과 연천 무등리2보루의 성벽 구조와 유사하다.



목책은 토루의 안쪽과 바깥쪽에 각각 목책열을 돌린 이중구조로, 바깥쪽의 목책은 2열로 나타나며, 안쪽과 바깥쪽 목책의 간격은 4.5~5m 정도이다. 이를 통해 목책의 배치현황과 함께 목책의 전체적인 구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토루의 흙다짐층과 목책구덩 등에서는 삼죽기, 고배, 시루 등 백제 한성도읍기의 토기를 비롯하여 뚜껑, 파수부 호, 단경호, 사발 등의 고구려 토기와 컵 모양의 가야계 토기도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미루어 보아 목책성의 중심연대는 4~6세기로, 백제에 의해 축조되어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는 고구려가 일부 고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기동산성의 발굴성과는 목책성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해 사료로만 전하던 삼국시대 책柵의 단서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고대 산성의 구조와 축성 발달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경기 남부지역에서 고구려가 활용한 목책성이 최초로 확인됨에 따라 인천 대모산성(충청북도 기념물 제83호), 부강 남성골산성(세종특별자치시도 기념물 제9호), 월평동산성(대전광역시 기념물 제7호)과 연계하여 안성 지역의 지정학적 위치, 축조시기, 운용주체 등을 고려한 고구려의 남진 경로를 재구성해 볼 수 있다.

안성 도기동 산성은 한강이남 지역에서 확인된 삼국시대 산성으로 고구려의 영역 확장 과정과 남진 경로를 보여주는 유적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고, 목책구조가 잘 남아있어 고대 토목·건축 기술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이다.



1. 안성 도기동 산성 전경, 2015. 기념문화재연구원
 2. 동벽 전경, 2015. 기념문화재연구원
 3. 북벽4-5 전경, 2015. 기념문화재연구원
 4. 북벽1 목책 1·2열, 2015. 기념문화재연구원



사적 제537호

파주 덕진산성

坡州 德津山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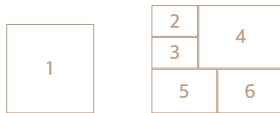
삼국시대
일원
둘레 1,384m(내성둘레 약600m)
지정구역 - 171,775㎡
석성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 13

지정일 : 2017.01.19
소유자 : 국유, 공유, 사유
관리자 : 파주시

<파주 덕진산성>은 고구려가 남진과정에서 해발 65m의 산 능선에 축조한 성이며 주변 지역이 넓게 조망되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덕진산성은 내성과 외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내성은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산 능선을 따라 돌며 표주박 형태로 구축되어 있다. 외성에는 두개의 문지가 남아있고, 성위에 담을 낮게 쌓았던 부분(여장女牆)이 두 군데 있다. 외성과 내성 사이에는 곡저부가 형성되어 있고 완경사를 이루며, 강변으로 연결되어 배를 접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덕진산성은 비교적 낮은 곳에 위치해 있지만 임진강의 북쪽 해안이고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넓은 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덕진산성은 조선시대 지리서인 『동국여지지東國輿地志』에 처음 소개되었고 『여도비지與圖備誌』 등에 약간의 기록이 남아있다. 1992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처음 확인된 이후, 1994년 육군박물관의 파주시 군사유적 지표조사 및 2004년 화랑대연구소의 정밀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통해 규모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중부고고학연구소에서 5차에 걸쳐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1. 파주 덕진산성 내성 전경, 2016. 파주시
2. 1호 집수지 전경, 2016. 파주시
3. 2호 집수지 전경, 2016. 파주시
4. 1차·2차 성벽과 기단보축,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치2 석축부, 2016. 중부고고학연구소
6. 외성문지, 2016. 중부고고학연구소





발굴조사 결과 문지와 우물지 등이 확인되었으며, 내성 전체 구간에서 고구려 성벽이 구축된 것을 확인하였다. 고구려 성곽의 축성법은 흙을 다져서 토축부土築部를 먼저 조성한 후 앞면에는 석축을 쌓는 것으로, 석축부를 쌓을 때는 할석이나 가공석 사이사이에 점토를 채워가면서 쌓는 방식이 특징이다. 7세기 말 경에는 신라가 이 지역을 점령하여 기존 고구려 성벽의 토축부를 바탕으로 편마암 계통의 석재를 장방형으로 가공한 성돌로 성벽을 조성하여 견고한 석축성으로 구축하였고, 9세기에는 화강암을 가공한 성돌을 덧붙여 쌓는 등 대대적인 수·개축이 이루어졌다.

외성은 토축성으로 성벽은 거친 흙다짐을 하면서 쌓았는데 외벽은 자연석과 흙을 섞어 성벽을 만들고, 내벽은 주로 성토하

여 성벽을 구축하였다. 성벽 외측에서는 목책을 설치한 흔적이 확인되었는데, 토성을 구축하고 외부에 목책을 설치하여 방어시설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외성은 17세기 광해군대에 조성된 것으로 아마도 국내외적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면서 시급하게 조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덕진산성은 인근의 호로그루, 당포성, 은대리성과 더불어 임진강 북안에 설치된 중요한 삼국시대 성곽으로, 삼국시대에 축조되어 조선시대에도 전략적 우수성으로 다시 외성을 확장·수축하여 사용했던 특수한 사례를 보여주어 학술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크다.



— 2 —

명승

명승 제10호

삼각산 三角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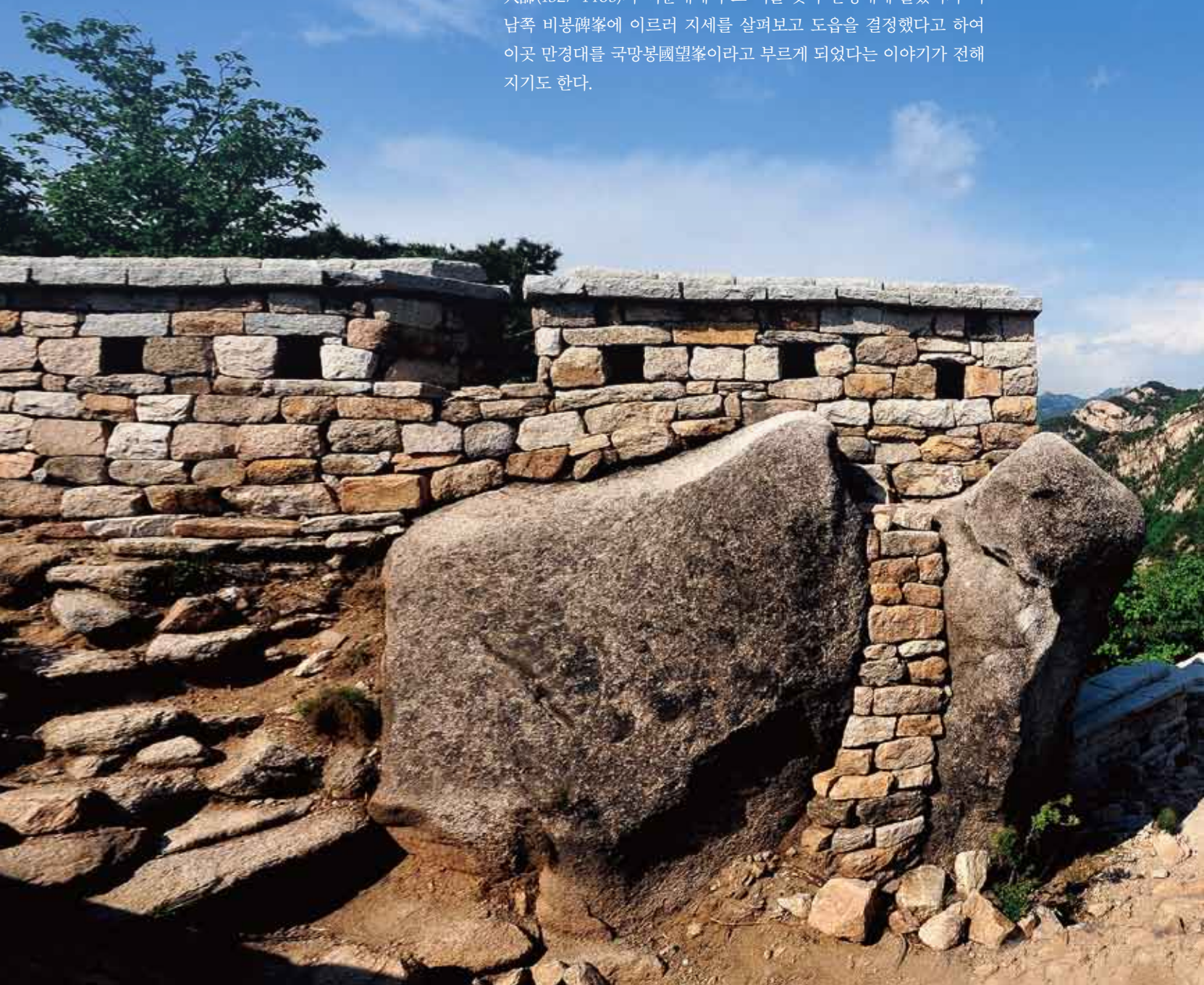
일원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 산1-1

지정일 : 2003.10.3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고양시,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은 경기도 고양시와 서울특별시의 북쪽 경계에 높이 솟아 있는 북한산의 주요 산봉으로 백운대白雲臺(836.5m), 인수봉人壽峰(810.5m), 만경대萬鏡臺(787.0m)로 구성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과 『북한지北漢誌』에 따르면 삼각산은 인수·백운·만경 세 봉우리가 우뚝 솟아 세 개의 뿔과 같이 생겨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고양시와 북한의 개성 방향에서 보면 그 모습이 뚜렷하다고 한다.

삼국시대에는 부아악負兒岳, 횡악橫岳, 한산 등으로 불렸고,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시대에 이르러 삼각산 또는 화산華山으로 불리기 시작하였다. 오늘날 흔히 알고 있는 ‘북한산’이라는 명칭은 1711년 조선 숙종 때 축성된 북한산성이 자리하고 있는 산으로서, 한양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큰 산이라는 의미로 한양의 남쪽에 위치한 남한산성이 있는 남한산과 대비하여 1900년대 초부터 주로 사용된 명칭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고구려 동명왕의 아들 온조溫祚가 한산에 이르러 부아악에 올라 살 만한 곳을 찾았다고 하는 백제의 건국설화가 전해지고 있다. 또한 조선의 세 도읍지를 정할 때는 무학대사無學大師(1327~1405)가 백운대에서 그 맥을 찾아 만경대에 올랐다가 서남쪽 비봉碑峯에 이르러 지세를 살펴보고 도읍을 결정했다고 하여 이곳 만경대를 국망봉國望峯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한다.



또한 삼각산은 문학에서 나라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하기도 한다. 병자호란 이후 김상헌金尙憲(1570~1652)은 『청구영언靑丘永言』에서 소현세자, 봉림대군 등과 함께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가던 때의 통한을 담아 “가노라 삼각산三角山아, 다시 보자 한강수漢江水야. 고국산천古國山川을 떠나고자 하라마는 시절時節이 하 수상殊常하니 울동말동 하여라.” 라는 시조를 남기기도 하였고, 심훈은 저항시 「그날이 오면」에서 “그 날이 오면 그 날이 오면은 삼각산三角山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나는 밤하늘에 날으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人磬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삼각산은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 의미가 매우 깊은 곳으로서 경관적인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명승 제93호

포천 화적연

抱川 禾積淵

일원
포천시 영북면 자일리 산115 외

지정일 : 2013.01.04
소유자 : 국토교통부 외
관리자 : 포천시

<포천 화적연>은 영평 8경 중 제1경으로 한탄강에 있는 큰 바위와 깊은 연못으로 이루어진 절경이다. 화적연은 대보화강암을 뒤덮은 현무암층, 현무암 주상절리, 화강암 암반, 상류에서 공급된 풍부한 모래와 자갈 등 다양한 지형 요소들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어 지형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 지형 요소들이 서로 어우러져 비경을 이루고 있다.

아름다운 절경을 보여주는 화적연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 온 경승이었다. 지난날 옛 사람들이 화적연을 찾았던 흔적은 지금까지도 많이 전해오고 있다.

첫째는 많은 문사文士들이 이곳을 탐방하고 지은 시로서, 다수의 문집 속에 전해지고 있다. 화적연을 주제로 한 시는 박순朴淳(1523~1589)의 『사암집思菴集』, 박세당朴世堂(1629~1703)의 『서계집西溪集』, 박제가朴齊家(1750~1805)의 『정유각집貞蕤閣集』, 이항로李恒老(1792~1868)의 『화서집華西集』을 비롯하여 현재 20여 종이 문사들의 시집에 수록되어 있다. 옛 시문은 모두 다 하나같이 화적연의 풍광을 보고 느낀 아름다운 감상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로는 화적연을 찾은 묵객墨客들이 아름다운 화적연의 비경을 화폭에 담은 그림이다. 화적연을 주제로 한 그림은 겸재 정선謙齋鄭勲(1676~1759)을 비롯해, 이윤영李胤永(1714~1759), 정수영鄭遂榮(1743~1831) 등에 의해 그려진 실경도가 전하고 있어 화적연의 옛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화적연은 풍광이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지만, 가뭄이 극심할 때 기우제를 지낸 장소이기도 하다. 한탄강 강물이 모여 깊은 못을 이루는 곳에 산으로부터 뿔어 내려온 바위가 크게 뭉쳐 마치 벼가리를 쌓아 올린 것과 같이 생겼다는 데에서 '벼가리소'라고 불렸는데, 이를 한자로 화적禾積이라고 하며, 농경사회의 제례의식과 연관성이 있다. 기우제에 관한 기록은 『선조실록』과 『숙종실록』, 화적연과 관련된 여러 시문에서 나타난다. 『숙종실록』에는 가뭄이 극심할 때 조정에서 재상을 파견하여 기우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고, 이병언李秉淵(1671~1751)은 『사천시초槎川詩抄』에서 '사군래제우使君來祭雨(벼슬살이로 이곳에 와 기우제를 지내네)'라고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시와 글에 수록되어 있으므로 화적연에서 기우제가 많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화적연은 빼어난 자연풍광과 함께 장소에 깃들여 있는 문화적 의미가 매우 깊은 곳으로서 경관적인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神龍幻石走深淵 신룡환석주심연
신령한 미리가 돌이 되어 깊은 못에 들어가니
禾積輪囷別有天 화적륜군별유천
벼넋가리 돌아 쌓여 높으니 별천지를 이루었네.

緩步經由蒼壁下 완보경유창벽하
푸른 벽 아래로 천천히 걸어가서
朗吟坐久碧灘前 랑음좌구벽단전
여울 앞에서 읊고 앉았네.

虛名無補民生食 허명무보민생식
헛된 이름은 백성 삶과 먹거리에 도움이 없고
壯蹟猶勞客袂連 장적유로객메련
웅장한 유적은 나그네 옷깃에 이어 있네.

賴爾潛功時作雨 퇴이잠공시작우
때에 맞추어 비를 내려 주는 잠잠한 공로는
能令萬物各欣然 능령만물각흔연
만물을 즐겁게 자라게 하네.

면암 최익현, 『면암선생문집』 「금강산유람기」



명승 제94호

포천 한탄강 멩우리협곡

抱川 漢灘江 멩우리 峽谷

일원
744,559㎡
포천시 관인면 사정리 574-1 외

지정일 : 2013.02.06
소유자 : 국토교통부 외
관리자 : 포천시

<포천 한탄강 멩우리 협곡>은 하식에 양안이 모두 주상절리柱狀節理로 이루어진 한탄강의 협곡이다. 멩우리는 ‘멍’과 ‘을리’가 합쳐진 지명이다. ‘멍’이란 ‘은몸이 황금빛 털로 덮힌 수달’을 의미하고, ‘을리’는 이 일대의 지형이 한자의 ‘을乙’ 자처럼 크게 곡류한다는 데에서 붙은 이름이다. 즉 멩우리는 ‘황금빛 털을 가진 수달이 사는 강물이 크게 굽이 치며 흐르는 곳’이란 뜻이다. 또한 낭떠러지로 이루어진 험한 길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고 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몸에 멩우리가 진다는 속설이 예부터 전해지면서 지명이 생겨났다고도 한다.

포천 한탄강 멩우리 협곡은 높이 20~30m 내외이며 길이는 약 4km에 이른다. 협곡을 만든 용암은 신생대 제4기에 북한지역인 강원도 평강 서남쪽 3km 지점에 위치하는 오리산(해발 452m)과 여기에서 동북쪽으로 24km 떨어진 680m 고지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류熔岩流로 추측된다. 구조선을 따라 용암이 넓게 흐르면서 용암대지가 형성되었고, 그 위에 풍화와 침식작용으로 협곡이 형성되었다.

포천 한탄강 멩우리 협곡은 굽이쳐 흐르는 하천의 영향으로 한쪽은 하천에 의해 침식을 많이 받아 제4기의 현무암이 거의 깎여나가거나 일부가 남아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있고, 다른 한쪽은 반대로 급경사의 현무암 주상절리 절벽이 오롯이 남아 있는 등 협곡의 양안兩岸이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포천 한탄강 멩우리 협곡에서는 신캄브리아기 변성암류와 상부의 제4기 현무암질 용암류 사이의 부정합 구조, 주상절리柱狀節理(뜨거운 액체 용암이 식어 굳을 때 부피가 수축되면서 돌기둥을 나란하게 세워 놓은 모양으로 발달한 절리), 하식에河蝕崖(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높은 절벽), 고토양층의 발달 과정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지질·지형학적인 가치가 우수하며, 식생이 다양하여 가을철 단풍이 들면 협곡의 곡류와 어우러져 매우 수려한 경치를 연출한다.



명승 제109호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南楊州 雲吉山 水鍾寺 一圓

일원
502,980.67㎡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 1060 외

지정일 : 2014.03.12
소유자 : 기획재정부 외
관리자 : 남양주시

<남양주 운길산 수종산 일원>은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 하천경관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두물머리는 금강산에서 발원한 북한강과 강원도 금대봉 검룡소(檢龍沼(명승 제73호))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합쳐지는 장소로 사계절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 수려하다.

이 수종사 일원은 계절에 따라 신록·녹음·단풍·설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시간과 날씨에 따라 일출·일몰·운무 등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경관가치가 큰 곳이다. 그래서 예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이곳의 풍광을 시·서·화·書로 남기기도 했다. 조선 초기 학자 서거정(徐居正(1420~1488))은 수종사를 ‘동방에서 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 칭송하였으며, 겸재 정선(1676~1759)은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양수리’의 경관을 그려 『경교명승첩京郊名勝帖』의 「독백탄獨栢灘」이라는 작품을 남기기도 하였다.

또한 조선후기의 문인화가 정수영(鄭遂榮(1743~1831))은 한강과 임진강을 여행하며 그린 「한강·임강명승도권漢臨江名勝圖券」에 수종사에서 내려다보는 경기도 광주시 미호 전경(현재 광주시 남종면)을 남기기도 하였다. 특히 인근에 생가가 있었던 정약용(丁若鏞(1762~1836))은 수종사에서 지낸 즐거움을 ‘군자유삼락君子有三樂’에 비교할 만큼 수종사를 즐겨 찾았는데, 다선(茶仙)으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草衣禪師(1786~1866))가 정약용을 찾아와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한 곳이 바로 이 수종사이다.

현재 수종사는 삼정헌(三鼎軒)이라는 다실을 지어 차 문화를 계승하고 있어 차 문화를 상징하는 사찰로도 이름이 높다.

수종사는 신라 시대에 처음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나 자세한 연혁은 알 수 없으며, 조선 세조와 관련된 일화가 있다. 1458년(세조4) 세조가 금강산(金剛山) 구경을 다녀오다 이수두(二水頭(양수리))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한밤중에 난데없는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 그곳을 찾아가 보니 토굴 속에 18나한(羅漢)이 있고 바위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종소리를 내더라는 것이다. 이에 세조가 18나한을 봉안해 절을 짓고 수종사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전설이다. 이 전설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1439년(세종21)에 세워진 세조의 고모인 정의옹주(貞懿翁主)의 부도가 사찰에 남아있다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상당 규모의 절이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19세기에 중건한 기록이 있으며, 한국전쟁 때 피해를 입어 지금 남아 있는 건물은 현대에 다시 지은 것들이다. ‘수종사’ 자체는 아담한 규모의 사찰이지만 전망 지점으로서의 가치, 수종사 주변과 뒷산인 운길산의 자연·경관적 가치, 고서화에 나타난 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아 명승으로 지정되었다.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2019.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3 —

천연기념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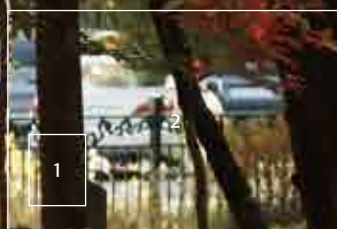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제11호

광릉크낙새서식지

光陵크낙새棲息地

일원
3,076,264 m²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산99-1

지정일 : 1962.12.07
소유자 : 전산김씨회이군파종친회 외
관리자 : 남양주시



1. 크낙새, 촬영일미상, 국립생물자원관
2. 광릉크낙새서식지,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광릉크낙새서식지>는 조선시대 제7대 세조世祖(재위 1455-1468)와 세조비 정희왕후 윤씨의 능을 중심으로 포천시 소흘읍과 남양주시 진접읍·별내면에 걸쳐 형성된 능림陵林 일대를 말한다. 세조는 생전 자신의 능이 들어설 자리를 직접 능림으로 정한 뒤 그 주변과 진입로에 소나무·진나무·잣나무를 심었고, 이후 500여 년간 엄격하게 보호됨으로써 나무들은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되었다. 한국전쟁의 전화戰禍와 전후의 벌채伐採로 그 모습이 많이 변모하였다. 현재 자생식물만 790종 이상이 알려져 있고, 특히 소나무·참나무류의 거목과 개벚나무·개살구나무·고로쇠나무·쪽동백나무 등의 거목 등 약 150종의 활엽수가 숲을 이루고 있어 크낙새가 번식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져 있다.

크낙새는 딱따구리과의 조류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광릉숲의 상징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새가 ‘크낙, 크낙’ 운다고 해서 ‘크낙새’, 북한에서는 ‘클락, 클락’ 하고 운다고 해서 ‘클락새’로 불린다. 몸길이 46cm 정도에 하얀 깃털이 달린 배 부분을 제외하곤 온몸이 검은색이며, 수컷은 이마부터 머리꼭대기, 뒷머리와 뺨 선까지는 진한 붉은색 깃털을 갖고 있는 것에 반해 암컷은 동일한 부위에 붉은색이 없고 검은색인 것이 특징이다.

크낙새는 진나무·잣나무·소나무·참나무·밤나무 등의 활엽수와 침엽수가 함께 자라는 광릉 주변의 깊은 숲속을 생활거점으로 하여 높은 거목들을 위주로 일정한 경로를 날아다니며 약 6km의 행동권을 갖고 생활하였으며, 높고 큰 나무의 나무구멍을 이용하거나, 직접 구멍을 뚫어 둥지를 만들고, 나무줄기를 나선형으로 기어올라 주위의 나무로 옮겨 다녔으며, 나무껍질을 벗기거나 구멍을 파서 큰 딱정벌레의 애벌레를 잡아먹었다.

크낙새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쓰시마에서만 서식하던 희귀조류로 한국과 일본이 대륙으로 연결되었던 것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고 그 개체 수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1968년 천연기념물 제197호로 지정되었다. 그보다 앞서 광릉 주변 능림은 크낙새 서식지라는 이유로 1962년 숲 자체가 천연기념물로 천연기념물 제11호로 지정·보호되어 왔다.

크낙새가 학계에 알려진 것은 1879년 트리 스트람이 일본 쓰시마에서 채집한 한 마리가 최초였고, 한국에서는 1886년 폴란드인 카리노우스키가 경기도에서 채집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그 후 일본에서는 1961년부터 1976년까지 조사를 했지만 더 이상 발견되지 않아 크낙새가 절종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황해도에서 부산에 이르는 한반도 일대에 광릉크낙새의 서식이 보고되었다. 특히 광릉으로 향하는 길 주변의 높은 소나무에서 크낙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1970년 10여년 만에 한 마리가 광릉숲에서 재발견된 이래 1973년 크낙새 한 쌍이 생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 후 1979년에는 크낙새의 번식과정에 관한 조사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번식경과를 거의 완벽하게 밝혀냈다. 조사된 크낙새 한 쌍은 해마다 다른 둥지를 이용하여 번식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1987년 광릉수목원이 일반인에게 공개되면서 광릉 숲을 찾는 사람과 차량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고, 1993년 크낙새 한 쌍이 목격된 것을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급으로 분류하여 보호하고 있었으나, 2017년 환경부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크낙새가 절멸한 것으로 보고 멸종위기종에서 해제하였다.

2018년 남북평화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크낙새 서식지 현황조사, 크낙새 증식 및 복원사업 계획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광릉 크낙새서식지에서 다시 크낙새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연기념물 제30호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楊平 龍門寺 銀杏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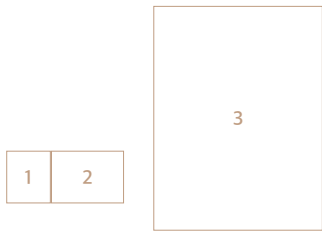
1주
높이 약41m, 가슴높이 둘레 약12.56m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626-1

지정일 : 1962.12.07
소유자 : 용문사
관리자 : 양평군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용문사 경내와는 단을 이루며 낮은 경사지에 위치한 수령이 약 1,100여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老巨樹이다.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크고 오랜 세월동안 유지된 나무만큼이나 여러 전설을 남기면서 성장해 왔다.

용문사 은행나무에 얽힌 대표적인 전설로는 신라의 마지막 태자였던 마의태자麻衣太子가 나라 잃은 설움을 안고 금강산으로 가는 길에 손수 심었다는 것과 신라의 고승 의상대사義湘大師(625~702)가 짚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놓은 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정미의병(1907)이 발발했을 때 일본군이 절에 불을 질렀으나 이 나무만 타지 않아 이때부터 화재로 소실된 사천왕전을 대신하는 천왕목天王木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이야기, 나라에 큰 변고가 있을 때 마다 나무가 소리를 내어 이를 알렸으며 고종(재위 1897~1907)이 승하昇遐하였을 때는 큰 가지 하나가 부러졌다는 이야기, 조선 세종(재위 1418~1450) 때 정3품正三品 이상의 벼슬에 해당하는 당상직堂上職牒을 하사받았다는 이야기, 나무를 자르려고 톱을 대었는데 그 자리에서 피가 났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 오고 있다.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로 생물학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나무의 크기는 높이樹高 약 41m, 가슴높이胸高의 줄기둘레 약 12.56m,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는 동서방향 28m, 남북방향 28m 정도이다. 직립형의 수관으로 지상 12m 높이에서 큰 가지가 셋으로 나뉘어져 사방으로 뻗어있고, 줄기 아래쪽에 혹처럼 큰 돌기가 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노거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수세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매년 약 2~3가마 정도의 열매를 맺는다. 용문사 입구 옆쪽 낮은 경사지에 독립수로서 있으며, 가을철에는 노랗게 단풍 든 모습이 매우 아름답다.



1.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1934. 국립중앙박물관
2.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2009. 문화재청
3.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천연기념물 제60호

고양 송포 백송

高陽 松浦 白松

1주

높이 11.5m, 가슴높이 둘레 2.39m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산207

지정일 : 1962.12.07

소유자 : 탐진회씨정민공파명오조후손종친회

관리자 : 탐진회씨정민공파명오조후손종친회

1

2

1. 고양 송포 백송,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고양 송포 백송 세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고양 송포 백송>은 마을 입구 길가의 낮은 언덕 위에 위치한 나무이다. 백송의 원산지는 중국 서북부의 호북湖北과 섬서陝西지방으로,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는 소나무의 한 종류이다. 백송의 어린 나무줄기는 푸른빛이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나무껍질이 넓은 조각으로 벗겨지고 흰빛이 되므로 ‘백송白松’ 또는 ‘백골송白骨松’이라 불린다.

백송 특유의 흰색과 녹색이 조화된 나무껍질 빛깔로 인해 예로부터 중국의 승려와 학자들은 백송을 신성한 나무라고 여겼고, 왕궁의 정원뿐만 아니라 북경北京 교외의 사원, 분묘, 명원明園 등에 심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의 각종 연행록에 ‘연행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중국의 백송을 보기 위해 따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는 기록이 다수 남아있어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들이 들여와 인가 근처에 심었던 것으로 짐작된 백송은 귀한 만큼 나무의 생장이 매우 느리고, 번식이 어려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희귀수종이다. 중국이 원산지인 백송이 고양 덕이동에 심어진 것에 대해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진다. 하나는 조선 선조宣祖(재위 1567~1608) 때 이 마을에 살고 있던 유하겸俞夏謙이 중국에서 온 사절에게 백송 두 그루



를 받았는데 탐진최씨 종중에서 그 중 한 그루를 받아 묘지 주변에 심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종世宗(재위 1418-1450) 때 도절제사都節制使 김종서金宗瑞(1383-1453)가 개척한 육진六鎭에서 복무하던 최수원崔壽元이 귀향길에 갖고 와서 심었다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유하겸은 선조 재위기간의 인물로 보기보다는 1632년(인조10)에 태어나 1677년(숙종3) 서장관書狀官으로 청나라의 도읍이었던 연경燕京에 다녀온 인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듯하다. 이 백송의 수령은 유하겸이 가져온 것이라면 약 340년 정도이며, 최수원 장군이 가져온 것이라면 약 600년 정도가 된다.

나무의 크기는 높이樹高 약 11.5m, 가슴높이胸高 줄기둘레 약 2.39m,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는 동서방향 16.1m, 남북방향 16.2m 정도이다. 줄기는 지상 1.4m 높이에서 서쪽과 동북쪽으로 갈라져 있는데 서쪽 줄기는 갈라진 곳에서 50cm 정도 위쪽에서 재차 아래 위 돌로 갈라진 후 다시 각각 세 줄기로 갈라져서 퍼졌다. 서쪽가지보다 굵은 동북쪽 가지는 갈라진 곳에서 65cm 위에서 다시 두 줄기로 갈라졌다. 이 중 큰 가지

는 밑에서 잔가지가 갈라진 다음 50cm정도 위쪽에서 다섯 개로 갈라졌으나 이 가운데 두 개는 2012년 태풍피해로 인해 고사하였고, 작은 가지는 밑에서 잔가지가 한개 갈라진 후 또 다시 두 줄기로 갈라졌다. 이렇게 밑부분부터 많은 가지들이 부챗살처럼 갈라져 있어 나무의 모양을 옆에서 보면 마치 거꾸로 된 삼각형 모양이다.

고양 송포 백송은 서향으로 15도 정도 경사진 언덕에 위치하고 있어 길이 나 있는 방향으로 점차 기울고 있고 가지 또한 기울어져 있는 방향으로 더욱 발달되고 있는 상태이다. 나무가 서있는 위치에서 동쪽으로는 여러 기의 묘소가 있고 인근에는 커다란 느티나무 노거수 1주가 있으며, 북쪽에는 상수리나무, 소나무 등이 자라고 있다.

고양 송포 백송은 생물학적 보존가치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문화교류를 알려주는 역사·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천연기념물 제209호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驪州 新接里 백로와 왜가리 繁殖地

일원
6,450 m²
여주시 북내면 신접리 285

지정일 : 1968.07.24
소유자 : 여주시
관리자 : 여주시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는 우리나라 중부지역에 위치한 백로와 왜가리의 대표적인 번식지이다. 본래는 여주 장암리에 백로와 왜가리가 번식하고 있었는데 1950년 봄부터 신접리에 번식하기 시작하였다.

신접리 주변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논과 남한강, 금당천 및 신진천 등이 백로와 왜가리의 주요 채식지역이 되고 있다. 신접리 마을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약 6,450m²의 번식지는 은행나무·소나무·참나무·아까시나무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앙에 위치한 수령이 약 400년 된 은행나무 한 그루에 집중적으로 번식하였다.

1972년에는 왜가리 약100여 마리, 중대백로 약 700여 마리들과 늦게 번식 집단에 합류된 개체 수를 합하면 약 1,000여 마리 이상이 관찰되었다. 1991년에는 왜가리 약 30마리 이상, 중대백로는 1,000마리 이상이 낮에도 번식지에 남아 있었다. 1992년에는 대부분의 집단이 동지를 떠난 이후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총 동지 수는 최소 273개 이상이었으며 중대백로 285마리, 쇠백로 3마리 및 왜가리 7마리가 번식지 내에 남아 있었다.



1996년 조사에서는 중대백로 250마리, 쇠백로 169마리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은행나무가 배설물에 의하여 고사枯死됨에 따라 주변의 수령이 약 40년 된 참나무에 번식하였는데 참나무 또한 배설물 피해로 고사하기 시작하자 죽어가는 나무를 대신할 아카시아나무와 소나무를 피해나무 옆에 재식하기도 하였다.

2001년 원래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던 장소에서는 소수의 왜가리 집단만이 번식하고, 백로나 해오라기들은 대부분 도로 건너편에 있는 여강중학교 뒷산으로 번식지를 옮겼다. 이곳에서는 중대백로 430마리, 쇠백로 1,200마리 황로 70마리, 왜가리 4마리 및 해오라기 25마리가 번식하였으며, 본래의 번식지에는 중대백로 58마리, 쇠백로 11마리 및 왜가리 153마리가 번식하였다. 2008년 조사에서는 옮겨간 번식지에서 왜가리 45마리, 중대백로 6마리 쇠백로 5마리가 관찰되었다.

현재는 왜가리와 백로 일부만 남아 등지를 틀고 약 900m 떨어진 서북쪽 리기다 소나무림에 많은 무리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데 농경지의 농약살포와 주변지역의 도시화 등 주변여건이 변화하면서 개체 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3

1

2

1. 여주 신접리 왜가리, 2016. 여주시
2. 여주 신접리 백로, 2009. 여주시
3.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1970. 여주시



천연기념물 제232호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南楊州 陽地里 향나무

1주
높이 약 12m, 가슴높이 둘레 약 3.65m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리 530

지정일 : 1970.12.24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남양주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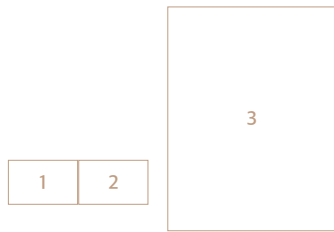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는 수령이 500여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老巨樹로, 경기지역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일한 향나무이다.

향나무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을 비롯해 울릉도와 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심재는 강한 향기를 내는데 이것을 불에 태우면 향기가 더 진해지므로 제사를 지낼 때 향료로 널리 쓰였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묘지 주변에 심는 관습이 있었다.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와 얽힌 이야기로는 거창신씨居昌愼氏가 선조를 모신 묘소의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심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을 뿐 다른 전설은 알려진 것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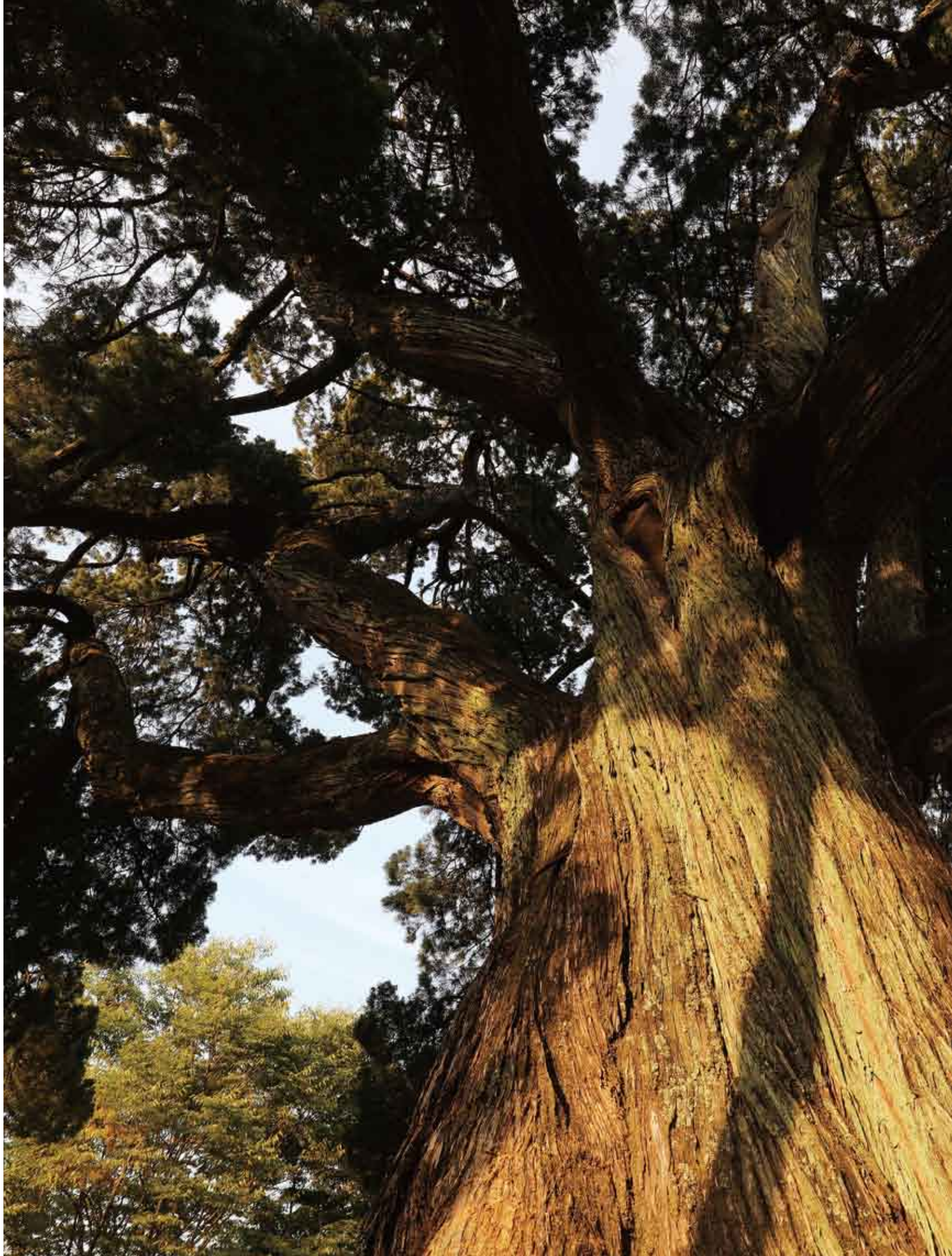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의 크기는 높이樹高 약 12m, 가슴높이胸高 줄기둘레 약 3.65m,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 동서방향 16.9m, 남북방향 20.7m 정도이다. 지상 2m 정도 되는 곳에서 원대가 잘리고 동서로 크게 갈라진 후 다시 각각 세 개와 네 개로 갈라져 고르게 수관을 확장하고 있다. 이 중에서 서쪽으로 뻗은 가지가 가장 크며 줄기의 밑둘레는 1.8m이다. 서쪽가지는 1m쯤 자라나다가 다시 2개로 갈라지고 각 가지에서 돋은 잔가지는 모두 아래로 많이 처져서 전체 나무모양이 둥글게 되었다. 원대의 동쪽 밑부분은 과거 향초의 재료를 얻기 위해 깎여졌는데 상처가 심하여 외과적 치료를 받았다.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는 작은 공장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나지막한 야산으로 이어지는 언덕 위에 독립수로 서 있다. 향나무의 남쪽으로는 거창신씨의 재실인 양산재가 있고, 서쪽으로 100m 지점에는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다. 북쪽에는 상수리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고 그 가운데 거창신씨 종중의 묘가 위치해 있다.



1.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2013. 남양주시
2.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3.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세부,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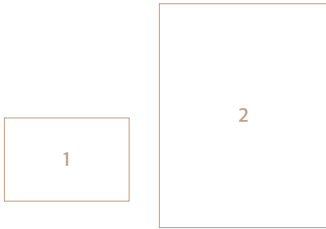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漢江 下流 재두루미 渡來地

파주시·김포시 일원
23,186,822㎡

지정일 : 1975.02.25
소유자 : 국토교통부 외
관리자 : 파주시, 김포시



1.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전경, 2011. 김포시
2. 재두루미, 촬영일 미상. 김포시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는 파주시 교하면 산남리·문발리·신촌리와 김포시 하성면 석탄리·후평리·시암리의 한강 하류의 동서 하안과 중주, 그리고 임진강과 한강 하구가 교차되는 삼각주 일대를 말한다.

이곳에 재두루미가 도래한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1973년 주한미군 벤킹(Ben King)이 미국의 두루미학자 월킨쇼(Wal Kin Shaw)에게 “1961년 11월 약 2,300여 마리의 재두루미가 한강하구 개펄에 도래한다”고 보고한 것이며, 이 덕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로부터 1980년 초까지 해마다 10월 하순경부터 이듬해 3월 중순경까지 재두루미 약 1,500~2,000마리가 규칙적으로 도래하였으며, 무리의 일부는 이곳을 거쳐 가기도 하고 일부는 이곳에서 월동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강 상류에 댐을 만들고 농지를 넓히는 계획에 따라 수문水門 설치와 군의 석축石築 공사 등에 의해 물의 높기와 소금의 농도가 변하면서 수송나물, 칠면초, 매자기 등 재두루미의 먹이가 감소되고 그 자리에는 소금농도에 강한 갈대와 갯개미취 또는 띠가 무성하게 자라났다.

이러한 환경변화로 인하여 현재 재두루미의 숫자가 현저히 줄었으나 재두루미 외에 겨울철새인 독수리, 큰 기러기, 느시, 개리(천연기념물 제325호), 도요새, 물떼새 등 수많은 철새들이 이곳에 도래하면서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



천연기념물 203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재두루미는 머리와 목은 흰색이고 앞목 아랫부분 3분의 2는 청회색이다. 몸의 청회색 부분은 목옆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좁아져서 눈 바로 아래에서는 가는 줄로 되어 있다. 가슴은 어두운 청회색이고 배와 겨드랑이는 청회색, 아래꼬리덮깃은 연한 청회색이다. 눈 앞과 이마 및 눈 가장자리는 피부가 드러나 붉고 다리도 붉은색이다. 재두루미는 트란스바이칼리아 지방·중국·칸카호반·우수리지방 등지에서 번식하며, 겨울에는 우리나라·중국·일본 등지로 날아가 큰 강의 하구나 갯벌·습지·농경지에서 겨울을 난다.

재두루미는 강한 귀소 본능을 갖고 있어 해마다 월동했던 농경지를 정확히 찾아와 먹이터로 이용한다. 이러한 습성을 이용하여 김포시는 2009년부터 습지보호지역과 군사보호지역 등으로 개발 압력이 적고 과거 재두루미가 도래하던 하성면 후평리를 사업지로 선정하여 재두루미 취·서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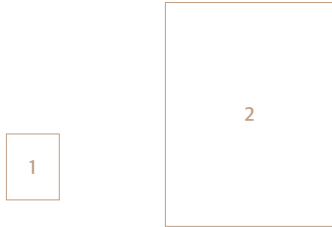


이천 신대리 백송

利川 新垓里 白松

1주
높이 16.5m, 가슴높이 둘레 1.92m, 1.98m
이천시 백사면 신대리 산32 외

지정일 : 1976.06.28
소유자 : 이천시 외
관리자 : 이천시



1. 이천 신대리 백송,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이천 신대리 백송 세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이천 신대리 백송>은 신대리 외곽의 민가 뒤쪽 나지막한 언덕에 위치한 나무이다. 백송의 원산지는 중국 서북부의 호북湖北과 섬서陝西지방으로, 동남아시아에 퍼져 있는 소나무의 한 종류이다. 백송의 어린 나무줄기는 푸른빛이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나무껍질이 넓은 조각으로 벗겨지고 흰빛이 되므로 ‘백송白松’ 또는 ‘백골송白骨松’이라 불린다.

백송 특유의 흰색과 녹색이 조화된 나무껍질 빛깔로 인해 예로부터 중국의 승려와 학자들은 백송을 신성한 나무라고 여겼고, 왕궁의 정원뿐만 아니라 북경北京 교외의 사원, 분묘, 명원明園 등에 심었다. 우리나라에는 조선시대의 각종 연행록에 ‘연행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중국의 백송을 보기 위해 따로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예부터 귀하게 여겨져 왔고, 중국을 왕래하던 사신에 의하여 수입되어 인가 근처에 심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백송은 나무의 생장이 매우 느리고, 번식이 어려워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희귀수종이다.

중국이 원산지인 이 백송은 18세기 말엽 전라도관찰사全羅道觀察使를 지낸 민정식閔廷植이 할아버지인 민달용閔達鏞의 묘소에 심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조선왕조실록』과 『여흥민씨삼방파보』 등을 보면 민정식은 민달용의 손자이자 민영직閔泳稷의 아들로 1882년(고종19) 문과급제 이후 1887년 무렵 전라도관찰사를 지낸 기록이 있어 18세기 말엽으로 알려진 식재 시기와는 달리 조선 고종(재위 1863-1907) 때로 식재 추정시기를 짐작해볼 수 있다. 생물학적인 나무의 나이는 확실하지 않으나 전언에 따른 나무의 나이는 대략 150여년 정도가 된다.

이천 신대리 백송의 크기는 높이樹高 약 16.5m, 가슴높이胸高 줄기 둘레 약 2m이며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는 동서방향 16.5m, 남북방향 16.4m 정도이다. 직립 우산형의 수관으로 지상 0.5m에서 남북방향으로 처음 가지가 두 개로 갈라지고 지상 4m에서 각각 2개·3개의 가지로 다시 나뉘어져 사방으로 뻗어있다. 밑둥치에서부터 두 줄기로 나뉘었지만 가지 사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 안정적인 모습이며 아직까지도 수세가 좋은 편이다. 과거에는 전체적인 나무 모양이 반원형을 이루어 수형이 매우 아름다웠으나, 지금은 상층의 가지들이 부러져 수관의 한쪽이 손상되었기 때문에 옛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다. 이천 신대리 백송은 북서향의 25도 정도의 경사진 산자락에 독립수로 서 있다. 생육공간이 협소한 편은 아니지만 주변에 아까시 나무 3그루가 백송과 맞닿아서 자라느라 수관경쟁을 하고 있어 남쪽 가지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 하단(서쪽)은 석축이 있고 석축 하단에는 단층 민가가 있다.

이천 신대리 백송은 고양 송포 백송과 더불어 경기도에 남아 있는 백송으로, 희소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천연기념물 제278호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楊州 篁芳里 느티나무

1주
높이 24.5m, 가슴높이 둘레 7.75m
양주시 남면 황방리 136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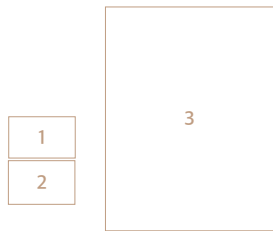
지정일 : 1982.11.09
소유자 : 국토교통부 외
관리자 : 양주시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는 마을 입구의 시냇가와 도로사이 공터에서 자라는 수령 850여년 추정 의 정자목亭子木이다. 오랜 세월 동안 생장해 온 나무로 문화적·생물학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와 얽힌 이야기로는 느티나무가 위치한 마을에 살던 밀양박씨密陽朴氏의 선조가 심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을 뿐, 자세한 내용이나 다른 전설은 알려진 것이 없다.

크기는 높이樹高 약 24.5m, 가슴높이胸高의 줄기둘레 약 9.8m,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는 동서방향 22m, 남북방향 26m 정도이다. 직립형의 수관으로 지상 3m에서 처음 가지가 셋으로 갈라지고, 지상 5m에서 넷으로 갈라져서 가지가 사방으로 고르게 뻗어있다. 1990년 태풍으로 인해 큰 가지가 잘려나가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모양은 아니다.

느티나무 남쪽 가까이에는 작은 도랑이 있어 나무가 수분을 흡수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나, 남쪽으로 더 이상 뿌리를 뻗어내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도랑 너머에는 2016년 개관한 조소앙기념관과 잔디광장 등이 위치해 있다. 느티나무의 북쪽에는 작은 도로가 나 있고, 동쪽과 서쪽에는 이웃한 다른 느티나무의 가지가 접근하고 있어서 일조에 방해를 받고 있다.



1.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촬영일미상_양주시
2.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촬영일미상_양주시
3.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坡州 武建里 물푸레나무

1주
높이 15m, 가슴높이 둘레 3.29m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 465

지정일 : 1982.11.09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파주시



1.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2007. 파주시
2.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2006. 파주시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는 파주시 적성면 무건리의 군훈련장 내에 위치하며 수령이 190여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老巨樹이다. 나무의 나이는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당시 약 150년 정도로 추정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 시점에서는 190여년 정도로 추정된다.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의 크기는 높이樹高 약 15m, 가슴 높이胸高 줄기둘레 약 3.3m,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는 동서방향 14m, 남북방향 14m 정도이다. 직립 우산형의 수관으로 지상 2.25m에서 처음 가지가 나뉘지고, 다시 지상 7m에서 셋으로 나뉘어져 가지가 사방으로 고르게 뻗어있다.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는 동북향의 완만한 경사지에 독립수로서 있으며, 동쪽에 작은 개울이 있어 적절한 생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물푸레나무가 서 있는 곳은 과거 ‘수작골’이라 불리는 경작지의 오른쪽 언덕으로 100여 가구의 마을사람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하는 정자목이었다. 현재는 마을이 사라지고 군사격장이 들어서면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물푸레나무는 잎이 넓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큰키나무喬木로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물푸레’라는 이름은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물을 파랗게 물들인다고 하여 붙여졌으며, 밝은 빛을 좋아하고 추위에 강한 성질로 습기가 있는 물가에서 생장이 빠르다. 나무껍질은 회색을 띤 갈색이며 잿빛을 띤 흰 빛깔의 불규칙한 무늬가 있다. 꽃은 4~5월에 피는데 꽃잎이 없고, 열매는 2~4cm 정도의 시과翅果이며 9월에 갈색으로 익는다.

물푸레나무의 목재는 물리적 성질이 단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약기 또는 도끼자루, 팽이자루 등 농기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도리깨, 쇠코뚜레 등 농경생활 전반에서 많이 쓰였다. 나무껍질은 약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통풍, 신경통, 장염 등에 효능이 있으며, 기침을 그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고 한다. 물푸레나무는 큰 키로 자라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쓰임새가 다양하여 어느 정도 자라기만하면 잘라다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대부분 작은 나무만 볼 수 있으며, 노거수로 남아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는 물푸레나무 중에서 처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1982년 지정될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물푸레나무로 알려졌으며, 동종을 대표하는 나무로서 생물학적 보존가치가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천 도립리 반룡송

利川 道立里 蟠龍松

1주
높이 4.25m, 가슴높이 둘레 1.83m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201-11

지정일 : 1996.12.30
소유자 : 홍삼만 외 1인
관리자 : 이천시

<이천 도립리 반룡송>은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어산마을 북쪽 약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노거수老巨樹이다. 소나무 한 품종이지만 변종이 특이하여 생물학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나무에 얽힌 구체적인 전설과 민속신앙의 문화적 가치가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이천 도립리 반룡송은 신라말 도선국사道詵國師(827-898)가 심었다는 전설이 깃들여 있다. 도선국사가 팔도의 명당을 두루 찾아다니다가 이곳 백사면 도립리를 비롯하여 함흥, 서울, 강원도 통천通川, 충청도 계룡산에 장차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을 하면서 명당의 표시로 각각 반룡송 5그루를 심어놓았다고 한다. 5곳 가운데 강원도에 심었던 한 그루는 죽었으나 나머지 네그루가 살아 함흥에서는 이성계, 서울에서는 영조英祖, 계룡산에서는 정감鄭鑑이 태어났으니 앞으로 반룡송이 있는 이천에서도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라는 내용이다. 반룡송이 있는 곳은 이중환李重煥이 자신의 저서 『택리지擇里志』에서 복거지卜居地로 칭할 정도로 지세가 좋은 곳이기도 하다. 한편 민간에서는 반룡송을 영험이 깃든 존재로 보고 가지를 꺾거나 꺾질을 벗기는 등 해를 입히는 사람은 심한 피부병을 앓게 된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다.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는 동서방향 12.3m, 남북방향 12.5m 정도이다. 지상 약 2m 정도에서 가지가 사방으로 갈라져 넓게 퍼져 있으며, 중앙의 하늘을 향한 굽은 가지는 180°로 뒤틀려서 기묘한 모습을 하고 있다. 나무의 높이는 4.5m에 불과하지만 뿌리 근처의 줄기보다 가슴높이 이상의 줄기둘레가 오히려 더 굵고, 심한 반굴蟠屈 상태인 것이 특징이다. 그 모습이 마치 뱀같이 생겼다고 하여 일본에서는 ‘뱀솔’이라 부르기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용이 하늘로 오르기 전 몸을 감고 엎드려 있는 상태(반굴, 蟠屈)처럼 보인다고 하여 ‘반룡송蟠龍松’으로 불린다.

이천 도립리 반룡송이 위치한 일대는 평탄한 경작지대로 현재 사유지이기는 하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이천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경작지 안쪽에 위치한 반룡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진입로를 마련하고, 보호책과 지주를 세워 관리해왔다. 나무의 뒤편에는 인접하여 소규모의 활엽수림이 식재되어 있는데 반룡송의 보호는 물론 주변경관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다.



1. 이천 도립리 반룡송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이천 도립리 반룡송,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이천 도립리 반룡송 세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漣川 隱垞里 물거미 棲息地

일원
50,508 m²
연천군 전곡읍 은대리 693-18외

지정일 : 1999.09.18
소유자 : 국방부 외
관리자 : 연천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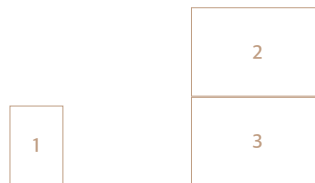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는 1과 1속 1종만이 존재하는 희귀종인 물거미의 서식처이며, 국내에서 유일하게 물거미가 서식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물거미는 주로 북반구 온대지방(여름 평균기온 남한선은 25℃, 북한선은 15℃)의 유럽·시베리아·중앙아시아·중국·한국·일본 등지에 분포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는 1930~1940년대에 일본 교토와 북해도 지역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후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물거미에 대한 기록은 1955년 일본인 키시다(Kishida)와 1957년 일본인 사이토(Saito)가 「일본동물도감」에 물거미종의 한반도 서식을 보고하였으나, 정확한 채집지, 채집자 등을 언급하지 않아 그 존재여부가 의문시되어 왔다. 그러던 중 1995년 임현영林憲英(당시 퇴계원중학교 과학교사)에 의해 처음으로 연천군 은대리 저층습원에서 물거미의 서식이 발견되었고, 이후 한국거미연구소에서 한국산 물거미의 형태적 기재와 채집 관찰이 기록됨에 따라 이로써 우리나라에서도 물거미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물거미는 공기로 호흡하지만 조막, 섭식, 짝짓기, 산란발생, 성장 등의 전 생애를 물속에서 보낸다. 몸의 크기는 일반적인 거미류가 암컷이 수컷에 비해 월등히 큰데 반해, 물거미는 수컷이 암컷보다 더 크다. 몸에 많은 털이 있는데 이 털은 은백색 공기방울을 만들어 물 속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하며 방수역할도 한다. 물 밖에서 배와 다리의 털 사이에 공기를 머금은 뒤 물 속에 있는 물풀이나 조그만 돌에 붙여 공 모양의 공기둥지를 만들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독특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이 공기둥지를 근거지 삼아 수컷은 활발히 돌아다니며 사냥하고, 암컷은 둥지에 잠복해 먹이를 기다린다. 암컷은 공기주머니 속에서 알을 낳고 새끼가 자라 독립할 때까지 기르며, 산소가 부족하면 밖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문혀와 보충한다.

물거미가 사는 곳의 습지는 지형이 농경지보다 다소 낮고, 물은 천수에 의한 빗물로 공급이 된다. 문화재 지정구역 중 습지의 비율은 34% 정도로 실제 물거미가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약 1.72ha이다. 물거미 서식지의 수심은 0~60cm까지 다양하지만, 물거미가 사는 습지의 수심은 주로 30cm 내외로 낮은 편이다.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에는 서식밀도 습지의 크기, 물거미가 나타나는 식생형을 고려한 조사결과 현존하는 물거미 수는 약 40,000마리로 추정되고 있다.



1. 연천 은대리 물거미, 2009. 문화재청
 2.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2009. 문화재청
 3. 연천 은대리 물거미 서식지 전경, 2009.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14호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華城 古井里 恐龍알化石 產地

일원
15,900,000㎡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 산5 외

지정일 : 2000.03.21
소유자 : 화성시 외
관리자 : 화성시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는 1999년 시화호 간석지 육지화에 따른 생태계와 지질 변화에 관한 기초조사를 벌이던 중 화성시 환경지킴이 최종인에 의하여 발견되었다. 지질시대의 퇴적암 안에 퇴적물과 함께 퇴적된 동·식물의 유해나 흔적을 일컬어 ‘화석化石’이라고 하며, 퇴적물 속에 급히 묻혀 돌처럼 딱딱해 지거나 다른 물질로 바뀌는 등의 암석화 작용을 받아야 비로소 화석이 된다.

세계적으로 공룡알화석이 발견된 곳은 대부분 중국과 몽고지역이다. 그러나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처럼 많은 공룡알화석이 한꺼번에 발견된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이곳은 작은 섬과 바위들로 구성된 도서군島嶼 중 하나였는데, 시화호 완공 후 담수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육지화된 곳이다.

고정리 공룡알 화석층은 대체적으로 역질礫質 사암砂岩이 주를 이루며 사암沙岩 또는 사질沙質 이암泥岩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와 함께 국내의 대표적 공룡알화석 산지 중의 하나인 보성 비봉리 공룡알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418호)의 공룡알 화석층은 전반적으로 범람원 기원의 사질 이암이다.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과 등지는 대부분 범람원 퇴적층인 적색 이암층泥岩層에서 발견되었고, 하천이 흐르던 곳에서 퇴적된 사암층이나 역암층礫岩層 내에서도 일부 발견되었다. 적색 이암층에서 발견된 공룡알은 이동되지 않고 원래 제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사암이나 역암 내의 공룡알은 하천의 유수에 의해 떠내려 온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룡알은 12개 구역, 37개 지점에서 총 180여 개이며 29개의 알둥지가 산출되었다.



1.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공룡알화석 세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알둥지는 가로·세로 50~60cm 크기이며, 둥지마다 보통은 5~6개, 많게는 12개의 공룡알 화석이 발견되었다. 공룡알 화석은 작은 타원형이며 지름은 주로 11~12cm이고 큰 것은 14cm 정도이다.

중생대 백악기에 형성된 퇴적층 내에서 공룡알화석이 주로 발견되고 있는 점에서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의 형성 시기는 약 8300만~8500만 년 전으로 추정된다. 또한 화석산지 일대의 여러 퇴적층 내에서 공룡알화석이 발견되고 있어 이 지역을 비롯해 시화호 일대가 약 1억 년 전에는 평원을 이루어 한반도 내 공룡의 주요 서식지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에는 공룡알화석을 비롯하여 생물들이 뚫어 놓은 구멍인 생흔화석(生痕化石), 식물화석 등 고생물자료들이 발견되고 있으며 보존상태 또한 양호하여 백악기의 고환경과 생태계연구에 중요한 표본으로서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크다.



천연기념물 제436호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漢灘江 大橋川 玄武岩 峽谷

일원
204,829.2㎡
총 길이 약1.5km, 깊이 20~30m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1101등

지정일 : 2004.02.23
소유자 : 국토교통부 외
관리자 : 포천시, 철원군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와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을 따라 흐르는 한탄강 연안에 발달한 현무암 평원과 그 일대의 협곡을 말한다.

한탄강 연안에는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드넓은 평원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현무암 평원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한탄강을 따라 경관이 우수한 현무암 협곡이 곳곳에 발달되어 있다. 현무암 평원과 협곡을 만든 용암은 신생대 제4기에 북한지역인 강원도 평강 서남쪽 3km 지점에 위치하는 오리산(해발 452m)과 여기에서 동북쪽으로 24km 떨어진 680m 고지 지점에서 분출한 용암류熔岩流로 추측된다.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연대측정법의 하나인 칼륨-아르곤(K-Ar) 연대 측정법에 의해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을 이루고 있는 양측 절벽 현무암의 절대 연령은 약 27만 년으로 밝혀졌으며, 당시 분출한 용암이 최소한 세 번 이상 흘러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은 길이 약 1.5km, 깊이 20~30m, 폭 25~40m에 달하며 지형의 발달 단계상 유년기 지형에 속한다. 협곡은 하천 바닥의 경사가 비교적 급하여 직류 하천이 형성되고 측방침식側方浸蝕보다는 하방침식下方浸蝕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계곡의 폭은 넓어지고 하천 바닥은 점점 깊어져 대교천은 현재와 같은 곡류하천의 초기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협곡의 양쪽 절벽에는 현무암 특유의 주상절리柱狀節理와 판상절리板狀節理가 잘 발달하여 수려한 경관을 이룬다. 주상절리란 암석이 대체로 6각 기둥 모양으로 쪼개진 절리를 말하고, 판상절리는 널빤지 모양으로 얇게 갈라지는 절리를 말한다.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의 바닥 곳곳에는 소沼와 여울, 작은 폭포가 발달하였고 하안河岸에서는 화강암 특유의 하식지형河蝕地形을 관찰할 수 있어 현무암 협곡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에서는 한반도 신생대 제4기에 형성된 다양한 지질을 관찰할 수 있어 학술적 가치가 클 뿐만 아니라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어 경관적 가치 또한 크다.



천연기념물 제459호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驪州 孝宗大王陵(寧陵) 淮陽木

1주
높이 약 4.4m, 가슴높이 둘레 (동)약 0.29m, (서)약 0.43m
여주시 영릉로 327

지정일 : 2005.04.30
소유자 : 문화재청
관리자 : 문화재청 세종대왕유적관리소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은 조선 효종(재위 1649~1659)과 인선 왕후 장씨(1618~1674)가 묻혀있는 영릉寧陵의 재실 내에 위치해 있는 노거수老巨樹이다.

회양목은 북한 지역인 강원도 회양淮陽에서 많이 자랐기 때문에 회양목이라는 명칭이 붙여졌고, 황양목黃楊木으로도 불렸다. 경북 북부·충북·강원도·황해도 등지의 석회암 지대에서 주로 자생하며, 밑동에서부터 여러 개의 줄기로 갈라져 작고 낮게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회양목처럼 곧으면서 크게 자란 나무는 흔하지 않다.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은 영릉 재실 조성 당시 심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본래 양주의 건원릉 서쪽에 있었던 영릉이 1673년(현종14) 현재의 위치로 천장遷葬한 것을 고려하면 수령은 약 350년 정도이다.

나무의 크기는 높이樹高 약 4.4m, 가슴 높이胸高 줄기둘레 동쪽가지 약 0.29m, 서쪽가지 약 0.43m,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는 동서방향 4.4m, 남북방향 6.5m 정도이다.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은 천연기념물 제264호로 지정되었다가 고사로 지정해제(2002년)된 용주사 회양목(수고 4.4m, 흉고둘레 53.5cm)을 대체할 수 있는 개체이며,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회양목 가운데 가장 큰 나무로 추정된다. 나무는 지상 15cm 정도에서 동서방향으로 줄기가 둘로 갈라져 둥근 부채모양의 단정하고 균형잡힌 수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나무가 위치한 곳의 지형적 특성 때문에 공중 습도가 높은 듯 수피에 이끼류가 많이 끼었다.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의 동북동쪽 2.6m 거리에는 재실의 전사청이, 남남동 방향 1.7m 거리에는 담장이 가로막고 있으며, 남남서 방향 약 3~4m 거리에는 협문을 두고 회양목과 마주하여 향나무 노거수 한 그루가 있다.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은 수목의 규격이 매우 크고 수형이 좋아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회양목종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1673년 조성한 효종대왕 영릉 재실과 오래도록 함께한 역사성이 인정되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전경, 2018 국가등록문화유산



천연기념물 제460호

포천 직두리 부부송

抱川 稷頭里 夫婦松

2주

큰 나무 : 높이 약 6.9m, 가슴높이 둘레 약 3.33m

작은 나무 : 높이 약 6.9m, 가슴높이 둘레 약 1.7m

포천시 군내면 청군로2985번길 180

지정일 : 2005.06.13

소유자 : 포천시

관리자 : 포천시

<포천 직두리 부부송>은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위치하여 마치 한 그루(큰나무)가 다른 한그루(작은나무)를 안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는 처진 소나무이다. 지역민들은 오래전부터 멀리서 보면 한그루로 보이는 두 소나무의 특이한 어울림을 보고 '부부송(夫婦松)'이라 불려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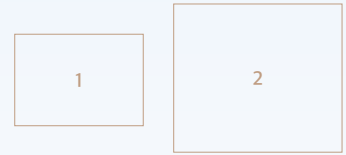
포천 직두리 부부송과 같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처진 소나무로는 청도 운문사 처진소나무(천연기념물 제180호), 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제294호), 청도 동산리 처진소나무(천연기념물 제295호), 의령 성황리 소나무(천연기념물 제359호), 울진 행곡리 처진소나무(천연기념물 제409호) 등이 있는데 경기 이북에는 이 포천 직두리 부부송이 유일하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영험한 소나무 10곳의 가지를 잘랐다고 하는데, 이 소나무도 그 중의 하나라고 한다. 최근까지 나무 밑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는 등 무속인들의 민속신앙처로 이용되어 왔고, 지역민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신앙적 대상으로서 오랫동안 보전되어 온 지역의 민속·문화적 의미가 큰 나무다.



포천 직두리 부부송의 규모는 큰 나무는 높이樹高 약 6.9m, 가슴높이胸高 줄기둘레 약 3.33m,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는 동서방향 15.8m, 남북방향 23.7m 정도이고, 작은 나무는 높이樹高 약 6.9m, 가슴높이胸高 줄기둘레 약 1.7m,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는 동서방향 11.1m, 남북방향 11.7m 정도이다. 나무의 키는 높지 않으나 수평으로 넓게 발달하여 큰 우산을 펼친 듯한 수형이다. 나무의 가지들이 옆으로 길게 뻗어있어서 가지마다 많은 지주를 세운 상태이고, 경사지의 위쪽인 동쪽으로는 가지가 크게 발달하지 못해서 북쪽이나 남쪽에서 바라본 모양은 마치 수관 전체가 산의 경사면을 따라 흘러내린 듯하다.

포천 직두리 부부송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산의 경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는 산으로 오르는 통행로가 있고, 남쪽으로는 작은 경작지가, 서쪽으로는 사찰로 이용되고 있는 민가가 인접해 있다.



1. 포천 직두리 부부송,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포천 직두리 부부송 세부,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천연기념물 제470호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華城 前谷里 물푸레나무

1주
높이 약 20m, 가슴높이 둘레 4.68m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149-2

지정일 : 2006.04.04
소유자 : 화성시
관리자 : 화성시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는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웅지마을 뒤 산자락에 위치하며 수령이 350여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老巨樹이다. 이 나무는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천연기념물 제286호)보다도 규모가 크고 수령樹齡도 오래되어 생물학적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이전까지 마을 주민들이 나무 밑에서 동제와 기우제를 지내는 등 오랜 기간 마을 주민들의 신앙적 대상이 되어온 점에서 문화·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는 높이樹高 약 20m, 가슴 높이胸高 줄기둘레(지상 약 1m 높이)는 약 4.68m,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는 동서방향 17.5m, 남북방향 14.5m 정도이다. 전체적인 수형은 수직·수평으로 가지가 발달하였으며, 위로 높게 뻗은 큰 줄기의 지상 약 1m 지점 북북동 방향으로 돌출 생장부가 있고, 지상 약 2m 지점에서 가지로 이어져 있는 특이한 형태이다. 줄기의 북동쪽 지상 약 1m, 북쪽 지상 약 2m 떨어진 지점에 각각 외과적 수술(1998년경)의 흔적이 있으나 전체적인 보존상태는 양호하다.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는 경작지와 웅지마을 뒷산이 이어지는 높은 대지 위에 독립수로 서 있다. 과거에는 주변 산쪽으로 메타세쿼이아와 일본잎갈나무가 소규모로 식재되어 있고, 나무 밑에는 덩굴딸기 군락과 뽕나무·벚나무·생강나무·상수리 등이 관목층을 이루고 있었으나 현재는 제거된 상태이다. 물푸레나무의 북쪽으로는 민가, 경작지, 공장을 따라 작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이나 도보 모두 접근성이 좋다.

물푸레나무는 잎이 넓고 가을에 낙엽이 지는 큰키나무喬木로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이다. ‘물푸레’라는 이름은 껍질을 벗겨 물에 담그면 물을 파랗게 물들인다고 하여 붙여졌으며 밝은 빛을 좋아하고 추위에 강한 성질로 습기가 있는 물가에서 생장이 빠르다. 나무껍질은 회색을 띤 갈색이며 잿빛을 띤 흰 빛깔의 불규칙한 무늬가 있다. 꽃은 4-5월에 피는데 꽃잎이 없고, 열매는 2-4cm 정도의 시과翅果이며 9월에 갈색으로 익는다.

물푸레나무의 목재는 물리적 성질이 단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악기 또는 도끼자루, 괭이자루 등 농기구를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도리깨, 쇠코뚜레 등 농경생활 전반에서 많이 쓰였다. 나무껍질은 약용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는데 통풍, 신경통, 장염 등에 효능이 있으며, 기침을 그치게 하고, 눈을 밝게 해준다고 한다. 물푸레나무는 큰 키로 자라는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쓰임새가 다양하여 어느 정도 자라기만하면 잘라다가 사용하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는 대부분 작은 나무만 볼 수 있으며, 노거수로 남아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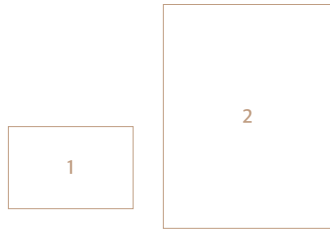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

華城 隆陵 개비자나무

1주
높이 약 4m, 가슴높이 둘레 각각 0.68m, 0.8m, 0.45m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지정일 : 2009.09.16
소유자 : 문화재청
관리자 : 문화재청



1.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 전경,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2.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는 조선 정조正祖(재위 1776~1800)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추존 장조)와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추존 헌경왕후)의 능인 용릉隆陵 재실 내에 위치해 있다.

개비자나무는 우리나라의 중부 이남의 숲속 그늘에서 주로 자생하는 상록침엽수로 키는 보통 약 3m 이내로 자란다. 이러한 일반적인 생육특성과는 달리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는 우리나라 개비자나무를 대표할 정도로 수목의 규모가 크고, 보존상태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용릉과 관련된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의 나이는 약 500년 정도이며, 양주 배봉산(지금의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던 능(당시 영우원)을 1789년(정조13)에 현재의 위치로 천장遷葬하면서 심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나무의 크기는 높이樹高 약 4m(동쪽 4m, 남쪽 3.5m, 서쪽 2.5m), 가슴 높이胸高 줄기둘레 각각 0.68m, 0.8m, 0.45m, 사방으로 뻗은 가지의 길이는 동서방향 6.4m, 남북방향 6.3m 정도이다. 나무의 줄기는 지면부에서 셋으로 갈라져 동쪽과 서쪽, 남쪽으로 자랐다. 서쪽과 남쪽 줄기는 지면으로 약 1m 정도 누워서 자라다가 비스듬히 위로 성장했다. 세 개의 큰 줄기들은 수관을 각각 별개로 형성하고 있어 가까이에서 보지 않으면 마치 세 그루의 개비자나무가 각각 자란 것처럼 보인다.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의 서쪽과 북쪽은 비교적 넓은 공간이 있으나 동쪽으로는 건물의 담장이 가로막고 있으며, 남쪽으로는 재실 건물이 접해 있어 줄기 일부분이 건물의 추녀에 맞닿아 있는 상태이다.





천연기념물 제537호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抱川 漢灘江 玄武岩 峽谷과 비둘기낭 瀑布

일원
31,669㎡
포천시 영북면 대화산리 415-2(비둘기낭폭포)
포천시영북면 대화산리산 42-1(현무암협곡)

지정일 : 2012.09.25
소유자 : 국토교통부 외
관리자 : 포천시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는 한탄강 용암대지가 불무산(佛舞山)에서 발원한 불무천에 의해 유수의 침식을 받아 형성된 현무암 협곡과 폭포이다.

북한지역인 강원도 평강 서남쪽 3km 지점에 위치하는 오리산(해발 452m)과 여기에서 동북쪽으로 24km 떨어진 680m 고지에서 화산 폭발로 분출된 현무암질 용암이 남쪽으로 흘러 용암평원을 형성하였다. 여러 개의 용암층 위로 옛 한탄강과는 다른 변경된 유로가 나타나 풍화와 침식작용을 받게 되고 수직으로 발달한 절리면을 따라 용암층이 떨어져나가면서 협곡과 계단 모양의 폭포가 생기게 된다. 폭포와 협곡은 높아진 대지로 인해 하천의 하방 침식력이 증가되면서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데 이런 과정으로 생성된 것이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이다.



비둘기낭 폭포의 상류 쪽은 눈 옆으로 개울이 흐르는 정도로 평평하다가 갑자기 땅이 폭 꺼지면서 폭포가 형성되어 있으며, 폭포의 하류 쪽으로는 높이 20~30m에 이르는 수직 절벽의 협곡이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폭포 주변의 지형이 마치 비둘기 둥지처럼 움푹 들어간 주머니 모양을 하고 있어 ‘비둘기낭’이라는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주변에는 협곡과 폭포뿐만 아니라 반원모양의 하식동굴, 20m 내외의 크고 작은 주상절리와 판상절리 등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용암분출에 따른 침식기준면의 변동, 수계 발달 간의 상호작용, 용암대지 내의 폭포 발달과정 등 한탄강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지질·지형학적 형성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1.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 2018. 경기도지적연구회
2·3. 비둘기낭 폭포,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천연기념물 제542호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

抱川 아우라지 베개용암

일원
18,146㎡
포천시 창수면 신흥리 209-1 외

지정일 : 2013.02.12
소유자 : 국방부, 국토교통부 외
관리자 : 경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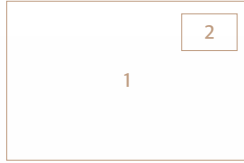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강어귀에 위치한 지질명소이다. ‘아우라지’는 두 갈래 이상의 물길이 한데 모이는 어귀를 뜻하며, ‘베개용암’은 현무암의 모양이 마치 둥근 베개 모양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베개용암은 분출된 용암이 물속에서 급속히 식어 생성된 것이다. 용암이 물과 만나면 용암류의 접촉면은 급히 식어 굳지만 안쪽으로는 액체 상태로 계속 흐르면서 표면 틈으로 빠져나와 굳어서 생긴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 해안·해저의 화산 부근, 호소 주변부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육지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드물다.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지름이 50cm 정도인 원형, 긴 쪽의 지름이 80cm~1m 정도인 타원형 등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내부에는 방사상으로 쪼개진 절리가 관찰되며, 가장자리에서는 암회색 또는 검은색의 치밀하고 견고한 유리질琉璃質이 관찰된다.

포천 아우라지 베개용암은 신생대 제4기에 북한지역인 강원도 평강 서남쪽 3km 지점에 위치하는 오리산(해발 452m)과 여기에서 동북쪽으로 24km 떨어진 680m 고지에서 분출한 현무암질 용암이 추가령 지구대楸哥嶺地溝帶를 따라 흘러내리다가 한탄강과 영평천이 만나는 지점에서 급속하게 식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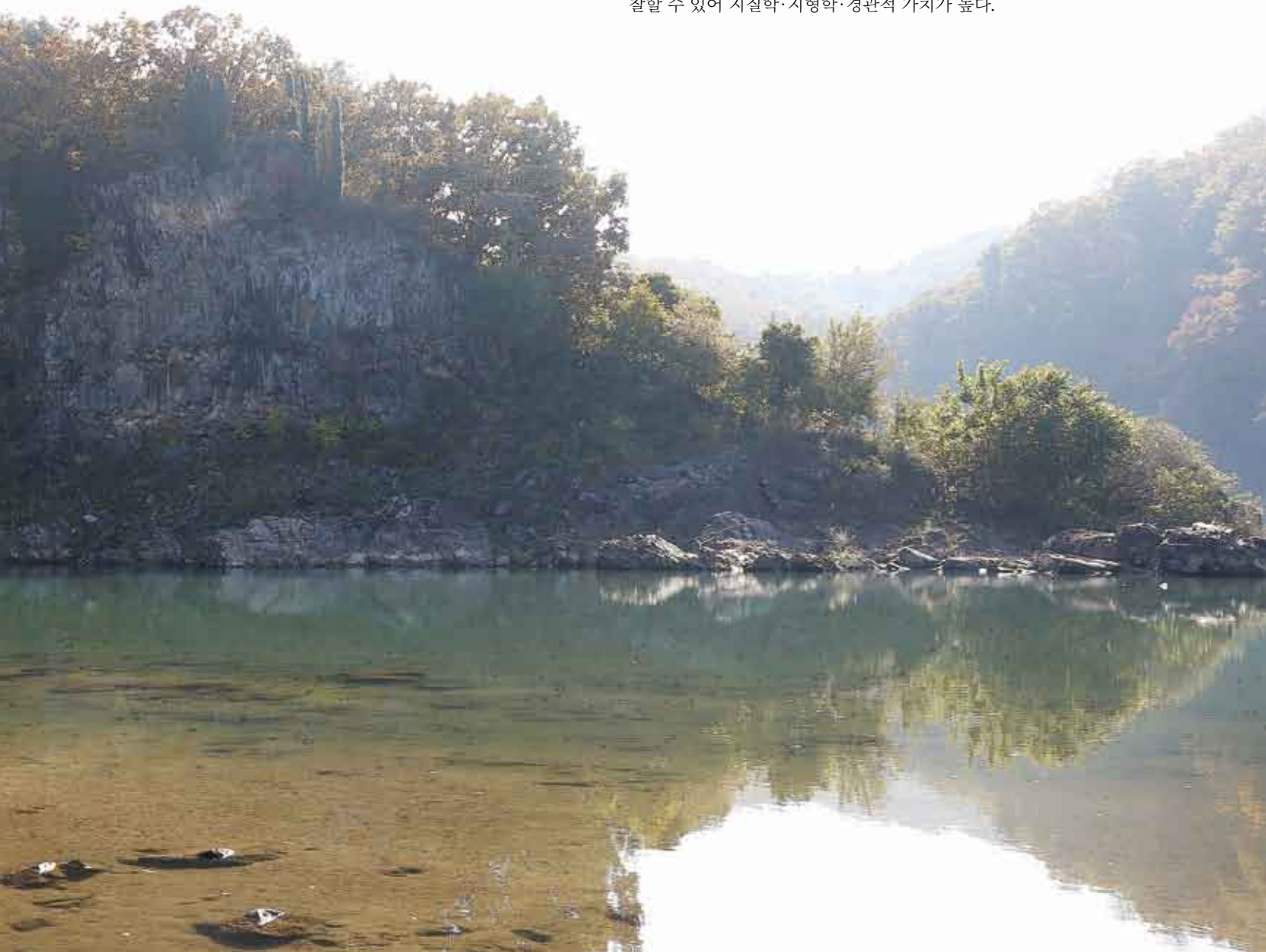




1. 포천 아우라지 배개용암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포천 아우라지 배개용암 세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포천 아우라지 배개용암의 하부에서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상부에서는 제4기 현무암질 용암류와의 부정합구조, 주상절리(柱狀節理)(뜨거운 액체 용암이 식어 굳을 때 부피가 수축되면서 돌기둥을 나란하게 세워 놓은 모양으로 발달한 절리), 하식애(河蝕崖)(하천의 침식 작용으로 생긴 높은 절벽), 고토양층의 발달 등도 함께 관찰할 수 있어 지질학·지형학·경관적 가치가 높다.





— 4 —

등록문화재

연천역 급수탑

連川驛 給水塔

상자형건물 : 1914년
원통형건물 : 1930년
탑2기, 우물1개소
원통형 건물 - 높이 23m, 둘레 18m, 용량 100m³
콘크리트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34-373

지정일 : 2003.01.28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연천역 급수탑>은 경원선 증기기관차에 물을 공급하던 시설이다. 서울에서 연천까지 운행하던 증기기관차가 1914년 원산까지 증설·개통되면서 연천역에 급수탑이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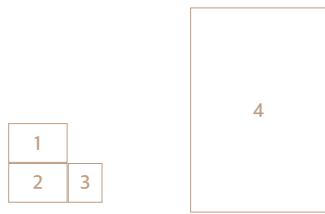
연천역 급수탑은 서울과 원산 중간지점의 유일한 급수탑으로, 당시 서울과 원산을 출발한 경원선 증기기관차는 연천역에 정차하여 급수한 후 목적지인 원산과 서울까지를 운행하였다. 연천역에 급수를 위해 증기기관차가 정차하는 동안에는 역 근처에서 물물교환 등의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남북분단 이후에는 연천역의 이용도가 떨어지자 자연스럽게 연천역 급수탑의 활용 빈도 역시 낮아졌고, 1950년대 디젤기관차가 등장하면서부터 연천역 급수탑은 그 기능을 잃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세워졌던 연천역의 시설물들은 한국전쟁 때 폭격에 의해 모두 사라졌다. 이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연천은 북한의 최남단 지역이었고, 경원선을 통해 북한의 군사물자가 대량으로 들어 오면서 연천역 급수탑이 폭격 위치를 잡는 좌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급수탑의 외부에는 그 당시의 탄흔이 선명하지만, 다행히 원형은 그대로 잘 남아있다. 연천역 급수탑은 원통형과 상자형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자형 구조물은 기계실로 추측되는 건물로, 역에서 2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단, 몸체, 처마로 이루어진 3단의 건물이다. 건물 외관은 줄눈을 그려 마치 벽돌을 쌓아 만든 듯 보이게 하였다. 건물 정면에는 이맞돌(Key Stone)이 있는 아치형 출입구가 있고, 우측면 하부에는 출입구와는 별도로 사각형의 개구부를 두었다. 건물의 사면에는 세로로 긴 장방형의 창호를 1개씩 두었는데, 목재 창틀에 유리가 끼워져 있다.

원통형 구조물은 탑과 물탱크 부분이 일체화된 23m 높이의 건물이다. 건물의 정면에는 아치형의 출입구가 크게 나 있고, 정면과 배면 상부에 각각 1개, 배면하부에 1개, 좌·우측면에 각각 1개씩 아치형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급수탑 내부 중앙에는 원통의 급수펌프와 천정을 비출 수 있는 조명장치, 출입구 반대편에는 계기 조작판과 급수배관 그리고 기계장치가 남아있다.

삼척 도계역 급수탑(등록문화재 제46호), 영동 추풍령역 급수탑(등록문화재 제47호), 논산 연산역 급수탑(등록문화재 제48호) 등과 함께 철도 역사의 이해와 근대 교통사 연구를 위한 주요 유산으로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 연천역 급수탑 전경, 2017_경기문화재단
2. 연천역 급수탑 상자형 건물, 2017_경기문화재단
3. 연천역 급수탑 상자형 건물 세부, 2017_경기문화재단
4. 연천역 급수탑, 2012_연천군



등록문화재 제76호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

波州 舊 長湍面事務所

1934년

1층

지상 1층, 건축면적 216㎡, 총 면적 295.4㎡, 높이 3.5m

철근콘크리트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785 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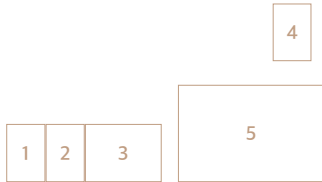
지정일 : 2004.02.06

소유자 : 파주시

관리자 : 파주시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는 옛 장단역에서 서쪽 능선으로 약 700m 떨어진 곳에 있는 근대건축물로, 한국전쟁 이전까지 장단면의 행정 업무를 관할하던 곳이다.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하고 있어 한국전쟁 때 파괴된 이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아 전반적으로 지정 당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나 건물 기둥의 콘크리트와 외벽의 타일이 많이 탈락되었고, 건물 내·외부에 여러 수목이 자라고 있는 상태이다.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는 기록을 통해 건축시기가 명확히 밝혀졌다. 일제강점기 조선건축회가 발행한 건축 잡지 『조선과 건축朝鮮と建築』(1934년 9월호 최근 조선건축계)에는 교통의 요지인 장단역 앞에 이전·신축되는 장단군청사와 진남면(1938년 개정 이전 장단면의 명칭)사무소의 소식을 알리면서 신축에 따른 낙성식(건축물의 완공을 축하하는 행사)개최 기록이 남아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진남면사무소는 평수 59평의 슬레이트 지붕구조를 갖춘 근대식 건물로, 건축비용으로는 공비 약 7,100원(현재가치로 8천7백33만원 정도)이 투입되었으며, 이 낙성식에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마츠모토 마코토 松本誠, 개성·파주 등지의 관계자들, 지역민 등 20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고 한다. 1930년대 면사무소의 신축을 기념하는 행사에 도지사와 200여명의 사람이 참석하였다는 사실과 그 행사소식이 건축 잡지에 실려 있다는 것에서 그 당시 장단면사무소의 규모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단면이 지역사회에서 위상이 높았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1.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 중앙현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좌측면 부출입구,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 내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정면 원형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과주 구 장단면사무소는 단층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물 외벽 상부에는 2단의 수평 돌림띠가 시설되어 있고, 캐노피가 있는 위치에는 수평의 띠 모양을 돌출시킨 코니스 장식이 둘러져 있으며, 창문 위치 아래쪽으로 다시 굽은 자갈이 포함된 시멘트 모르타르 수평 돌림띠가 시설되어 있다. 외벽의 상부와 하부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마감하였으며, 창문이 위치한 중간 부분에는 당시 유행하였던 황갈색의 스크래치 타일(scratch tile)을 사용하여 전체를 마감하였다.

건물의 외벽장은 기둥과 기둥 사이 큰 장방형으로 배치된 것으로 보이며, 건물 정면의 현관을 중심으로 건물 양끝에는 원형창을 대칭으로 설치하여 장식성을 강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과주 구 장단면사무소의 입면은 긴 장방형이나, 건물 정면 중앙현관에 별도의 공간을 두고 있어 건물의 평면은 'ㅁ자' 형태이다.

건물에는 정면의 중앙 현관을 비롯하여 후면과 좌측면의 부출입구까지 3개의 출입구가 있다. 건물 정면 중앙현관에는 시멘트 계단과 등글게 처리된 난간이 있고, 후면의 부출입구에는 시멘트 계단과 판형의 캐노피가 남아있으며, 좌측의 부출입구에는 시멘트 계단과 계단난간, 박공형 캐노피를 설치한 흔적이 남아있다.







내부 공간은 단일 홀 형식으로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다. 내부 바닥은 시멘트 블록재 위에 흙과 큰 잡석을 채워 넣은 뒤 시멘트를 바르고 장방형 (52×57)의 바닥돌을 깔았으며, 내부 벽과 천장은 회반죽으로 마감하였다. 내부 천장의 모서리는 시멘트로 몰딩(moulding) 후 선 그어 넣기를 하여 장식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는 1920년대 이후 도입된 새로운 구조와 재료를 사용하여 지어진 근대건축물로, 좌우대칭적인 입면구성, 정면으로 돌출한 중앙 현관 등 1930년대 관공서의 전형적인 건축특징을 보여주고 있어 자료적 가치가 크다. 아울러 건물에 남아있는 수많은 총탄자국이 당시의 치열했던 교전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어 민족의 비극을 증언하는 건물로 보존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등록문화재 제77호

파주 경의선 구 장단역 터

波州 京義線 舊 長湍驛 터

일제강점기

1개소

길이 304m, 폭 7m

콘크리트

파주시 장단면 동장리 198

지정일 : 2004.02.06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파주 경의선 구 장단역>은 경의선의 옛 철도역으로, 경의선 철도복원사업을 통해 신설된 도라산역의 서북쪽 1km지점에 그 터만 남아있다. 한국전쟁 이전 장단역은 규모가 매우 컸던 역이었다. 주변으로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었으며 장단군청사와 금융조합을 비롯해 각종 상권이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12월 31일 장단 역사驛舎는 폭격을 받았고 장단역 증기기관차(등록문화재 제78호)와 함께 불에 타 파괴되었다.

2000년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2002년부터 전쟁으로 끊어진 문산역과 장단역 간 12km구간을 잇는 경의선철도복원사업이 추진되면서, 장단역 터에 남아있던 기존 노반路盤을 따라 선로가 새로 부설되었다. 하지만 장단역의 위치가 군사분계선과 매우 인접하고 있어 끝내 역사는 복원되지 못하고, 현재 승강장, 화물 하역장, 복원된 철로 일부가 남아있는 상태이다.

장단역은 1906년 경의선이 처음 부설되었을 때부터 영업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장단역의 건립시나 그 모습은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장단역 터에서 발견된 동판을 통해 당시 철도국에서 통표通票의 경량화에 따른 통표폐색기(신호보안장치)를 개량하고 수리했던 시점(1941년 3월 20일, 1945년 8월)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비록 장단역은 그 터만 남아있지만 6.25 전쟁의 참상, 남북분단, 통일을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역사적 장소로서 그 상징성과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京義線 長湍驛 蒸氣機關車

일제강점기

1식
길이 15m, 폭 3.5m, 높이 4m
금속(철)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77

지정일 : 2004.02.06

소유자 : 문화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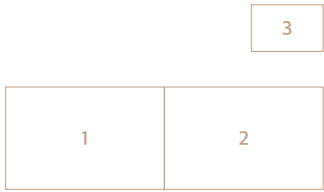
관리자 : 경기관광공사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는 일제강점기(1943-1945) 가와사키중공업川崎重工業에서 제작된 마터2형 기관차이다. 주로 선로사정이 좋지 않은 북한 지역의 산악지대에 화물 및 여객 견인용으로 운행하던 것이었는데 한국전쟁 때 미군이 획득하여 사용하였다.

1950년 12월 31일 이 증기 기관차를 마지막으로 운전했었던 故한준기 기관사는 연합군 수송본부의 명령에 의해 개성역에서 평양으로 북상하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평양까지 가지 못하고 평산도 한포역에서 다시 장단역으로 내려와 정차 중 미군의 기관총사격으로 기관차는 몸통과 증기통이 모두 구멍이 뚫려서 운행이 불가능하게 파손되었다고 회고하였다. 당시 전쟁 상황을 미루어볼 때 연합군은 중공군에 밀려 후퇴하는 중 북한군이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전상 열차를 손상시킨 것으로 추측된다.

1950년 피폭이후 이 기관차는 경의선 장단역에 녹슬고 부식된 채로 방치되다가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에 따라 2005년에 임진각으로 옮겨졌다. 이후 포스코 산하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보존처리 기술을 지원받아 약 2년간의 보존처리를 거친 뒤 2009년 6월 25일부터 남북분단의 아픔을 증언하는 상징물로서 임진각에 공개 전시되고 있다.





1-2.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임진각으로 옮겨지기 전 장단역 증기기관차, 2003.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79호

파주 경의선 장단역 죽음의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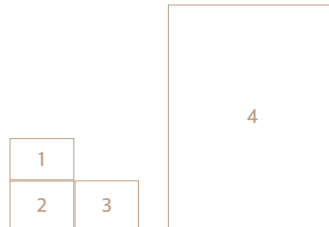
波州 京義線 長湍驛 죽음의 다리

일제강점기
1개소
길이 7.2m, 폭 5.5m, 높이 8m
철근콘크리트
파주시 장단면 도라산리 894

지정일 : 2004.02.06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파주 경의선 장단역 죽음의 다리>는 옛 장단역에서 남쪽으로 300m지점에 있는 교량이다. 이 다리가 일명 '죽음의 다리'로 불리게 된 것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에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간 미군(또는 한국군)이 중공군의 재공격으로 밀려 후퇴하던 중 이곳에서 공격을 받아 전멸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하나 구체적인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다리는 경의선이 지나는 계곡의 능선을 따라 콘크리트 교각을 양쪽에 설치하고 그 위로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세로 보 3개를 놓아 만들었다. 보 위로는 상판과 난간이 일체형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양쪽의 난간은 반아치형 모양으로 뚫어 장식하였다. 다리가 언제 건설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다리의 규격이 일제강점기 「도로규칙」에 명시된 2등 도로 규격(폭 5.5m)과 일치하는 것을 미루어보아 「도로규칙」이 제정된 1911년 이후 건설된 것으로 추측될 뿐이다. 파주 경의선 구 장단역 터,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와 함께 한국 전쟁의 참상, 남북분단, 통일을 함께 그려볼 수 있는 역사적 장소로서 그 상징성과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 파주 경의선 장단역 죽음의 다리 상판하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3. 파주 경의선 장단역 죽음의 다리 좌·우,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파주 경의선 장단역 죽음의 다리,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271호

구 포천성당

舊 抱川聖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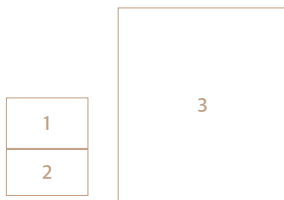
1955년
1동(1층)
지상 1층, 대지면적 : 11,147㎡, 건축면적 : 189.98㎡
석재
포천시 왕방로 191

지정일 : 2006.09.19
소유자 : (재)춘천교구천주교회
관리자 : (재)춘천교구천주교회

<구 포천성당>은 1955년 군부대의 원조를 받아 지어진 종교건축물이다. 포천은 1801년 신유박해 때 가톨릭신자들이 피난 와 옹기촌을 이루며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곳이며, 한국전쟁 때는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에 한 곳으로 당시 어느 지역보다 ‘하느님이 보호하는 굳건한 성’의 이미지를 가진 성당을 필요로 했던 지역이다.

이에 당시 포천일대에 주둔한 6군단 군단장 故이한림 장군은 종교적 의지를 가지고 성당건립을 추진하여 1955년 11월 포천시내가 내려다보이는 왕방산 기슭 언덕에 인근 회천면 덕정리 돌산에서 가져온 화강석으로 성당을 완공하였다. 이후 본당을 관할하는 중심성당으로 발전했으나 1990년 취객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성당 내부의 감실과 성물, 목재로 된 마룻바닥과 지붕틀 등이 완전히 소실되었다. 이후 주요 구조를 형성하는 벽체만 남아 방치되다가 2017년에 이르러서야 지붕 복원사업이 진행되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구 포천성당은 한국전쟁 전후 석조종교건축의 의장적 특성(정면 중앙의 종탑과 뾰족 아치창호), 공간적 특성(단일홀, 강당형 평면구성), 화강석 조적구법(부축벽)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근대 종교건축물로 종교사적, 건축양식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 구 포천성당 우측면,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구 포천성당 내부,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구 포천성당,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294호

고양 구 일산역사

高陽 舊 一山驛舍

1933년

1층(1층)

지상 1층, 대지면적 : 10,537㎡, 건축면적 : 178.48㎡

목재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662번길 35

지정일 : 2006.12.04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고양 구 일산역사>는 1906년 용산과 신의주 간 군용철도 부설이 완료되면서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의선의 보통역으로 개통 당시에는 수색역과 금촌역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1933년 역사 준공 이후 꾸준히 여객운행을 지속해오다가 경의선 복선 전철화사업으로 2009년 신역사가 새로 지어지면서 이 역사는 기능을 상실하였다.

고양 구 일산역사의 내부공간은 중앙의 역무실을 기준으로 왼쪽에 탕비실, 숙직실, 휴게실이 있고, 오른쪽에 비교적 넓은 공간의 대합실이 있다. 대합실과 역무실, 숙직실은 일자형一字形으로 구성되었으며, 운전실(타블렛실)은 열차의 진출입을 눈으로 확인하고 조정하기 용이하도록 플랫폼을 향해 돌출되어 있다. 돌출된 운전실의 3면은 기차를 조망할 수 있도록 3면에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대합실에는 플랫폼으로 통하는 개찰구와 광장으로 통하는 주출입구가 나 있고, 대합실과 역무실 사이에는 매표소 창이 출입구 쪽으로 설치되어 있다. 역무실은 하나의 공간이지만 기능적으로는 사무실과 운전실, 매표공간 등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며, 운전실에는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사용되는 통표폐색기가 설치되어 있다. 숙직실 영역은 숙직실과 숙직실에 딸린 탕비실 및 휴게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숙직실은 1.77m×6.57m가 증축되었다.



지붕의 형태는 일자형 평면위에 십자형 박공지붕을 올려놓은 형태인데, 정면에서 보이는 박공부위는 폭이 넓은 반면에 높이는 낮은 모습으로 1930년대에 건설된 경부선의 다른 역들과는 차이가 있다. 내부공간은 원형에서 다소 변형되었으나 역사의 증축이나 주요 공간구성의 변경없이 오늘날까지 본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현재의 고양 일산역은 2015년 11월 고양 일산역 전시관과 신세계 희망장난감 도서관으로 탈바꿈하여 개관하였고 지역문화공간으로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1. 고양 구 일산역사 도로방향 외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고양 구 일산역사 플랫폼 방향 외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고양 구 일산역사전시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295호

남양주 구 팔당역

南楊州 舊 八堂驛

1939년

1등(1층)

지상 1층, 부지면적 : 9,251㎡, 건축면적 : 56.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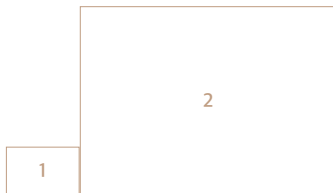
목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342

지정일 : 2006.1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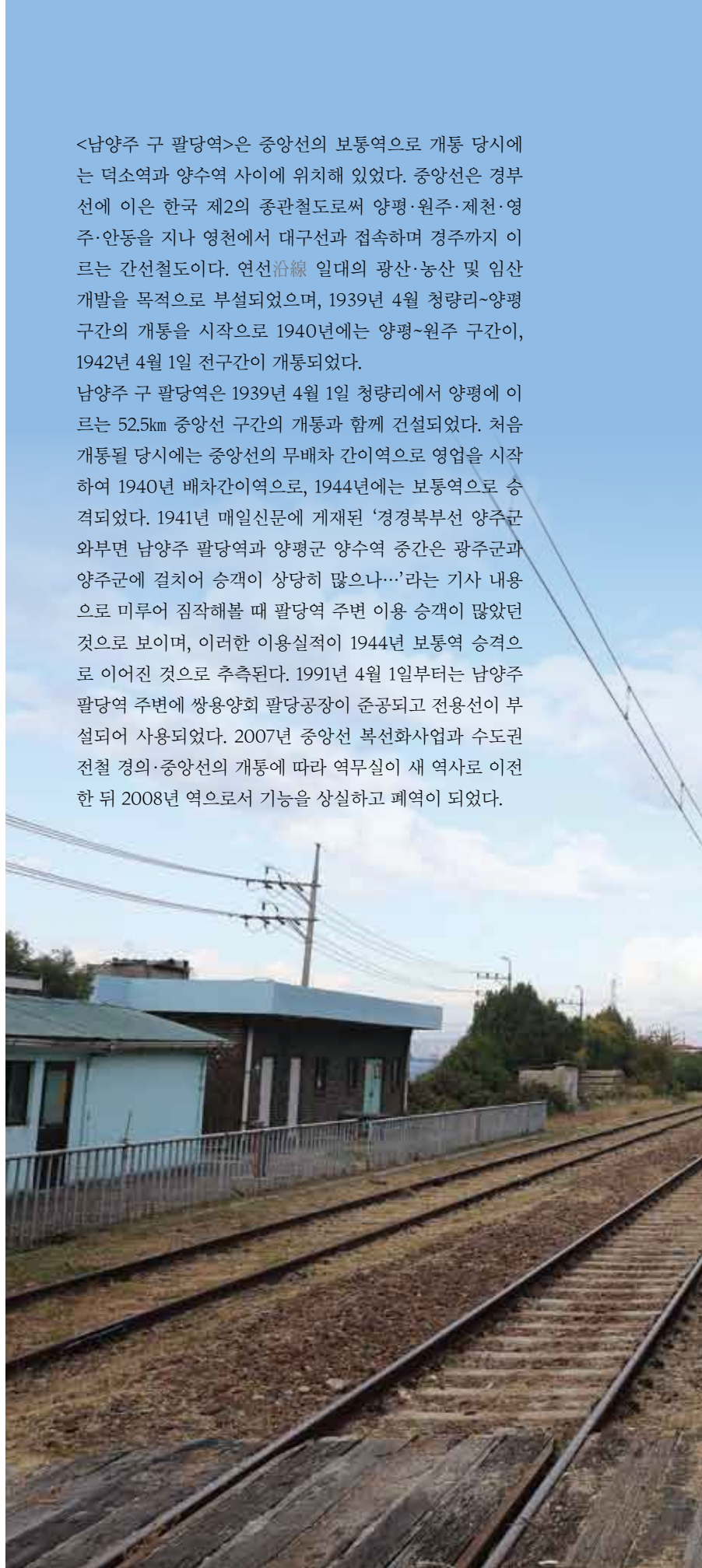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1. 남양주 구 팔당역 전경, 2018. 경기도지역연구회

2. 남양주 구 팔당역 좌측면,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남양주 구 팔당역>은 중앙선의 보통역으로 개통 당시에는 덕소역과 양수역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중앙선은 경부선에 이은 한국 제2의 종관철도로써 양평·원주·제천·영주·안동을 지나 영천에서 대구선과 접속하며 경주까지 이르는 간선철도이다. 연선沿線 일대의 광산·농산 및 임산 개발을 목적으로 부설되었으며, 1939년 4월 청량리~양평 구간의 개통을 시작으로 1940년에는 양평~원주 구간이, 1942년 4월 1일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남양주 구 팔당역은 1939년 4월 1일 청량리에서 양평에 이르는 52.5km 중앙선 구간의 개통과 함께 건설되었다. 처음 개통될 당시에는 중앙선의 무배차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하여 1940년 배차간이역으로, 1944년에는 보통역으로 승격되었다. 1941년 매일신문에 게재된 ‘경북북부선 양주군 와부면 남양주 팔당역과 양평군 양수역 중간의 광주군과 양주군에 걸치어 승객이 상당히 많으나...’라는 기사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해볼 때 팔당역 주변 이용 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이용실적이 1944년 보통역 승격으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1991년 4월 1일부터는 남양주 팔당역 주변에 쌍용양회 팔당공장이 준공되고 전용선이 부설되어 사용되었다. 2007년 중앙선 복선화사업과 수도권 전철 경의·중앙선의 개통에 따라 역무실이 새 역사로 이전한 뒤 2008년 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폐역이 되었다.

남양주 구 팔당역은 철로사이 플랫폼에 설치되어 있다.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르고 있고, 북쪽으로는 구릉이 위치해 있어서 역사가 위치할 여유 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역사와는 달리 광장이 없고, 역사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一'자형으로 건설되었다.

내부 공간은 중앙의 역무실을 기준으로 왼쪽에 대합실, 오른쪽에 탕비실과 숙직실 등의 부속공간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대합실에는 플랫폼으로 향하는 출입구가 있고, 역무실에는 플랫폼으로 향하는 양측 출입구와 대합실로 연결되는 출입구가 있으며, 숙직실은 외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다.

내부공간은 원형에서 다소 변형되었으나 역사의 증축이나 주요 공간구성은 변경없이 오늘날까지 본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다. 현재 남양주 구 팔당역은 철로를 통과해야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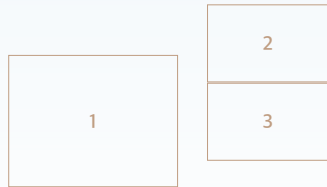
등록문화재 제296호

양평 구 구둔역

楊平 舊 九屯驛

1940년
1층(1층)
지상 1층, 부지면적 : 9,114㎡, 건축면적 : 95.2㎡
목재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1336-2 외

지정일 : 2006.12.04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 1. 양평 구 구둔역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2. 광장 방향 외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2. 플랫폼 방향 외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양평 구 구둔역>은 중앙선의 보통역으로 개통 당시에는 지평역과 양동역 사이에 위치해 있었다. 중앙본선은 경부선에 이은 한국 제2의 종관철도로서 양평·원주·제천·영주·안동을 지나 영전에서 대구선과 접속하며 경주까지 이르는 간선철도이다. 연선沿線 일대의 광산·농산 및 임산 개발을 목적으로 부설되었으며, 1939년 4월 청량리~양평 구간의 개통을 시작으로 1940년에는 양평~원주 구간이, 1942년 4월 1일 전구간이 개통되었다.

양평 구 구둔역은 1940년 4월 1일 양평에서 원주에 이르는 55.9km 구간의 개통과 함께 건설되었다. 1996년 1월 승차권 차내 취급역으로 전환되었으며, 청량리~원주 간 중앙선 복선화 사업으로 철도노선이 변경되면서 2012년 역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폐역이 되었다.

양평 구 구둔역은 양평군 지평면 일신리 작은 마을 인근에 전형적인 간이역의 평면구성인 장방형으로 건설되었다. 내부공간은 중앙의 역무실을 기준으로 왼쪽에 탕비실과 숙직실, 부엌이 있고, 오른쪽에 비교적 넓은 공간의 대합실이 있다. 대합실 남쪽으로는 긴 의자가 놓여있고, 긴 의자를 두고 좌우에 광장과 플랫폼으로 통하는 주출입구를 냈다. 역무실은 칸막이 없이 사무공간과 매표공간, 운전실(타블렛실)로 구성되어 있는데 플랫폼과 연결되는 출입구와 탕비실, 부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있다. 운전실은 장방형의 평면에서 돌출되는 별도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돌출된 운전실의 3면에는 기차를 조망할 수 있도록 창호가 설치되어 있다.



광장에 면한 정면쪽으로 대합실 상부 지붕의 박공면이 역사의 전후면을 관통하도록 위치해 있고, 역무공간과 숙직실은 지붕면이 위치하여 단정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대합실 주출입구 상부에는 캐노피가 위치하고 캐노피 위로 고측창을 설치하여 대합실 내 깊숙이 채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플랫폼에 면한 배면에는 대합실의 지붕을 구성하는 박공과 나란히 운전실(타블렛실)의 상부만을 덮는 작은 박공이 위치하여 정면과는 다른 모습의 입면을 보여준다. 건물내부의 주요 구조재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으며, 역사와 그 주변 경관이 자연 속에 파묻혀 있어 근대기의 역사와 잘 어우러져 있다. 현재 양평 구 구둔역은 카페로 운영되고 있으며, 영화와 뮤직비디오 촬영 등의 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미몽

迷夢

1936년
1점
RP 35mm(7권) (48분)
질산염 필름
파주시 문발로 301

지정일 : 2007.09.17
소유자 : 한국영상자료원 파주보존센터
관리자 : 한국영상자료원 파주보존센터

<미몽>은 1936년 경성촬영소가 제작한 여섯 번째 유성영화이자 양주남梁柱南(1912~?)감독의 데뷔작으로 1930년대 영화문법과 영화의 기술적 진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04년 중국 전영자료관으로부터 <군용열차>, <집 없는 천사>, <어화>, <지원병> 4편을 입수한데 이어 2005년에는 <반도의 봄>, <조선해협>을 비롯한 미몽을 입수하였다. 2005년 입수작 3편은 중국 전영자료관의 협조를 받아 새롭게 프린트를 복사하였고, 2005년 말 한국영상자료원에 입고되었으며 2006년 3월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일반에 공개되었다.

평면적인 캐릭터 설정, 갑작스런 극의 전개, 어색한 카메라 앵글과 편집 등에도 불구하고 새장의 인서트 쇼트, 애순이 남편에게 화가 나자 남편이 비친 화장대 거울을 흔들어 버리는 쇼트 등의 몇몇 장치들은 당시의 감독의 영화문법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영화가 제작될 당시는 이미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가정주부이자 변호사의 아내였던 노라가 남편의 비겁한 모습에 반발하여 집을 뛰쳐나온다는 설정)이 초연되고 나서 '신여성'에 대한 담론이 팽배했던 무렵이라 이 영화도 신여성에 대한 대중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애순은 가부장적 사회가 바라본 신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투영된 인물로 '데파트(백화점)'에서 무조건 비싼 것을 사려고 한다거나 서슴없이 불륜을 저지르는 등 설득력 없는 행동을 일삼다가 결국에는 갑작스럽게 처벌당하게 된다. 영화에서는 당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였던 신여성을 '비도덕적 태도'를 가진 부정적인 대상이자, 결국에는 처벌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몽은 애순(문예봉)이라는 등장인물을 통해 식민지 시대의 신여성 및 근대성에 대한 담론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930년대 서울의 도시풍경과 당시 최고의 인기배우이자 북한 인민배우였던 문예봉의 데뷔 시절 모습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영화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7

1 2 3 4 5 6

1~7. 「미몽」의 주요 장면, 2018_ 한국영상자료원





<줄거리>

애순(문예봉)은 여염집의 부인으로 허영이 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다. 참다못한 남편(이금룡)은 애순을 내쫓고, 애순은 남편과 딸 정희(유선옥)를 버려둔 채 정부(정부)와 함께 호텔에서 지낸다. 애순은 어느 날 정부가 돈 많은 유지가 아니라 가난한 하숙생이자 범죄자임을 알게 되고, 강도를 저지른 정부를 경찰에 신고한다. 정부를 경찰에 넘기고 부산으로 떠나려 하던 애순은 기차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과속을 하였는데, 애순이 타고 있던 차가 결국 정희를 치고 만다. 병원에 간 정희는 무사히 깨어나지만 애순은 죄책감에 약을 먹고 자살한다.



자유만세

自由萬歲

1946년
1점
DN 35mm(6권) (50분)
질산염 필름
파주시 문발로 301

지정일 : 2007.09.17
소유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관리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자유만세>는 1946년에 고려영화사에서 제작한 최인규崔寅奎 (1911~?) 감독의 작품이다.

최인규 감독은 <국경>(1939)으로 데뷔하여 이후 <수업료>(1940), <집 없는 천사>(1941)를 연출했다. 일제강점기 말 그는 <태양의 아이들>(1944), <사랑의 맹세>(1945), <신풍의 아이들>(1945) 등 친일어용영화를 연출하였는데, 광복 후에는 이를 만회하려는 듯 <자유만세>(1946), <죄 없는 죄인>(1948), <독립전야>(1948) 등 이른바 광복영화 3부작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을 만들었다. 신상옥, 홍성기, 정창화 감독 등은 모두 그의 문하생 출신으로, 광복 후 최인규는 한국영화의 걸출한 영화감독을 배출한 한국영화의 아버지로 자리매김 하였다.

자유만세는 광복 직후 최인규 감독과 더불어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배우와 제작진이 참여한 본격 극영화이자 항일과 광복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영화사적 의미가 있다. 일제강점기 한국영화계를 대표했던 전창근과 최인규가 각본과 연출을 맡았으며, 일본 동보영화사에서 촬영을 배우고 돌아온 한형모, 한국영화 조명기사 1세대인 김성춘, 한국영화 최초의 편집기사인 양주남 등이 제작에 참여했다.

1946년 10월 21일, 해방 전까지 메이지자明治座로 불렸던 국제극장에서 자유만세가 개봉하자 관객들은 열렬한 환호로 응답했다. 생전 전창근의 회고에 의하면, 흥행이 잘 된 정도가 아니라 관객들로 극장이 터져 나갈 정도였다고 한다. 광복영화로서 자유만세의 역사적 의의도 중요하지만, 한국영화에서 액션·멜로드라마의 초기 형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흥미로운 작품이다.

4 5 6

1 2 3

1~6. 「자유만세」 주요 장면, 2018. 한국영상자료원





자유만세는 멜로드라마와 액션영화의 장르적 관습을 통해 일제에 대한 항거와 광복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독립운동을 하는 청년 ‘한중’을 주인공으로 그를 사랑하는 두 여자와의 관계는 멜로드라마 플롯에 따라 진행되며, 교차편집까지 시도한 일본 헌병대와의 추격전과 총격전은 액션영화의 시각적 특성을 보인다.

현재 한국영상자료원에 보존되어 있는 자유만세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다. 제작 당시 만들어진 영화의 상영시간은 100분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6·25전쟁 등을 거치며 많은 부분이 유실되고 편집되어 현존하는 판본은 50여분에 불과하다. 영화의 마지막 내용 역시 사료상으로도 존재하는데 전창근은 생전의 인터뷰에서 이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기도 하였다. “간호부 혜자(황려희 역)의 도움으로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일본 헌병대가 사이드카로 한중을 추격하여 산중 총격전 끝에 한중은 죽게 된다. 그 시간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동트기 전의 새벽녘이었다.”

<줄거리>

1945년 8월 서울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한중(전창근)은 일제의 앞잡이 남부(독은기)의 배반으로 체포되어 감옥살이를 하다가 탈출에 성공하여 대학병원 간호부 혜자(황려희)의 집으로 숨어든다. 한편 무장봉기를 일으키기 위해 준비하던 지하조직원 박(김승호)이 다이너마이트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일본헌병에 잡히게 되지만 한중은 박을 구출하고 우연히 남부의 애인인 미향(유계선)의 아파트로 피신하게 된다. 미향은 한중을 숨겨주고 그에 매료되어 한중의 지하조직이 있는 지하실로 찾아가 정보와 자금을 전달한다. 그 뒤를 밟은 남부와 헌병들에 의해 미향은 총에 맞아 죽고 한중은 총상으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다. 혜자의 도움으로 한중은 탈출에 성공하지만 곧 일본 헌병대가 사이드카로 한중을 추격하여 산중 총격전 끝에 광복을 눈앞에 두고 장렬하게 죽고 만다.

검사와 여선생

檢事와 女先生

1948년
1점
DN 35mm(4권) (40분)
질산염 필름
파주시 문발로 301

지정일 : 2007.09.17
소유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관리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검사와 여선생>은 1948년에 김영순 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윤대룡 尹大龍(1911~?) 감독의 작품이다. 윤대룡 감독은 검사와 여선생을 영화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변사 스승이자 원작자인 김춘광金春光(1901~1949)의 허락을 구했고 영화가 만들어지자 원작자인 김춘광이 직접 전국을 돌며 이 영화의 변사를 맡았다고 한다.

무성영화 검사와 여선생은 전국을 누비며 인기를 끌었으며 변사의 연행은 무성영화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1949년 6월 김춘광이 뇌염으로 사망한 뒤에는 윤대룡 감독의 변사 후배이기도 한 신출(본명 신병균申秉均)이 필름을 인계받아 지방 흥행을 하다 영화진흥공사 필름보관소(한국영상자료원의 전신)에 기증해 현재 영상자료원에서 보관되고 있다. 김춘광은 식민지 시대를 풍미했던 변사이자 희극작가였다. 무성영화의 변사로 인기를 끌자 1923년 극영화 <춘향전>에서 이몽룡 역으로 출연하기도 했다.

이 시기 변사는 소리가 없던 영화에 주인공들의 대사를 전달하고 해설을 담당하던 종합 엔터테이너이자 최고의 인기 스타였다. 1935년에는 극단 예원좌藝苑座를 조직하여 수많은 작품을 썼으며 해방이 되자 해산된 예원좌 단원을 재정비하여 극단 청춘극장을 조직하고, 국도극장에 주식을 투자하여 부사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김춘광은 대중극을 선호하였으며 주로 사랑과 의리, 인정극을 주제로 삼았다. 검사와 여선생을 비롯하여 <촌색시>, <어머니와 아들>, <안중근사기>, <눈물의 진주탑> 등 역사극과 현대극을 오가며 작품 활동을 하였으며, 신파적이며 통속적인 내용으로 관객들의 인기를 끌었다. 김춘광의 작품은 연극으로 인기를 끌었을 뿐 아니라 영화화도 자주 되는데 검사와 여선생도 그러한 맥락 속에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7

- 1
- 2
- 3
- 4
- 5
- 6

1~6. 「검사와 여선생」 주요 장면, 2018. 한국영상자료원
7. 「검사와 여선생」에서 보여주는 1948년 서울의 모습, 2018. 한국영상자료원



검사와 여선생(1948)은 대중들에게 인기 있는 ‘무대극 레퍼토리를 활용한 통속극’이자 ‘신파극의 고전’이며, ‘변사 연행 방식을 가능케할 수 있는 무성영화’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발성영화 제작이 일반화된 가운데 해방 이후 무성영화가 제작된 것은 이례적인 것이다. 이는 해방 이후 영화 제작환경이 열악해지자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영화들을 재상영하거나 연쇄극, 16mm 무성영화 등을 제작한 관행들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검사와 여선생은 영화의 예술성이나 작품 자체의 완성도는 떨어지는 편이지만 최근에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1948년 서울의 전차, 철도, 골목, 책방, 법정 등의 모습들이 역사학, 문화인류학, 건축학 등 다방면에서 연구되고 있어 사회·문화사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줄거리>

민장손은 최양춘 선생의 제자로 병든 할머니와 단 둘이 살며 아침에는 신문을 돌리고 학교를 마치고는 빵을 파는 고된 생활을 한다. 가난한 생활을 하는 장손을 안타까워하던 양춘은 장손에게 세심한 마음을 쏟는다. 세월이 흘러 최선생은 학교를 그만두고 박상태와 결혼을 한다. 남편이 출장을 간 동안 한 탈옥수가 양춘의 집에 숨어들어오게 되는데 탈옥수는 외동딸이 걱정되어 탈옥했다는 안타까운 사정을 털어놓으며, 숨겨줄 것을 간청하였다. 탈옥수의 사정을 들은 양춘은 탈옥수를 숨겨주고 그의 딸을 보살폈으며, 탈옥수가 다시 감옥으로 간 뒤에는 옥중에 사식을 챙겨주었다. 그러한 모습에 동네에서는 양춘이 탈옥수와 간통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 소문을 듣고 칼로 양춘을 협박하다 실수로 자기 칼에 찔려 죽고 양춘은 살인죄로 검찰에 송치된다. 그런데 담당검사는 공교롭게도 장성한 민장손이다. 장손은 선생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 재판정에서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량한 양춘이 살인을 할 수가 없다고 변호한다. 이에 양춘은 장손의 감동적인 변호에 무죄로 석방되고 옛 스승과 옛날의 가난한 제자였던 검사는 눈물로 재회한다.



등록문화재 제345호

마음의 고향

마음의 故郷

1949년
1점
DN 35mm(4권) (76분)
질산염 필름
파주시 문발로 301

지정일 : 2007.09.17
소유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관리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마음의 고향>은 1949년 동서영화사에서 제작한 윤용규尹龍奎 (1913~?) 감독의 데뷔작품이다. 극작가 함세덕咸世德의 희곡 「동승童僧」을 제작자 이강수가 괄일병이란 가명으로 각색하여 영화화하였다. 원작에는 주지 스님과 동승과의 관계가 일제의 억압 하에서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것으로 암시되었으나, 영화 내용의 중심은 동승이 그리워하는 '모성애'이다.

마음의 고향은 광복 후 촬영기술과 연출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주지 스님, 젊은 스님, 동승 삼세대의 고요한 산사생활을 담담하게 포착하면서 미망인을 자신의 잃어버린 어머니에 대입시키는 도성의 애뜻한 마음을 대사보다 시각적 매개체를 통해 관객에게 표현하고 있다. 이를테면 도성이 미망인의 방에서 커다란 깃털부채를 부치는 순간 카메라가 부채를 클로즈업(close up)하면서 다시 부채를 부치는 미망인의 모습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신과적 요소를 배제하면서도 동승의 모정에 대한 간절한 감정을 압축하여 표현하고자 했던 감독의 노력이 돋보인다.

이 밖에도 산사의 아름다운 풍광을 거리를 두고 롱샷(long Shot)으로 잡아내거나, 도성의 꿈을 표현하기 위해 원시적이지만 광학특수효과까지 이용한 한형모韓滢模 감독의 촬영기술은 당시 큰 호평을 받았다. 이 영화가 개봉한지 1년만인 1950년 4월 프랑스의 영화사인 프란시 날프 사社의 제안으로 문화교류 차원의 필름교환이 이루어졌다. 프랑스로 필름이 출고된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내에는 해당 필름이 유실되어 남아있지 않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1993년 영화의 제작자인 이강수씨가 소장하고 있던 흑백 16mm 필름이 발견되어 한국영상자료원에 기증되었고, 2005년에는 일본국립필름센터(NFC)에서 발견된 35mm 원본네거티브로 마스터프린트를 제작하여 국내로 입고하였다.



1~8. 「마음의 고향」 주요 장면, 2018. 한국영상자료원





<줄거리>

도성(유민)은 산사의 주지 스님(변기중)과 생활하며 불도를 배우는 동승이다. 도성은 산사에 불공을 드리러 오는 젊은 서울 아씨(최은희)에게 모정을 느끼게 되고 아들이 없는 아씨는 도성을 아들로 삼아 키우게 해달라고 주지스님에게 청하지만 거절당한다. 어느 날 도성의 친어머니(김선영)가 찾아와 주지 스님에게 도성을 내어달라고 하지만 주지 스님은 이를 거절하고, 도성이 서울 아씨에게 입양 되는 것을 허락한다. 이후 아이의 장래를 위해 친어머니는 산사를 떠난다. 도성이 서울 아씨와 떠나려는 즈음, 도성이 부채를 만들기 위해 새를 죽게 한 것이 탄로나 주지 스님은 도성을 속세로 내보내지 않는다. 친어머니가 산사에 다녀간 것을 뒤늦게 알아챈 도성은 어머니를 찾아 산사를 나선다.



피아골

피아골

1955년
1점
ON 35mm(108분)
질산염 필름
파주시 문발로 301

지정일 : 2007.09.17
소유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관리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피아골>은 1955년 백호프로덕션에서 제작한 이강천李康天(1920~1993) 감독의 대표작품이다. 휴전 후에도 지리산에 남아 있는 소수의 빨치산 부대 중 '아가리'(이예춘)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대장을 맡고 있는 부대의 생활상을 소재로 하였다.

피아골에는 남한군이나 경찰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빨치산만 등장하는데 그들은 각각의 독특한 개성을 가진 캐릭터로서 스스로 욕망을 가지고 인간적인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들로 묘사된다. 이 영화의 주요 인물 중 하나인 빨치산 대장 아가리는 시종일관 잔혹하게 그려 지지만 정교한 몽타주로 구성된 악몽장면을 통해 자신의 잔인함이나 폭력성에 대한 죄책감을 가진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또한 공산주의에 대한 철저한 충성심을 가진 여성간부 애란(노경희)은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솔직하고 능력 있는 여성캐릭터로 묘사되고 있다. 단순히 주요 캐릭터들이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분법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요캐릭터들과 보조캐릭터들 각각이 복잡한 인간의 감정과 의식을 가시화시키면서 영화를 자연스럽게 끌고 나간다.

당시 신문기사나 기록영화에서의 빨치산은 익명의 악당이나 감정없는 살인자로 묘사되던 상황에서 이 영화가 개봉되었을 때 언론과 정부에서는 '빨치산을 너무 사실적이고 인간적으로 그렸다'는 비판을 하며 반공법 위반으로 상영을 금지시키기도 하였다. 특히 영화 중 등장인물들이 모두 죽고 애란이 홀로 산을 내려와 목적지 없이 어딘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마지막 장면은 남한사회로 귀화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는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강천 감독은 화면 전체에 태극기를 이중 인화하여 애란이 '자유대한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으로 수정하였고, 이 장면은 현재까지 피아골의 마지막 장면으로 필름 속에 남아있다.

피아골은 반공 휴머니즘 영화의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으며, 1956년 제1회 금룡상 감독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나라 영화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작품이다.



1~7. 「피아골」 주요 장면, 2018. 한국영상자료원
8. 이강천 감독과 배우들, 2018. 한국영상자료원





<줄거리>

1953년 겨울, 휴전 후에도 지리산에 남아 있는 소수의 빨치산 부대 중, '아가리'(이예춘)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 대장을 맡고 있는 부대는 온갖 만행을 저지른다. 공산주의 이념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철수(김진규)는 냉철한 대원 애란(노경희)의 연모를 받으며 고민한다. 어느 날 다른 부대로 차출되었던 대원 소주가 어깨에 총상을 입은 채 피아골로 돌아온다. 만수(허장강)는 부상당한 소주를 추행하고, 그 와중에 소주는 숨을 거둔다. 만수는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 동료 빨치산을 살해하고, 달석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운 후 달석마저 죽인다. 지리산 공비토벌이 시작되자 빨치산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상황에 처한다. 애란과 철수는 빨치산 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귀순에 대해 이야기하다 아가리에게 발각된다. 철수와 다투던 아가리는 철수를 죽이고 만다. 결국 애란은 아가리를 사살한 후 홀로 산을 내려온다.



자유부인

自由夫人

1956년
1점
ON 35mm(12권) (120분)
질산염 필름
파주시 문발로 301

지정일 : 2007.09.17
소유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관리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자유부인>은 1956년 삼성영화사에서 제작한 한형모韓澄模(1917~1999)감독의 작품으로, 서울신문에 1954년 1월 1일부터 8월 6일까지 215회에 걸쳐 연재하여 초유의 선풍적 인기를 모았던 정비석鄭飛石의 『자유부인』을 원작으로 영화화한 것이다.

영화에서는 광복 후 근대화와 자본주의, 서구문물의 유입 등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여성의 공적영역 진출이 사치와 무비판적 서구화, 성적방종으로 이어짐을 보여주며 결국에는 처벌해야 할 대상으로 묘사하고 있다. 실제로 당시 궁핍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노동의 주체로서 공적영역에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가정 내에 갇혀있던 여성들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의 욕망의 대상이자 자기 욕망과 소비의 주체가 되었다.

오선영이 양품점에 취직하기 위해 문지방을 넘어서 집을 나서는 순간 신춘호가 카메라로 오선영을 포착하는 장면은 여성이 공적영역에 나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를 드러내며, 이에 대한 당시 가부장적 사회의 반응을 영화의 전반에 걸쳐 보여주고 있다. 남성은 자신도 불륜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생산적이고 정신적인 관계로 포장하면서 도덕적 위치를 점한다. 이것은 공적영역에 진출하고 소비와 노동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한 여성을 기존의 가치와 가부장제의 제도 속으로 재차 길들이고 순응시키기 위한 서사의 결말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이 작품은 그 심층에서 근대와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매혹과 불안의 양가성兩價性을 드러내며, 1950년대 한국 사회분위기 속에서 예외적으로 여성의 성적욕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재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적 측면 이외에 자유부인은 제대로 된 크레인과 이동차를 처음으로 사용한 영화로서 한국영화기술사에서도 중요한 작품이다. 미술과 촬영기사로 출발한 한형모 감독은 기술적 측면과 미장센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카메라를 수리하기 위해 청계천에 드나들던 한형모 감독은 영화제작에 관심을 보이는 기계 제작자를 끌어 들였는데, 한형모 감독이 직접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이 제작자가 일주일 만에 이동차와 크레인을 만들었다고 한다.

7
8

1 2 3 4 5 6

1~7. 「자유부인」 주요 장면, 2018. 한국영상자료원
8. 「자유부인」 배우들과 촬영스텝들, 2018. 한국영상자료원



자유부인은 수도극장에서 개봉한 이후 10만 8천명을 동원하여 1956년 흥행 1위를 차지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에서는 ‘최고급품’으로 표현되는 서구의 상품들과 미군을 통해 들어온 대중문화는 매혹적이지만 거부해야 하는 것이지만, “뭘든지 최고급품으로 주십시오, 최고급품입니까?”라는 한 인물의 대사는 당시 시중에 “최고급”이라는 말을 유행시켰다. 자유부인은 1950년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흥행작이자 한국영화상 가장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킨 영화로서 역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의 한국사회의 세태와 사회상을 사실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사회,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줄거리>

대학교수 장태운(박암)과 오선영(김정림)은 아들 경수와 함께 살고 있다. 오선영은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양품점에서 일을 시작한다. 선영은 우연히 길에서 동창 최윤주(노경희)를 만나 같이 어울리면서 댄스 파티에 가게 된다. 윤주는 여자도 경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즐길 줄 알아야 한다며 친구들의 껌돈을 모아 밀수품 사업에 손을 대고, 선영은 옆집 청년 신춘호(이민)에게 흥미를 느껴 그에게 춤을 배우게 된다. 장태운은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만난 타이피스트 박은미(양미희)에게 이끌리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녀와 그만 만나기로 한다. 한편 양품점 사장 한태석(김동원)은 선영에게 흑심을 품고 다가오고 한 사장의 부인은 장태운에게 부인을 감금하라는 편지를 보낸다. 저명한 인사의 부인이었던 윤주는 애인으로 지내던 사기꾼 백광진(주선태)이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입건되면서 기자들이 몰려와 플래시를 터뜨리고 그동안의 행각이 날날이 파헤쳐지자 자살을 하고 만다. 윤주에게 계를 들었던 선영은 껌돈을 날리고 한사장과 호텔에서 포옹하다 갑자기 들이닥친 한사장 부인에게 뺨을 맞고 거리로 뛰쳐나온다. 선영은 잘못을 뉘우치고 집으로 돌아오지만 장태운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아들 경수의 부탁으로 빗장을 열자 아이는 집 앞의 선영에게 뛰어가 안긴다. 그녀는 다 자신의 잘못이라며 흐느끼며 반성한다.



시집가는 날

시집가는 날

1956년
1점
ON 35mm(9권) (77분)
질산염 필름
파주시 문발로 301

지정일 : 2007.09.17
소유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관리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시집가는 날>은 1956년 동아영화주식회사에서 제작한 이병일李炳一(1910~1987)감독의 작품으로, 오영진吳泳鎭의 희곡 「맹진사댁 경사」를 영화화한 것이다.

영화의 주인공 맹진사는 세도가인 판서댁 아들을 사위로 맞을 기쁨에 들떠 지내다가 그가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듣고 딸 대신 딸의 몸종을 대신 시집보내게 되는데, 혼인 날 나타난 신랑은 절름발이가 아닌 늙름하고 당당한 사나이임을 알고 때 늦은 후회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집가는 날은 당시로서는 낯선 장르인 코미디영화로서 ‘비평’과 ‘홍행’, 양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향후 우리나라에서 코미디영화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든 작품이다. 영화는 개봉 당시 4,500만환 정도의 흥행수입을 거두었는데(한국일보 58.7.5) 영화 속에서 캐릭터들은 과장된 동작이나 소리를 통해 웃음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색이 강한 민속극 내에서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자가당착에 빠진 주인공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풍자하면서 웃음을 자아내 인기를 얻었다.

시집가는 날은 한국영화 사상 최초의 해외 영화제 수상작(아시아 영화제 희극상)으로서도 한국영화사적으로 가치가 높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전쟁으로 폐허가 된 상태에서 영화를 만들며 선진 영화계에 깊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당대 영화인들에게 시집가는 날의 해외 영화제 수상은 한국영화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자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었다. 아시아영화제 수상 외에도 1957년 제8회 베를린, 제7회 시드니 국제영화제 등에 출품되며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시집가는 날은 1962년 이용민 감독(맹진사댁 경사), 1977년 김응천 감독에 의해 두 번이나 리메이크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 TV 드라마와 창극으로 고쳐지기도 했다.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한국인의 생활 속에서 제재題材를 취하여 고전의 현대화에 성공한 작품으로서 영화사적 가치가 높다.



1~7. 「시집가는 날」 주요 장면, 2018. 한국영상자료원
8. 「시집가는 날」 배우들과 촬영스텝들, 2018. 한국영상자료원





<줄거리>

맹진사(김승호)는 판사택 아들 미언(최현)을 사위로 맞아 세도가의 사돈이 된다며 자랑을 하고 다닌다. 그러던 중 우연히 판사택 아들 미언이가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듣는다. 딸 갑분이(김유희)를 절름발이에게 시집 보내기는 싫지만 세도가의 사돈이 되어 얻게되는 재물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는 잔꾀를 내어 딸의 몸종 입분이(조미령)를 대신 시집보내기로 한다. 그런데 혼인날 나타난 판사택 아들 미언은 절름발이가 아닌 늙름하고 당당한 사나이였다. 알고보니 미언이 위선적인 정혼자를 가려내기 위해 절름발이라는 소문을 냈던 것이다. 맹진사는 당황하면서 다시 갑분이를 시집보내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 몸종 입분이가 그대로 시집가고 만다.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 (A.W.Busbea) 기증 태극기

美 海兵隊員 버스비어(A.W.Busbea) 寄贈 太極旗

1950년
1점
세로 69.3cm, 가로 86.3cm
레이온(손질)
하남시 덕풍동로 30

지정일 : 2008.08.12
소유자 : 하남시
관리자 : 하남역사박물관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A. W. Busbea) 기증 태극기>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미 해병대 출신 버스비어가 2005년 11월 13일 미국 아칸소주 리틀록시 맥아더공원에서 열린 한국전쟁기념광장 기공식에서 하남시에 기증한 태극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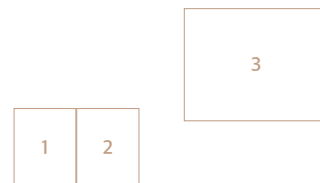
버스비어는 1950년 9월 연합군 인천상륙작전 때 맥아더 장군을 따라 한국전쟁에 참전하였다. 한국전쟁 당시 서울 수복修復을 위한 전투 중 우리시민 한 사람이 마침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버스비어에게 이 태극기를 전해 주었고, 그 후 줄곧 태극기를 군용트럭 앞에 꽂고 다녔다고 한다. 그해 겨울 영하 30~40도 혹한의 북한 장진호에서 14일 동안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미국에선 일본식 지명 발음을 따라 일명 초신(Chosin)전투라 부르는 장진호전투長津湖戰鬪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전투에서 버스비어는 다리에 동상을 입고 장애를 얻게 되었다. 버스비어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이 태극기를 갖고 미국으로 귀국하였고, 2005년 기증 전까지 55년간을 소중히 보관하였다.

레이온 바탕에 왼쪽 위·아래에는 고정용 깃대끈을 달수 있는 구멍이 있고, 가로 상단에는 건괘乾卦와 이괘離卦, 하단에는 감괘坎卦와 곤괘坤卦가 배치되었다. 태극문양은 양방陽方의 빨간색과 음방陰方의 검정색으로, 양방의 머리는 위에서 감괘를 향하고, 음방의 머리는 오른쪽 아래서 이괘를 향하고 있는 상하대칭형이다. 이 태극기의 바탕을 유심히 살펴보면 바닥에는 빨간색의 원만 있었는데, 그 위에 음방부의 문양을 검정색으로 칠하고, 4괘는 연필로 밑그림을 그린 뒤 검정색을 칠한 흔적이 확인된다. 아마도 당초 일장기日章旗로 제작된 것을 광복 후 태극기로 개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태극기는 제작과정이 특이한데다가, 서울 수복 전투 당시 승리를 염원한 한 시민이 빗발치는 탄알의 위협 속에서도 참전 용사 미 해병 버스비에어에게 전달했다는 점, 그 후 버스비에어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처참한 전쟁 상황을 목격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참전 용사 미 해병 버스비에어에 의해 55여 년 동안이나 소중히 간직되었다가 기증된 점 등을 살펴볼 때 민중사적·사료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2. 한국전쟁기념광장 기공식 당시 모습, 2005. 이공원(교차로저널)
3. 미 해병대원 버스비에어 기증 태극기, 2015. 하남역사박물관

등록문화재 제399호

상주 의용소방대 소방차

尙州 義勇消防隊 消防車

1937년

1대

길이 5.45m, 폭 1.73m, 높이 2.15m, 축간거리 3.46m

금속(철)

여주시 대신면 대신1로 244

지정일 : 2008.08.12

소유자 : 백중길

관리자 : 백중길

<상주 의용소방대 소방차>는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소방차이다. 1937년 일본의 아사후지사社가 미국 포드(Ford)의 1937년 식 하프톤(FORD HALFTON) 트럭에 수동식 사이렌과 종, 가까운 수로에서 물을 끌어올리는 수압장치를 장착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처음 들여올 당시에는 서울에서 사용되다가 한국전쟁 때는 국군을 따라 평양에 들어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대구소방서에서 사용되다가 1956년 상주의용소방대로 이관되어 약20여 년간 사용되었다.

상주소방서가 개시될 무렵인 1983년 경북 상주의 자동차 정비사 김정배가 인수·수리하여 신혼부부들의 야외촬영이나 상주 출신 스포츠선수들의 카퍼레이드용으로 일 년에 10회 내외로 운행해왔다고 전해지며, 2002년부터 현재 소장자인 백중길이 인수하여 복원·소장하고 있다. 차량 자체도 국내에서는 희소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특수차량 도입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자료로써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 상주 의용소방대 소방차,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상주 의용소방대 소방차 후면,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상주 의용소방대 소방차 내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신진 퍼블리카

신진 퍼블리카

1967년
1대
길이 3.62m, 폭 1.42m, 높이 1.38m, 축간거리 2.13m
금속(철)
여주시 대신면 대신1로 244

지정일 : 2008.08.12
소유자 : 백중길
관리자 : 백중길

<신진 퍼블리카>는 대우자동차의 전신인 신진자동차가 1967년에 생산한 국산 최초의 경차 모델이다. 1966년 개발된 일본의 도요타 퍼블리카(P20)를 1967년 신진자동차가 국내로 들여와 인천 부평공장에서 조립하여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1971년 도요타의 시장 철수로 부품공급이 끊겨 생산이 중단되었다.

‘공공의, 대중의’를 의미하는 ‘퍼블릭(public)’과 자동차를 의미하는 ‘카(car)’를 합친 ‘퍼블리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서민들이 부담없이 탈 수 있는 양산형 자동차로 개발되었다. 일본에서 자동차의 대중화를 위해 간소화된 구조로 설계되어 당시 최고급 세단 ‘크라운’의 절반에 이르는 저렴한 가격을 형성할 수 있었고, 공기를 이용해서 엔진을 냉각시키는 방식인 공랭식空冷式 엔진을 이용하여 연료 절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제적인 이점 이외에도 아담한 차체 크기에 빨간색으로 강조된 2도어 세단, 눈알 모양의 헤드라이트 디자인은 ‘꼬마차’, ‘빨간차’, ‘왕눈이차’ 등의 애칭을 만들어 내며 인기를 끄는데 큰 요인이 되었다. 신진 퍼블리카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알맞은 경제적인 차로서 주로 도시 중류층의 자가용으로 이용되었으며, 국내 자동차 대중화를 이끌었다.

신진 퍼블리카는 최초의 국산 경차이자 연료절약형 승용차의 첫 모델이라는 점에서 자동차 기술사적으로나 사료적으로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이른 시기의 생산품으로 차량 자체의 희소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2. 신진 퍼블리카,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용인 장욱진 가옥

龍仁 張旭鎭 家屋

한옥 : 1884년(1986년개보수)
 양옥 : 1989년
 3동(한옥 2동, 양옥 1동)
 한옥 : 2동 1층, 연면적 92.51㎡
 양옥 : 1동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246.78㎡
 목재, 벽돌
 용인시 기흥구 마북로 119-8

지정일 : 2008.09.17
 소유자 : 한옥 - (재)장욱진미술문화재단
 양옥- 장정순외4
 관리자 : (재)장욱진미술 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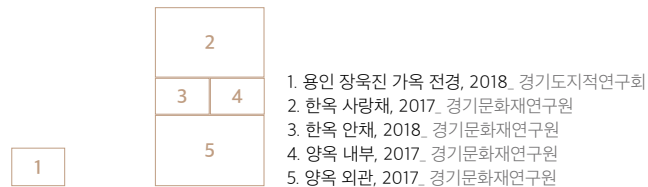


<용인 장욱진 가옥>은 장욱진張旭鎭(1918-1990)이 1986년부터 타계할 때까지 5년간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한 산실로, 120여년 된 한옥과 그가 직접 설계하고 지은 양옥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욱진은 이 중섭, 박수근 등과 함께 한국 근·현대 화단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우리나라 서양화가 1세대이다. 일본의 제국미술학교를 졸업하고 귀국한 후, 초기에는 서양의 모더니즘 양식을 수용하였으나 1950년대 말부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자연을 주제로 하는 작품을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그는 화단의 경향이나 흐름과는 다른 동양적이고 소박한 자신만의 독자적인 작품 세계를 이룩하였다. 장욱진에게 그가 살던 ‘집’은 매우 중요한 모티브로, 그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대부분 작가 자신이나 가족들)은 대부분 집안에서 창문·문으로 밖을 내다보거나, 드러누워 있거나,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웅크리고 앉아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며 집은 마치 인물의 프레임이 되어 단순한 형태로 그려졌다.

용인 장욱진 가옥 중 한옥은 조선 말기 경기도 민가의 전형을 보여주는 튼 ‘口’형의 구조로, 작업 및 거주공간으로 이용되었다. 안채와 이어지는 중문 왼편에는 사랑채가, 오른편에는 광채가 위치하고 있다. 안채는 안방을 모서리에 두고 오른편에 대청과 건넌방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부엌을 두었다. 사랑채는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이 복합된 독특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 우진각지붕 방향으로 대문칸과 광채로 연결된다. 안채의 대청과 툇마루에 노출된 지붕에서 초가집 목구조(부재규모, 결구방식)의 특성이 남아 있는 점, 광채의 건물이 격과는 달리 팔작지붕으로 구성된 점, 사랑채의 지붕 형태가 팔작과 우진각이 복합된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1884년 신축될 당시 초가로 지어진 것을 1986년 개량기와로 개축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목구조에 맞는 요소들이 채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용인 장욱진 가옥 중 양옥은 1989년에 지어진 적벽돌 조적조 서양식 단독주택이며, 지하 1층과 지상 2층으로 구성되었다. 1층은 부인을 위한 생활공간, 2층은 자신의 작업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생전에 사용하던 가구와 작업도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공간구성은 중앙의 현관을 중심으로 한 좌우 대칭구성이며, 2층에는 깊숙한 도머(dormer)창이 설치되어 있다. 주택의 전체적인 구성은 물론 1층 거실에 설치한 벽난로 그리고 오르내리창이 설치된 창호 등에서 그가 꿈꾸었던 젊은 시절 이상적인 꿈이 담긴 집임을 알 수 있다.

용인 장욱진 가옥은 덕소시대, 명륜동시대, 수안보시대를 거쳐 그의 마지막 삶을 담은 신갈시대에 거처했던 곳으로 직접 설계·시공하고 말년을 보낸 곳이라는 점에서 ‘집’에 대한 장욱진의 이상, 그리고 작품과 삶을 이해하는데 가치 있는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1. 용인 장욱진 가옥 전경, 2018. 경기도지역연구회
 2. 한옥 사랑채,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한옥 안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양옥 내부,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양옥 외관,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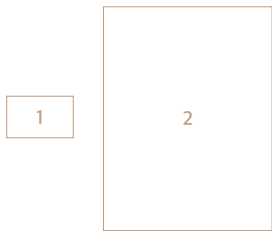


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비

波州 英國軍 雪馬里戰鬪碑

1957년
1개소
대지면적 172.9㎡
석재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 산2-2 외

지정일 : 2008.10.01
소유자 : 파주시
관리자 : 파주시



1. 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비 영문기념판,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비>는 1957년 6월 29일 영국군과 한국군 제25사단이 희생된 영국군을 추모하려고 전투가 있었던 설마리 고지 하단 암석에 붙여 건립한 전적비戰蹟碑이다.

설마리전투는 1951년 중공군 제63군의 3개 사단이 서울로 향하는 적성·연천 지구 침공로에 대공격을 감행하자, 영국군 제29여단이 이에 대항하여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1951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영국군 글로스터셔연대 제1대대 및 제170 박격포대 C소대원 4,000여명이 1개 사단 규모의 중공군과 맞서 이틀간의 혈전 끝에 설마리 계곡까지 후퇴하여 중공군에게 완전히 포위된 채 많은 피해를 입은 전투이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병력이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고, 60여명만이 포위망을 뚫고 탈출에 성공한다. 언뜻 패전으로 보이지만 글로스터셔 대대의 전투는 당시 중국군의 진격을 지연시키고 유엔군이 재편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중공군의 서울 침공을 저지하는데 크게 공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글로스터셔 대대를 비롯한 제29보병여단이 설마리전투에서 세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보여준 저항정신은 영국 군사사와 전통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다.



설마리전투비는 설마리 계곡 암벽에 주변의 돌들을 잘라내어 막돌 바른층쌓기한 벽면을 만든 후 4개의 화강석 기념판을 설치하였는데, 상단의 기념판에는 각각 UN마크와 영국 글로스터셔 대대 마크를 새기고, 하단 기념판에는 각각 국문과 영문으로 설마리 전투 내용을 간략하게 기록하였다. 기념판 중앙에는 영국군을 추모하기 위해 아놀드 슈워츠만이 제작한 기념비를 세웠다. 설마리 전투비는 주변의 설계부터 기념비의 제작까지 영국이 담당하였기 때문에 석축 및 기념비의 벽면 구성 등 형식적인 면에서 이국적이다.

설마리전투비는 휴전 후 얼마 되지 않아 전투현장에 세워져 현장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설마리 다리와 그 부속물들을 제외하면 조성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유엔군의 참전 상황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가치가 높다.



이 기념비는
한국 정부의 자혜스러운
도움으로 건립되었다.
클로스타사 면대 제1대대는
이 기념비가 또한
그들에 못지않게 자유를 사랑하고
그들과 또 다른 영국 연방국에
종군중 산화한 용맹스러운
한국인들 추모 하리라.
간성리 비는바이다.



등록문화재 제408호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

漣川 유엔군 火葬場 施設

1952년

1층

지적면적 1,596㎡

석재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610, 산77-2

지정일 : 2008.10.01

소유자 : 전승목, 심재범 외 2명

관리자 : 전승목, 심재범 외 2명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한 유엔군을 화장하기 위해 건립된 건조물이다. 당시 연천 동이리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연천지역에서 고지 쟁탈전이 격렬하게 전개되면서 유엔군 희생자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유엔군 화장장 시설을 건립하여 사용하였으며, 휴전이후에는 영국군이 화장터를 관리했다고 한다.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은 지대가 높은 산골짜기에 터를 잡고 있다. 아마도 전쟁이 진행 중이던 당시에 지어진 화장장이라서 적의 폭격에 대비하기 위해 쉽게 눈에 띄지 않는 골짜기를 부지로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구조는 굴뚝이 있는 가로방향 건물과 세로방향 건물이 ‘ㄱ’자 형태로 맞붙어 배치되어 있다. 가로방향 건물은 사체를 화장하는 주 화장건물, 이에 인접한 세로방향 건물은 부수업무를 담당하던 건물이다. 현재 하부 벽체와 굴뚝을 제외하면 원래의 모습이 상당부분 훼손되어 있지만, 창호와 출입문, 벽체가 구별되어 전체적인 공간구성은 파악이 가능한 상태이다.

건물의 벽체는 이 지역 주변의 막돌로 쌓았다. 사용된 석재는 20~30cm내외의 막돌부터 40~50cm 내외의 다듬은 석재이며 대체로 큰 돌은 아래쪽에 깔고 그 위로 작은 돌들을 빈틈없이 채워 쌓았다.



쌓기 공법은 허튼층쌓기이며, 바닥 쪽과 안쪽 각각 1매씩 돌을 올리고 그 사이는 시멘트 모르타르(cement mortar)로 채워 넣었다. 막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면이 바르고 정연하다. 안쪽 벽면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4.5cm 내외의 각목을 수평으로 끼웠던 흔적인 정방형의 각형 홈들이 바둑판식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벽체를 수직으로 쌓기 위해 설치한 거푸집을 벽체에 고정했던 가설물로 이를 통해 당시의 건물구조와 구축방식을 추정해 볼 수 있다. 화장장 시설의 핵심시설인 굴뚝과 화구는 양옆의 벽체가 날개처럼 잡아주고 있는 형태이다. 정사각형 모양의 굴뚝과 그 아래 각형의 굴뚝받침, 그리고 화구가 3단으로 층을 이루며 구성되어 있는데 사각형의 굴뚝 꼭대기 위에는 화력 효율을 더욱 높이고자 철재 연통을 설치한 흔적이 일부 남아있다. 비록 전쟁 중에 건립된 시설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체계적인 화장장의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은 한국전쟁 사적지로서 한국전쟁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유일무이한 유엔군 화장장으로 서 전쟁당시 희생된 유엔 16개국의 전사자들을 추모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의미가 있다.



1.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 전경,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 복원도,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파시형 蒸氣機關車 23號

1942년

1대

모델명-증기기관차파시5-23

길이 25m, 폭 3.25m, 높이 4.75m, 동륜직경 1.85m,

최대속도 110km/h, 차륜배열 4-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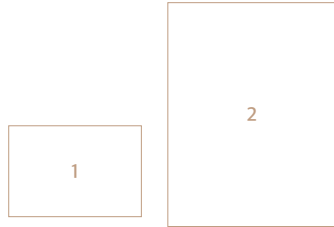
금속(철)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지정일 : 2008.10.17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1.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측면, 2016. 철도박물관

2.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정면,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는 1942년 일본 가와사키川崎 중공업에서 여객 급행열차용으로 제작되고 조선총독부 철도국 경성공장에서 조립한 파시 5형 증기기관차이다.

기존 여객열차 견인에 사용되던 아메형 증기기관차나 터우형 증기기관차의 부족한 견인력을 보완하고자 고출력의 대형 여객용 증기기관차인 파시(Pacific)형 증기기관차가 도입되었다.

1921년에 미국 볼드윈사에서 파시 1형, 1923년 미국 알코사에서 파시 2형을 도입한데 이어 1923년 일본의 기샤氣車회사 및 가와사키川崎중공업에서는 미국의 미카형과 파시형의 설계를 변경하여 6량의 파시 3형을 제작하였다. 1936년부터 1940년까지는 가와사키중공업에서 60량의 파시 4형을 제작하였으며, 1939년부터 1945년까지는 경성공장과 가와사키 중공업에서 42량의 파시 5형을 제작하였다.

파시형증기기관차는 우리나라의 지형조건과 선로상태를 고려하면서 국내산 석탄연소에 적합하게 개량을 거듭하며 제작되었고, 그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청량리-부산 간 중앙선의 특급열차로 사용되는 등 전국 철도의 주요간선에서 운영되었다.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는 디젤기관차의 등장으로 1967년 운영이 중단된 이후 1989년부터 현재까지 철도박물관에 전시 중이다. 국가연료정책에 따라 탄수차의 석탄적재부를 중유탱크로 개조한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도 원형이 잘 남아있고, 파시형 증기기관차로는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유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등록문화재 제418호

협궤증기기관차 13호

狹軌蒸氣機關車 13號

1937년

1대

모델명-증기기관차허기11-13

길이 14m, 폭 2m, 높이 3.2m, 동륜직경 0.9m,

궤간거리 0.762m, 속도 70km/h, 차륜배열 2-8-2

금속(철)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지정일 : 2008.10.17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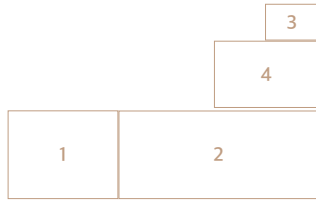
<협궤증기기관차 13호>는 1937년 일본 히다치가사도日立笠戸에서 제작하고, 조선총독부 철도국 수원운전사무소에서 조립한 증기기관차이다.

협궤증기기관차는 레일과 레일간의 간격이 표준궤간(1,435mm)보다 좁은 선로에서 운행되던 기관차로, 한국의 경우 762mm(일본은 1,076mm)를 채택하였다. 1930년 12월 황해선(해주~웅진), 1931년 12월 수려선(수원~여주), 1937년 8월 수인선(수원~남인천)의 개통과 함께 도입되어 여객과 화물수송을 위해 운행되기 시작하다가 1972년 수려선이 폐선되고, 1995년 수인선마저 폐선되면서 국내 협궤증기기관차의 운행은 영원히 중단되었다.

협궤증기기관차 13호는 1965년 협궤 동차가 개통되면서 운행되기 시작하였고, 수인선과 수려선의 여객과 화물수송, 특히 소래지방에서 생산된 소금의 수송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차량의 견인력과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1978년 운영을 중단하고, 1988년 1월 26일 철도박물관의 개관과 함께 이전하여 전시용 유물로 활용되고 있다.

협궤형 기관차는 보통 탱크식(Tank Locomotive, 탄수차 없이 물과 연료를 차체에 직접 적재 운행)이 일반적인 데 비해 이 기관차는 텐더식(Tender Locomotive, 탄수차를 연결하여 운행)이라는 점에서 희소가치가 있으며, 국가 연료정책에 따라 탄수차의 석탄적재부를 중유탱크로 개조한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도 원형이 잘 남아있어 역사적 가치가 크다.





1-2, 협궤증기기관차 13호,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수여선 증운식, 1973. 이천문화원
 4, 협궤증기기관차 13호,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419호

대통령 전용 객차

大統領専用客車

1927년

1대

모델명-귀빈객차16호

길이 24.5m, 폭 3m, 높이 3.4m, 자중 55.9톤

전망차 내폭 2.96m, 창폭 1.295m

금속(철)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지정일 : 2008.10.17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대통령 전용 객차>는 1927년 일본의 니혼샤료日本車輛에서 제작·도입하여 조선총독부 철도국 경성공장에서 조립된 승객용 차량이다. 대륙연결 특급직통열차인 희카리光와 노조미望의 1등 전망 침대차로 이용되다가 1955년 서울 공작창(현재 서울철도차량 정비창)에서 대통령 전용 객차로 개조된 후에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전방 시찰 및 지방시찰 때에 전용차로 이용되었다. 전차 내부에는 출입구를 겸한 발코니, 대통령 전용 회의실, 전용침실, 수행원침실, 화장실 및 욕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맨 뒷부분은 유리칸막이를 설치하여 외부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내부 침실에는 침대와 침구, 선풍기, 책상과 옷장 등을 배치해 놓았고, 대통령 전용 회의실에는 회의용 탁자와 의자를 배치해 놓았다. 객차 발코니와 회의실 정면 대통령석 등에 부착해 놓은 대통령의 전용 표장標章이 돋보이는 전직대통령 관련 유물로서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1	2	5	
3	4		
			6

1-2. 대통령 전용 객차에서 연설 중인 이승만 대통령, 1960. 국가기록원
 3. 대통령 전용 객차 회의실, 2018. 철도박물관
 4. 대통령 전용 객차 침실, 2018. 철도박물관
 5-6. 대통령 전용 객차,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등록문화재 제420호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 객차

駐韓 유엔軍司令官 專用 客車

1936년

1대

모델명-귀빈객차17호

길이 23.2m, 폭 3m, 높이 3.4m, 자중55.9톤,

전망차내폭 2.96m, 창폭 1.295m

금속(철)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지정일 : 2008.10.17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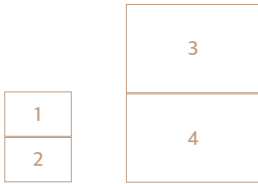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 객차>는 1936년 일본의 니혼샤료日本車輛에서 제작·도입하여 조선총독부 철도국 경성공장에서 조립된 객차(승객용 차량)이다.

전망 2등 침대차로 조립하여 사용하다가 1958년 서울공작창(현재 서울철도차량 정비창)에서 유엔군사령관 및 미8군 사령관 전용객차로 개조하였다.

1966년 11월 1일 미국 36대 존슨(Lyndon Baines Johnson)대통령이 방한하였을 당시에는 수원입업시험장 방문을 위해 서울에서 수원까지 이 객차를 이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 철도를 이용한 최초의 기록으로, 당시 철도청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철도승차증 400장을 발행하였다.

대통령 전용객차와 마찬가지로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 객차 역시 전용 회의실, 전용침실, 수행원침실, 화장실 및 욕실, 식당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맨 뒷부분은 유리칸막이를 설치하여 외부를 전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 객차이자 최초 방한 외국 대통령이 이용한 유물로서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 1.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 객차 집무실, 2016_ 철도박물관
- 2.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 객차 객실, 2016_ 철도박물관
- 3-4.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 객차,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421호

협궤무개화차

狹軌無蓋貨車

1955년

1대

모델명-협궤무개화차91031호

길이 8,204mm, 폭 1,981mm, 높이 1,676mm,

궤간거리 762mm, 하중 15톤, 자중 6톤

금속(철)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지정일 : 2008.10.17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협궤무개화차>는 1955년 미국에서 제작하여 도입한 지붕이 없는 화물열차로 레일과 레일간의 간격이 표준궤간(1,435mm) 보다 좁은 협궤(762mm)선로에서 운행되었다.

수인선(수원~남인천)과 수려선(수원~여주)에서 석탄, 광물 등 우천에 관계없는 화물을 수송하였으며 천막 등으로 덮개를 씌워 소래지방에서 생산된 소금을 운송하기도 하였다. 1972년 수려선이 폐선되고, 1995년 수인선마저 폐선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협궤무개화차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협궤선용 무개화차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등록문화재 제422호

협궤유개화차

狹軌有蓋貨車

1955년

1대

모델명-협궤유개화차90013호

길이 8.204m, 폭 1.981m, 높이 2.794m,

궤간거리 0.762m, 하중 15톤, 자중 8톤

금속(철)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지정일 : 2008.10.17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협궤유개화차>는 1955년 미국에서 제작된 지붕이 있는 화물열차로 레일과 레일간의 간격이 표준궤간(1,435mm)보다 좁은 협궤(762mm) 선로에서 운행되었다.

수인선(수원~인천 송도), 수려선(수원~여주)에서 지방의 특산물 등 비나 눈으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였다. 1972년 수려선이 폐선되고, 1995년 수인선마저 폐선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협궤유개화차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협궤선용 유개화차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대한제국기 철도 통표

大韓帝國記 鐵道 通票

1900~1905년

일괄 5점

통표경인선572(사각형) : 세로 3.9cm, 가로 3.3cm

통표301(팔각형) : 세로 5.4cm, 가로 7.5cm

통표3237(8자형) : 세로 7.2cm, 가로 5.8cm

통표1199(8자형) : 세로 7.0cm, 가로 6.0cm

통표경부선2245(사각형) : 세로 6.5cm, 가로 6.0cm

금속(황동)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지정일 : 2008.10.17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대한제국기 철도 통표>는 철도에 통표폐색식 설비가 도입되기 전 역과 역 사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역장과 기관사가 주고받던 일종의 열차운행허가증이다.

열차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역과 역 사이에 일정하게 구간을 설정하고 그 구간에는 항상 동시에 열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거리마다 경계를 두어 분할한 구간을 폐색閉塞구간이라고 하며, 이 폐색구간에서는 일종의 통행허가를 협의 및 협동 조작으로 주고받아야 열차를 발차시킬 수 있게 된다.

통표式通票式은 통표라 불리는 운행허가증을 각 철도역마다 1개씩 지정한 후 지정된 통표를 가진 열차만을 해당 구간에 진입시키는 방식으로 통표폐색장치가 도입되기 이전까지 선로운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사용되었다.

철도박물관 소장 통표는 대한제국기에 사용되던 통표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 개통 초기에 사용되었던 '경인선 572', 1906년 경의선이 개통되면서부터 1908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301', 1904년 2월 서울~의주 간 군용철도를 비롯하여 이후 부설되는 임시군용철도에서 사용되던 '3237', 1902년 경의선 기공 이후 일부 공사구간에서 사용되다가 1906년 4월 경의선이 개통되면서 사용 중지된 '1199', 1905년 경부선 개통과 함께 사용되었던 '경부선 2245' 등 총 다섯 점이다.

통표식 열차제어방식에 사용된 국내 유일의 유물로서 한국철도 초창기의 신호제어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대한제국기 철도 통표,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424호

대한제국기 경인철도 레일

大韓帝國記 京仁鐵道 레일

1897년
1점
길이 107cm, 중량 30kg/m
금속(강철)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지정일 : 2008.10.17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대한제국기 경인철도 레일>은 1897년 미국 철강회사인 일리노이스틸사(Illinois Steel Company) 남부공장에서 제작된 철도용 레일로서 1989년 9월 18일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노량진~제물포 33.2km 구간)의 부설에 사용되었다.

1896년 3월 주한미국전권공사 겸 기업가인 제임스 모스(James R. Morse)가 고종으로부터 경인철도부설권을 받아 1897년 3월 경인철도의 기공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인해 1898년 12월 일본 경인철도인수조합으로 철도부설권이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 1899년 9월 18일 일본에 의해 경인철도부설공사가 완료되었다. 비록 일본에 의해 경인선이 개통되었지만 경인철도 역사의 설계 및 공사, 경인철도 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미국에서 운반해왔다.

철도박물관 소장 대한제국기 경인철도 레일은 조선총독부 철도국으로 보내져 보관되어오다가 1936년 서울 용산의 철도종사원양성소 건물 내에 철도박물관을 개관하면서 전시되었고, 그 후 철도학교의 전시실을 거쳐 1988년 1월 26일부터는 현재의 철도박물관으로 이관·전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철도 원자재이자 현재 남아 있는 대한제국기의 유일한 레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대한제국기 경인철도 레일, 2016_철도박물관



등록문화재 제425호

쌍신폐색기

雙信閉塞式

1905년

1점

높이 44cm, 너비 30cm

소재, 금속(철)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142

지정일 : 2008.10.17

소유자 : 한국철도공사

관리자 : 한국철도공사

<쌍신폐색기>는 복선구간 철도에서 역과 역 사이 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사용되던 쌍신폐색식의 신호제어장치이다.

열차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운행하기 위해서는 역과 역 사이에 일정하게 구간을 설정하고 그 구간에는 항상 동시에 열차가 진입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거리마다 경계를 두어 분할한 구간을 폐색閉塞구간이라고 하며, 이 폐색구간에서는 일종의 통행허가를 협의 및 협동 조작으로 주고받아야 열차를 발차시킬 수 있게 된다.

통행허가를 받는 방식에 따라 통표폐색식通票閉塞式, 쌍신폐색식雙信閉塞式, 표권폐색식票券閉塞式, 연동폐색식連動閉塞式, 자동폐색식自動閉塞式 등으로 나뉜다. 단선구간에서는 주로 통표通票를 이용한 폐색방식이 사용되었고, 복선구간에서는 쌍신폐색방식, 연동폐색방식, 자동폐색방식 등이 개량을 거듭하며 사용되었다.

이중 쌍신폐색식은 복선구간에서 전기통신장치인 쌍신폐색기를 통해 양 역간의 의사교환 후 폐색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통표폐색식과는 달리 별도로 운행허가증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였고 육안이나 구두에 의한 폐색에 비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통신이 보장되었다. 1905년 10월 조선총독부 철도국이 제작한 평정식쌍신폐색기平定式雙信閉塞器 및 폐색회선이 영등포역~서대문역간 복선구간에 최초로 설치되면서 사용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쌍신폐색기를 사용한 방식은 폐색장치가 신호나 전철기를 통제하지는 않는 만큼 철도 운전원의 주의에만 의존해야 하는 한계로 인해 보안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었다. 결국 1932년 기존 쌍신폐색기의 보안도가 낮은 단점을 보완하여 한국철도형 특수쌍신폐색기가 고안되어 보급되면서 사용이 중지되었다.

철도박물관 소장 쌍신폐색기는 영등포역에 설치되어 사용되던 쌍신폐색장치로, 1936년 용산의 철도종사원양성소의 철도박물관에 전시되다가 철도학교 전시실을 거쳐 1988년 1월 26일 철도박물관으로 이관되어 전시 중이다. 복선구간의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사용되었던 한국철도 초창기의 신호제어장치 유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크다.



쌍신페색기, 2009. 철도박물관

등록문화재 제455호

고양 행주성당

高陽 幸州聖堂

1910년(건축), 1928년(이축), 1949년(증축)
1층
지상1층, 정면 7칸, 측면 7칸
조적조, 목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지정일 : 2010.02.19
소유자 :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관리자 :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고양 행주성당>은 1910년에 지어진 한옥형 성당으로, 현존하는 천주교 교회건축물 중에는 약현성당(1892년, 사적 제252호), 명동성당(1898년, 사적 제258호), 계산성당(1902년, 사적 제290호), 원효로성당(1902년, 사적 제255호), 화산성당(1906년, 사적 제318호), 풍수원성당(1907년, 강원도유형문화재 제69호)에 이어 일곱 번째, 이중 한옥건축물로는 화산성당에 이어 두 번째로 오래된 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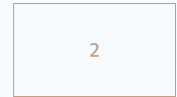
1909년에 본당으로 승격된 이후 1910년에 이르러서 고양 행주성당의 모태가 되는 20평 규모의 5칸 맞배지붕양식의 성모몽소승천성당聖母夢召昇天聖堂이 완공되었다. 원래 성당의 위치는 행주외동 194-4번지(행주산성로144번길 52)로 현재의 성당보다 낮은 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한강의 범람으로 매년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1918년 좀 더 높은 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1차 이전된 성당 역시 잦은 침수로 심하게 손상되자 1차 이전 이후 10년 만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된다. 1928년 5월에 시작된 이전·증축공사는 1931년에 완공되었다. 이후 1949년 제대祭臺부분을 확장하여 제의방을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5칸의 팔작지붕에서 7칸의 팔작·맞배 혼용지붕으로 변화되었다.

고양 행주성당은 첫째, 자유분방한 목조가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재의 굵기가 전통적인 기와무계를 지탱하기에 부족할 정도로 얇고, 약간 휘어진 목재들로 보와 서까래를 엮었다. 성당이 세워질 당시 경제적 상태가 좋지 않았던 탓도 있겠지만 서까래와 도리 등 구조체를 볼 때 민가건축의 가구수법을 보이고 있어 정식목수 아닌 마을신자들이 축조공사에 참여하여 이 성당을 축조한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이축과 증축을 통해 평면공간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초기에 건축된 부분은 당시의 일반적인 한옥 성당처럼 남녀구분을 위해 신도석 중앙에 기둥을 세웠지만 후에 증축된 부분은 신랑身廊을 중심으로 양측에 측랑이 있는 3랑식 구조로써, 두 종류의 평면공간 구성이 복합된 독특한 형식이 나타나고 있다. 셋째, 건축물 속에서 건물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이축과 증축과정에서 기존 성당의 기초 부재를 대부분 재활용하였고, 재활용된 대공과 도리 등에는 1910년, 1914년, 1928년, 1949년 중수와 증축에 관한 목서명이 남아있어 건물의 변천과정을 시기별로 살펴볼 수 있다.

고양 행주성당은 이축과 증축으로 인해 지붕(전통기와→시멘트기와), 외벽하부(석축→적벽돌), 전면 현관부(적벽돌로 증축), 내부 천장(연등반자→합판) 등 외관의 모습이 변형된 상태였으나, 1950년대를 기준시점으로 2015년에 원형복원 되었다.



1. 고양 행주성당 내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고양 행주성당,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고양 행주성당 전경, 1950년대. 행주성당 박광배 베드로
4. 고양 행주성당, 2009.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471호

남양주 흥국사 대방

南楊州 興國寺 大房

1878년

1동

지상1층, 정면 7칸, 측면 7칸

목조

남양주시 별내면 덕릉로1071번길 58

지정일 : 2011.04.29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

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



<남양주 홍국사 대방>은 신도들의 염불수행을 위하여 1870년 경 중건된 남양주 홍국사의 부속건물로 전각명은 만세루방萬歲樓房이다.

남양주 홍국사 대방은 2단의 장대석으로 조성된 기단 위에 지어진 단층 팔작지붕 익공계 건물이며, 정면 7칸, 측면 7칸 규모로 조성되었다. 대방의 배면으로는 중정을 사이에 두고 대웅보전을 마주하고 있는 형태인데, 사찰의 중심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정을 관통하여 대웅전 자체를 보면서 염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평면은 H자형을 이루되 배면의 좌우 익사에 횡방향으로 1칸씩이 더 붙어있는 형식이다. 본래는 염불당 형식의 큰방을 중심으로 좌측은 부엌과 부대공간으로 사용되었고, 우측은 주지실과 승방 그리고 접객 및 휴식을 위한 누마루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재 내부공간은 상당히 변형된 상태이다.

「홍국사사적興國寺事蹟」, 「양지수락산홍국사만세루방제오차 중건량간록」(1878), 「수락산홍국사중건상량문」(1878), 「홍국사만세루방중건기공문興國寺萬歲樓房重建記功文」(1879) 등

의 기록을 종합하면 홍국사 대방은 누각으로 사용되던 만세루萬歲樓가 1818년(순조18) 화재로 소실된 후 1830년 만세루 옛터에 만세루방을 중건하였고, 1877년(고종14) 다시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자 1878년 다시 중건한 것으로 추정된다.

남양주 홍국사 대방은 중건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내부 실 구획의 변경과 지붕내부 가구의 형태 및 구성 부재들의 퇴락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전체 형태나 구조는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방大房은 조선말 염불 성행 및 접대를 위한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주불전 전면의 누樓로 부터 기능적으로 분화 발전되어 형성된 불교 사찰의 한 건물 유형으로 사찰의 여러 기능들을 통합 수용함으로써 경제성과 합리성을 추구한 근대적 특징을 잘 보여준다. 특히 남양주 홍국사 대방은 근대기 불교 대방 건축 중에서도 상당한 격식을 갖춘 건물로 역사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크기, 마당의 크기, 기단의 높이, 대웅보전과 염불당과의 관계 등 3차원적인 공간이 매우 독특하게 구성되어 건축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남양주 홍국사 대방, 2017.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洪蘭坡 童謠 樂譜 原版

1930년
1식 51매(49곡)
세로 20cm, 가로 14cm, 두께 2cm
나무, 금속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2011.10.17
소유자 : 단국대학교
관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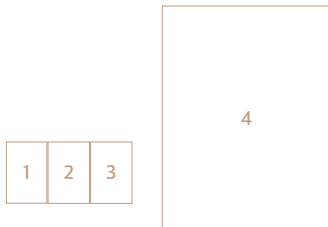
<홍난파 동요 악보원판>은 1930년에 발간된 홍난파의 창작동요집 『조선동요백곡집 상편』(1930)을 발간할 때 사용한 인쇄 원판이다.

홍난파는 1929년 『조선동요백곡집 제1편』(25편, 50편)을 등사본으로 발간하였고, 1930년과 1931년 『조선동요백곡집 상편』, 1933년 『조선동요백곡집』을 발행하였는데, 이 악보 원판은 『조선동요백곡집 상편』과 삽화, 족수, 악보체, 가사 등이 일치한다.

원판에는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범민족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동요 <고향의 봄>, <낮에 나온 반달>, <풍당 풍당>, <하모니카>, <작은별> 등 50곡을 수록하였는데, 현재는 <달마중>을 제외한 49곡에 해당하는 원판 51개가 남아있다.

원판은 나무판 위에 오선보를 새긴 금속판을 붙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문자 인쇄와는 달리 오선보 악보 인쇄는 특수 인쇄에 해당되어 20세기 초까지 일본에서 인쇄를 하던 상황에서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은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약 오선활판이 조선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하더라도, 1930년대에 오선악보의 활판이 당시 조선인의 손에 있었던 점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홍난파 동요 악보원판의 동요들은 우리나라 한국창작동요를 개척한 작품들로 한국근대음악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이며 초창기 악보 인쇄 기술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1.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중 고향의 봄, 201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2.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중 낮에 나온 반달, 201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3.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중 오빠생각, 201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4. 홍난파 동요 악보 원판, 2013.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부채를 든 자화상

부채를 든 自畫像

1915년
1점
세로 60.8cm, 가로 45.5cm
캔버스에 유화
과천시 광명로 313

지정일 : 2012.02.16
소유자 : 국립현대미술관
관리자 : 국립현대미술관

<부채를 든 자화상>은 춘곡 고희동春谷高羲東(1886~1965)이 여름 날 부채질로 더위를 식히며 앉아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린 작품으로 현존하는 국내 최고最古의 유화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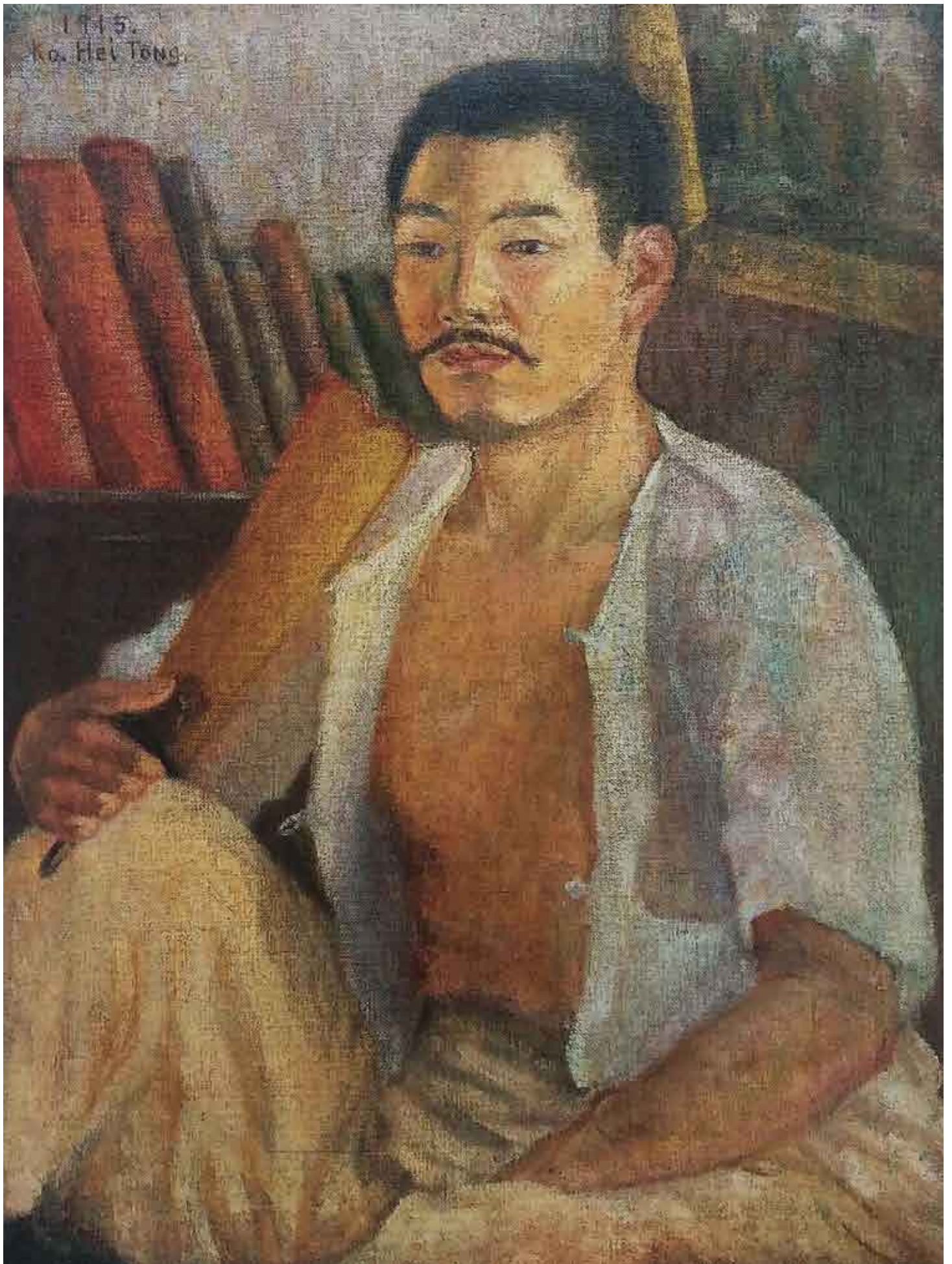
고희동은 1909년 관비 유학생 자격으로 동경미술학교東京美術學校 서양화과에 입학하여 1915년 졸업한 뒤 귀국하여 수묵과 채색이라는 전통미술화단에서 유화라는 완전히 새로운 표현 매체와 서구식 표현 기법을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입한 인물이다.

고희동의 유화작품은 총 3점으로 모두 자화상이다. 동경미술학교 졸업 당시 제출했던 <정자관을 쓴 자화상>은 현재 도쿄예술대학에 소장되어 있고, <두루마기 차림의 자화상>, 부채를 든 자화상은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중 부채를 든 자화상은 나머지 2점과 비교해 볼 때 작품성이나 규모면에서 뛰어날 뿐만 아니라 특히 고희동의 화풍과 표현 역량을 면밀하게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부채를 든 자화상은 1915년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해 여름, 작가의 수송동 화실에서 제작된 작품이다. 그림에는 밝은 황토색 바지(삼베 바지로 추정)와 흰색 상의를 입은 젊은 남자(고희동)가 3/4면으로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젊은 남자는 짧은 머리카락에 콧수염이 있으며 다부진 표정으로 방 한쪽 모서리에 앉아 있다. 흰색 상의의 단추를 풀어 앞가슴의 일부를 드러내고 있으며, 오른팔을 무릎에 올리고 부채를 들고 있어 계절감을 느낄 수 있다. 배경 중 한쪽 벽에는 서양화가 걸려있고 또 다른 벽에는 나지막한 책꽂이에 여러 권의 책이 나란히 꽂혀 있다. 고희동은 이 자화상에서 한복을 입은 모습이면서도 새로운 문물을 수용하고 선도하는 근대 지식인이자 화가로서의 자의식을 표출하는 한편, 일상의 한 순간을 담아 근대적 가치관을 드러냈다. 전체적인 인체묘사에서는 형태의 윤곽을 중시하고 있으나, 흰 상의의 그림자나 얼굴의 음영과 같이 일상성과 순간성에서 간취되는 인상주의적 요소는 푸른빛으로 처리하는 색채법을 취하였다. 이는 고희동이 유학했던 1910년대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의 교과 과정에서 배운 외광파外光波 양식이 충실하게 반영된 결과이다.

부채를 든 자화상은 유족이 이사를 하던 중 발견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 가져다 놓았는데,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했던 미술평론가 이구열李龜烈(1932-)이 구입을 건의하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게 되었다.

부채를 든 자화상은 1910년대를 살았던 미술가의 정체성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작품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유화 교육을 받은 세대의 화풍을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이다.



청춘의 십자로

青春의 十字路

1934년
1점
ON 35mm(사운드이미지 각7권) (54분)
질산염 필름
파주시 문발로 301

지정일 : 2012.02.16
소유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관리자 : 한국영상자료원파주보존센터

<청춘의 십자로>는 1934년에 금강키네마사에서 제작한 안중화安鍾和(1902-1966)감독의 흑백 무성영화이다. 안중화 감독은 본래 배우 출신으로 <해의 비곡>(1924)에서 주인공으로 데뷔, 이듬해 <암광>(1925) 주연을 맡기도 하였다. 1928년 <고향> 감독으로 데뷔한 이래 청춘의 십자로(1934), <은하에 흐르는 정열>(1935), <사도세자>(1956), <춘향전>(1958), <견우직녀>(1960) 등 다수의 작품을 남겼다. 이중 청춘의 십자로는 안중화 감독이 만든 작품 가운데 유일하게 현존하는 작품이다.

청춘의 십자로는 고향을 떠나 각각 상경한 젊은 남녀를 통해 도시에서 겪는 소비문화, 부적절한 남녀 관계, 향락적인 일상 등 도시 생활의 단면을 그린 전형적인 통속극이다. 남녀의 다리나 거실마루에 있는 남녀 한 쌍의 구두 등 하반신을 즐겨 잡은 앵글, 좁은 방에서 거울을 활용해 촬영한 표현기법에서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기술적 시도가 이루어졌고, 코믹 터치로 반전되는 영화의 결말도 이채롭다.

등장인물들은 경성역 수하물 운반부, 주유소 주유원, 카페 여급, 건달 등의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직업에 맞는 유니폼에서부터 양복, 한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식으로 영화에 등장한다. 이러한 점은 1930년대 도시의 직업양상을 압축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사회사적 의미가 있으며, 근대 복식사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가 크다. 뿐만 아니라 영화의 공간적 배경으로 등장하는 경성역사 내부와 외부 공간, 골프 장면, 북촌 주택가 골목의 형태, 북촌 고급 문화 주택의 실내, 카페 내부와 인테리어, 국립관의 외관과 내부 구조, 연회 장면 등은 지금까지 알려진 적 없는 자료들로 1930년대 도시사 및 건축사, 생활사에 관한 희귀 정보들을 담고 있는 매우 귀중한 사료이다. 또한 그간 말로만 전해지던 <아리랑>의 주연배우 신일선, 액션 스타 이원용, 무성영화 시대 2대 걸작으로 꼽히는 <입자 없는 나룻배>(1932)의 김연실 등 무성영화 말기 배우들의 면모와 기술수준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기도 하여 영화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작품이다.



1~8. 「청춘의 십자로」 주요 장면, 2018. 한국영상자료원



청춘의 십자로의 필름은 2007년 한국영상자료원이 개인 소장자로부터 입수하였다. 발견 당시 ON(Original Negative Film) 35mm 9권 중 1권은 산화·훼손되어 복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1권은 '끝'이라는 자막만 남아있던 상태여서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필름을 수리·복원 및 통합하여, 총 7권으로 확정하여 보관 중이다. 발굴된 필름에는 내용이 중복되는 장면이나, 내용이 연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본격적으로 편집되기 이전의 불완전한 필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일제강점기 필름들이 모두 원본을 상영용으로 복제한 프린트 필름인 것에 반해 이 영화만이 원본 상태로 발견되어 보존 가치가 더욱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희귀본 필름이 해외에서 복사해 온 것에 비해 국내에서 발굴된 자료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 원 소장자는 해방 직후 단성사를 운영했던 어머니로부터 필름을 물려받아 소장하고 있었다고 전한다.

이처럼 청춘의 십자로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원본필름이자 무성영화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 중 유일하게 자료가 남아 있는 작품으로 영화사적, 생활·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 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줄거리>

주인공 영복(이원용)은 늙은 어머니와 누이동생을 두고 고향을 떠나 상경하여 서울역의 수하물 운반부로 취직한다. 고향에 살 때 성품이 우직했던 그는 봉선(문경심)네집 데릴사위로 들어가 7년 동안 일만 했는데 아내가 될 봉선이 불량한 주명구(양철)에게 몸을 빼앗기자 상심한 나머지 고향을 떠난 것이다. 영복은 서울로 상경 후 주유소에서 일하는 영희(김연실)와 사귀게 되는데 그녀는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데리고 어렵게 살고 있다. 한편, 고향에 남아 있던 영복의 누이동생 영옥(신일선)은 어머니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게 되자 오빠를 찾아 서울로 오지만 결국 만나지 못하고 카페의 여급이 되고, 나중에는 주명구

의 술책에 넘어가 그와 함께 어울려 다니는 장개철(박연)에게 능욕 당한다. 비슷한 시기에 실직을 하여 직장을 찾아다니던 영희도 개철 일당에게 걸려든다. 영희에게 벌어진 일을 알게 된 영복은 개철네 집으로 달려갔다가 뜻밖에도 헤어졌던 누이동생 영옥을 만나고, 고향 소식과 개철과의 관계를 듣고 통탄한다. 영복은 개철을 찾아 해마다 마침내 주연을 베풀고 있는 개철과 주명구 일당을 찾아내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데, 이때 영복의 수하물 운반부 친구인 두 사람(이복본·최명화)도 함께 가세하여 이들을 때려준다. 후일 영복은 모든 것을 잊고, 누이동생의 전승을 받으며 영희와 새 출발을 다짐한다.



등록문화재 제519호

구리 한용운 묘소

九里 韓龍雲 墓所

1944년

1기

봉분 2기, 곡장, 상석, 향로석, 비석
구리시 교문동 산84-2

지정일 : 2012.10.19

소유자 : 국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승려이며 시인인 한용운韓龍雲(1878~1944)의 묘이다. 본관은 청주, 속세명 유천裕天, 자는 정옥貞玉, 호는 만해萬海·卍海, 법명은 용운龍雲이다.

1878년 충청남도 홍성에서 출생하였다. 1908년 전국 사찰 대표 52인의 한 사람으로 원흥사元興寺에서 원종종무원圓宗宗務院을 설립한 뒤 일본으로 건너가 신문명을 시찰하였다. 1918년 서울 계동에서 월간 불교잡지 『유심惟心』의 발간을 시작으로, 1926년 시집 『님의 침묵沈默』을 출판하여 저항문학에 앞장섰으며, 1927년 2월부터는 신간회에 참여하여 중앙집행위원과 이듬해 신간회 경성지부장을 지냈다. 1931년 조선불교청년회를 조선불교청년동맹으로 개칭한 뒤 불교를 통한 청년운동을 강화하여 기존의 불교를 개혁하고 불교의 현실참여를 주장했다. 1937년 불교관계 항일단체인 만당사건卍黨事件의 배후자로 투옥되었다가 풀려났으며, 1944년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그 후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대한민국장大韓民國章을 추서追敘받았다.



한용운 묘소는 봉분이 쌍분으로 왼편에는 한용운, 오른편에는 부인 유숙원이 합장되었다. 쌍분의 중앙 앞에는 상석, 향로석이 있고, 오른편에는 팔작옥개석(八作屋蓋石)의 비석이 세워져 있다. 한용운 묘소에는 본래 묘비가 없다가 1982년 만해사상연구회와 한용운의 딸인 한영숙에 의해 묘비가 세워졌으며, 비문은 만해사상연구회가 짓고 여초 김응현(如初 金應顯(1927~2007))이 썼다.

묘소가 위치한 망우묘지공원은 1933년 조성된 이후 20세기 중후반까지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공동묘지로 기능을 해왔다. 1933년부터 매장이 금지된 1973년까지 40여 년간 묘소 2만8500기가 자리 잡았다가 지속적으로 이장이 진행되어 현재는 약 8400여 기의 묘소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묘소 중에는 소설가 계용묵, 김이석, 김말봉을 비롯하여, 의학자 지석영, 화가 이중섭, 시인 박인환, 정치가 조봉암, 장덕수, 조선왕가의 명은공주 등 예술·문화·정치 분야의 유명인물 뿐만 아니라 오세창, 문일평, 방정환, 오기만, 유상규 등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들의 묘소가 포함되어 있어 독립운동과 광복의 상징 공간이자 다양한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2. 구리 한용운 묘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522호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南楊州 奉先寺 큰법당

1970년

1등

측량면적 251㎡, 정면 3칸, 측면 2칸

철근콘크리트조, 기와지붕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 32

지정일 : 2012.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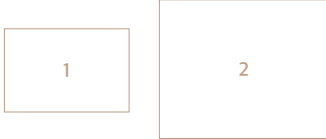
소유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관리자 :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은 불교 대중화에 앞장선 운허 耘虛(1892~1980)스님이 1970년 발원한 건물이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경전의 한글번역작업을 하던 운허스님의 뜻에 따라 건물에는 ‘대웅전’이라는 명칭대신 ‘큰법당’이라는 한글 편액이 달리게 되었다.

1469년에 초창된 봉선사는 조선시대 송유역불의 정책 속에서도 세조 광릉의 능침사찰 陵寢寺刹로서 보호와 관심을 받아왔다. 1551년(명종6)에 선종 禪宗의 봉은사 奉恩寺와 더불어 교종 敎宗의 수사찰 首寺刹로 승격되면서 중요한 행정적 기능을 담당했고, 한때 규정소 糾正所의 하나가 되어 함경도 지역의 사찰을 관장하기도 하였다. 한국전쟁 때 전소되어 본사로서의 사격을 잃었다가 1970년대에 현재의 큰법당을 필두로 중창되기 시작했다.

봉선사의 주불전인 ‘큰법당’은 한국전쟁 때 전소된 대웅전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새롭게 조성한 것으로 1970년대 운허 스님에 의해 정면 3칸, 측면 2칸의 형태로 건립되었다. 봉선사 큰법당 중건 상량기 기록에 따르면 1969년 6월 공사에 착공, 11월 22일 상량하였다고 한다. 대웅전이 소실된 이후부터 큰법당이 건립되기 이전까지는 삼성각이 주불전으로 사용되었다.



- 1.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현판,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2.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큰법당이 콘크리트로 건립된 이유는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연관이 깊다. 1960년대에는 정부의 공업화 정책으로 인해, 문화재 건축 사업에도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도입되는 경우가 있었다. 당시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목구조보다 내구성과 내화성이 뛰어나서 새로운 건축구조로 각광받고 있었으며, 문화재 건축에서 콘크리트와 같은 건축 재료가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는 신중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70년대 이루어진 봉선사 큰법당 건립도 기존 대웅전에 대한 진정성 보다는 구조의 안정성, 특히 화재에 의한 소실을 예방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도입되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할 경우 목구조 보다 공사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서 예산 확보에 따른 공사 추진이 용이하다는 점도 반영되었다고 전해진다.

철근콘크리트로 전통 건축물을 모방해 제작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었기 때문에 한식 목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몇 사람의 목수가 PC(Precast Concrete) 공법을 적용하여 큰법당을 시공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봉선사 큰법당은 철근콘크리트 건물이기는 하나, 갈모산방帽散枋과 선자扇子서까래 등을 제작하여 전통 건축의 추녀곡선도 표현하는 등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전통목조기법을 정교하게 묘사하였다고 평가된다.

목조건축 양식을 콘크리트 구조로 재현하는 데는 여러 한계와 건축 미학적 논란이 있으나 근대 건축 재료와 구조로 전통성을 표현하고자 했던 1960~70년대 당시의 기술을 대표하는 사료로서, 기술사적인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국문정리

國文正理

1897년

1책(14장)

세로 24.5cm, 가로 17.0cm

종이(한지)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2.12.24

소유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국문정리>는 이봉운李鳳雲의 국문에 관한 주장을 종합한 연구서로 국문국國文局에서 1897년(광무원년)에 목판본으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 연구서이다.

서책의 외적인 형식은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으로 제작된 전형적인 한국 고도서의 모습이다. 제침은 ‘국國문文정正리理’이고 판심제는 ‘국문정리’이다. 판심어미는 상하이엽화문어미上下二葉花紋魚尾이고 판심에는 상판에 ‘국문정리’로 되어 있다. 장차는 한글로 ‘일’부터 ‘십이’까지이다.

본문의 앞에는 ‘대조선 건양 이년 일월 일 경성 묘동 리봉운 저작 겸 발행’이라 쓰여 있어서 이 책이 1897년에 간행되었음과 이봉운이 직접 발행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열람란에는 이봉운 외에도 ‘학부 대신 민종목씨, 협판 민영찬씨, 비서 홍우관씨, 편집 리경직씨, 고준 흥정후씨 신정우씨’ 등 참여자의 이름이 확인된다.

『국문정리』는 서문 1장, 목록 1장, 본문 12장 모두 1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는 국문 존중을 강조하고, 국어사전(인문옥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장단의 표기가 없음을 큰 수치로 여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서문·목차에 이어 본문에는 국문의 내력이 약술되어 있으며, 종래의 자모도를 수정한 자모분음字母分音, 아래아(·)의 구별에 관한 논설인 문법론, 전통적 역관문법을 의미상으로 구분한 항목인 어토명목語吐名目, 문자 학습에 힘써 개화함으로써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민생을 튼튼하게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새언문규법諺文規法 등이 차례로 서술되어 있다. 모든 본문은 순한글로 작성되었는데 국명이나 지명의 경우에는 오른쪽에 쌍줄의 세로선을 표시하였고, 인명의 경우에는 홑줄의 세로선으로 표시하였다. 판권지에는 책의 값 ‘두량닷돈’을 표시하면서 특이하게 판권소유의 뜻을 “남이 만든 책을 혹 사의로 인쇄하여 매각하면 그 재주를 뺏는 도적으로 다스리는 법률이 있으니, 이것이 개명한 나라에서 선배로 하여금 서책을 저작하는 권리를 주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1894년 갑오개혁을 계기로 언문이 국문으로 격상되었으나, 전문가나 적절한 문헌이 갖추어지지 않은 당시로서는 한글 전용 주장 및 국문에 대한 올바른 연구나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오기 어려운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문자·음성·음운·문법·국어정책 등 국어학 전반에 걸친 내용을 집대성하여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문법서인 만큼 국어학사에서 차지하는 의의가 크다. 또한 ‘판권 소유’ 개념을 도입하여 명시한 첫 책으로서 근대출판역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 국문정리 표지, 2012. 문화재청
2. 국문정리 서문, 2012. 문화재청



국문정리
正理

017405

서문

나라 위흥 기는 려항의 선비는 조경의 공경이니 충심은
 호지기로 진정을 말하니 내녀 각국 사림은 분공을
 올상향야 학교를 설립하고 학습하여 국정과 민사를
 통할이 업시하여 국부민강을 짓무는 조선 사림은 남
 의나라를 문중상향고 본국 글을 아조 리치를 알지 못하
 니 절을 호저라

세종조피읍셔 인문을 문두섯것은 조고로 국문 학교
 와 선성이 업셔 리치와 규범을 리치며 비호적 못하고
 입문 놀녀 가가 거야 음문 입에 올녀 안다 후 뒤 음도
 분명히 모르니 호심호저라 금자에 문명 진보하 라 후 후

전보장정

電報章程

1888년
1권(11장)
세로 26.7cm, 가로 16.7cm
종이(양지)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지정일 : 2012.12.24
소유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관리자 : 한국학중앙연구원

<전보장정>은 전보국電報局에서 1888년(고종25)에 연활자본으로 출판하여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규정電信規程을 담고 있는 문헌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신 업무가 처음 시작된 것은 1885년 9월 28일 서울·인천 사이에 최초의 전신이 가설되고 한성전보총국이 설치되면서이다. 이후 인천·서울·의주에 이르는 서로전신선으로 확장되었고, 이어 서울·공주·전주·대구·부산을 잇는 남로전신선이 개통되면서 조선전보총국이 탄생하게 된다. 그리고 1891년에는 서울에서 원산에 이르는 북로전신선이 개통되면서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전신망이 완성된다. 그런데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 건설되었던 서로전신선과는 달리 남로전신선은 우리 정부의 주관으로 가설·운영했던 만큼 업무상에서도 독자적인 규정이 필요하게 되자, 조선전보총국 개국에 앞서 우리나라 최초의 전신 법규인 『전보장정』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전보장정』에는 32항의 조문과 국문자모호마타법國文字母號碼打法, 국명양문첩법局名洋文捷法, 양문수목호마타법洋文數目號碼打法, 양문구두점 호마타법洋文句讀點號碼打法, 전국조관호마타법電局照關號碼打法, 남선각국수비표南線各局收費表, 서선각국수비표西線各局收費表 등의 전신부호 방식, 요금 등을 규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국한문혼용이 국가 공식 표기로 제정되기 이전이어서 모두 한문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한글을 표기할 때에는 한글 자모를 쓰고 있다. 『전보장정』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김학우金鶴羽(1862-1894)가 만든 ‘국문자모 호마타법’이다. ‘국문자모 호마타법’은 ‘ㄱ’에서 ‘ㅎ’까지 자음 14자와 ‘丨’에서 ‘|’까지 모음 10자를 짧은 점과 긴 점의 두 가지 기호를 조합하여 2진법 체계의 모스부호와 같은 원리로 부호를 규정한 것이다.

1	2	3
4		
5		
6		

1. 전보장정 표지, 201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2. 전보장정 서문, 201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3. 전보장정 서문과 본문, 201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4. 국명양문첩법, 201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5. 국문자모호마타법과 양문자모호마타법, 201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6. 전국조관호마타법과 남선각국수비표, 2018.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김학우는 함경북도 경흥 출신으로, 어렸을 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성장하였고, 그의 나이 18세인 1876년에 일본에 건너가 약 1년 반 동안 동경에서 우치무라 타다요시(内村直義)의 무급 어학 교사 자격으로 있었으며, 만주의 길림과 중국 북경에도 드나든 적이 있어서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에 능통하였다. 김학우는 1884년부터 1886년까지 서울에서 기기국위원(機器局委員)과 전환국위원(典圖局委員) 등을 지냈다. 이때에 정부가 추진하였던 각종 개화 사업에 종사하였는데, 특히 청나라로부터 선박과 무기의 수입, 전선 가설, 전선 기술자 양성, 그리고 모스부호의 도입 등의 일에 참여하였다. 1884년 가을에는 일본에서 부산과 일본 나가사키 사이에 해저 전선을 개통시킨 것을 보고 고종에게 우리나라도 전신을 가설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를 받아들인 고종의 명령으로 전신 기술을 배우러 일본에 갔다.

김학우는 도쿄로 가서 매일같이 전신본국을 찾아가 연구하여 전신 부호를 개발하였는데 이 시기에 한글 전신 부호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김학우가 만든 한글 전신 부호는 1888년 조선전보총국이 설립되면서 『전보장정』에서 한글 전신 부호의 모체로 채택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우리 국문(한글) 전보가 시작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기존에 규정되지 않은 ‘ㄱ’과 ‘ㅂ’만 더 첨가하여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전보장정』은 한국의 정보통신 역사 연구의 주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최초로 한글의 기계화가 이루어진 결과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전보장정』에는 ‘국명양문첩법’이라 하여 우리 지명의 영문식 표기와 그 약호를 제정하였다. 서울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Seoul이고 공주는 Kongchu, 전주는 Chunchu, 대구는 Tehku, 부산은 Fusan, 인천은 ‘인천’이 아니고 제물포로서 Chemulpo, 평양은 Pingyang, 의주는 Echow로 되어 있다. 부산의 ‘ㅂ’은 f로, 평양의 ‘ㅍ’은 p로, 그리고 대구의 ‘ㄷ’은 t로, 공주의 ‘ㄱ’은 k로 썼고, ‘ㅈ’은 ch로 썼다. 모음 글자 중 ‘ㅏ’는 u로, ‘ㅓ’는 e, ‘ㅗ’는 i로 표기하여 다소 정밀하지 못한 로마자 표기법을 보이고 있다.



초동

初冬

1926년
1점
세로 152cm, 가로 182cm
종이, 수묵채색
과천시 광명로 313

지정일 : 2013.02.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국립현대미술관

<초동>은 청전 이상범(靑田李象範, 1897~1972)이 전통관념산수화풍에서 사생풍산수화풍으로 이행한 후 제작한 대표 작품이다.

이상범은 소정 변관식(小亭卞寬植, 1899~1976)과 함께 한국 근대 화단의 쌍벽을 이룬 화가이다. 조선후기 도화서 화원 출신인 심전 안중식(心田安中植, 1861~1919)과 소림 조석진(小琳趙錫晉, 1853~1920)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웠다. 그의 초기 화풍은 스승이었던 안중식의 산수화 중 남북종(南北宗)을 절충한 형태와 유사했으나, 1923년에 동연사(洞淵社)를 조직하여 전통적인 산수화 표현에서 벗어난 새로운 화풍을 모색한 끝에 자신의 독자적 화풍인 청전양식의 산수화풍을 정립하였다.

초동은 삼각형의 산봉우리 하나를 화면 상부에 배치하고 그 아래 농가와 전답을 그려 넣어 추수가 끝난 이른 겨울의 평화로운 시골 마을을 서정적으로 그린 작품이다. 추수를 끝낸 들판과 멀리 안개에 싸여 있는 평범한 야산, 그리고 잎이 다 떨어져 앙상한 나무들을 통해 초겨울의 을씨년스런 계절감을 표현하였다. 전통적인 산수화 기법인 갈필(渴筆), 미점준(米點皴)을 사용하면서도 전통산수화의 관념적인 구도나 시점과는 달리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원근법(遠近法)을 사용하여 대상 간에 거리감과 공간감을 부여했다.

초동은 이상범이 1926년 제5회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하여 입선한 작품으로 자신이 수상한 조선미술전람회 작품 중에서 제작연대가 가장 이른 작품이다. 이는 이상범이 독자성을 추구하는 데 있어 그 시발점이 되는 작품으로서 청전양식 산수화풍의 초기 단계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초동은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시대인 20세기 초 변모하는 수묵채색화 분야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미술사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초동, 2012. 문화재청

시골소녀

시골少女

1928년
1점
세로 152cm, 가로 142.7cm
비단, 수묵채색
과천시 광명로 313

지정일 : 2013.02.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국립현대미술관

<시골소녀>는 현존 작품이 거의 없는 춘천 이영일春泉李永一(1904~1984)의 초기 작품이자 당대 채색화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작으로 1928년 제작되었다.

이영일은 1920년대 초에 일본 도쿄에서 그림공부를 한 뒤 귀국하여 1930년대까지 채색화 분야에서 활동했던 화가이다. 그는 1925년 제 4회 조선미술전람회에서 입선한 이후 연속 7회에 걸쳐 특선을 수상할 정도로 작가적 입지를 굳혔지만 해방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하지 않았다.

시골소녀는 어린 아이를 업고 있는 덩기머리 소녀와 그 옆에서 난알을 쪼는 단발머리 소녀를 화면 가득히 그린 작품으로 당시 화단에서 유행하던 향토적인 소재를 채택하였다. 소녀의 흰 저고리, 빨간 치마, 푸른색 포대기가 서로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으며, 강약이 없는 가는 필선(칠선묘)으로 인체의 윤곽선을 그린 기법에서 일본풍 채색화의 영향을 엿볼 수 있다. 등장인물의 뒤로는 추수가 끝난 지 오래된 듯 텅 빈 들판과 멀리 지평선이 묘사되어 있는데 등장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배경과 바닥은 갈색으로 단순화했다.

이 작품은 이왕가미술관에서 매입한 이후 창덕궁 창고에서 보관되어 오다가 1972년 <한국근대미술:한국미술60년전>에 처음 출품되었으며, 호본이 떨어져 나온 부분과 좌측 하단에 훼손된 부분을 보존 처리하여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20세기 초 수묵채색화 계열에서 일본화풍을 수용한 여러 화가들이 있는데 이영일의 시골소녀 만큼 뚜렷하게 그러한 경향을 드러내는 작품도 흔치 않다. 시골소녀는 근대 채색인물화를 그린 화가들이 일본식 화풍을 어떻게 수용하여 작품에 반영하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시골소녀는 작품의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식민지 치하에서 보기 드문 채색화 작품이라는 점, 특히 남아있는 작품이 거의 없는 이영일의 대표작이라는 점에서 문화재적 가치가 크다.



시골소녀, 2012. 문화재청

론도

1938년
1점
세로 61cm, 가로 71.5cm
캔버스에 유화
과천시 광명로 313

지정일 : 2013.02.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국립현대미술관

<론도>는 수화 김환기(樹話金煥基(1913~1974)가 순수 추상작품을 제작하던 시기인 1928년에 그린 작품이다.

김환기는 1930년대 일본 유학시절부터 1970년대 뉴욕 시절에 이르기까지 한국화단의 중심부에서 활동한 유화가로 실험정신과 작가적 기질을 겸비하여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1930년대 추상화풍의 시도부터 1950년대 구상화적 화풍, 그리고 1970년대 뉴욕 시절의 점화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화풍의 변화를 주면서 자신의 독창적 예술 세계를 구축시켰다.

김환기는 1947년 신사실파(新寫實派)를 결성한 이후 사실에 근거한 추상작품을 그려 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나가기 시작했다. 주로 백자향아리·달·산·매화 등 민속적 기물과 자연 풍경을 양식화한 작품을 그렸는데 론도는 그 이전시기, 기하학적 추상의 초기적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론도는 김환기가 1937년 추상미술단체인 자유미술가협회 회우로 활동하면서 1938년 제2회 자유미술가협회전에 출품하기 위해 제작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작가의 사인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작품뒷면에 전시출품을 위해 명제를 써넣는 방식으로 ‘론도, 金煥基作, 1938’이라는 표식이 남아있다. 론도(rondo)라는 명제는 주제가 같은 상태로 여러 번 되풀이되는 음악 형식에서 착안한 것이다. 평소 바이올린을 배우고 클래식 음악을 즐겨 들던 김환기는 음악의 선율과 리듬을 선, 면, 색으로 환원하여 론도를 제작하였다. 색과 면을 기하학적이지만 구조적으로 배열한 모습은 네덜란드 화가인 몬드리안(Mondrian)의 추상화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완전히 추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론도는 그랜드피아노 혹은 첼로와 같은 악기의 형태나 인체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로 경쾌한 리듬을 표현하고 있다.

오랫동안 작가가 보관해 오던 이 작품은 1972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한국근대미술:한국미술60년전>에 출품되었고 이 무렵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다.

론도는 근대기 당시 전위미술(前衛美術)이었던 추상양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그 희소성과 예술성에서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론도, 2016_ 환기재단-환기미술관

남향집 南向집

1939년
1점
세로 80cm, 가로 65cm
캔버스에 유화
과천시 광명로 313

지정일 : 2013.02.21
소유자 : 국유
관리자 : 국립현대미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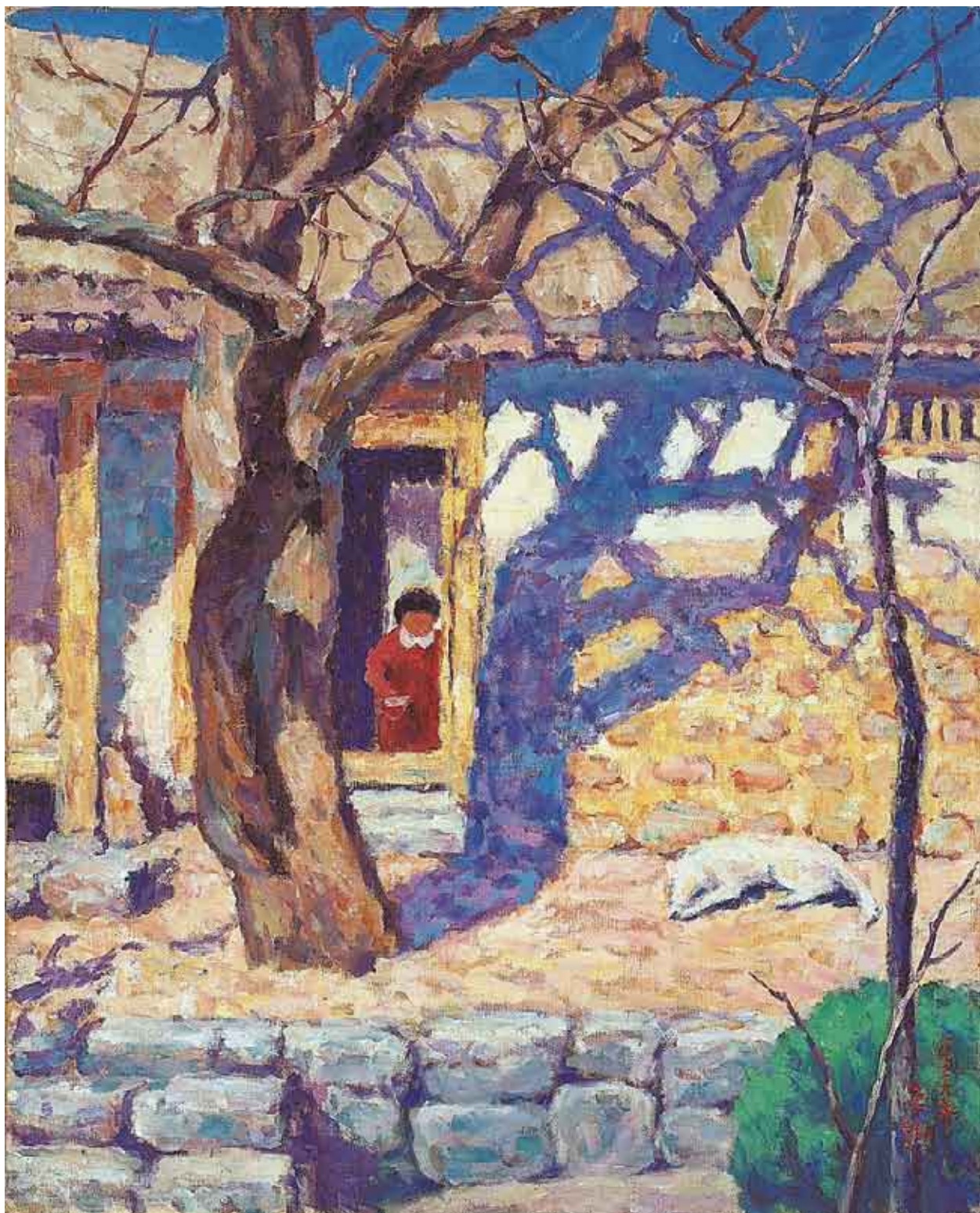
<남향집>은 모후산인 오지호(吳之湖, 1905~1982)가 자신의 예술세계를 집약시킨 대표적인 작품이다.

오지호는 1922년 휘문고등보통학교를 다니던 시절 고희동(高羲東, 1886~1965)에게 사사(師事)했고, 1931년 일본 동경미술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했다. 일본 유학시절부터 일본화풍과 차별화된 '조선풍'의 화면설계에 주력했으며, 인상주의화풍으로 당대 식민지 현실을 표현하고자 노력했다. 1938년 김주경(金周經, 1902~1981)과 함께 출판한 『오지호·김주경 2인화집(吳之湖·金周經 二人畫集)』도 그러한 노력의 결과중 하나이다. 오지호는 민족미술의 구현이라는 시대정신과 함께 하면서 구상 화단을 지킨 대표적 화가로 평가되고 있다.

남향집은 오지호가 개성 송도고등보통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작품으로, 작가가 살았던 개성의 초가집을 가까이에서 포착하여 일부만을 그렸다. 집 앞에는 잎이 떨어진 고목이 있고, 그 앞으로는 집안에서 막 걸어 나오는 붉은 옷을 입은 소녀가 포착되며, 집밖 담장 밑에는 즐고 있는 흰색 강아지가 있다. 따스한 햇볕의 표현이나 즐고 있는 강아지에서 향토적 정서가 느껴지는 작품이다. 따스한 햇볕이 비추는 집안의 뜰, 거기에 서있는 고목의 그림자는 검은색이 아닌 청색으로 처리하여 노란색조의 화면과 두드러진 대비를 이루는데 이것은 오지호가 인상주의(印象主義) 시각으로 풍경을 해석한 작가 특유의 독법(讀法)이라고 할 수 있다. 1996년 11월에 수복(修復) 처리하여 작품 상태가 양호하며, 작품의 우측 하단에 두 줄 세로쓰기로 '一九三九年 之湖'라는 사인이 있다.

오랫동안 작가가 보관해 오던 이 작품은 1972년 <한국근대미술:한국미술60년전>에 출품되면서 오지호의 대표작품으로 알려졌으며, 1985년 작가 사후 유족이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였다.

남향집은 서구 인상주의 화풍을 오지호가 자기화하여 한국적 인상주의 화풍으로 토착화하는 데 성공한 작품으로 미술사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남향집, 2012. 문화재청

토끼와 원숭이

토끼와 원숭이

1946년
34면
세로 20.5cm, 가로 15.0cm
경지류
부천시 길주로 1

지정일 : 2013.02.21
소유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리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토끼와 원숭이>는 일제의 부당한 침략과 식민통치를 고발하고 풍자하기 위해 동물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한 아동문학가 마해송(1905~1966)의 동화를 원작으로, 목정 김용환(1912~1998)이 자주독립국가에 대한 염원을 담아 해방 전후의 정치 상황에 대한 비유와 상징으로 풀어낸 만화이다.

김용환은 오랜 기간 일본에 유학하면서 그곳 출판 미술 분야에서 당대의 대가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활동하다가 1945년 해방과 함께 귀국하여 만화, 도서 장정, 삽화 등의 분야에서 대중예술의 초석을 다지며 우리나라의 출판미술계를 발전시켰다. 국내의 많은 동물만화작가들 중 그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이들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는 한국동물만화 기법의 창시자적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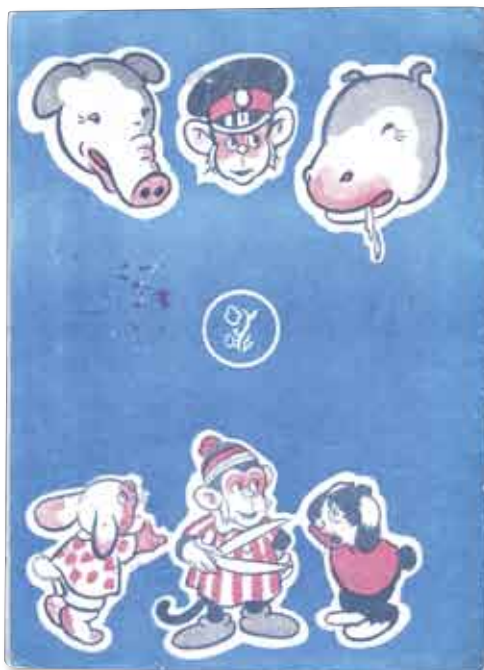
『토끼와 원숭이』는 무사 정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원숭이 나라가 바다 건너 토끼나라를 침략하고, 이를 발판으로 이웃동물 나라까지 확대시켰으나 평화를 사랑하는 연합세력에 패망한다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만화에서 토끼는 한국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아주 귀엽고 온순하며 향토적인 이미지로 그려졌으며, 일본을 상징하는 원숭이는 차갑고, 이중적이며 도전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김용환 작가는 유려한 작화로 동물의 사실성을 살리는 동시에 시대 흐름에 맞춰 시사 풍자만화의 형식을 갖춰 캐릭터들을 매우 개성적이고 독자적으로 표현하였고, 36년간 일제하에서 억눌려 있었던 당시 또는 동시대의 독자들에게 큰 정신적 위로와 위안을 주면서 대중으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3	4
5	6

1	2
---	---

1-2. 토끼와 원숭이 표지, 201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6. 토끼와 원숭이 내지, 201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옛날, 아주 오래
전엔 이따위 나라가
거의 없었어.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엔 동소리와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엔 이따위 나라가
거의 없었어.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옛날, 아주 오래
전엔 이따위 나라가
거의 없었어.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엔 동소리와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엔 이따위 나라가
거의 없었어.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옛날, 아주 오래
전엔 이따위 나라가
거의 없었어.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엔 동소리와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엔 이따위 나라가
거의 없었어.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옛날, 아주 오래
전엔 이따위 나라가
거의 없었어.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그런데, 아주 오래
전엔 동소리와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그리고, 아주 오래
전엔 이따위 나라가
거의 없었어. 동소
리, 토끼나라, 원
숭이나라, 센이리
나라, 동소리, 토끼
나라, 원숭이나라,
센이리나라. "동소
리"와 "토끼나라",
"원숭이나라"는
"센이리"라
고만 불렀을거야.

1960~1970년대 한국에서는 만화가 사회발전에도움이 안 되고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상당량이 폐기되어 1960년대 이전 작품은 거의 전해 내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토끼와 원숭이』도 원로 만화가인 박기준 작가의 『만화작법』에 한국만화 최초단행본으로 거론된 뒤 여러 연구에서 인용되었지만 관련 이미지는 『만화작법』에 수록된 도판 한 컷 뿐이었다. 원작을 토대로 전체적인 내용은 짐작할 수 있었으나 만화의 형태는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2012년 5월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경매를 통해 수집하여 처음 실체가 공개되었다. 『토끼와 원숭이』는 1946년 조선아동문화협회에서 출간한 만화책으로, 한쪽에 그림 3컷과 글이 병기된 초기 만화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150×205mm의 판형에 32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철로 되어있다. 본문 종이는 갱지에 흑백으로 인쇄되어 있고 표지는 컬러로 인쇄되었다. 종이의 탈색 정도만 진행되었고 누락되거나 찢어진 곳 없이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당시 출간된 다른 만화들과 비교해도 용지나 인쇄의 품질이 월등히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근대만화의 개척자이자 뛰어난 예술성을 가지고 있던 김용환의 초기작으로 만화적 동물의 캐릭터가 성공적으로 탄생된 최초의 만화책이자 현존하는 한국 최고最古의 만화 단행본으로 한국 만화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로 인정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고바우 영감 원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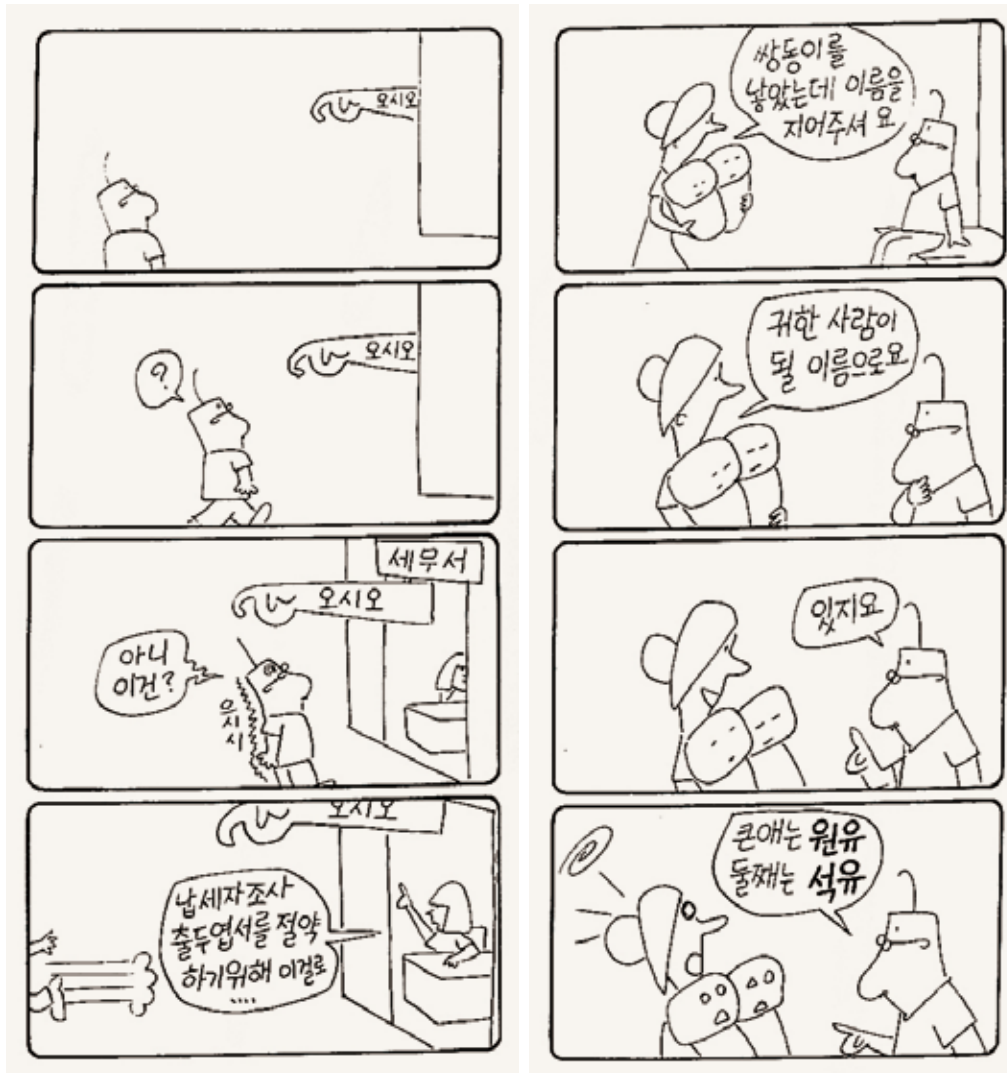
고바우 令監 原畫

1964~1980년
4,274매
세로 25cm, 가로 15cm~세로 32cm, 가로 20cm
종이(양지), 수묵
안산시 단원구 능안로 70

지정일 : 2013.02.21
소유자 : 사유
관리자 : 주식회사동아일보사

<고바우 영감 원화>는 김성환金星煥(1932~)이 1950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 10월까지 도합 14,139회에 걸쳐 기관지, 유명 일간 신문 등에 연재한 한국 최장수 시사만화 「고바우 영감」의 육필 원고 4,247매이다.

동아일보사가 소장하고 있는 4,247매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 원작자 김성환으로 부터 구입하여 소장하고 있는 6,496매를 더한 총 10,743매가 남아있으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본은 등록문화재 제538-1호, 동아일보사가 소장본은 등록문화재 제538-2호로 지정되었다. 연재 횟수와 현전하는 육필 원고와는 무려 3,396점의 차이가 있는데, 이 중 일부는 작가가 일부 폐기한 것도 있으며 나머지는 유실되었다.



「고바우 영감」 원화는 최고급 양지洋紙에 검은 먹으로 그려져 있으며, 채색은 되어있지 않다. 네 칸 만화의 형식적 특정상 68×115 mm 내외의 종이에 각각 한판씩 그려져 있으며, 각 회의 육필원고는 철장, 낱장, 병풍 등의 다양한 형태로 모아져 있다.

김성환은 1950년 한국전쟁의 발발로 대학진학이 좌절되자 국방부 종군 화가단의 일원으로서 『승리일보』의 부록으로 발행된 주간 『만화승리』의 제작진으로 참여함으로써 본격적인 만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때 처음으로 등장한 만화가 바로 「고바우 영감」이다. 이후 「고바우 영감」은 한국전쟁 종전 전까지 국방부에서 출간하는 다양한 매체에 소개되었고, 『희망』, 『신태양』 등의 잡지에 다양한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고바우 영감」이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한국 대표 만화이자 만화 캐릭터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신문 연재를 시작하면서부터다. 1955년 2월 1일자 동아일보에 연재를 시작한 김성환은 1963년까지 외부 기고 형태로 작품을 발표했고, 1964년에 입사해 「고바우 영감」을 연재했다. 이후 동아일보에서 1980년 8월 9일까지 연재한 뒤 조선일보(1980년 9월 11일-1992년 9월)와 문화일보(1992년 10월-2000년 10월)로 지면을 바꿔 연재를 지속했다.

연재 초기에는 주로 가정적이고 난센스적인 팬터마임 형식의 가벼운 세태 풍자를 내용으로 하였으나, 각 분야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함에 따라 불합리한 모순을 지적해서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고 풍자하는 시사적 성격의 만화로 변화했다. 특히, 정치와 정부 정책 등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독자들로부터는 환영과 찬사를 받았으나, 당국의 눈총을 받아 여러 차례의 필화사건을 겪기도 하였다.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자유당 정권 때인 1958년 1월 23일자 동아일보에 게재된 세칭 ‘경무대 청소부 사건’이다. 경무대 청소부를 소재로 당시 사회의 지탄 대상이 된 권력 만능의 세태를 풍자해서 그린 만화 내용이 경무대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게재하였다는 이유로 경찰당국에 입건되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 이 사건은 광복 후 한국 신문사에서 신문 만화가가 법의 심판을 받은 최초의 필화 사건이었다.

「고바우 영감」은 단일 만화로는 최장수 연재(50년 간 1만4139회)로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작품이다. 최장기 연재 기록이 의미하듯 압축적인 풍자와 비판적인 내용, 그리고 때나 시절에 맞는 위로와 격려의 내용 등으로 50여 년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대표적 시사만화라고 할 수 있다.

1955년부터 2000년까지의 정치·사회적 이슈를 소재로 다루고 있어 근현대 만화사 뿐만 아니라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1-3. 고바우영감 원화, 2012. 문화재청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

엄마찾아 三萬理 原畫

1958년
443매
세로 26.5cm, 가로 20.5cm
종이(양지), 수묵
부천시 길주로 1

지정일 : 2013.02.21
소유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리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는 김종래 金鍾來(1927~2001)가 1958년에 발표한 고전사극 만화 「엄마찾아 삼만리」의 육필 원고 443매이다. 2010년 원작자인 김종래 화백의 유족에 의해 기증되어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 소장·관리하고 있다. 본래는 상권 220매와 하권 224매로 모두 444매로 구성되었으나, 하권 1매의 원화가 유실되어 현재는 443매가 남아있다. 원화는 수입 양지洋紙에 묵으로 그렸으며, 1958년의 초판 간행 이후로 저자에 의하여 약 3차에 걸쳐 수정되었던 흔적과 기록이 각 장마다 나타나고 있다. 초판과 비교하면 새로 그려 이어붙인 원고도 있으며 부족한 그림은 별도의 종이를 붙여 수정하기도 했다.

『엄마찾아 삼만리』는 조선 성종 때를 배경으로 한다. 주인공인 소년 금준이가 방탕한 아버지 이차복 때문에 엽전 70량에 노비로 팔려간 엄마를 찾아 충청도, 김해, 부산, 의주 등을 비롯한 전국 삼만리를 떠돈다. 엄마를 찾아가는 길에 금준이는 산도적, 중과 같은 다양한 민초들을 만나고, 탐관오리의 학정과 그로 인한 피폐한 민심 등을 목격한다.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금준이는 암행어사가 되어 12년 만에 극적으로 엄마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 내용 중간 중간 어머니를 그리는 소년의 절절한 심정이 국화꽃을 통해 토로되고 있으며, 온갖 고초를 겪는 과정이 눈물겹게 그려져 있다.

『엄마찾아 삼만리』는 만화소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전쟁 이후 피폐한 사회상과 부패상을 조선시대에 빗대어 고발한 작가의식이 뛰어난 작품이다. 내용에 나타나는 가족 간의 이합집산은 한국전쟁 후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합집산으로 고통을 받던 독자들에게 큰 공감과 위로를 안겨 주어서 당대의 어린이뿐 아니라 만화를 ‘환칠’이라 업신여겼던 성인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주었다. 1958년에 제일출



판문화사에서 상·하 2권으로 초판이 발행된 이후 1964년까지 7년간 무려 10쇄가 출간되는 등 폭발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화제의 베스트셀러 만화가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런 까닭으로 한국만화사의 명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엄마찾아 삼만리』의 작가 김종래는 1950년대 중반부터 25년간 500종에 이르는 만화를 발표하여 한국 만화사에 큰 획을 그은 인물이다. 또한 한국의 전통극화를 개척한 만화가로 주로 동양화에 바탕을 둔 전형적인 삽화체의 그림으로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축하였고, 일본 만화풍이 팽배해 있던 초기 만화계에 독창적인 만화작법을 도입하여 한국만화수준을 한단계 올려놓았다. 김종래 작가가 1960년대에 발표한 극화는 특정한 시대가 아닌 ‘옛날’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았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 익숙한 극의 구조를 갖고 있는 변안만화였는데 『엄마찾아 삼만리』 역시 원작을 변안해 만화로 구성한 작품이었다.

『엄마찾아 삼만리』의 원작 동화는 이탈리아 작가 에드문도 데 아미치스(Edmondo de Amicis, 1846-1908)가 1886년에 출간한 『사랑의 학교(Cuore)』라는 작품에 「마르코」라는 제목으로 수록된 작품이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살던 소년 마르코가 돈을 벌기 위해 남미 아르헨티나로 떠난 엄마를 찾아 12,000km의 눈물겨운 여행을 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엄마찾아 삼만리』에서의 ‘삼만리’는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 떠났던 12,000km를 한국의 이수里數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주제만 빌렸을 뿐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의 만화원고는 매절계약買切契約 관행이나 출판사 및 작가의 원고에 대한 의식부재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엄마찾아 삼만리』의 경우 온전한 원고가 남아 있어 만화를 연구하는 데 학술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1	2	3	4	5	6
---	---	---	---	---	---

1.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상권 표지), 201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3.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상권 내지), 201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하권 표지), 201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5-6.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하권 내지), 2014.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록문화재 제542호

구 김포성당

舊 金浦聖堂

1956년

1층

지상 2층, 면적 374㎡

철근콘크리트, 석조

김포시 북변로 29-12

지정일 : 2013.04.18

소유자 :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관리자 :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구 김포성당>은 1950년대에 지어진 소규모 석조 성당 건축물이다. 1947년 천주교 서울교구에서 현재 김포성당이 위치한 북변리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당시 갑포리 본당의 북변리 이전을 계획하였다. 1950년초 본당을 이전하여 10칸 규모의 기존 토담집을 성당으로 사용하면서 새로운 성당 건립을 시작하였으나 한국전쟁으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한국전쟁 직후 성당 건립을 추진하여 1954년 말 목조 성당과 기타 부속 건물이 건립되었다.

구 김포성당은 12월 1956년 미국 NCWC의 구호물자와 미군 부대의 지원, 신자들의 노력봉사로 준공되었다. 1999년 현재의 본당 건물이 신축되면서 구 본당 건물은 방치되어 있다가, 2005년과 2006년에 걸쳐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여 현재는 성당의 문화관과 강당으로 활용하고 있다.

구 김포성당은 높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다. 원래의 지형은 완만한 경사가 진입로부터 성당 앞까지 이어졌으나 현재 본당 건물을 신축하고, 마당과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주변정비과정에서 구 김포성당과 현재 본당 건물 사이에는 높은 석축이, 전면에는 경사가 급한 계단이 조성되었다.



정면 중앙의 만원아치형태의 포치(Porch) 상부에 종탑이 있는 형식이며, 포치 위쪽은 첨두 아치창을 두고, 8개의 원기둥 위에 팔각형 돔(dome)을 얹었으며, 그 위로 십자가를 설치하였다. 종탑 이외의 창은 스테인글라스로 처리된 수직의 긴 사각창으로 처리되었다.

장방형의 평면에 정면으로는 종탑이, 양쪽 측면으로는 소규모의 출입구가 돌출된 형태이다. 출입구는 정면의 종탑 포치를 포함한 3곳과 양 측면의 돌출된 출입구 2곳, 제대祭臺 후면 2곳에 두었다. 내부는 하나의 홀로 사용되고 있고 정면에 면하여 중2층을 설치하였으며, 제단 좌우에 소규모의 부속실을 두었다. 내부 천장은 노출 트러스(truss)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2005년과 2006년의 대수선 공사로 인해 현재는 각진 '人'자형으로 천장이 마감되어있다.

김포성당은 한국전쟁 직후에 건축된 석조성당의 전형적인 의장적 특징(종탑과 뾰족한 아치 창호)과 공간적 특징(단일홀로 구성된 강당형 평면) 및 화강석 조적구법組積構法의 특징을 잘 간직하고 있는 건축물로 그 역사적·건축학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3

1

2

1-2. 구 김포성당, 2015. 김포시
3. 구 김포성당 내부, 2015. 김포시



현대자동차 포니 1

現代自動車 포니 1

1975년

1대

길이 397cm, 폭 156cm, 높이 136cm, 축간거리 224cm

철, 알루미늄, 유리, 플라스틱, 고무, 가죽, 직물 등

여주시 대신면 대신1로 244

지정일 : 2013.08.27

소유자 : 백중길

관리자 : 백중길

<현대자동차 포니 1>은 현대자동차가 1975년 12월부터 1985년까지 생산한 한국 최초의 양산형 국산차이다. 1973년 정부에서 '중화학공업육성정책', '자동차산업5대 원칙' 등과 같은 자동차국산화정책을 확고히 하자 현대자동차가 독자 모델 개발을 추진하면서 포니 1이 탄생하게 되었다.

자동차는 기계, 철강, 전기, 화학 등 산업기술이 모두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어야 생산이 가능한 분야이다. 정밀한 부품 2만여 개를 정확하게 조립해야만 하는 기계 공업의 결정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한국 산업은 가내수공업을 막 벗어난 상태였고, 한국의 자동차 기술은 모든 부품을 들여와 조립 생산하던 수준이었다. 포니 역시 핵심기술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발했다. 스타일링과 차체 설계는 이탈리아(Ital design)사 社의 자동차 디자이너 조르제토 지아로(Giorgetto Giugiaro, 1938~)에게 의뢰하였고, 엔진, 변속기, 후차축 등 동력발생 및 동력 전달 장치, 플랫폼(언더바디 차시 및 플로어)의 설계도면(차시 레이아웃), 엔진 제조를 위한 주물 제조 기술은 일본 미쓰비시자동차공업(三菱自動車工業)에서 도입하였다. 그 밖에 현가장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엔진 마운트, 냉각 및 배기 시스템 등 주요 차시 부품들은 미쓰비시사의 랜서 차종을 분해하거나 도입한 부품을 일일이 측정하여 도면화하였다. 부족한 기술 자료는 기존의 코티나, 뉴코티나 등의 포드 사양을 응용하되 국내 기술 수준을 감안하여 약간 수정하는 방식으로 준비하였다. 현대는 비록 다국적 기술에 의지하였으나 이들 요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새로운 차종으로 만들었다.



현대는 1975년 11월 울산 종합자동차공장을 완공하면서 1976년 2월부터 포니를 본격적으로 생산하게 된다. 포니는 한국인의 취향과 체격, 그리고 당시 비포장이 많았던 국내 도로 사정에도 알맞으면서 경제적인데다 내구성도 좋아 국민들로부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시판 첫해 한국에서만 10,726대가 판매되어 43.5% 점유율을 보였고, 예과도르에 5대를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북미와 유럽 등 세계 각국에 진출하게 되었다. 이후 포니 1은 포니 2로 진화를 거치며 1985년 12월 생산종료까지 총 293,936대(내수226,549대, 수출67,387대)를 생산하는 대기록을 수립했다.

포니 자동차의 탄생과 성공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모든 한국인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었다. 포니의 개발을 계기로 한국은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고유 모델 자동차를 보유하게 되었고, 포니를 매개로 현대는 1976년부터 기아를 제치고 자동차업계 1위로 올라섰다. 또한 고유 모델의 개발을 계기로 부품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면서 한국 자동차 부품업계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산업 체질을 수출주도형으로 변모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한국 자동차 공업의 자립과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

현재 국내에서는 1970년대 후반 또는 1980년대 초반에 제작된 수십 대 이상의 포니가 보존되어 있다. 이 중 백중길 소장 포니 1은 대쉬 패널(dash Panel)의 차량번호가 'KHO POF-0125'로 확인되어 포니 1이 시판된 해인 1975년 125번째 생산된 자동차로 볼 수 있다. 이는 국내에서 확인된 포니모델 중 가장 이른 시기의 생산품으로 원래의 모습에 가까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다. 전면의 그릴을 제외하면 진과란색으로 도장된 외관부터 엔진, 휠, 휠캡, 계기판, 사이드미러, 각종 등화 장치 등의 부속부품이 모두 원품이며, 현재까지도 일발 시동으로 운행이 가능할 정도로 보존상태가 양호하다.



1:2. 현대자동차 포니 1,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통일벼 유물

統一벼 遺物

1960~1970년대
2종(야장4권, 시험도구1식)
야장4권 : 세로 18.7cm, 가로 10.6cm
시험도구 : 1식
금속, 종이
과천시 상하별로 110

지정일 : 2013.08.27
소유자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관리자 : 국립과천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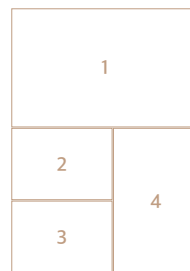
<통일벼 유물>은 세계적인 식물육종학자 허문회許文會(1927~2010)가 통일벼의 원형이 된 IR667을 교배하여 육성한 결과를 적은 시험연구 야장野帳과 육성과정에 사용된 시험 도구로 구성되어 있다. 시험 도구는 가죽 및 금속으로 구성된 케이스 안에 안경, 가위, 메스, 핀셋, 돋보기, 스포이드 등 실험을 위한 소도구들이 들어 있는 형태이다. 야장은 총4권으로 IR667의 육성 데이터(1968년, 2책), 뒷날 '유신벼'로 명명된 IR1317의 육성 데이터(1969년, 1책), 찰기가 부족한 통일벼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통일찰벼 육성 데이터(1970년, 1책) 등이 허문회의 육필로 수록되어 있다.

1960년대까지 한국은 주곡인 쌀의 생산이 부족한 상태였다. 보릿고개, 춘궁기, 절량농가는 그 같은 식량 부족 상황을 지칭하는 표현들이었다. 미국의 원조마저 줄어들어는 상황에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쌀의 다수확 신품종 개발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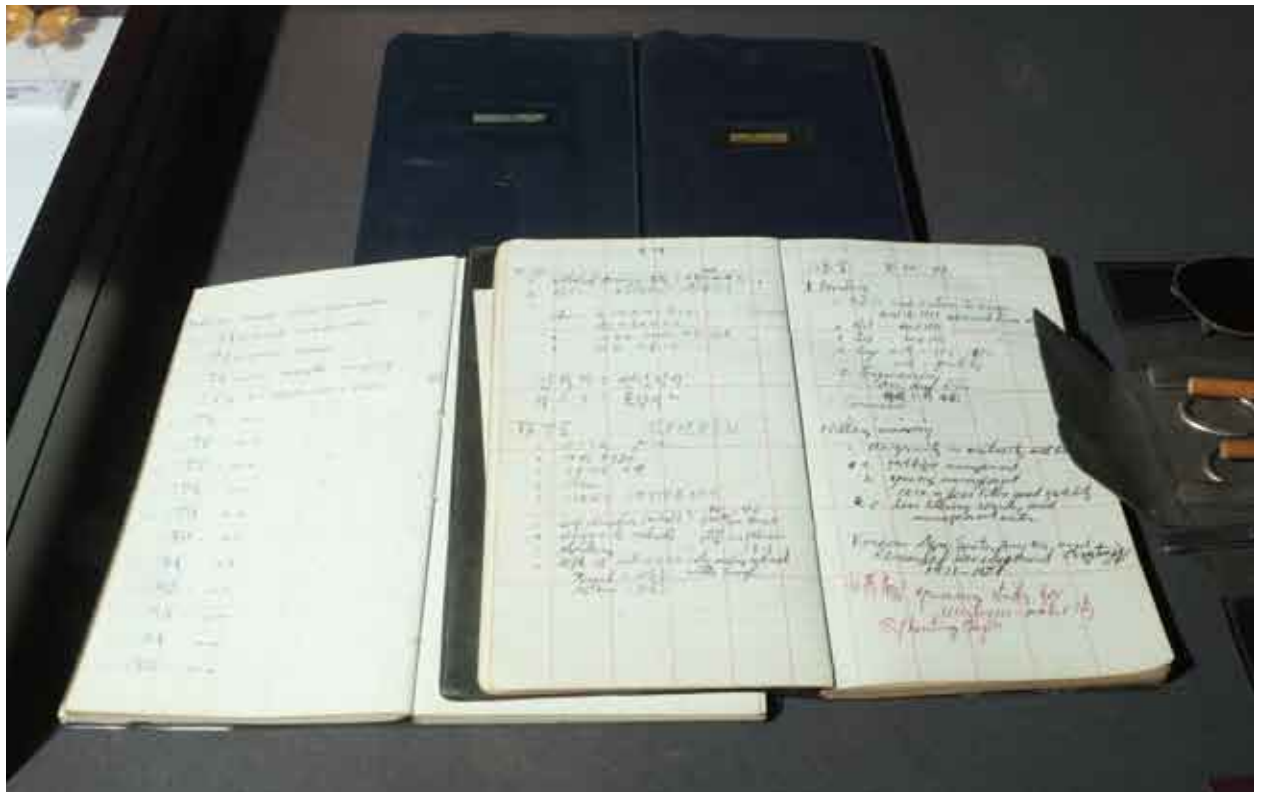
1960년대 후반 농촌진흥청의 주도로 필리핀의 국제미작연구소(IRRI, 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에 파견되었던 허문회(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교수)는 다수확 품종인 IR667을 개발하였다. 내랭성이 좋은 인디차 품종 TN1과 자포니카 품종 중 추위에 강하고 인디카처럼 수확시기도 빠른 유카라(Yukara)를 원연교잡遠緣交雜하고 여기에 생산성이 높은 IR8을 매개교잡媒介交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이룬 성과였다.

1970년대 들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IR667는 '통일'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후속 품종들로 개발되었으며, 농가에 빠르게 보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수확량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비록 1978년부터 병충해, 냉해, 태풍 등으로 통일벼의 신품종이 큰 타격을 받고 수확량이 크게 떨어졌지만 1980년대를 거치면서 통일벼의 개발과 보급에서 확보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포니카 품종에 대한 개량연구가 계속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은 쌀의 완전한 자급을 이루게 되었다. 주곡의 자립을 달성하게 한 통일벼의 개발은 근현대 한국과학사와 농업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성취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1970년대 한국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이기도 하다.

허문회가 작성한 야장과 인공 교배 도구는 한국 농학이 거둔 독보적인 성취를 보여주는 물품이자, 통일벼 육성의 생생한 현장감을 전달할 수 있는 자료라는 점에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 통일벼 시험연구 야장,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통일벼 시험도구,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통일벼 표본,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통일벼 연구에 사용된 현미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금성 라디오 A-501

金星 라디오 A-501

1959년
1점
길이 42.9cm, 폭 16.3cm, 높이 17.5cm
플라스틱, 금속 등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167-72

지정일 : 2013.08.27
소유자 : (주)LG
관리자 : (주)LG

<금성 라디오 A-501>은 1959년 6월 LG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설계된 한국 최초의 진공관식 라디오 제품으로, 아래 다섯 가지 측면에서 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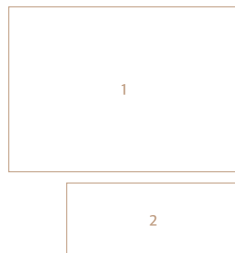
첫째, 금성 라디오 A-501은 진공관을 이용한 전자회로의 설계와 시스템을 상용화시킨 최초의 제품이다. 최신 기술인 슈퍼헤테로다인 방식을 채택하여 여러 가지의 다른 주파수에 일정한 감도(sensitivity)를 갖게 하였고, 단파대를 포함한 2밴드 시스템을 통해 지역방송 및 해외방송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진공관식 정류기를 사용하였고 출력변압기를 통해 스피커를 동작시켰다. 이 라디오의 개발은 이후 전자정보통신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으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기술은 오늘날 한국 전자정보통신 산업 기술의 근간이 되었다.

둘째, 금성 라디오 A-501은 국내에서 조립·생산된 최초의 국산 라디오이다. 1950년대 구형 일제 라디오와 미국 제품 일부가 유통되었으나 일반 가정보급형 국산 방송수신기로서는 금성사 제품이 유일하다. 비록 라디오 제작을 위한 기기 설비와 진공관, 스피커 등의 중요부품은 수입하여 사용하였으나, 국내 공장에 생산라인을 만들어 전기도선을 포함한 기타 부품들을 자체 제작하고, 국내 기술진들에 의해 기기 운용과 관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라디오 수신기의 국산화는 1960년대 당시 정부의 라디오 수신기 보급 정책, 국민 소득의 증대, 라디오 방송 시설 확충 등과 맞물려 도시와 농촌에까지 라디오가 광범위하게 보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셋째, 금성 라디오 A-501은 한국기업 최초로 산업디자인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금성사 도안실에서, 국내 최초로 채용된 기업 산업디자인에 의해 디자인된 국내 최초의 가전제품이다. 대형 투명소재를 디자인 요소로 적극 활용하는 등 당시로서는 매우 유려한 디자인을 적용하였고, 소비자 취향에 맞게 구매할 수 있도록 5가지 색상의 케이스로 생산되었다.

넷째, 금성 라디오 A-501은 전자회로적 기술과 제품화를 위한 기계적 구조 및 외형디자인, 진공관 외 여러 가지의 저항, 콘덴서, 코일 등의 전자 부품산업과 라디오 수리를 위한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다섯째, 금성 라디오 A-501은 생산 후 그리 오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급속한 기술·디자인 발전 및 역사적 인식의 부족으로 초기 생산 당시의 형태를 유지한 제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희소 가치가 높다.



1. 금성 라디오 A-501, 2013. LG인화원
2. 금성 라디오 A-501 신문광고, 1959.12.28.일자. 동아일보



遂出現

금성라디오

己亥年末最大의 贈物

▲ 世界의 水準을 알리는 韓國의 技術 ▲

GOLD STAR
MODEL A-501
5球·수퍼·헤트로드인
中波·短波

株式 金星社 會社

▲ 우리나라가 實情에 맞는 特殊 設計
우리 37年 國產의 2年 100% 국산
5球·수퍼·헤트로드인 5球·수퍼·헤트로드인 5球·수퍼·헤트로드인
100% 국산의 最新 技術을 採用한
(10-120%) 短波를 2000 ㎞까지 受信할 수
있는 最新의 短波수신기

▲ 美觀하고 明朗한 造型과 音質
— 美觀하고 明朗한 造型과 音질, 美觀하고 明朗한 造型과 音질
— 美觀하고 明朗한 造型과 音질, 美觀하고 明朗한 造型과 音질
— 美觀하고 明朗한 造型과 音질, 美觀하고 明朗한 造型과 音질

▲ 經濟한 價格...
— 美觀하고 明朗한 造型과 音질, 美觀하고 明朗한 造型과 音질
— 美觀하고 明朗한 造型과 音질, 美觀하고 明朗한 造型과 音질

금성 냉장고 GR-120

金星 冷蔵庫 GR-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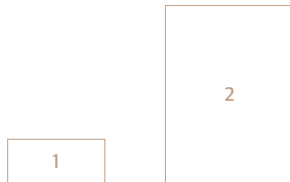
1965년
1점
길이 50cm, 폭 115cm, 높이 520cm, 무게 66kg
플라스틱, 금속, 유리 등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167-72

지정일 : 2013.08.27
소유자 : (주)LG
관리자 : (주)LG

<금성 냉장고 GR-120>은 1965년 LG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설계된 한국 최초의 상용화된 가정용 식품 보관 냉장고이다. 냉동 기술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기에 빙과점에서 쓰던 냉동기와 미군부대에서 유출된 냉동기를 분해·조립하여 구조를 익힌 뒤 직접 제작방식을 채용하여 자체 개발된 후 가정용으로 시판되었다.

금성 냉장고 GR-120은 지금의 일반적인 냉장고의 모습과는 달리 냉장실과 냉동실이 일체된 구조의 모습으로 그 저장용량은 120L정도에 불과하다. 상부에 소형냉각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반 3개, 물받이 그릇 1개, 얼음 그릇 2개, 야채 그릇 1개, 맥주병 바구니 1개 등 부속품을 갖추고 있다. 이 제품의 출시가격은 8만6천원이었다. 당시 대졸초임 월급이 1만1천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8개월을 모아야 살 수 있는 고가였으나, 첫 시판 6천대가 보름 만에 매진되는 기록을 세웠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경제성장과 함께 국내에 냉장고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다. 1975년에는 간접식 냉각방식의 국산화에 성공하였고, 1980년에는 500L급 대형화에 성공하였으며, 1994년에는 냉장시설의 한국적 변용을 통해 김치냉장고의 개발에 이르게 된다. 금성 냉장고 GR-120을 시작으로 축적된 냉장고의 기술개발은 후에 실내용 에어컨, 대형 건물의 냉·온방 컨트롤, 대형 냉장시설 등에 응용되는 등 냉장기술발전의 토대가 되었다.

금성 냉장고 GR-120은 한국 최초로 제작된 냉장고라는 기술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의 재정비, 저장 창고의 개발 및 확장, 냉장식품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한국사회의 식생활을 전환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1. 금성 냉장고 GR-120 신문광고, 1965.7.22.일자_동아일보
2. 금성 냉장고 GR-120, 2013. LG인화원





금성 텔레비전 VD-191

金星 텔레비전 VD-191

1966년

1점

길이 63cm, 폭 40cm, 높이 32cm

CRT 튜브, 플라스틱, 금속

이천시 마장면 지산로 167-72

지정일 : 2013.08.27

소유자 : (주)LG

관리자 : (주)L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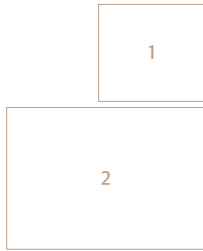
<금성 텔레비전 VD-191>은 1966년 LG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제조한 한국 최초의 흑백텔레비전이다. 금성사는 1963년부터 일본 히타치제작소에 기술연수팀을 파견하고 생산시설을 도입하여 1966년 최초의 흑백텔레비전 'VD-191'을 생산하였다. VD-191라는 제품명에서 V는 진공관(Vacuum)을 뜻하고, D는 데스크 타입(Desk Type)을 뜻하며, 191에서 19는 19인치, 1은 첫 번째 모델을 뜻한다. VD-191은 CRT 튜브, NTCS 방식, 주사선 525의 비월주사 방식이며, 수동으로 채널을 선택하는 기계적 튜너를 사용하였고, 콘트라스트 조정단자와 볼륨조정단자가 앞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12개의 진공관이 능동 회로를 구성하여 증폭, 검파, 동기분리, 음성 및 영상신호 증폭 등을 수행하였다. 이 제품의 출시가격은 8만 6천원이었다. 당시 쌀 한 가마 값이 4천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매우 고가였으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공개 추첨 방식으로 판매했을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텔레비전은 회로 기술, 통신기술 등의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자제품이다. 텔레비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높은 주파수(VHF)를 사용하는 통신 기술이 축적되어야 하며, 음성 및 영상 방송을 수신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광대역 증폭기 등의 회로기술도 필요하다. 또한 수상기를 조립하고 시험할 수 있는 생산 설비가 있어야 하고 시험을 위한 각 채널의 필요 주파수를 공급하는 송신 설비도 준비되어야 하기에 기술적으로 수년간 준비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텔레비전의 생산 기술 및 기반은 당시 낙후된 한국 전자기술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였고, 오늘날 이동통신 등 한국전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였다.

금성 텔레비전 VD-191의 디자인은 금성 라디오 A-501과 마찬가지로 한국기업 최초로 산업디자인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금성사 도안실에서 국내 최초로 채용된 기업 산업디자인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받침다리를 설치하여 고급 가구의 이미지를 부여함으로써 고가의 제품에 대한 기대에 부응했으며, 기능 위주의 절제된 디자인을 적용했다. 텔레비전에 달린 다리는 당시 텔레비전의 가치가 대를 물려 사용하는 가구의 가치와 같은 것이었음을 반영하고 있어 산업디자인의 역사적 측면에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비교적 최근 생산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원형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여 생산 당시의 형태와 기능을 완벽하게 유지한 제품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현존하는 제품들도 일부 훼손되어 있다. LG인화원 소장 금성 텔레비전 VD-191의 경우 다리가 제거된 상태로 보존되어 있다.

금성 텔레비전 VD-191은 국내 전자통신 산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였으며, 더 나아가 수출산업의 촉매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중요 부품의 기술개발에 따른 국산화로 본격적인 영상매체시대의 진입에 토대가 되었다.



1. 금성 텔레비전 VD-191 신문광고, 1968.11.11.일자_동아일보
 2. 금성 텔레비전 VD-191, 2013. LG인화원

VD-191 (19인치) · VC-193 (19인치콘솔형)

금성 텔레비

5個月/10個月 月賦販賣案内

보다 簡便한 簡次와 小額納入으로 장인 하실수 있는 金星 TV를 月賦로 販賣하오니 購入을 願하시는 분은 다음 要領에 依하여 申請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D-191 VC-193

月賦販賣에 關한 問答는 取扱銀行이나 当社營業部 問 7849 金星社에 對하여 買取이 有할시는 金 6270으로 連絡 하시면 迅速로 答復해 답변에 依하여 申입니다.

株式會社 金星社
金星販賣株式會社

1. 契約要領은 다음의 金額과 本人의 印章으로 契約締結하면 現品引渡합니다.

現 品	買 取 金 額	先 着 引 取 金 額	引 取 金 額
VD-191	5개월 19,385	9,800	29,185
	10개월 19,385	4,900	24,285
VC-193	5개월 22,760	10,800	33,560
	10개월 22,760	5,200	27,960

가. 契約締受金에 對하여 先着으로 先着引渡受入金, 나. 一時納入 當社特約店에서 申請서 購入함.

2. 現品引渡要領은 取扱銀行에서 契約締結時 「月賦金納入證書」 「TV引受通知書」를 交付하여 이에 依하안 其後各期 賣出하시면 引換券兌換하여 現品引渡함.

3. 契約締受日차 1968年11月13日부터 先着順이함
 4. 現品引渡日차 1968年11月25日부터
 5. 引換券兌換場所 KBS-TV放送局 濟州所在
 6. 月賦金納入部

5개월 引取		10개월 引取		
現 品	買 取 金 額	現 品	買 取 金 額	
VD-191	19,385	22,760	19,385	
VC-193	22,760	19,385	22,760	
계 1회	9,800	33,430	계 1회	4,900
계 2회	11,580	11,230	계 2회	3,800
계 3회	13,360	11,030	계 3회	5,700
계 4회	15,140	10,830	계 4회	5,900
계 5회	16,920	10,630	계 5회	5,500
계	70,345	76,840	계	29,615

6. 契約締受處

서울특별시 德興銀行 漢江支店 漢化洞支店
 第一銀行 弘德支店
 第一銀行 中央支店 漢津支店
 第一銀行 東大門支店
 朝鮮銀行 鍾閣支店 永登浦支店
 서울銀行 南大門支店 西大門支店
 仁川市 第一銀行 第一銀行 仁川支店



금성 세탁기 WP-181

金星 洗濯機 WP-181

1969년
1점
길이 69cm, 폭 38cm, 높이 90cm
알루미늄, 플라스틱, 철 등
이천시 마장면 자산로 167-72

지정일 : 2013.08.27
소유자 : (주)LG
관리자 : (주)LG

<금성 세탁기 WP-181>은 1969년 LG의 전신인 금성사에서 제조한 한국 최초의 전기세탁기이다.

1969년 1차로 195대가 생산되었지만 관련 세제 개발 미비, 여성 가사노동의 가치평가 절하, 세탁조와 탈수조 분리에 따른 불편, 가루비누 사용에 대한 신뢰 미형성 등에 따라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여 잠시 생산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 사회진출의 진전, 위생의식 및 경제여건의 상승에 따라 1971년 생산을 재개하였고 1974년 2만 대 돌파, 1979년 16만대가 생산되어 전국에 보급되면서 ‘백조세탁기’란 애칭으로도 불리며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금성 세탁기 WP-181는 전기적 모터를 응용한 제품으로서 세탁과 탈수를 행하는 비교적 간단한 기능을 갖춘 제품이다. 세탁과 탈수의 기능이 별개로 된 2조 수동식 구조이며, 세탁 용량은 1.8kg이다. 세탁 과정이 끝나면 수동으로 세탁물을 탈수기로 옮겨서 탈수 작업을 수행한다. 손으로 짜는 기존의 탈수 방법에 비하여 월등한 탈수효과를 내며, 세탁물의 건조 시간도 크게 단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금성 세탁기 WP-181는 가사노동 중 세탁에 소비되는 노동과 시간을 절약시킴으로서 가정에서의 주부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여성들의 사회 진출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관련 산업 상황 및 사회적 여건과 기술 채택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술사적으로 중요한 유물이다.



1. 금성 세탁기 WP-181 신문광고, 1971.7.30.일자_ 동아일보
2. 금성 세탁기 WP-181, 2013. LG인화원





삼성전자 64K DRAM

三星電子 64K DRAM

1983년
1식 2점
웨이퍼 : 10.2cm
칩 : 길이 2.3cm, 폭 0.9cm, 높이 0.8cm
실리콘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삼성로 1

지정일 : 2013.08.27
소유자 : (주)삼성전자
관리자 : (주)삼성전자



1. 삼성전자 64K DRAM 해외수출 기념, 1984.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2. 삼성전자 64K DRAM, 촬영일 미상.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3. 삼성전자 64K DRAM, 2016.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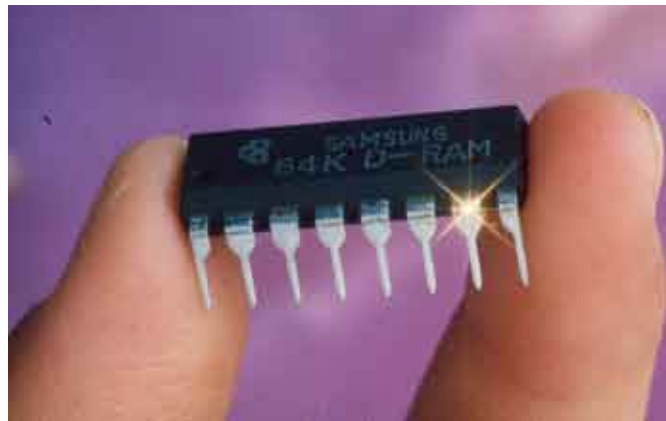
<삼성전자 64K DRAM>은 1983년에 세계에서 세 번째이자 한국 최초로 개발한 상용화된 반도체이다. 엄지손가락의 손톱만한 크기의 칩 속에 6만 4천 개의 트랜지스터 등 15만 개의 소자를 800만 개의 선으로 연결해 8천 자의 글자를 기억할 수 있는 VLSI(초고밀도 집적 회로)급 첨단 반도체이다.

삼성은 1983년 3월 반도체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하고 첫 양산 제품을 64킬로비트 동적 무작위 메모리 소자로 결정하였다. 5월부터 개발에 착수하여 그 해 11월 64K DRAM의 공정, 검사, 조립 기술 등 반도체 생산 공정 기술을 독자적인 힘으로 개발하며 이를 국내외에 발표했다. 단시일의 개발 기간을 갖고 상업화에 성공한 것이다.

당시 국내의 반도체산업은 시계,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단순한 기능의 칩들을 생산하는 기술과 장비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삼성은 선진국이 20년의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해낸 4K, 16K, 32K DRAM을 3단계나 뛰어넘어 64K DRAM을 개발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이룩한 성과로서 선진국과 비교해서 10년 이상 차이가 나던 국내 반도체 생산 기술 수준을 3~4년으로 크게 단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64K DRAM의 개발을 계기로 1992년 엄지손톱만한 칩에 축전기 소자 2억 5천 6백만 개를 집적시켜 신문지 512쪽에 해당하는 용량을 기억할 수 있는 64M DRAM을 개발해냈다. 이 과정에서 리소그래피 기술, 입체 축전 기술, 배전 기술 등 중요 생산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단위 공정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이후 삼성은 1994년 8월 29일 세계 최초로 256M DRAM 개발에 성공해 확실한 기술 우위를 입증하면서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루게 되었다. 1996년에는 손톱만한 소자에 10억 7천 4백만 개의 단위 소자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1G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로써 삼성은 DRAM 분야의 시장을 석권하게 되었고, 한국은 반도체 분야의 최강국이 되었다.

삼성에서 생산한 64K DRAM은 한국 반도체 기술의 첨단화를 이룩한 계기가 된 제품으로 전기전자정보기술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크며, 집적 회로의 실용화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전이를 가속화시켰다는 점에서 사회·문화·경제·역사적 가치가 있다.





등록문화재 제578호

포천 방어벙커

抱川 防禦벙커

1948년

1층

측량면적 79㎡, 높이 2m, 직경 3.5m

철근콘크리트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45-2

지정일 : 2013.12.20

소유자 : 포천시

관리자 : 포천시

<포천 방어벙커>는 전쟁에 대비하여 국군이 구축한 콘크리트 시설물이다. 해방 직후 남북에 단독정부가 수립되고 남북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던 1948년 10월경, 육군본부는 남북 대치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군의 남침에 대비하여 주공축선으로 예상되는 지점에 4개의 방어벙커를 구축하였다.

포천 방어벙커는 그 중 하나로 당시 중요 예상 공격축선의 하나인 43번 도로에 면한 평지에 설치되었다. 실제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만세교에서 포천방향으로 진출하려는 북한군 제3사단과 제105전차사단 예하 부대들의 탱크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군 제9연대 대전차 특공대가 포천 방어벙커에서 사격을 개시하였으나 결국 돌파되어 물러나게 된 기록이 확인된다. 한국전쟁 이전 구축한 4개의 방어벙커 중 포천 방어벙커를 제외한 3개의 벙커는 전쟁 중에 멸실되고, 포천 방어벙커는 북한군의 전차공격을 받아 일부 외벽이 손상되고 철근이 노출된 상태로 남아있다.



포천 방어병커는 내부에서 직립이 가능하고 수십 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대규모로 건설되었는데 콘크리트 벽체는 원형철근을 약 20cm 내외 간격으로 배치하였으며 두께는 90cm 정도이다. 벽체에는 여러 위치에서 도로를 감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크기의 총구를 설치해놓았다. 총구는 바깥쪽 보다 안쪽을 크고 넓게 만들어 외부로부터 내부를 방어하면서도 내부에서는 넓게 외부 투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포천 방어병커는 한국전쟁 이전에 구축된 4동의 방어병커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한국전쟁 유적으로 외벽에 당시 교전 흔적이 남아 있고, 구축 당시의 전쟁대비 의도와 방어구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3

1

2

1-2. 포천 방어병커,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포천 방어병커 내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개성 복식부기 장부

開城 複式簿記 帳簿

1887~1912년
 14책, 지면 1식
 일기장(분개장) : 세로 27.5cm, 가로 25.0cm~세로 28.5cm, 가로 27.3cm
 장책(원장) : 세로 26.9cm, 가로 24.0cm
 주회계(결산서) : 세로 28.2cm, 가로 26.6cm
 각처전담문기등록 : 세로 28.3cm, 가로 25.8cm
 각인물출입기일 : 세로 25.0cm, 가로 23.0cm
 각인회계책 : 세로 27.5cm, 가로 26.0cm~세로 28.7cm, 가로 25.2cm
 외상초이 : 세로 27.3cm, 가로 26.0cm
 종이
 고양시 일산서구 대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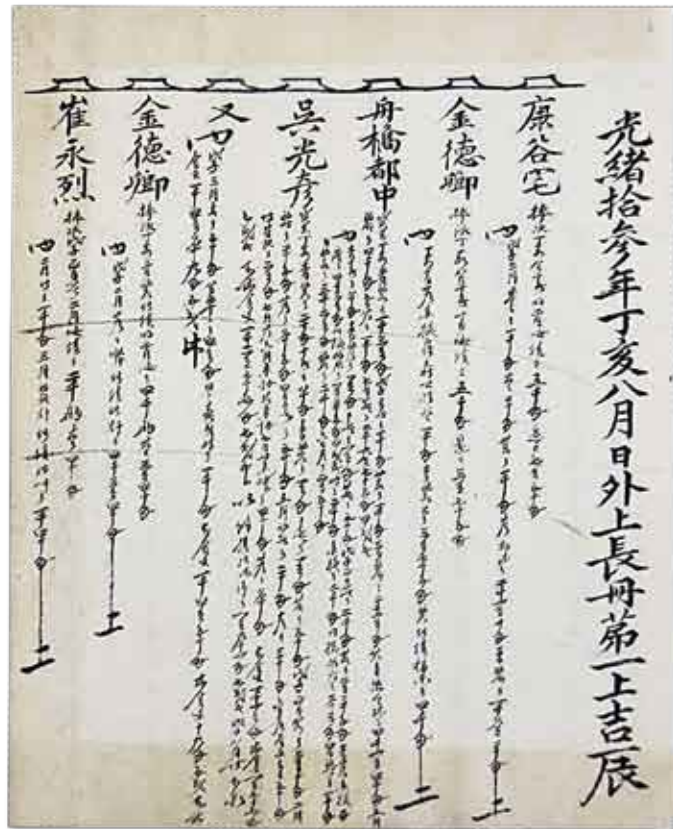
지정일 : 2014.02.26
 소유자 : 박영진
 관리자 : 박영진

<개성 복식부기 장부>는 개성지역에서 활동했던 박재도朴在燾 상인 집안의 회계장부 14책 및 다수의 일괄 문서(회계장부에 등재하기 이전에 작성한 원천자료)로 1887년에서 1912년까지 25년 동안의 대략 30만 건의 거래 내역이 1,298쪽의 분량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회계장부시스템은 주요장부인 분개장分介帳(일기장日記帳), 원장元帳(장책帳冊) 및 결산서決算書(주회계周會計)와 보조장부인 각처전담문기등록各處田畝文記騰錄, 각인물출입기일各人物出入記一, 각인회계책各人會計冊 및 외상초外上抄와 그 외의 어음, 편지, 증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회계장부 및 문서자료는 복식부기로 기입되어 있어 경제 거래의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는데, 이는 현대적 회계 방식과도 정확히 일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개성 복식부기 장부는 분개장, 총계장원장,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배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복식부기 방식으로 연결시켜 완벽한 대차균형의 원리와 원가회계, 그리고 투자자와 경영인과의 이익배분계약 관계까지 확인시켜주는 유물로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귀중한 자료다.



1. 원천자료 일괄 문서, 2014. 문화재청
2. 1887년 외상장부, 2014. 문화재청
3. 개성 복식부기 장부, 2014. 문화재청



① 일기장(분개장)

장부명	기장기간	기장면수
歲丁亥八月日上吉辰 日記第一	1887.8.15~1894.4.26	116
歲甲午四月日上吉辰 日記第二	1894.4.28~1898.9.15	116
光武二年戊戌九月日上吉辰 日記第三	1898.9.15~1901.4.9	116
光武五年辛丑四月日上吉辰 日記第四	1901.4.10~1903.10.4	116
光武七年癸卯十月日上吉辰 日記第五	1903.10.5~1905.2.24	116
光武九年乙己二月日上吉辰 日記第六	1905.4.24~1906.11.16	116
光武十年丙午十一月日上吉辰 日記第七	1906.11.16~1912.4.15	118

② 장책(원장)

光緒拾參年丁亥八月日上吉辰 外上他給并付第一		
光緒拾參年丁亥八月日 外上長冊第一上吉辰	1887.8.15~1901.4.15	68
光緒拾參年丁亥八月日 他給長冊第一上吉辰	1887.8.15~1901.9.15	48

③ 주회계(결산서) : 회계집작조(손익계산서), 급차질, 봉차질

歲光緒十八年壬辰九月日上吉辰 周會計冊	1892~1911	18
---------------------	-----------	----

④ 각처전담문기등록各處田畝文記謄錄

大韓光武二年戊戌(1898年)八月日上吉辰 各處田畝文記謄錄	1855~1889	28
--------------------------------	-----------	----

⑤ 각인물출입기일各人物出入記一

甲申(1884年)九月日上吉辰 各人物出入記一	1884	87
-------------------------	------	----

⑥ 각인회계책各人會計冊

建陽二年丁酉(1897年)三月日上吉辰 各人會計冊	1897~1900	116
大韓光武四年庚子(1900年)九月日上吉辰 各人會計冊	1900~1904	116

⑦ 외상초이外上抄二

歲癸己(1893年)正月日上吉辰 外上抄二	1893~1895	21
-----------------------	-----------	----



등록문화재 제592호

고양 흥국사 대방

高陽 興國寺 大房

1915년

1층

지상 1층, 정면 7칸, 측면 3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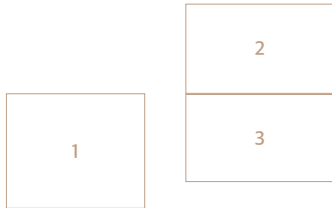
목조

고양시 덕양구 흥국사길 82

지정일 : 2014.07.01

소유자 : 흥국사

관리자 : 흥국사



1. 고양 흥국사 대방 전면 차양,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고양 흥국사 대방 후면,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고양 흥국사 대방 전면,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고양 흥국사 대방>은 신도들의 염불수행을 위하여 1915년경 중건된 고양 흥국사의 부속건물로 본래의 전각명은 미타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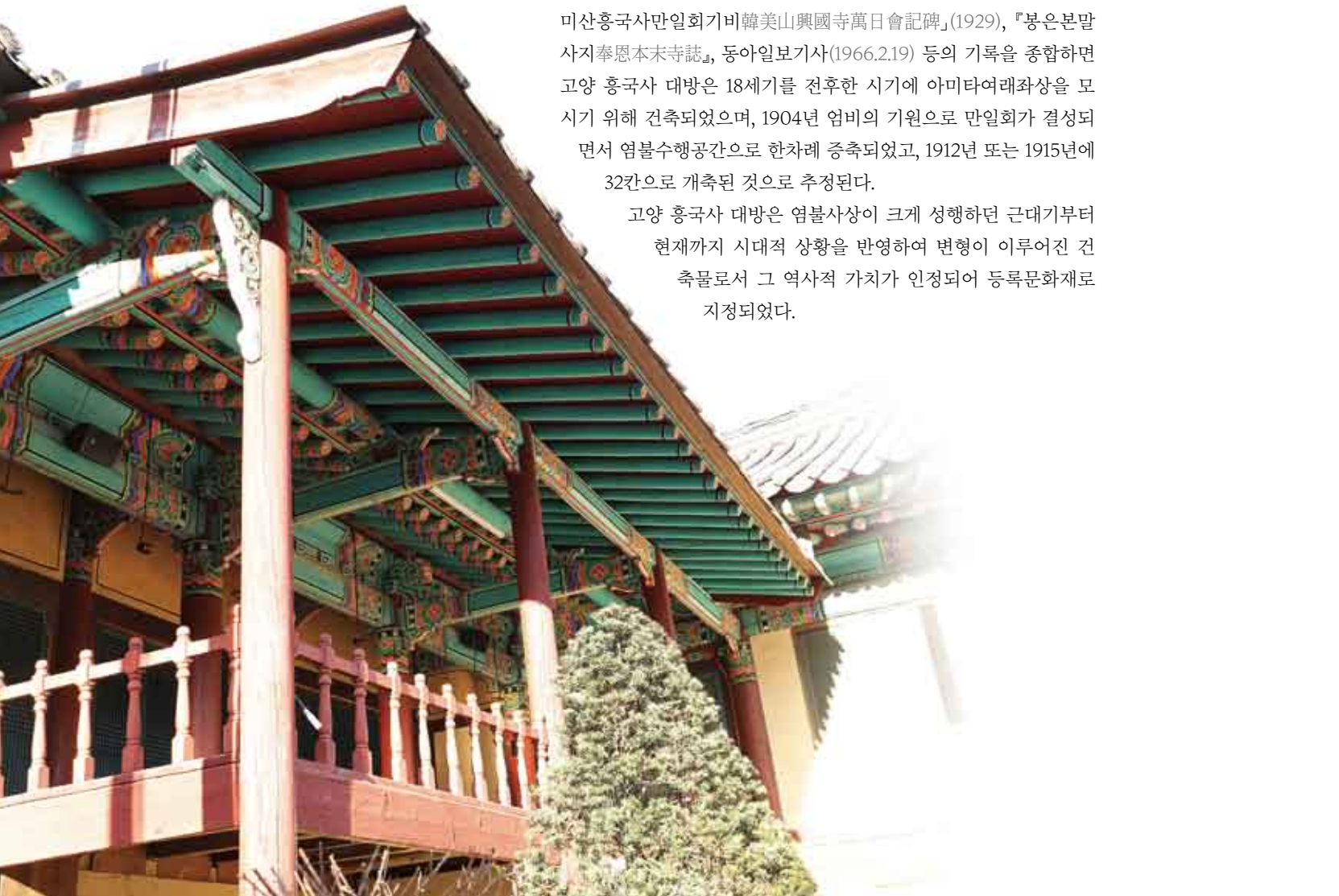
고양 흥국사 대방은 전면의 높은 장대석 기단위에 위치해 있다. 전체 평면은 ‘ㄱ’자형으로 19세기말 20세기 초에 건축되었던 전형적인 대방양식을 갖추고 있으며, 전면 7칸, 측면 3칸의 ‘一’자형 평면을 기본으로 건물의 우측 2칸, 전면부분에는 정면 2칸, 측면 2칸 규모의 익루翼樓가 덧붙여져 있다. 전·후면에 반칸 규모의 퇴칸이 구성되어 있고, 전면부에는 정면 3칸, 측면 1칸 규모의 장마루 바닥에 반칸의 차양遮陽을 덧대었다.

건물은 형식과 배치로 보면 만일회萬日會 회주의 생활공간으로 만들어진 만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변화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건물 후면 중앙부 퇴칸에서 연장된 좌측 2칸과 우측 2칸 부분에 시설된 뒷마루, 큰방 전면에 차양간, 석축 전면 계단 등은 부재나 장부구멍으로 볼 때 후대에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내부공간은 상당히 변형된 상태이다. 본래는 대방을 중심으로 좌측 2칸은 부엌, 우측의 2칸은 승방 및 누마루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일자형 건물 전체를 하나의 큰 불전공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돌출된 익사翼舍부분은 개조하여 승방으로 사용하고 있다. 창호는 큰방 전면과 건물 후면 고주열 모두 띠살창호의 사분합문을 지니고 있지만, 부엌공간은 아자亞字살창, 누마루 온돌방은 알루미늄샷시로 변형되었다. 지붕은 초익공 겹처마의 팔작지붕으로 합각부에는 전벽돌 치장쌓기를 하였다.

흥국사 미타전 상량문(大正四年 乙卯 陰 六月六日 午時 立柱), 「한미산흥국사만일회기비韓美山興國寺萬日會記碑」(1929), 『봉은본말사지奉恩本末寺誌』, 동아일보기사(1966.2.19) 등의 기록을 종합하면 고양 흥국사 대방은 18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아마타여래좌상을 모시기 위해 건축되었으며, 1904년 엄비의 기원으로 만일회가 결성되면서 염불수행공간으로 한차례 증축되었고, 1912년 또는 1915년에 32칸으로 개축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양 흥국사 대방은 염불사상이 크게 성행하던 근대기부터 현재까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변형이 이루어진 건축물로서 그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

南楊州 高安水位觀測所

1930년대 추정

1기

45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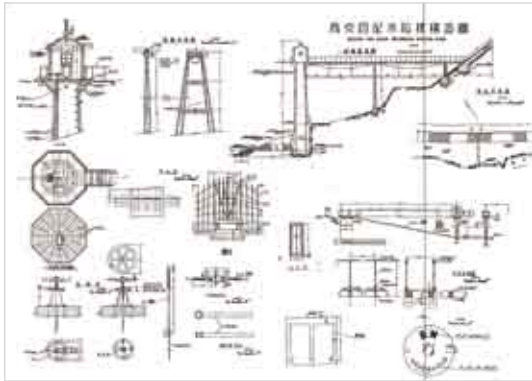
철근콘크리트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825

지정일 : 2014.07.01

소유자 : 국토관리청 한강홍수통제소

관리자 : 국토관리청 한강홍수통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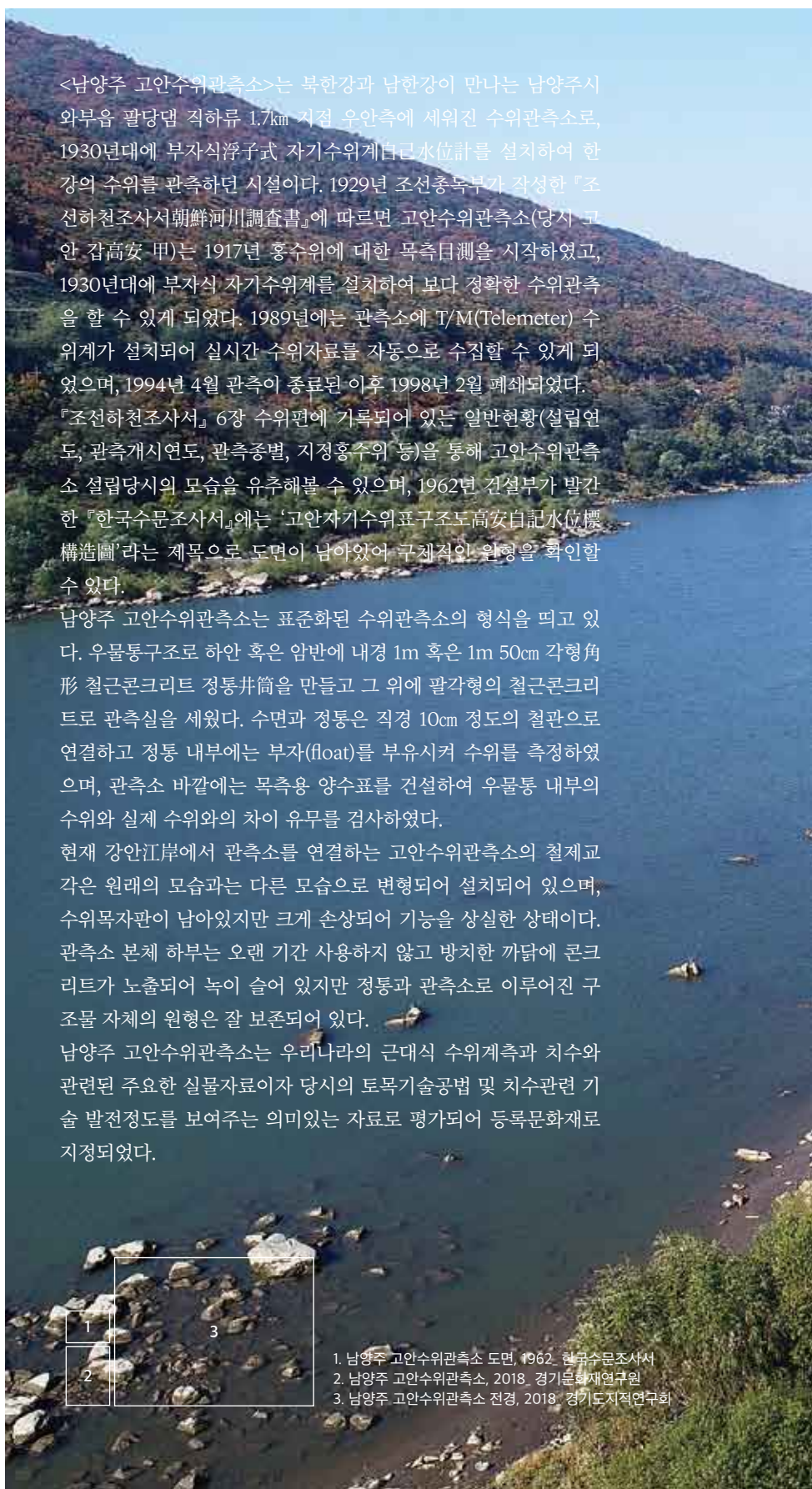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댐 직하류 1.7km 지점 우안측에 세워진 수위관측소로, 1930년대에 부자식浮子式 자기수위계自記水位計를 설치하여 한강의 수위를 관측하던 시설이다. 1929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선하천조사서朝鮮河川調査書』에 따르면 고안수위관측소(당시 고안 갑高安 甲)는 1917년 홍수위에 대한 목측日測을 시작하였고, 1930년대에 부자식 자기수위계를 설치하여 보다 정확한 수위관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89년에는 관측소에 T/M(Telemeter) 수위계가 설치되어 실시간 수위자료를 자동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으며, 1994년 4월 관측이 종료된 이후 1998년 2월 폐쇄되었다. 『조선하천조사서』 6장 수위편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현황(설립연도, 관측개시연도, 관측종별, 지정홍수위 등)을 통해 고안수위관측소 설립당시의 모습을 유추해볼 수 있으며, 1962년 건설부가 발간한 『한국수문조사서』에는 ‘고안자기수위표구조도高安自記水位標構造圖’라는 제목으로 도면이 남아있어 구체적인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는 표준화된 수위관측소의 형식을 띠고 있다. 우물통구조로 하안 혹은 암반에 내경 1m 혹은 1m 50cm 각형角形 철근콘크리트 정통井筒을 만들고 그 위에 팔각형의 철근콘크리트로 관측실을 세웠다. 수면과 정통은 직경 10cm 정도의 철관으로 연결하고 정통 내부에는 부자(float)를 부유시켜 수위를 측정하였으며, 관측소 바깥에는 목측용 양수표를 건설하여 우물통 내부의 수위와 실제 수위와의 차이 유무를 검사하였다.

현재 강안江岸에서 관측소를 연결하는 고안수위관측소의 철제교각은 원래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어 설치되어 있으며, 수위목자판이 남아있지만 크게 손상되어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관측소 본체 하부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까닭에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녹이 슬어 있지만 정통과 관측소로 이루어진 구조물 자체의 원형은 잘 보존되어 있다.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는 우리나라의 근대식 수위계측과 치수와 관련된 주요한 실물자료이자 당시의 토목기술공법 및 치수관련 기술 발전정도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 도면, 1962. 한국수문조사서
 2.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3.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 전경, 2018. 경기도지적연구원



양평 지평양조장

楊平 砥平釀造場

1939년
1층
지상 1층, 427.7㎡
목조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62번길 27

지정일 : 2014.07.01
소유자 : 김기환, 김종교
관리자 : 김기환

<양평 지평양조장>은 1942년 조선총독부 식산국에서 발간한 『조선 공장명부朝鮮工場名簿』에 따르면 이종환이 1925년 설립하여 탁주를 제조하던 건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애초부터 탁주제조를 위해 지어졌기 때문에 탁주를 생산하는 일반적인 공정에 따라 개별 기능실의 특성이 건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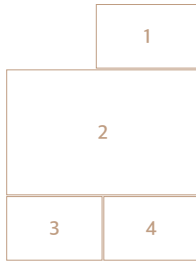
지평양조장은 남서향을 하고 있으며, 전면이 긴 장방형이다. 평면구성을 보면 도로와 면하고 있는 전면은 중앙에 출입구를 두고, 좌측으로 홍보실(전시실), 저온창고 및 제성실이 4칸, 우측으로 사무실, 숙직실 및 화장실 등 행정 지원 공간이 4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면 가로변 사무실과 숙직실은 상부에 창호를 두어 일조 및 채광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후면으로는 탁주의 생산에 직접 관련된 중국실, 보쌈실, 사입실(숙성실) 등을 두고 그 가운데 주입실 및 병입실 등을 두고 있다. 중국실은 상부에 환기구와 두터운 왕겨벽체를 두어 종균보양을 위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적으로 구조부재들의 규격이 한식 목구조에 비하여 작은 편이지만 높은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목구조를 벽으로 보강하였고 대공간을 가로지르는 지붕은 왕대공王臺工(용마루 보를 받치는 대공) 트러스가 아니라 대들보 위에 중도리와 중도리 등을 각각 지지하는 대공을 세웠다. 서까래 부재 역시 일반적인 서까래에 비하여 작은 편이다. 서까래 위에 흙바름의 바탕을 산자(서까래 위에서 기와를 잇기 위해 새끼로 엮은 것) 대신 대자리 형식으로 짠 것, 외벽의 일부를 심벽구조가 아닌 흙벽돌을 사용한 것은 양평 지평양조장의 특징적인 부분이다. 위생을 고려한 현대식 생산조건에 맞게 개조하기 전에는 내진의 트인 공간을 높게 중앙에 두고 전후에 중국실과 숙성실 및 사무실 등을 배치하였으나 현재는 내진의 대공간(통층구조) 중간에 인위적인 수평층을 설치하여 2층 구조로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고 사입실(숙성실) 내부의 기둥은 일부 철골조로 보강하였다.

한편 양평 지평양조장 건축물 측면에는 지평리 전투를 기념한 참전비가 세워져 있다. 양평 지평양조장이 위치한 지평리 일대는 1951년 중국 인민해방군 39군의 공세에 맞서 미군2보병사단 23연대 전투단(RCT)에 배속된 프랑스 대대가 격전을 치러낸 곳이며, 양평 지평리 양조장 건물은 당시 몽클라르 장군이 이끈 유엔군 사령부로 사용되었다.

양평 지평양조장은 1930년대 한옥을 축조하는 방식을 바탕으로 일식 목구조를 접합하여 대공간을 구성한 절충식 구조로 당시 건축기술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전쟁 당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된 건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 유엔군 사령부로 사용되던 양평 지평양조장, 1951
_ 지평의평·지평리전투기념관
2. 양평 지평양조장,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양평 지평양조장 내부 전시관, 2014. 문화재청
4. 양평 지평양조장 내부, 2014.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제597호

구 수원문화원

舊 水原文化院

1920년대 추정
1층
지상 2층, 214㎡
벽돌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

지정일 : 2014.09.01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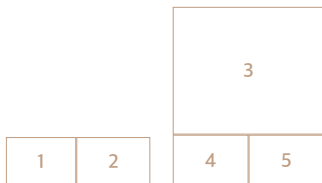
<구 수원문화원>은 1920년대 말(추정) 금융회사인 조선중앙무진회사朝鮮中央無盡會社의 사옥으로 건립된 건물이다. 1956년 수원시청 임시청사로, 1958년 수원시청 별관으로 사용되었다. 1960년대 이후부터 2007년까지는 수원문화원으로 사용되다가 2007년 리모델링 후 현재는 1956년 준공된 구 수원시청사와 함께 수원시가족여성회관의 문화관(강의동)으로 사용되고 있다.

건물은 지상 2층의 조적(재래식 붉은벽돌)조 건축물로서 주로 마구리쌓기와 길이쌓기를 반복하여 쌓았으며 모서리에는 칠오토막을 사용하는 화란식쌓기로 축조하였다. 평면형태는 거의 정방형에 가까우며, 지붕은 우진각지붕이다. 본래 지붕가운데에는 굴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현재는 소실된 상태이다.

건물의 전면 출입구 좌우 주변과 2층 개구부 및 창 부분은 흰색 모르타르로 돌출시켜 입체적으로 장식하였는데, 특히 전면 창호에는 꽃봉오리 모양을 장식하여 정면을 강조하고 있다. 중앙 출입문은 변형되어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본래는 출입문 앞에 계단과 좌우에 경사로를 두어 내부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출입문을 들어오면 좌측으로 계단실이 있는데, 지붕면보다 높지는 않지만 처마보다 높게 올림으로써 수평적 요소에 수직적인 요소를 부가하였다.

건물의 내부공간은 용도에 따라 개조되어 변형되었으나, 외관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구 수원문화원은 일제강점기 당시 무진업無盡業(상호신용계)을 하던 건축물로서, 일제강점기 금융제도의 단면을 보여주는 산업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또한 건물의 규모는 작지만 당시 건축기술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건축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다.



1. 수원시청사로 사용되던 모습, 1956. 수원시
2. 수원문화원으로 사용되던 모습, 2000.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5. 구 수원문화원, 2018. 김다혜





등록문화재 제598호

구 수원시청사

舊 水原市廳舍

1956년
1층
지상 2층, 662㎡
철근콘크리트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19

지정일 : 2014.09.01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시

<구 수원시청사>는 1954년 10월 27일 착공하여 1956년 7월 26일에 준공한 건물로, 1987년 초 수원 인계동의 새로운 청사(현재 수원시청)로 옮기기 전까지 수원시청사로 사용되었다. 1987년부터 2007년까지는 권선구청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는 수원시가족여성회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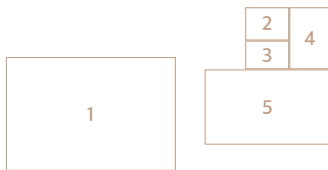
건물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의 벽체에 화강석 계통의 돌을 사괴석 四塊石 형태로 다듬어 외벽을 마감하였다. 평면은 ‘一’자형을 기본으로 양단부가 약간 돌출되어 ‘U’자형을 이루고 있다. 중앙 현관에는 건물 앞쪽으로 아래가 좁고 위가 넓은 기둥을 세워 캐노피를 두었고, 좌·우측 돌출된 부분에도 중앙 캐노피와 유사한 형식으로 돌출된 캐노피를 설치하여 부출입구를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건물의 외관은 테라조(terazzo) 재료의 수직형 블라인드를 배열하고 후면에 4개의 골뚝이 일정한 간격으로 돌출되게 배치하여 수직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건물 상단의 옥상 파라펫(parapet)을 외벽 밖으로 돌출시켜 처마처럼 처리하고, 좌·우측 돌출된 부분에 수평 루버(louver)형의 창호를 둔 점은 수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수직성과 수평성을 동시에 강조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한국 모더니즘(modernism)건축의 특징으로, 특히 관공서 건물에서 보인다.



전체적인 외관형태는 잘 남아있으나, 내부 평면은 현재의 용도에 맞게 개보수가 이루어져 창호 형태 및 양측면의 부출입구 등은 변형되었다. 배면의 창호는 건물의 내부를 개조하는 과정에서 폐쇄되어 벽체가 되었다. 권선구청으로 사용할 당시에는 옥상층에 가설건물을 증축하기도 하였으나 현재의 용도로 바뀌면서 철거하였다.

구 수원시청사는 한국전쟁 직후 우리나라 모더니즘 건축이 시작되는 시기에 건축된 관공서 건물로 서양의 기능주의 건축에 영향을 받은 한국 근대 건축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고, 당시 건축가들의 재료 선택과 양식이 반영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평가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 구 수원시청사 후면,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구 수원시청사 낙성식, 1956. 수원시
3. 구 수원시청사 내부 계단,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측단 부출입구의 흔적,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구 수원시청사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高陽 幸州水位觀測所

1930년대 추정
1기
15m²
철근콘크리트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7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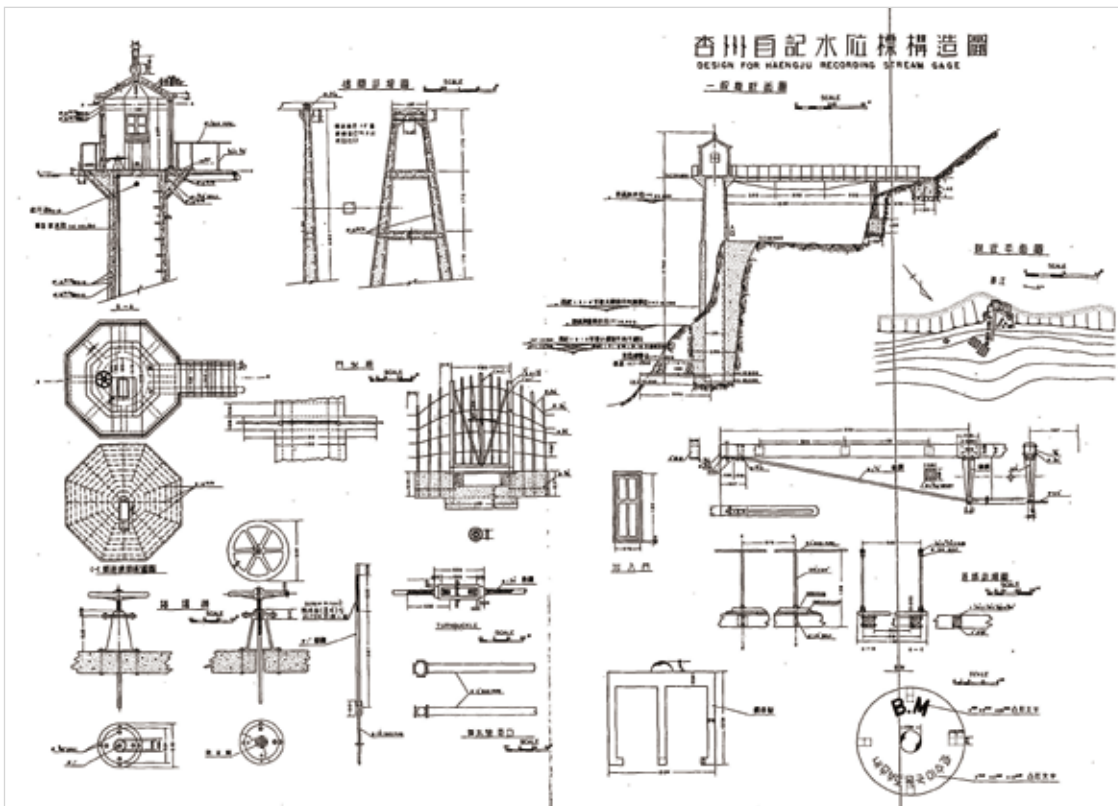
지정일 : 2014.09.01
소유자 : 국토교통부, 고양시
관리자 : 국토교통부, 고양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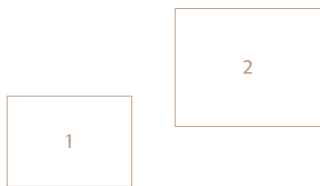
<고양 행주수위관측소>는 창릉천과 한강의 합류점인 고양시 창릉보 우안측 제방에 세워진 수위관측소로, 1930년대에 부자식浮子式 자기수위계自己水位計를 설치하여 한강의 수위를 관측하던 시설이다.

1929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조선하천조사서朝鮮河川調査書』에 따르면 행주수위관측소는 1916년 조위 및 홍수위에 대한 목적을 시작하였고, 1930년대에 부자식 자기수위계를 설치하여 보다 정확한 수위관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979년 12월에 관측을 종료하여 운영을 중단하였고, 1980년에 폐쇄되었다.

『조선하천조사서』 6장 수위편에 기록되어 있는 일반현황(설립연도, 관측개시연도, 관측종별, 지정홍수위 등)을 통해 행주수위관측소 설립당시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으며, 1962년 건설부가 발간한 『한국수문조사서』에는 ‘행주자기수위표구조도杏州自記水位標構造圖’라는 제목으로 도면이 남아있어 구체적인 원형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고양 행주수위관측소는 표준화된 수위관측소의 형식을 띄고 있다. 우물통 구조로서 하안 혹은 암반에 내경 1m 혹은 1m 50cm 각형角形 철근콘크리트 정통井筒을 만들고 그 위에 팔각형의 철근콘크리트 관측실을 세웠다. 수면과 정통은 직경 10cm 정도의 철관으로 연결하고 정통 내부에는 부자(float)를 부유시켜 수위를 측정하였으며, 관측소 바깥에는 목측용 양수표를 건설하여 우물통 내부의 수위와 실제 수위와의 차이 유무를 검사하였다.





1.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1962. 한국수문조사서
 2.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현재 강안江岸에서 관측소를 연결하는 행주수위관측소의 철제교각은 소실되었고, 외부에서 수위 측정을 위해 설치했던 수위관측 목자판 역시 망실되었다. 관측소의 지반은 드러나 있고 관측소 본체 하부는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까닭에 콘크리트가 노출되어 녹이 슬어 있는 상태이지만 정통과 관측소로 이루어진 구조물 자체의 원형은 잘 보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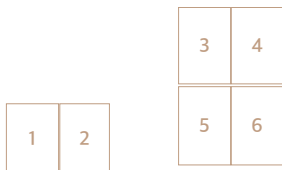
고양 행주수위관측소는 우리나라의 근대식 수위계측과 치수와 관련된 주요한 실물자료이자 당시의 토목기술공법 및 치수관련 기술 발전 정도를 보여주는 의미있는 자료로 평가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만화 코주부 삼국지

漫畫 코주부 三國志

제1책 : 1953년
 제2책 : 1954년
 제3책 : 1955년
 3책
 제1책(총99면) : 세로 18cm, 가로 12.2cm
 제2책(총99면) : 세로 18.4cm, 가로 12.5cm
 제3책(총73면) : 세로 18.4cm, 가로 13.0cm
 종이
 부천시 길주로 1

지정일 : 2014.09.02
 소유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리자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1. 만화 코주부 삼국지(1권 표지), 201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 만화 코주부 삼국지(1권 내지), 201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3. 만화 코주부 삼국지(2권 표지), 201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 만화 코주부 삼국지(2권 내지), 201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5. 만화 코주부 삼국지(3권 표지), 201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6. 만화 코주부 삼국지(3권 내지), 201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만화 코주부 삼국지>는 학생잡지 월간 『학원』에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었던 김용환金龍煥(1912-1998)의 장편 서사물 『코주부 삼국지』를 3권의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1953년 1책, 1954년 2책, 1955년 3책이 출간되었는데 1책과 2책은 대양출판사, 3책은 효영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코주부 삼국지』는 중국의 저명한 고전 소설인 나관중의 『삼국지연의』의 내용을 김용환이 재해석하여 만화로 그려낸 작품으로 인기 캐릭터 ‘코주부’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였다. 일반적으로 50년대 잡지에 연재된 연재만화는 장편 서사물이 아니라 에피소드형 만화였는데 비해, 『코주부 삼국지』는 장편 서사물로 연재되어 큰 인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이야기책’ 형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칸이 나뉘고, 말풍선이 등장하는 형식적 진보를 보여주는 등 만화구성과 구도에서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여 한국 현대만화의 탄생에 큰 영향을 주었다.

『코주부 삼국지』의 단행본이 출간된 시기는 한국전쟁 이후 극심한 물자부족에 시달리던 때로 특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종이의 부족이 극심했다. 당시 만화 단행본은 흔히 ‘딱지만화’라 불리는 조잡한 만화이거나 아니면 24쪽, 32쪽 분량이 대부분이었다. 종이질도 형편없었고 제본은 스테이플러 제본에 불과했다. 그런 상황에서 『코주부 삼국지』는 고급종이에 80쪽이 넘는 분량으로 무선제본된 고급책자 형태로 제작되었다는 것은 당대의 가치를 짐작하게 해준다.

『코주부 삼국지』는 1950년대의 대중문화, 생활문화, 한국 현대사를 엿볼 수 있는 현대 만화의 초기 작품이자 한국만화사에서 잡지연재와 단행본 출간의 연쇄를 대표하는 작품 중의 하나로 현대화된 출간양식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여운형 혈의

呂運亨 血衣

1947년

1벌 3점

재킷 : 길이 65.5cm, 소매길이 58cm, 가슴둘레 258cm

셔츠 : 길이 70cm, 소매길이 47cm, 가슴둘레 255cm

속옷 : 길이 60cm, 소매길이 13cm, 가슴둘레 245cm

자켓 : 견마

셔츠 : 폴리에스테르

속옷셔츠 : 면

양평군 양서면 몽양길 66

지정일 : 2014.10.29

소유자 : 이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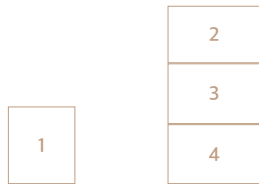
관리자 : 몽양기념관

<여운형 혈의>는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몽양 여운형(夢陽呂運亨, 1886~1947)이 피격을 당해 사망할 당시 착용하고 있던 상의 3벌(재킷, 셔츠, 속옷)이다.

여운형은 1919년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여 활동한 독립운동가로 광복 이후에는 조선인민당, 근로인민당 등을 조직하여 활동한 정치가이다. 1944년 비밀리에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여 활동하였으며, 광복 이후 1945년 8월 건국준비위원회, 9월 조선인민공화국을 결성하여 혼란 수습과 치안유지 등의 활동을 했다. 1946년부터는 통일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김규식, 안재홍 등 중도파 인사들과 함께 좌우합작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좌우익 양측으로부터 많은 테러위협을 당하다가 1947년 7월 19일 혜화동 로터리에 서 한지근(韓智根)이 쏜 권총에 맞아 사망하였다.

피격 당시 여운형이 착용하고 있던 재킷은 고급 여름 옷감인 견사와 마사의 교직물로 제작된 전형적인 테일러 재킷이다. 왼쪽 가슴과 허리부분 양쪽에 포켓 3개가 아웃포켓 양식으로 달려 있고 단추가 2개인 싱글 앞여밈 스타일이다. 재킷 속에서는 수첩과 단단이 나왔다. 셔츠는 연한 푸른색 바탕에 0.7cm 간격으로 가는 흰줄무늬가 있다. 속옷은 일반적인 메리야스 러닝셔츠로 피격 후 치료를 위해 벗겨낼 때 가운데를 잘라내서 앞으로 트여 있는 형태이다.

여운형 혈의의 재킷, 셔츠, 속옷에는 뒤쪽에서 아래로 향하는 피격방향으로 혈흔과 총탄 자국 등이 선명하게 남아있어 저격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명하고 있다.



1. 같은 옷을 착용하고 있는 해방 직전의 몽양 여운형, 촬영일미상 -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2. 여운형 혈의 재킷,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여운형 혈의 셔츠,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여운형 혈의 속옷, 2016.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석주명 유품

石宙明 遺品

1950년 이전

12건 14점

1. 침낭(카키색) : 세로 240cm, 가로 88cm

2. 침낭(백색) : 세로 170cm, 가로 124cm

3. 우비 : 세로 143cm, 가로 118cm

4. 트렌치코트 : 길이 110cm, 화장 76cm, 품 48cm

5. 장갑 : 길이 30.5cm

6. 물통 : 길이 26cm, 너비 29cm

7. 채집망(백색) : 길이 50cm, 너비 32cm

8. 얼굴 보호망 : 길이 48cm, 너비 29cm

9. 나비채(하늘색) : 길이 75cm, 너비 70cm

10. 칼 : 길이 26cm, 너비 3.5cm

11. 배낭(연카키색) : 세로 54.5cm, 가로 50cm

12. 배낭(소색) : 세로 57cm, 가로 49cm

13. 가방 : 세로 27cm, 가로 37cm

- 지갑1건, 배지1건, 논문3편, 거울1편, 엽서카드뮴음 용도미상의 3/4원형용지, 원고뭉치와 봉투, 나비표본용 삼각유지4건, 메모지, 분포지도 등 포함

14. 나비표본액자 : 너비 46.5cm

면, 바닐, 가죽, 금속, 삼베, 은조사, 화학섬유 툴, 플라스틱 등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지정일 : 2014.10.29

소유자 : 단국대학교(사유)

관리자 :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석주명 유품>은 최초로 한국의 나비를 연구한 나비학자이자 교육자인 석주명石宙明(1908-1950)의 나비채집 관련 물품이다.

석주명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학자들이 개체변이에 대한 지식없이 나비에 이름을 붙인 것을 정정하여 우리나라의 나비 종류를 재분류하고, 종류마다 연구사와 학명 변천을 집대성한 『A Synonymic List of Butterflies of Korea(한국산 접류 총목록)』(1939)를 통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업적을 남겼다.

석주명 유품은 석주명이 착용했던 트렌치코트와 우비, 가방, 장갑 그리고 채집활동에 사용한 나비채, 채집망, 배낭, 침낭, 물통 등 각종 물품과 연구논문, 원고, 메모 등이다. 이 중에는 1930~1940년대 기성품 채집용품이 없던 시절 과학성과 편리성 모두를 고려하여 석주명이 독창적으로 설계·제작한 채집용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과학사 및 생활사를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 트렌치코트(1점)

베이지색 래글런(raglan) 소매로 훌웃이지만 윗부분 어깨와 가슴, 등 부분에만 짧게 체크무늬 안감이 있다. 단추가 4개인 더블 앞여밈 스타일로 뒷트임이 있고 뒷트임에는 단추를 달았던 흔적이 있다.

• 침낭(2점)

침낭은 걸감이 카키색인 침낭 1점과 소색인 침낭 1점이다. 두 제품 모두 사용한 흔적이 없는 신제품으로 추정된다. 카키색 침낭은 훌감으로 충전재가 들어있지 않다. 앞 중심에 있는 지퍼는 손잡이가 안쪽



에 달려 있어서 침낭 속에 들어간 후 여닫도록 하였다. 안쪽에 부착되어 있는 라벨을 통해 1944년 미국에서 생산된 군용 제품임을 알 수 있다.

소색 침낭은 흰색 얇은 면 소재의 홉감으로 제작되었으며 충전재가 들어있지 않다. 몸이 완전히 침낭 속으로 들어간 후 목부분에서 지퍼로 채울 수 있도록 하였다. 기성품으로 추측할만한 단서는 없어 석주명이 개인적으로 제작한 품목으로 생각된다.

• 배낭(2점)

배낭은 겉감이 연카키색인 배낭 1점과 소색인 배낭 1점이다. 방수가 되는 캔버스지로 제작하였고, 배낭 위쪽에 꿰어진 끈으로 조여 여민 뒤 뚜껑을 덮어서 사용하는 형식이다. 끈을 푸는 둥근 구멍은 정교하게 버튼홀 스티치로 마감하였다. 카키색 배낭은 아랫면을 누벼서 밑판을 만든 반면 소색 배낭은 누비지 않은 점이 다르다. 기성제품은 아니고 석주명이 개인적으로 자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 나비채(1점)

나비채의 본체는 녹색 은조사로, 가장자리 입구는 평직 면직물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가장자리 입구는 쇠고리로 걸 수 있게 4마디의 원형 금속테가 둘러져 있다.

• 우비(1점)

비닐 소재로 만든 사다리꼴형 우비이다. 윗부분은 투명비닐, 아랫부분은 불투명한 카키색상의 비닐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위는 막히고 아래만 터져 있어 머리 위로 뒤집어쓰면 얼굴 부분은 투명해서 시야 확보가 되도록 한 디자인이다. 기성제품으로 추측할만한 단서는 없어 석주명이 개인적으로 고안해 만든 것으로 추측된다.

1		3		
2				

4	5	6	
7	8	9	10

1. 침낭(카키색) 2. 침낭(백색) 3. 트랜치코트
4. 배낭(연카키색) 5. 배낭(소색) 6. 우비
7. 물통 8. 채집망(백색) 9. 나비채(하늘색)
10. 얼굴 보호망, 201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얼굴 보호망(1점)

얼굴보호망의 머리 부분은 모자 형태, 나머지 부분은 투시 가능한 망사로 만들었다. 모자 부분은 둥근 반원형 모양이고 카키색 삼각형 조각 6개를 봉제하여 만들었다. 중간부분(얼굴 부분)은 카키색 망사, 아랫부분은 흰색 망사를 원통형으로 둘러 만들었다. 각 경계부분에는 금속 테가 끼워져 있고 흰색 망사 맨 아래는 끈으로 조여 묶을 수 있게 하였다.

• 채집망(1점)

채집망은 나선형 구조로 측면은 삼베로, 윗부분은 고운 면으로 만들어졌다. 몸통의 중간과 맨 아랫부분에 3개의 원형 테가 있고, 맨 윗부분은 끈으로 조여 묶을 수 있게 하였다.

• 장갑(1점)

짧은 갈색 실로 짠 손가락 장갑으로 손목 위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을 만큼 넉넉하다.

• 물통(1점)

카키색 캔버스(canvas)소재로 만들어졌다. 원통을 만들고 위에서 잡을 수 있는 손잡이를 달았다.

• 칼(1점)

칼, 칼집, 형겅으로 만든 주머니로 구성되어 있다. 칼날에는 음각으로 ‘和泉守’라고 새겨져 있는데 ‘和泉(이즈미)’은 지금의 일본 오사카 남부의 옛 지명으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가방(1점)

갈색 가죽 소재의 서류가방으로 여닫을 수 있는 쇠로 된 버클이 2개 있고, 내부에는 짙은 색 평직 면직물 소재로 된 칸막이가 있다. 가방 안에서는 다양한 서류와 원고, 수첩, 엽서, 나비 분포지도, 영수증, 월급명세서 등의 종이류와 만년필, 지갑, 장도, 둥근 면경 등 다수의 개인적 소품이 발견되었고, 그 중 지갑 안에서는 명함, 문교부 배지 등이 발견되었다.

1	3
2	



1. 장갑 2. 칼 3. 가방 4. 나비표본액자, 201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 나비표본액자(1점)

나무로 된 원형 틀 안에 30여 종의 나비 표본이 들어있는데 그 중 4시경 방향으로 석주명 박사가 발굴한 나비 품종이 포함되어 있다.

색복장려깃발

色服獎勵깃발

1930년대
1점
세로 143cm, 가로 69cm
면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104번길 50

지정일 : 2014.10.29
소유자 : 국립여성사전시관
관리자 : 국립여성사전시관

<색복장려깃발>은 일제강점기 조선 문화 및 풍속 말살정책 중 하나로 실시된 색복화 정책의 선전용 도구로 사용된 깃발이다.

일제강점기 색복화 정책은 조선인들이 보편적으로 착용하는 백의白衣를 철폐하고 이를 색복色服으로 대체하기 위한 식민지통치정책 중 하나였다. 1910년대의 백의 폐지와 색의 대체 논의 이후 1920년대부터는 조선 지식인들이 개입하여 색의를 권장하거나 조선총독부의 관여를 거쳐 다각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어졌다. 1930년대에는 농촌진흥운동의 직접적 개선 항목에 백의를 포함시켜 ‘운동’으로 정책이 가시화되기 시작하였고, 각 지방 관공서는 물론 마을 단위의 민간단체, 기업, 언론사 등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실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색복화 정책 시행을 위해 색의 선전, 염색비 지원, 공동 염색소 설치, 염색 강습회와 강연 등 유인책을 활용하는 한편, 공직자들에 대한 색의 착용 통첩, 백의 착용자의 공공장소 출입금지, 백의 착용자를 향한 물감 투척, 서약서 강요와 벌금부과 등의 강경책을 동원하기도 하였다.

언론기사와 조선총독부 관보 등의 기록물로 볼 때 국립여성사전시관 소장 색복장려깃발은 가장 적극적인 색복화 정책이 추진되며 다양한 대안들이 등장한 1930년대에 색복장려 선전단체에 걸어 놓았거나 색복장려 선전 가두행진 시에 사용된 깃발이라고 생각된다.

색복장려깃발은 가로로 긴 장방형으로 검은색 바탕에 흰색으로 ‘色服’이라는 한자를 명시하였다. 글씨부분은 염료가 침투하지 못하게 방염처리를 한 후 바탕 면직물 전체를 검은 색으로 염색하였다. 깃발로 사용하기 위해 상·하 좌측 양 끝 모서리에는 삼각형의 보강천(거친 면직물)을 앞·뒤로 덧댄 후 재봉틀로 바느질하여 고정하였으며, 중심에 구멍을 뚫고 리벳(rivet)을 달아 가운데에 끈을 꿰어 자루에 달 수 있도록 하였다.

가장자리의 올이 풀린 부분은 군데군데 굵은 무명실로 거칠게 바느질하였고, 깃발 일부에 구멍이 난 부분은 바탕면 직물과는 다른 재질과 색상의 조각 옷감으로 보수한 흔적이 있다.

색복장려 선전을 위해 선전지와 악기, 각종 구호가 담긴 깃발 등을 사용했다는 기록은 남아있었으나 실물자료로 발견된 사례가 없던 상황에서 국립여성사전시관 소장 색복장려깃발은 색복장려운동의 구체적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물자료이자 일제강점기의 사회적 현상을 이해하는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색복장려깃발, 2018. 국립여성사전시관

등록문화재 제637호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

白龍城 禪師 萬日禪會 芳啣錄

1925~1927년

1책

세로 31.0cm, 가로 28.7cm

종이

성남시 수정구 옛골로42번길 3

지정일 : 2014.10.29

소유자 : 정토사

관리자 : 정토사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은 1925년부터 3년간 만일참선결사에 참여한 수행자들의 명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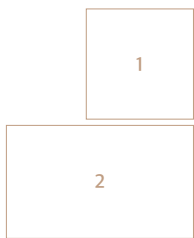
만일참선결선을 주도했던 백용성(白龍城, 1864~1940)스님은 1919년 3·1만세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대표로 참여한 근세 불교계의 큰 스님이다. 일본불교의 영향으로 한국불교의 계율이 사라질 것을 우려하여 도봉산 망월사에서 '만일참선결사회(萬日參禪結社會)'를 개최하였으며, 수행에 정진할 것을 목적으로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정신을 증생에게 널리 제도하고자 하였다.

만일참선이란 우리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방식으로 3년을 일기(一期)로 하여 십기(十期)에 걸친 기간인 만일 간을 기약하는 방식으로, 정토사 소장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은 그 중에서 1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1925년 도봉산 망월사 동안거를 시작으로 1926년 양산 내원암(內院庵)으로 이석한 후 하안거, 동안거, 1927년 하안거까지 총 4차에 걸친 결사대중의 소임과 이름, 소속사찰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백용성 스님을 조실(祖室)로 1925년 동안거에는 55명(스님 46명), 1926년 하안거에는 56명(스님 50명), 1926년 동안거에는 26명(스님 25명), 1927년 하안거에는 27명(스님 23명) 등이 참여하였다. 1926년 동안거의 참여 대수는 하안거 보다 반 정도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방함록에는 참가자의 소임과 법명 및 본사 뿐 만아니라 거주지의 주소를 자세히 기록하게 되는데 개인 신상에 대한 총독부의 감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여겨진다.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의 표지에는 우측부터 '世尊應化貳九五二年乙丑十月十五日'라는 사기가 적혀있고, 丙寅(병인), 丁卯(정묘), 萬日禪會(만일선회), 芳啣錄(방함록)이 적혀있다. 방함록의 중앙부에는 끈으로 고리를 만들어 놓아 선원의 출입구에 걸어두고 항상 인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마도 오늘날의 출석부와 같은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방함록(芳啣錄)이란 안거(安居)에 참여한 수행자들의 안거 시기와 선원, 소임, 법호, 법명, 출가본사 등을 기재하는 명부를 말하는데 정토사 소장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은 만일동안 평생 오로지 참선 수행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방한 것으로 일반적인 방함록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이 방함록은 일제에 항거하여 전통불교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민족정신 회복운동의 증거자료로서, 망월사·통도사·내원암 등의 선원의 계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 점, 당시 참여한 수행자들과 그 직무를 알 수 있게 된 점에서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1.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 표지, 2014_ 문화재청
2.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참가인 명단, 2014_ 문화재청

五尊應化貳九五年乙丑十月十五日
 丙寅 丁卯
 萬日禪會
 芳啣錄

侍者	李性學	表檜岩	與園寺
鍾頭	科可喜	玄又玄	白潭寺
奉茶	韓鍾秀	尹相彥	海印寺
磨糊	趙長信	金鍾協	抱溪寺
淨頭	李在禧	姜泰秀	白羊寺
淨桶	張永峯	吳在變	來蘇寺
曹東湖	全	朴普覺	內院庵
魯弘濟	內院庵	李海山	長安寺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高陽 大聖庵 阿彌陀三尊掛佛圖

1928년
1점
세로 553cm, 가로 305cm
면
고양시 덕양구 대서문길 396-1

지정일 : 2015.08.18
소유자 : 대성암
관리자 : 대성암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는 경기도 고양 북한산에 위치한 대성암에 소장된 괘불도로서, 1928년에 향암 성엽香庵性曄이 조성하였다.

화면 중앙에 본존인 아미타불이 타원형의 두광頭光과 신광身光을 배경으로 정면을 향해 있으며, 좌우에는 협시보살인 관음보살觀音菩薩과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을 배치하였다. 아미타불은 둥근 얼굴에 높고 뾰족한 육계가 솟아있으며, 머리는 중간계주와 정상계주로 장식되었다. 목은 짧은 편이어서 다소 답답해 보이고 가늘게 삼도三道가 그려져 있다. 오른쪽 어깨를 완전하게 드러낸 우견편단右肩偏袒 착의법에, 법의法衣는 홍색 대의大衣에 밝은 녹색 계통의 군의裙衣를 착용하였다. 왼손을 북부쪽에 두고 오른손을 무릎 아래로 길게 내린 수인을 하고 있다.

좌협시보살인 관음보살은 화불이 그려진 보관을 쓰고 왼손은 가슴 앞으로 올리고, 오른손은 내려 정병을 쥔 채 정면을 향해서 있다. 우협시보살인 대세지보살은 연꽃 가지를 세로로 길게 늘어뜨려 양손으로 가지의 위아래를 잡고 있다.

화면 상단 본존의 두광 좌우로는 아난존자와 가섭존자가 각각 손을 맞잡은 채 중앙을 향해 서있다. 젊은 사미승沙彌僧의 모습인 아난존자는 본존을 향해 두 손을 맞잡아 합장하였으며, 백발과 흰 수염이 성성한 노인의 모습을 한 가섭존자는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 지권인과 같은 수인을 취하였다.

이 괘불도는 여러 장의 면을 붙여 만든 화면에 진채로 채색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주황, 코발트블루 등 강렬하게 대비되는 색들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전 시기에는 보이지 않는 독특한 문양, 불·보살의 육신부에 열은 먹을 사용하여 음영을 표현하는 등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이 괘불은 화폭의 위·아래에 나무로 만든 축을 끼워 걸 수 있게 하였다. 뒷쪽에는 반달 형태의 천축, 아래에는 원형의 지축이 그대로 남아있다. 천축에는 2개의 고리에 천으로 만든 복장낭腹藏囊 2개가 달려있다. 복장낭 표면 앞쪽에는 ‘희龕’가 금

니로 적혀 있으며, 뒤쪽에는 목서의 범자梵字와 함께 한글로 ‘소화삼년(1928)무진하’라고 쓰여 있다.

좌측 복장낭에는 2개의 술, 우측 복장낭에는 각각 1개의 술이 달려있다. 복장낭은 각각 중앙에 천원天圓과 지방地方으로 묵서되어 있는 두 개의 한지로 감싼 후 오색실로 감아놓았다. 그 안에는 각각 동(동), 서(서), 남(남), 북(북), 중(중)이라고 적힌 한지를 사각함의 형태로 만들고 그 안에 각 방위에 해당하는 색실을 넣었으며, 여러 색물은 한지에 묵서로 써서 대신하였다. 이것을 ‘八葉蓋(팔엽개)’라고 쓴 종이로 다시 한 번 감쌌다. 실제 소입 제색물所入諸色物 대신 비록 한지에 글을 써서 넣었지만 그 내용이나 절차는 『조상경造像經』의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화기는 따로 화기란을 구획하지 않고 화폭 하단에 먹으로 기재하였다. 화기에 의하면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는 1928년 4월 초파일을 맞이하여 서울에 위치했던 행촌포교당杏村布教堂에 조성하여 봉안했던 괘불도로 추정되나 언제 대성암으로 이안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사찰측의 전언에 의하면 대웅전의 불단 아래에서 오여래도와 사보살도, 팔금강도 등으로 추정되는 도량장엄화와 함께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도량장엄화는 모두 소각되어 남아있지 않다.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는 계룡산 화파의 대표화승인 금호당 약효錦湖堂若效의 제자 향암 성엽이 단독으로 제작한 불화로, 본존불의 광배 모양, 불·보살과 가섭의 특징적인 상호, 독특하게 휘날리는 불·보살의 대의와 군의, 불·보살의 옷 끝단을 검은 바탕으로 하고 그 위에 문양을 시문하는 방식, 여래의 지나치게 작은 손을 비롯하여 주홍색과 연녹색 및 코발트 계통의 청색을 주로 사용하는 것까지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 마곡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계룡산 화파(마곡사 화파)의 양식적 특징을 잘 따르고 있다. 비록 조성연대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복장낭과 후령통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20세기 전반 괘불봉안의식의 일면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 ① 아미타불
- ② 대세지보살
- ③ 관음보살
- ④ 아난존자
- ⑤ 가섭존자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2015. 문화재청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利川 水廣里 오름가마

1949년
1기
길이 27m, 폭 2~2.3m
흙, 벽돌
이천시 신둔면 수광리 4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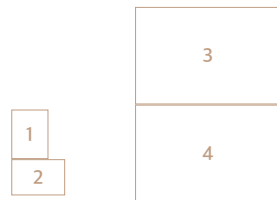
지정일 : 2016.02.15
소유자 : 조태권
관리자 : 조태권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는 백자·청자·분청자 등을 번조하는데 사용하는 근대식 전통 장작가마이다. 조선시대 후기 전통가마는 점토를 이용하여 지붕을 쌓고 바닥을 경사지게 만든 연실식 등요連室式登窯가 다수였으나, 1900년을 전후하여 벽돌이나 망생이(원추형의 흙덩어리)를 사용하여 벽체를 만든 가마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아리타有田, 미노美濃 지역의 가마양식이 유입되어 벽돌로 계단식 바닥을 깔 다음 상부를 벽돌로 축조한 가마양식이 널리 보급되었다. 1980년대에 이르러는 가스가마의 보급과 장작수급의 어려움으로 전통 장작가마는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현재는 그 모습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는 근대식 축요기술이 도입되어 한국화된 현대 장작가마의 초기양식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장작가마 가운데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상단 소성실燒成室로 갈수록 가마 폭이 넓어지고 천장은 높아지는 전형적인 연실식 등요로 총 12칸의 가마가 약 22°정도의 경사지에 계단식으로 조성되었으며, 각 칸마다 출입구 1개, 불보기창이 1개씩 설치되어 있다. 벽체 및 천정, 불창 등은 벽돌로 축조한 뒤 외부는 점토를 두껍게 발라 마감하였다. 1~5번 칸의 벽체와 천장은 흙벽돌을 사용하였고, 6번 칸부터는 내화벽돌을 사용하여 축조한 것으로 보아 부분적인 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는 광주요 내의 성형·조각·시유·번조 등 일련의 공방과 연계된 요업시설의 일부로서 현재까지도 1년에 1~2회 번조작업을 하며 장인들에 의해 보수 및 관리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서울 대방동에서 작업을 재개한 도예가들이 1950년대 말부터 작업여건이 좋은 이천으로 활동무대를 옮기기 시작하였는데,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가 위치한 신둔면 수광리는 이러한 도예가들에 의해 수백여 개의 초기 요장들이 정착하며 도자문화가 번성하였던 지역이다. 1940년 홍순환은 칠기가마를 축조하였고, 1952년 그의 아들 홍재표洪在杓(1932~2014)가 칠기가마를 상속받았다. 홍재표는 1958년 지순탁, 고영재 등과 함께 '수금도요'라는 공방을 개업하여 운영하였다. 1959년 조소수趙小洙(1912~1988)가 수금도요를 인수하여 1963년 '광주요'를 설립하였으며 1962년 기존의 가마를 개조하여 현재의 구조와 형태로 신축하였다.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는 1940년 처음 축조된 이후 1962년 개조를 거쳐 약60여 년 간 지속해서 사용되며 오늘날까지 그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장작가마이다. 한국 근·현대 전통도자의 중심지인 이천의 초창기 요업 실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2.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내부,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3·4.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전경, 2018. 경기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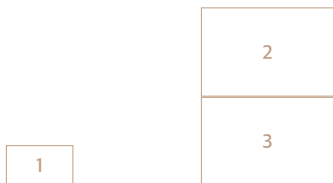
등록문화재 제688호

경기도청사 구관

京畿道廳舍 舊館

1967년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89㎡
철근콘크리트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지정일 : 2017.08.08
소유자 : 경기도
관리자 : 경기도



1. 경기도청사 구관, 1969_경기도
2·3. 경기도청사 구관, 2013_경기도

<경기도청사 구관>은 경기도청이 1967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본관으로 신축하여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의 행정업무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다. 1960년대까지도 경기도의 업무를 담당하는 청사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었다. 서울시가 1946년 특별시로 승격되고 경기도에서 분리되면서 서울시내 태평로에 위치하고 있던 경기도청의 위치가 문제시 되었으나, 광복에 이은 한국전쟁으로 경기도에 도청을 새로 지을 여력이 없었다. 전후 복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인 1963년에 경기도청을 수원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1964년 착공하여 1967년 완공되었다. 본래는 3층 규모의 본관으로 지어졌으나 1978년 4층 규모의 신관이 건축되면서 ‘구관’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경기도청사 구관은 한국 현대건축 1세대 건축가로 활동하였던 김희춘金熙春(1915~1993)과 나상진羅相晉(1923~1973)의 협동설계로 건축되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라멘(rhamen)구조의 규칙적 모듈을 바탕으로 기하학적인 평면과 입면을 구성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수평성이 강조된 단순한 기하학적 구성 속에서 2층과 3층에 비대칭적으로 배치된 타공형 벽체, 옥상에 비대칭적으로 배치된 선박船艙 형태의 옥탑 구조물, 2·3층과 다르게 구성된 1층 입면, 1층 중앙 현관의 필로티(pilotis) 등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당시 관공서 건물로서는 드물게 직사각형 중정을 중심으로 ‘口’자형의 중정형 평면을 도입하였다. 중정을 중심으로 중정 쪽으로는 편복도가, 외부 쪽으로는 업무공간이 위치해 있는데, 중정을 통해 복도와 업무공간 모두 원활한 통풍과 충분한 채광이 확보되고 있다. 중정은 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하며, 옥상정원과 함께 직원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옥상정원에는 수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옥탑부가 설치되어 있다. 이는 1960년대 옥상정원을 주장했던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 1887~1965)의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신축 당시에는 노출콘크리트로 만들어졌으나, 현재는 페인트로 마감되었다.

경기도청사 구관은 1990년 4층으로 증축(후에 철거되어 현재는 원형 복원)되고, 1992년 ‘口’자형 평면 모서리 2개소에 화장실을 증축하는 등의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도청의 행정업무공간으로 활용되면서 커다란 훼손과 변형없이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 외관 뿐 아니라 내부 공간 역시 보존 상태가 매우 양호한데 도지사실을 비롯한 몇몇 실들은 신축 당시의 용도와 다르게 바뀌었으나 대체로 기존의 업무공간이 잘 유지되고 있다.

경기도청사 구관은 경기도청이 1967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신축한 최초의 본관으로 현재까지 지속해서 본래의 용도에 맞게 행정업무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로서 역사성, 상징성, 지역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청사들과는 달리 절충주의 건축형식에서 벗어나 현대건축의 국제양식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구현하였다는 점에서 건축적 가치가 높다.





경기도청사 구 관사

京畿道廳舍 舊 官舍

1967년
1층
지상 2층, 지하 1층, 연면적 796.39㎡
철근콘크리트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30번길 21

지정일 : 2017.08.08
소유자 : 경기도
관리자 : 경기도

<경기도청사 구 관사>는 경기도청이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전됨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공관으로 1967년 10월 20일 준공된 건물이다. 준공 이래 부임하는 지사의 상황에 맞게 수차례의 증개축이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변화는 1984년 이해구 도지사 시절에 이루어진 관사 1층 연회장 증축과 1998년 임창열 도지사 때 이루어진 관사 2층에 대한 증축이다. 특히, 1984년에 이루어진 연회장 증축은 도지사 관사의 역할이 가족의 생활공간에서 도정의 일부를 수용하는 공적 공간으로 기능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연회장 증축이후 공간의 부족으로 도청에서 행하기 어려운 각종 환영회와 주민 관련 행사 등이 도지사 관사에서 행해지게 되었다. 2014년 상반기까지는 지사공관으로 사용되었고, 2016년 남경필 도지사의 개방 의지에 따라 연회장 및 게스트하우스(굿모닝하우스)로 2018년까지 활용되기도 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다시 공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사는 도지사의 업무 편의성을 고려하여 경기도청사가 위치한 곳에서 북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해있다. 관사의 동쪽으로는 팔달산이 자리 잡고 있고 남쪽 역시 경사진 언덕인 까담에 진입로를 서쪽으로 두었다. 전체적인 외관은 수직과 수평을 강조하되 후면 벽체의 돌출부와 2층 발코니 외벽, 옥상 파라펫(parapet) 등 부분적으로 경사진 요소를 사용하여 단순함을 벗어나고자 하였다.

신축 당시 관사는 3개의 사각형을 조합한 평면 구성으로, 레벨 차이(split level)를 두어 공간을 구분하였다. 주출입구는 서측에, 계단은 3개의 사각형이 중첩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계단을 통해 입방체 사이의 레벨 차이가 조절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3개의 입방체가 다른 레벨로 결합되어 나타난 입체적인 공간구성의 결과로 몇 차례의 증개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외관상으로 신축 당시와 현재 관사의 외관상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연회장 증축 부분이다. 연회장의 증축으로 인해 관사는 생활공간인 주택에서 연회장으로 기능이 일부 바뀌고, 출입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주택용과 연회장용으로 구분되었다. 또한 연회장을 지원하는 주방의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현관과 거실의 레벨 차이가 변하게 되었으며 1층 거실의 전면에 위치했던 테라스와 캐노피가 사라지면서 관사의 외관이 크게 변화했다.

신축 당시 2층의 평면은 부부의 공간과 자녀 공간을 각각의 입방체에 위치시킴에 따라 평면적으로 구분하면서 동시에 두 입방체 사이에 레벨차이를 두어 입체적으로 분리시켰다. 이러한 공간 구성은 근대주의 건축가들의 기능적 사고가 건축적으로 표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층 평면구성에서 특징적인 것은 안방의 전면에 위치한 2개의 창호 중 오른쪽의 창호는 바깥으로 열리는 창호지만, 왼쪽의 창호는 거실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경기도지사 관사, 2016. 경기도

이와 같이 층을 달리하는 실내 공간이 창호로 연결되는 것은 곧 내부공간의 실외화 또는 외부공간의 실내화를 통해 내·외부공간을 서로 관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근대건축에서 공간을 구성하는 주요한 특징이다. 2층은 1.5층 높이에 위치한 서측 테라스를 방으로 만들면서 변화가 생겼다. 2층의 주 침실공간이 집무실 겸 거실로 변경되었으며, 이때 경량철골조의 2층이 연회실 상부에 증축되면서 주 침실이 옮겨지고, 주 침실 전면에는 휘트니스룸이 설치되었다.

경기도지사 구 관사는 해방 이후 일제강점기의 근대적인 형식에서 벗어나 당시 서구의 모더니즘을 적극 반영하고 있는 건축물이다. 1980년대와 1990년대 도시개발의 영향으로 해방 이후 건축된 모더니즘 경향의 주거건축이 현재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간결하고 단순한 당시 모더니즘 주거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로 평가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등록문화재 제691-1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오세창 묘소

忘憂 獨立有功者 墓域-吳世昌 墓所

1953년

1기

봉분, 비석 1기(1956.10), 망주석 2기(1956)

구리시 교문동 산84-2

지정일 : 2017.10.23

소유자 : 산림청

관리자 : 국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서예가인 오세창吳世昌(1864~1953)의 묘이다. 본관은 해주海州, 자는 중명仲銘, 호는 위창葦滄이다. 1864년 서울에서 출생하였으며 1894년 군국기무처 총재비서관, 농상공부 참의를 지냈고, 1902년 '개화당 사건'으로 일본 망명한 뒤 천도교 입교하여 손병희의 참모로 활동하였다. 1906년 『만세보』, 『대한민보사』를 창간하여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919년에는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천도교 대표)로 참여했다. 1928년 최초의 서화인명대사전 『근역서화징권역書畫徵』을 발간하는 등 미술사, 서예, 금석학 분야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광복 이후에는 1945년 민주의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회장 및 전국애국단체총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오세창은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追敘된 독립운동가면서 망우공원묘지 내 방정환, 설태희의 비문과 경서노고산천골취장비京西老姑山遷骨聚葬碑 등에 글씨를 남긴 당대 최고의 서예가이기도 하다. 1918년에 근대적 미술가단체의 효시인 서화협회가 결성될 때 발기인으로 참가하였으며, 이후 민족 서화계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오세창 묘소의 봉분은 무궁화 잎과 꽃이 조각된 돌레석이 감싸고 있고, 봉분 앞에는 상석, 묘역 좌우에는 망주석이 놓여있으며, 묘역의 왼쪽에 묘비가 세워져 있다. 묘비의 전면 글자는 손재형孫在馨(1903~1981)이 전서체篆書體로 썼고, 비문은 언론계의 후배로서 서울신문, 조선일보 주필을 지낸 언론인 전홍진全弘鎭(1908~1969)이 지었으며, 여초 김응현如初金應顯(1927~2007)이 썼다.

망우묘지공원은 1933년 조성된 이후 20세기 중후반까지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공동묘지로 1933년부터 매장이 금지된 1973년까지 40여년간 묘소 2만 8500기가 자리 잡았다가 지속적으로 이장이 진행되어 현재는 약 8400여 기가 남아있다. 묘소 중에는 소설가 계용목, 김이석, 김말봉을 비롯하여, 의학자 지석영, 화가 이중섭, 시인 박인환, 정치가 조봉암, 장덕수, 조선왕가의 명은공주 등 예술·문화·정치 분야의 유명인물 뿐만 아니라 한용운을 비롯한 문일평, 방정환, 오기만, 유상규 등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들의 묘소가 포함되어 있어 독립운동과 광복의 상징 공간이자 다양한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2.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오세창 묘소, 2018_경기문화재단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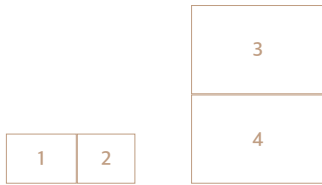
등록문화재 제691-2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문일평 묘소

忘憂 獨立有功者 墓域-文一平 墓所

1936년
1기
봉분, 비석 2기(1936 및 1997)
구리시 교문동 산84-2

지정일 : 2017.10.23
소유자 : 산림청
관리자 :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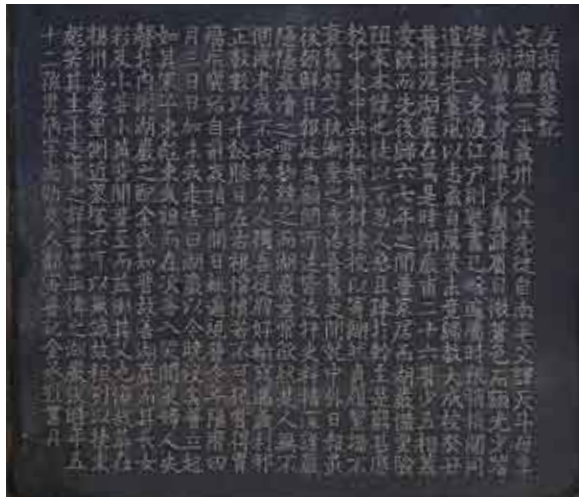
1.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문일평 비석,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문일평 비문,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4.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문일평 묘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사학자·언론인인 문일평(文一平)(1888~1939)의 묘이다. 본관은 남평(南平), 자는 일평(一平), 호는 호암(湖巖)이다. 1888년 평안북도 의주에서 출생하였다. 1908년에 태극학회에 참여하여 계몽운동을 전개하다가 1912년 상해로 망명한 뒤 항일결사단체인 '동제사'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19년에 종로 보신각에서 만세시위운동을 주도하며 독립을 요구하는 「애원서(哀願書)」를 낭독하여 옥고를 겪었다. 1927년에는 '신간회'의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간사 및 중앙위원으로 활동하였고, 조선물산장려회(朝鮮物産獎勵會) 이사로 선임되어 동 기관지 『자활(自活)』의 주필 활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조선일보사 편집고문으로 역임된 이후 사망할 때까지 항일 언론활동, 우리 문화와 역사연구의 대중화를 위한 국학연구를 지속하였다. 문일평은 1995년 제3등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追敘)된 독립운동가면서 조선학의 대가로서 많은 업적을 남겼다.

문일평 묘소는 납작한 형태의 봉분을 사각 돌레석이 감싸고 있으며, 묘 앞쪽으로는 연화문의 상석, 양 옆으로는 모양이 다른 비석 2기가 세워져 있다. 왼편의 구舊 비석(문호암묘기(文湖巖墓記))은 자연석 한 가운데에 석판을 끼워 넣은 특이한 형태로 석판의 비문은 정인보(鄭寅普)(1893~1950)가 짓고 서예가 김승렬(金承烈)이 썼다.

오른편의 비석(湖巖文一平先生之墓)은 1997년에 새로 세워진 비석으로, 좌우측면과 뒷면에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약전(略傳)을 조선일보 논설고문 이규태(李圭泰)(1933~2006)가 기록하였다.

망우묘지공원은 1933년 조성된 이후 20세기 중후반까지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공동묘지로 1933년부터 매장이 금지된 1973년까지 40여 년간 묘소 2만 8500기가 자리 잡았다가 지속적으로 이장이 진행되어 현재는 약 8400여 기의 묘소가 남아있다. 묘소 중에는 소설가 계몽묵, 김이석, 김말봉을 비롯하여, 의학자 지석영, 화가 이중섭, 시인 박인환, 정치가 조봉암, 장덕수, 조선왕가의 명은공주 등 예술·문화·정치 분야의 유명인물 뿐만 아니라 한용운을 비롯한 오세창, 방정환, 오기만, 유상규 등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들의 묘소가 포함되어 있어 독립운동과 광복의 상징 공간이자 다양한 역사 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691-3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방정환 묘소

忘憂 獨立有功者 墓域-方定煥 墓所

1936년

1기

봉분, 비석 2기(1936 및 1983), 상석, 화병
구리시 교문동 산84-2

지정일 : 2017.10.23

소유자 : 산림청

관리자 : 국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아동문학가인 방정환方定煥(1899~1931)의 묘이다. 본관은 온양溫陽, 호는 소파小波이다. 1899년 서울 당주동에서 출생하였다. 1917년 경성청년구락부를 조직하여 문예지 『신청년』을 편집·발행하는 등 청년운동가이자 문학가로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1919년 천도교청년회 회원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장인인 천도교교주 손병희가 기독교, 불교세력과 3·1운동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유광렬과 함께 등사판으로 『독립신문』을 출판하여 시민에게 배포하였다. 1911년 서울에서 어린이의 윤리적, 경제적, 민족적 독립을 주창하며 ‘천도교 소년회’를 만들었다. 1922년 최초의 아동문학 연구 단체인 색동회를 조직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 아동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했으며, 그 해 5월 1일 천도교 소년회에서 어린이날을 선포하였다. 1928년 세계아동예술전람회 개최, 1931년 잡지 『혜성』을 발간하는 등 활동을 이어나갔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 방정환은 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追敍된 독립운동가면서 우리나라 어린이 운동의 창시자이자 선구자로 큰 업적을 남겼다.

방정환 묘소는 통상적인 봉분을 두는 묘소 형식이 아닌 독창적으로 조성된 묘소이다. 봉분 없이 자연석(쑥돌) 위에 사각의 돌 비석이 세워져 있고, 우측에는 1983년에 새로 세워진 비석이 있다. 묘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놓여있고 상석 좌우로 돌 화분이 하나씩 놓여 있다. 구舊 비석은 천도교 활동으로 인연이 있는 오세창이 비문을 썼는데 전면에는 ‘童心如仙 어린이의 동무 小波方定煥之墓’, 후면에는 ‘동무들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새로운 비석은 1983년 아동문학 연구의 대가 이재철李在徹(1931~2011)이 비문을 짓고, 서예가 겸 아동문학가 정주상이 글을 썼다.

망우묘지공원은 1933년 조성된 이후 20세기 중후반까지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공동묘지로 1933년부터 매장이 금지된 1973년까지 40여 년간 묘소 2만8500기가 자리 잡았다가 지속적으로 이장이 진행되어 현재는 약 8400여 기가 남아있다. 묘소 중에는 소설가 계용묵, 김이석, 김말봉을 비롯하여, 의학자 지석영, 화가 이중섭, 시인 박인환, 정치가 조봉암, 장덕수, 조선왕가의 명은공주 등 예술·문화·정치 분야의 유명인물 뿐만 아니라 한용운을 비롯한 오세창, 문일평, 오기만, 유상규 등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들의 묘소가 포함되어 있어 독립운동과 광복의 상징 공간이자 다양한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2.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방정환 묘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방정환 묘소 비문,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691-4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오기만 묘소

忘憂 獨立有功者 墓域-吳基萬 墓所

1937년

1기

봉분(오기만 1937, 김명복 1943), 비석(1937)

구리시 교문동 산84-2

지정일 : 2017.10.23

소유자 : 산림청

관리자 : 국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오기만吳基萬(1905~1937)의 묘이다. 황해도 연백延白 출생으로 윤철, 윤광제, 박태성, 윤창선, 주인국 등 수많은 이명을 가지고 있다.

서울 배재고등보통학교 2학년 수료 후 면학을 목적으로 수차례 중국을 왕래하면서 민족운동가들과 교유하였다. 1928년 4월 16일 신간회新幹會 배천지회 설립대회 당시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며 격문을 배부하려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중국 상해로 망명하여 1929년 유호한인독립운동자동맹留滬韓國獨立運動者同盟을 결성하고 민족운동기념일마다 중국에 체류하던 한인들에게 격문을 반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구연흙, 조봉암曹奉岩 등과 함께 사회주의운동에 참여하여 청년반제상해한인청년동맹靑年反帝上海韓人靑年同盟을 결성하고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1932년 심인택沈仁澤·한국형韓國亨 등과 함께 적색노동조합부두위원회赤色勞動組合埠頭委員會를 결성하였고, 진남포상공학교鎭南浦商工學校 적색비밀결사赤色秘密結社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1934년 4월 조선총독부에서 파견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와중 중병으로 인해 1936년 6월에 출옥하였으나 다음 해에 순국하였으며, 이후 2003년 정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追授되었다.



오기만 묘소는 그의 동생 오기영(吳基永(1909~?))이 조성한 가족납골묘로 오기만과 오기영의 부인 김명복(金明福(1906~1943))이 안장되어 있다. 묘 앞의 장방형 비석 한 가운데에는 오기만의 부친 오세형의 이름으로 묘비명 ‘吳世炯家代之墓(오세형가 대대지묘)’이 새겨져 있고 우측에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마치 한집에 살던 때처럼 본인도 언젠가 흙으로 돌아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오기영의 글(시조)이 새겨져 있다. 좌측에는 아버지 세형, 어머니 인의, 자식 기만과 기영, 기영의 아내 명복까지 오세형 일가의 생몰연도가 새겨져 있다. 오기영은 부모를 고향 황해도에서 모셔오지 못했고, 오기영 자신 또한 1948년경에 월북하여 이곳에 묻히지 못했기 때문에 비석에는 출생년도만 있을 뿐 사망년도는 새겨져 있지 않다.

<비석 우측에 새겨진 글>

전생 다생에 인연 있는 우리들이 부모처자로 금생연을 지어 피를 물려가며 고락을 가티 하였더니 때가 이르매 사랑하는 이들의 슬픔을 알면서도 도라갔다 본시 생자 필멸이라 무상을 깨다르니 남아서 슬퍼하는 이들도 백세 차기 전에 가티 흙으로 도라갈 것임에 살아 한집에 들었드시 여기 한 무덤을 지어 대대지묘로 삼았노라
 세월이 얼마되라 나도 가티 흙일 것을 그래도 정이로다 압세우기 이대섭어 무덤에 풀웃 입히며 눈물 다시 새로워라 - 계미년(1943년) 3월 22일 기영 합장



1·2.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오기만 묘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691-8호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 유상규 묘소

忘憂 獨立有功者 墓域-劉相奎 墓所

1936년

1기

봉분, 비석 1기(1990), 상석
구리시 교문동 산84-2

지정일 : 2017.10.23

소유자 : 산림청

관리자 : 국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의사인 유상규劉相奎(1897~1936)의 묘이다. 본관은 강릉, 호는 태허太虛, 평안북도 강계 출신이다.

1919년 경성의학전문학교학생으로서 학생들을 동원하여 3·1독립운동의 주된 역할을 하였다.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되자 상해로 망명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조직한 임시정부 교통국 조사원으로 활동하며 주요 인물과의 연락망 구축과 자금조달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1920년 상해에서 안창호의 비서관으로 활동하며 홍사단 원동지부에 입단하였다. 1925년 안창호의 주창으로 조직된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1927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교육과 치료 및 국민 보건위생에 관한 계몽에 주력하였다. 1936년 환자를 치료하다가 단독丹毒에 감염되었고 경성의학전문학교의 외과 강사로 근무 중 순국하였다. 장례식은 당시 대전형무소에서 출옥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던 안창호의 주관으로 경성의학전문학교 교정에서 치러졌다. 이후 1990년 정부로부터 공훈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追敘되었다.

유상규의 묘소는 부인 이애신李愛信(1902~1990)과의 부부합장묘로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배치되어 있다. 봉분 왼쪽에는 1990년에 세워진 비석이 자리 잡고 있으며, 비석의 좌우측면과 뒷면에는 유상규의 약전略傳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다.



유상규의 묘소 위쪽으로는 도산 안창호島山安昌浩(1878~1938)의 묘터가 위치해 있다. 유상규의 묘소 옆에 묻어달라는 안창호의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1938년 안창호는 유언대로 망우리묘지공원의 유상규 묘소 옆에 안장되었으나 1973년 도산공원으로 다시 이장되었고, 현재 안창호의 묘소가 있던 곳에는 안창호의 묘비석만이 상징적으로 남아있다.

망우리묘지공원은 1933년 조성된 이후 20세기 중후반까지 서울지역의 대표적인 공동묘지로 기능을 해왔다. 1933년부터 매장이 금지된 1973년까지 40여 년간 묘소 2만 8500기가 자리 잡았다가 지속적으로 이장이 진행되어 현재는 약 8400여 기가 남아있다. 묘소 중에는 소설가 계용묵, 김이석, 김말봉을 비롯하여, 의학자 지석영, 화가 이증섭, 시인 박인환, 정치가 조봉암, 장덕수, 조선왕가의 명은공주 등 예술·문화·정치 분야의 유명인물 뿐만 아니라 한용운을 비롯한 오세창, 문일평, 방정환, 오기만 등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들의 묘소가 포함되어 있어 독립운동과 광복의 상징 공간이자 다양한 역사교육 현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1·2.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유상규 묘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水原 舊 小花初等學校

1954년
1동
지상 2층, 건축면적 2,139.83㎡
석재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42

지정일 : 2017.10.23
소유자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관리자 : (재)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는 천주교 수원본당의 4대 주임신부인 심응영(빨리 데시레다도, 1884-1950)신부가 1934년 설립한 소화강습회를 기반으로 1954년 신축된 북수원성당의 부속건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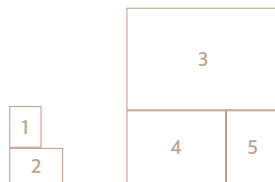
1934년 천주교 수원본당의 4대 주임신부인 심응영 신부는 ‘소화강습회’를 개설하였다. 이를 모태로 1946년에는 ‘수원소화초등학교’로 인가를 받아 개교하였지만, 한국전쟁으로 교사가 전소되었다. 1952년에 이르러 미국 주교회의 가톨릭복지협의회(NCWC)의 원조물자로 교사를 다시 재건하기 시작하였다. 교사동의 신축에 추가로 필요한 건축 재료와 자금은 천주교 신자를 비롯하여 수원에 주둔해 있던 미공군 제802부대와 미육군 제11사단의 자재를 지원받았으며, 총 2년 6개월간의 공사를 거쳐 1954년 6월 현재와 같은 모습의 건물이 준공되었다. 2002년까지 소화초등학교로 사용되다가 학교가 광교로 이전하면서 2007년부터는 초대 설립자인 빨리신부를 기념하는 ‘빨리화랑(전시실)’으로 사용 중이다.

1954년 당시 신축된 학교는 교사동 1동(172평)과 목조 사무실 1동(33평)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 목조 사무동은 소실되었고, 교사동만 남아있다. 교사동은 북수동성당 경내의 북쪽에 남향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으며 우측으로는 1966년에 확장한 5층 규모의 신관과 연결되어 있다.

건물은 박공면을 측면으로 경사면을 정면으로 한다. 본래 신관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주출입구가 있었으나 현재는 보이지 않고, 좌측의 부출입구로 출입이 가능하다. 건물의 각 층에 3개의 교실이 나란히 이어져 총 6개 교실이 있다. 교실과 교실 사이는 목재 패널로 구분되었는데, 필요시 제거하여 하나의 큰 실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각층의 북쪽으로는 편복도를 두고 있고 동쪽 복도 끝에는 내부에 목조계단을, 서쪽 복도 끝에는 외부계단을 설치하여 1층과 2층을 연결하고 있다.

건물벽체는 견치돌쌓기로 되어 있고, 벽면모서리, 창과 창 사이 간벽, 남쪽 굴뚝, 동서측 측벽의 돌출버팀기둥(buttriss)은 바른층쌓기로 되어 있으며, 벽체면과 달리 벽체 하부와 창호의 상·하인방에는 의석조(시멘트 물씻기)를 사용한 것이 특징적이다. 1층 실내에서는 2층 바닥의 목구조 짜임과 긴 목재 보가 외벽 석조 벽체에 꽂혀있는 부분이 그대로 보이고, 2층 실내에서는 지붕트러스와 지붕목재널판이 잘 드러나 있어 특유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는 재료와 구법이 시대적 상황을 오롯이 담고 있는 건물로 동시대 건축과 비교할 때 완성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계단실이 있는 부분에서 교사동이 ‘ㄱ’자를 이루며 연결되는 것을 제외하면 외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2층 복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전시실,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정면,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4.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5. 동상,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698호

수원 구 부국원

水原 舊 富國園

1916년
1층
지상 3층, 건축면적 85.95㎡
벽돌, 타일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30

지정일 : 2017.10.23
소유자 : 수원시
관리자 : 수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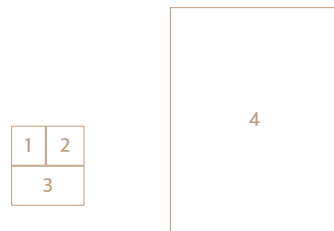
<수원 구 부국원>은 1916년 농작물종자·종묘·농기구·비료 등을 판매하던 주식회사 부국원의 본사로 설립된 건물이다. 해방 이후 1952년 수원법원 및 검찰 임시청사, 1957년 수원시교육지원청, 1974년 공화당 경기도당 공사, 1979년 수원예총, 1981년 박내과의원, 2010년 한솔문화사(디자인·인쇄)로 사용되는 등 여러 차례 전용되어 수원의 시대적 변화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철거 위기에 처하자 수원시가 매입하여 2016년 복원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현재 원형복원공사를 거쳐 근대문화전시관으로 사용 중이다.

수원 구 부국원은 지붕의 정상부를 둥글게 처리한 박공면을 정면으로, 양쪽 경사면을 측면으로 한다. 1970년대 내부 바닥과 지붕구조를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는 과정에서 지붕트러스가 시작되는 높이 즈음에 독립적인 층이 생겨 2층에서 3층으로 건물로 구조가 바뀌었다. 이 때 목조 바닥과 목조 계단, 일본식 기와로 구성된 목조 트러스 지붕이 제거된 후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바닥과 지붕으로 교체되었으며, 1층 중앙 부분에는 보강기둥을, 3층에는 시멘트 벽을 세웠다.

1910년대와 1920년대에 건축된 조적조 업무용 시설이 대부분 붉은 벽돌의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부국원은 붉은 벽돌로 벽체를 쌓고 배면을 제외한 정면과 양 측면 외벽을 타일로 마감하였는데, 건립 당시에는 벽돌로 마감이 되었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서 현재의 모습처럼 타일로 마감이 된 것으로 추측된다. 건립 당시 사용된 벽돌은 표준화된 현재의 벽돌보다 크며, 건물의 모서리에는 자기질

의 ‘ㄱ’자형 모서리 타일이 사용된 것이 특징적이다. 주출입구 현관과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주출입구의 우측 공간 등은 내부의 리모델링과 증개축 때 변화가 있었고 정면과 우측면은 3층 증축부와 외부타일 일부가 파손 탈락된 것을 제외하면 거의 변형이 없다. 다만 좌측면으로 연결되었던 부속건물이 헐리면서 측면의 마감이 많이 탈락되었고, 문이 있던 내부 벽체는 벽돌로 매워져있다.

수원 구 부국원은 근대 농업행정과 농업연구의 중심지로서 수원의 도시정체성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건물이자 옛 가로의 근대적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건축학적·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 1. 수원 구 부국원, 일제강점기, 수원광교박물관
- 2. 수원 구 부국원, 2016, 수원시
- 3. 수원 구 부국원 전시공간,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 4. 수원 구 부국원,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Historic Building
400
09.06.10-09.10.10

400

400

등록문화재 제708호

용인 고초골 공소

龍仁 고초골 公所

1891년 이후

1층

정면 3칸, 측면 5칸, 단층건물, 팔작지붕

목재

용인시 처인구 고초골로 15

지정일 : 2018.03.09

소유자 : 재단법인 수원교구유지재단

관리자 : 재단법인 수원교구유지재단

<용인 고초골 공소>는 천주교 수원교구의 공소로 인근의 용인 이주 국장군 고택(경기도문화재자료 제96호)의 부속건물을 이축하여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인치명사적丙寅致命史蹟』에 1866년 병인박해 당시 고초골 지역에서 교우촌 천주교도들이 체포되고, 마을이 불타 없어졌다는 기록으로 미루어보아 공소가 위치한 고초골 지역(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학일리)은 병인박해 이전부터 천주교 교우촌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초골 지역 교우촌은 1900년부터 미리내성당(성지) 관할 공소로 신도들의 통계가 집계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우촌이 재건되고 공소가 건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교우촌 규모가 확대되고 신도가 증가하면서 예배 및 집회장소가 필요하자 인근(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문촌리)에 있던 이주국장군 고택의 부속건물을 해체·이전하여 공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마을 주민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는 구전에 의하면 ‘잠실蠶室’로 사용되었던 곳이라고 한다.



건물은 내부기둥 상부의 주심도리에 기록되어 있는 ‘辛卯三月十六日立柱上樑’이라는 목서를 근거로 건립 연대를 1891년 이후로 추측할 수 있게 되었다. 목서 상량대가 일반적인 종도리가 아닌 주심도리이고, 주택 부속건물에는 상량문을 기록하지 않는데 잠실 용도의 부속건물임에도 상량문이 있는 것은 아마도 부재가 재활용되면서 위치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상량문 목서 연대보다는 후에 건물이 건립되고,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다.

용인 고초골 공소는 정면 3칸, 측면 5칸, 가구架構는 2고주 5량, 지붕은 홑처마의 팔작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다. 박공면에 주출입구를 두었고, 측면으로 4개의 여닫이 창과 부출입구를 두었다. 기둥은 내진주 모두 방주方柱를 사용하였으며 외진주 상부는 별도의 공포 부재 없이 도리를 직접 받고 있다. 지붕은 현재 함석기와로 덮여 있으나 본래는 초가였다고 한다.

1970년대 중후반쯤 집회시설로서의 효율적인 공간 사용을 위해 내부 구조가 약간 변경되었으나 원형의 모습을 비교적 잘 간직하고 있다.

용인 고초골 공소는 전체적인 구성방식 등에서 본래 한옥의 건축적 요소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근대기 천주교가 정착해 가는 과정에서 한옥이 변모해 가는 흔적을 살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1. 용인 고초골 공소 내부,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2. 용인 고초골 공소,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3. 용인 고초골 공소 전경, 2018.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709호

구 안성군청

舊 安城郡廳

1928년
1층
지상 1층, 면적 269.61㎡
벽돌
안성시 낙원길 95

지정일 : 2018.03.09
소유자 : 안성시장
관리자 : 안성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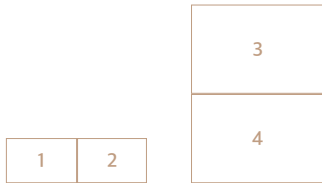
<구 안성군청>은 1928년 안성군청으로 건축된 건물로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물의 전형적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안성지역에는 안성평야의 경작 작업과 소출을 관리하기 위해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군청, 읍사무소 등 행정관청이 설치되었다. 본래 안성 관아 근처에 있던 안성군청은 1928년 10월경 현재 자리로 신축·이전되었으며, 1966년 다른 곳으로 군청이 이전하자 안성읍사무소로 사용되었다. 2004년 리모델링 공사 후 현재는 안성1동 주민센터로 사용 중이다.

구 안성군청은 적벽돌 조적조, 목조 트리스 지붕 건물로 28×10m 규모의 장방형 평면이다. 전체적으로는 우진각 지붕이나 중앙부는 직각방향으로 박공지붕을 형성하고 있다. 박공지붕 부분 외벽 일부는 정면으로 약간 돌출되어 대형 아치형의 주출입구를 형성하고 있으며, 좌우 외벽에는 장방형의 수직 창호를가 설치되어 있다. 벽돌쌓기는 길이쌓기와 마구리쌓기를 교대로 이용해 쌓은 일반적인 내력벽식耐力壁式 구조이나 창호 주변, 정면 중앙 돌출부의 주출입구 주변, 정면 박공 상부 모서리 벽면, 지붕처마 하부 돌림띠 등에 내어쌓기, 돌출쌓기, 세워쌓기 등의 세부적 조적기법을 적용하여 장식한 점은 특징적이다.

본래 굴뚝이 있어 연통을 꽂아 난로를 사용하였으나 지붕수리 시 굴뚝은 철거되었다. 후면 중앙부에는 창고나 화장실(2004년에는 전산실로 사용) 등으로 사용되던 정방형의 부속실이 연결되어 있었으나 2004년 리모델링 과정에서 철거되었고 현재는 연결통로의 흔적만이 남아있다. 중앙부 박공지붕 내부 다락공간은 후면 벽체에 목조계단을 설치하여 문서고, 창고 등으로 활용하였으나 2004년에 목조계단을 철거하고 현재는 폐쇄된 상태이다.

구 안성군청의 건물 내부는 2004년 대대적 리모델링 공사를 거치며 마감재 대부분이 변형된 상태이기는 하지만 적벽돌 조적조, 경사지붕, 대칭적 구성, 정면성 및 중앙부 강조, 권위적 외관 등 일제강점기 관공서 건물의 전형적 형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축물로서 역사적, 건축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1. 구 안성군청, 촬영일 미상_ 문화재청
2. 구 안성군청, 촬영일 미상_ 문화재청
3-4. 구 안성군청,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坡州 舊 交河面事務所

1957년 7월 20일(1976년 증축)
1층
지상 2층, 건축면적 175㎡, 연면적 350㎡
석재, 철근콘크리트
파주시 교하로 1401

지정일 : 2018.08.06
소유자 : 파주시
관리자 : 파주시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는 한국전쟁 이후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미군부대로부터 재료 및 기술 지원을 받아 1957년 지은 지방 관공서 건물이다.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는 정면 중앙에 주출입구를 두고 좌우대칭을 이루고 있다. 주출입구 앞쪽으로는 2개의 기둥을 세워 캐노피를 만들었는데 건축 당시보다 현재 외부로 더 돌출되어 확장된 상태이다. 정면 현관 캐노피 하부(주출입구 상부)에 봉황과 무궁화 문양의 석조 부조장식 기법이 특징적이다.

외관상으로는 석조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를 기본으로 하고 외벽을 화강석 쌓기로 마감한 형식이다. 당시 철근콘크리트 구조 건물로서는 매우 넓은 기둥간격(기둥간격 9m)과 무주공간(無柱空間)을 형성하고 있다. 지붕은 본래 기와로 마감한 우진각 지붕형태였으나, 현재는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으로 변형된 상태이며, 지붕 위로 돌출된 굴뚝은 지붕 교체 시에 철거된 것으로 추측된다. 건물에는 장방형의 수직 창호가 설치되어 있는데 본래는 목재 오르내리창에서 현재는 알루미늄 창호로 교체된 상태이다.

1957년 최초 건축된 부분은 1층 기준 면적 165.6㎡(약 50평)로 2개 층의 면적은 총 100평 정도였으나, 1976년 계단실을 포함한 후면부가 약 32평 규모로 증축되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증축되면서 내·외부 공간에 덧대어진 것은 다수 있으나 건축의 원형은 잘 유지되고 있다.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는 1957년 당시 공공건축물의 특징이 잘 남아 있는 건축물이자 오랜 기간 지역의 대표적 공공청사로 기능을 해 온 건축물로 역사성과 건축학적 가치가 인정되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파주시에서는 건물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인식하고 자체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2014년 2월 파주시 조례에 의거하여 파주시 향토유적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현재는 교하동행정복지센터로 활용 중이다.



1.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전경, 1990년대_ 파주시
2.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2018_ 경기문화재단연구원



등록문화재 제730호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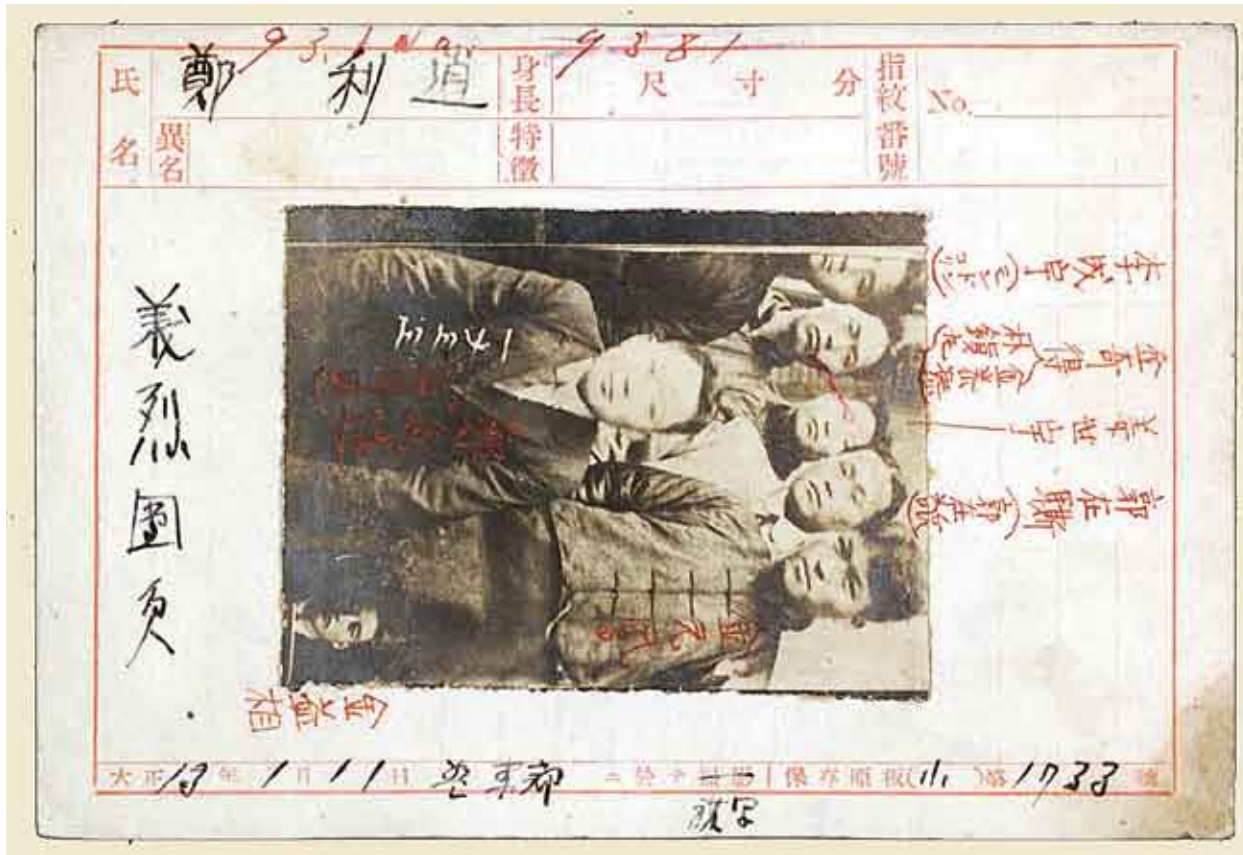
日帝 主要監視對象 人物카드

1910~1940년대
6,264매
세로 10cm, 가로 15.2cm
종이, 사진
과천시 교육원로 86

지정일 : 2018.10.01
소유자 : 국사편찬위원회
관리자 : 국사편찬위원회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의 시찰 대상이 되었던 인물 4,857명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6,264점의 신상 카드이다.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에서 1940년대 사이에 제작한 것으로 추측되며, 1980년대에 치안본부로부터 국사편찬위원회가 인수받아 현재 55권의 첩으로 재분류되어 서고에 보관하고 있다.

‘요시찰要視察’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감시했던 제도이다. ‘요시찰인要視察人’의 조사는 조선총독부가 담당하였고, 시찰은 담당순사가 전담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형사刑事순사가 맡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시찰 대상자의 범죄행위 유무나 가정, 직업, 평판, 교제인물, 출입자, 여행지와 목적, 통신의 유무 등 제반 상황을 면밀히 감시·조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시찰을 위해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착된 사진의 촬영일자가 대부분 3·1 운동 이후인 것으로 보아 3·1 운동 주모자들을 탄압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들과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를 본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추측된다.



각각의 인물카드 1매에는 1명의 상반신 사진(혹 전면과 측면 상반신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인물의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카드의 앞면에는 이름과 연령, 신장, 특징, 지문번호 등을 기록하였고, 뒷면에는 본적, 출생지, 주소, 신분 등을 기록하였으며, 각 개인의 기본정보 외에 수형사항(죄명, 형명과 형기, 언도판서(재판소명), 언도 연월일, 입소 연월일, 출소연월일, 형무소명)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다. 원칙적으로는 1명의 상반신 사진이 부착되지만 개인 사진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부착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김원봉의 카드에는 의열단원 6명이 함께 찍은 사진과 김의상의 사진을 덧붙여 놓고, 각각 인물들의 성명을 모두 기재해 놓았다.



1.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김원봉), 2014. 국사편찬위원회
- 2-3.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1932년 체포될 때의 안창호), 2011. 국사편찬위원회
4.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유관순), 2011. 국사편찬위원회
5.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이봉창), 2011. 국사편찬위원회

카드에 수록된 인물들은 보안법, 치안유지법, 국가총동원법, 폭탄투척사건, 안녕질서에 관한 법, 출판법, 육군형법, 주거침입 등의 죄명이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는 국가보안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인물들이다. 안창호, 백용성, 이봉창, 윤봉길, 김마리아, 유관순 등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포함되어 있고, 민족주의자였다가 후에 친일활동을 한 이광수, 최린, 주요한, 최남선 등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일제감시대상 인물카드에 부착된 당시 주요 인물들의 사진은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매우 희귀한 자료이다. 따라서 현재 항일민족운동가나 독립운동가들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때 가장 신빙성 있고 설득력 있는 자료로 인정받고 있다. 독립운동가 개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등장하는 사진들을 통해서는 각 개인 간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어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 및 독립운동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大韓民國臨時政府 建國綱領 草案

1941년
10장
세로 36.9cm, 가로 27.1cm
종이
고양시

지정일 : 2018.12.31.
소유자 : 조○○
관리자 : 조○○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이 주창한 삼균주의는 개인·민족·국가 간 균등과 정치·경제·교육 균등을 통해 이상사회를 건설하자는 내용의 정치사회사상이다. 대한민국 건국강령 제정 이전인 1940년 5월 한국독립당·한국국민당·조선혁명당으로 구성된 '통합 한국독립당'이 삼균주의를 수용함으로써 민족주의 민족운동 계열의 공동된 혁명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1941년 충칭重慶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가 머지않아 패망하리라 예견하고 해방 후의 국가 건설의 방책을 구체화하기 시작하였고, 당시 임시정부의 외무부장 겸 선전위원회 주임위원이었던 조소앙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을 작성하였다.

조소앙이 작성한 건국강령 초안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원안대로 통과되어 제정·공포되었다. 비록 정식 헌법문서는 아니고 장래 헌법제정에 대비한 준비 계획에 불과했지만 해방 이후 나온 여러 가지 헌법초안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되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총강總綱'(1~7항), '복국復國'(1~8항), '건국建國'(1~7항) 3개장 22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강'에는 민족공동체, 삼균제도, 토지국유제, 순국선열 유지, 3·1운동 계승 등 대한민국 건국방향이, '복국'에는 독립선포, 정부수립, 국토수복, 건국 등 일련의 과정을, '건국'에는 삼균주의의 실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부녀자들 또한 경제·문화·사회생활에서 남자와 평등할 권리가 있음 밝히는 조항, 노공老工(연료한 노동자), 유공幼工(어린 노동자), 여공女工의 야간근무와 불합리한 노동을 금지하고, 공인工人과 농인農人の 의료비 면제 제도를 시행하여 질병예방과 건강보장을 힘써 행한다는 내용의 조항, 6~12세 사이의 초등기본교육과 12세 이상의 고등기본교육에 관한 일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기본교육을 받지 못한 국민에게는 국가가 보충교육비를 대주고, 가난한 자녀로 의식을 자비로 마련하지 못하는 자에게도 역시 국가가 그 비용을 준다는 세세한 내용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조소앙의 세 가지 평균三均, 즉 대한민국의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평등과, 빈부격차를 없애야 한다는 경제적 평등, 그리고 누구나 학비 걱정 없이 교육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평등을 반영한 것으로 지금의 기준으로도 혁명적이고 선진적인 강령 내용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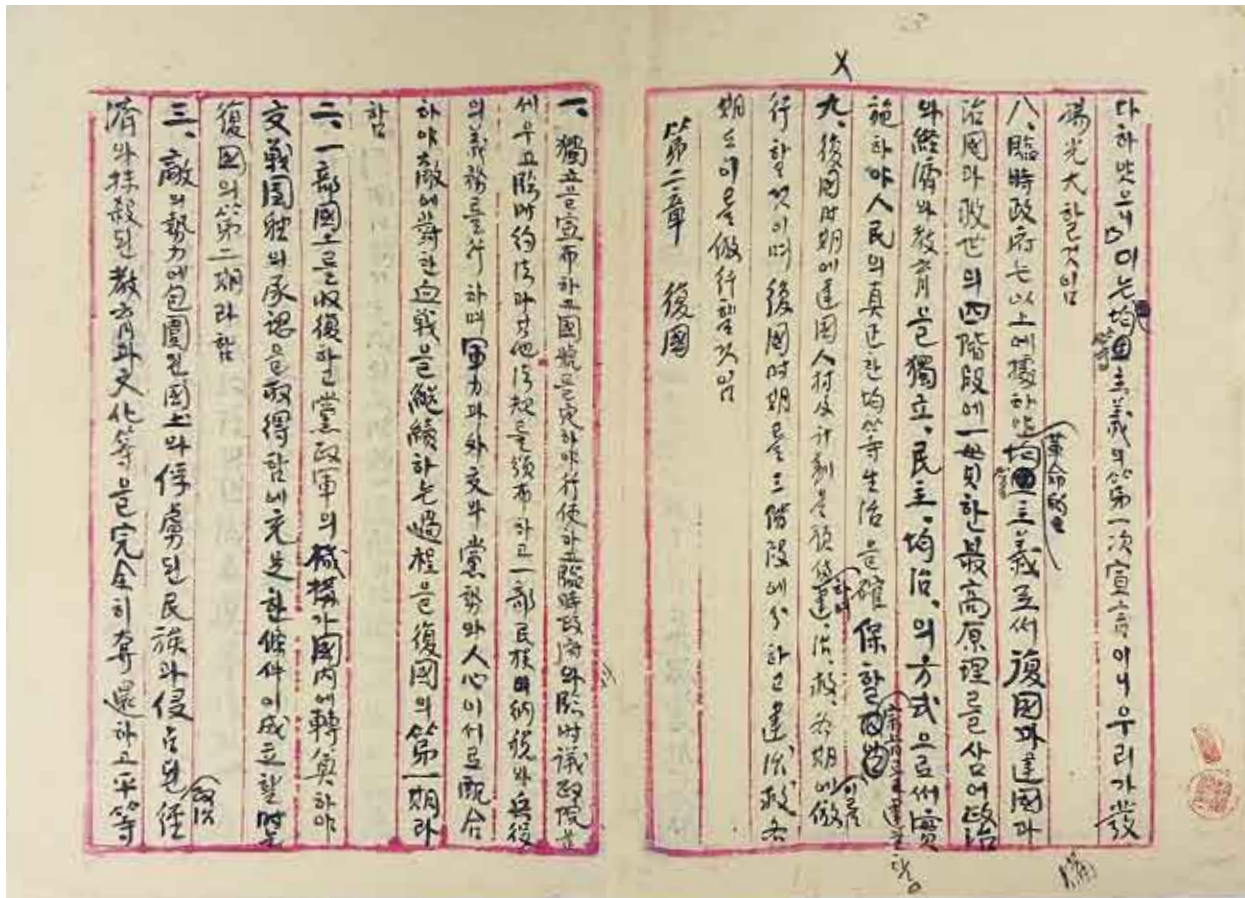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광복 후 어떠한 국가를 세우려 했는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자료로, 무수한 밑줄, 교정과 첨언 등에서 조소앙이 고심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어 더욱 가치가 높다.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제1장 총강 1~4항, 2018. 문화재청

제1장 총강 1항~4항

- 一.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의 반만년 래로 공동한 말과 글과 국토와 주권과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공동한 민족 정기正氣를 길너온 우리끼리로서 형성하고 단결한 고정적 집단의 최고 조직임
- 二. 우리나라의 건국정신은 삼균제도三均制度의 력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선민先民의 명명明命한 바 「수미균평위首尾均平位하야 흥방보태평興邦保太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智力과 권력權力과 부력富力의 향유享有를 균평하게 하야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보유保維하러 함이니 흥익인간弘益人間과 리화세계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직힐 바 최고最高 공리公理임
- 三. 우리나라의 토지제도土地制度는 국유國有에 유범遺範을 두었으니 선현의 통론한 바 「준성조지공분수지법遵聖祖至公分授之法하야 혁후인사유겸병지폐革後人私有兼併之弊」라 하였다. 이는 문란한 사유제도를 국유로 환원還元하려는 토지혁명의 력사적 선언이다. 우리 민족은 고규古規와 신법新法을 참호參互하야 토지제도를 국유로 확정할 것임
- 四. 우리나라의 대외주권이 상실되었을 때에 순국한 선열은 우리 민족에게 동심복국同心復國할 것을 유촉遺囑하였으니 이른바 「망아동포望我同胞는 물망국치勿忘國恥하고 견인로력堅忍努力하야 동심동덕同心同德으로 이란외모以捍外侮하야 북아자유독립復我自由獨立하라」 하였다. 이는 전후 순국한 수십만 선열의 전형적典型的 유지遺志로써 현재와 장래의 민족정기를 고동함이니 우리 민족의 로소남녀가 영세불망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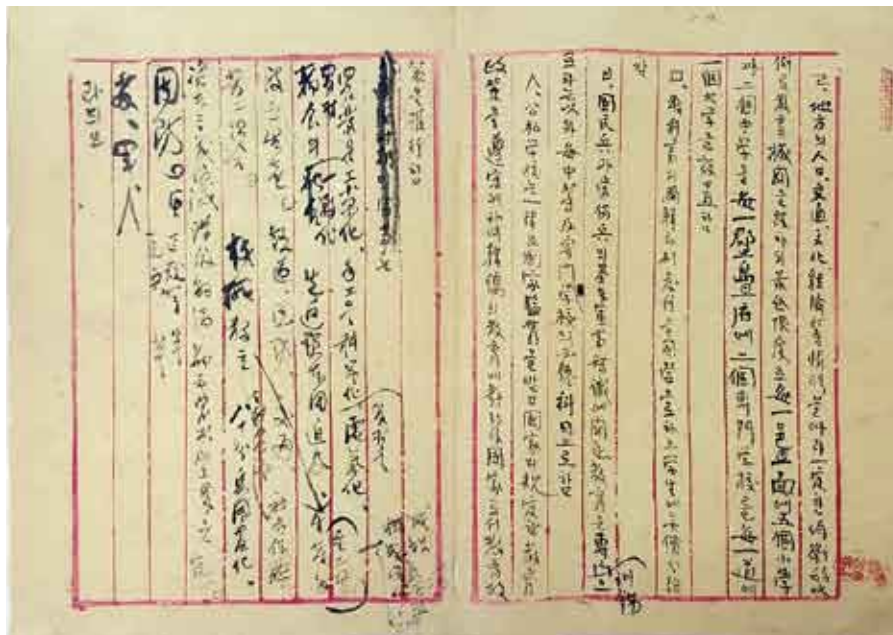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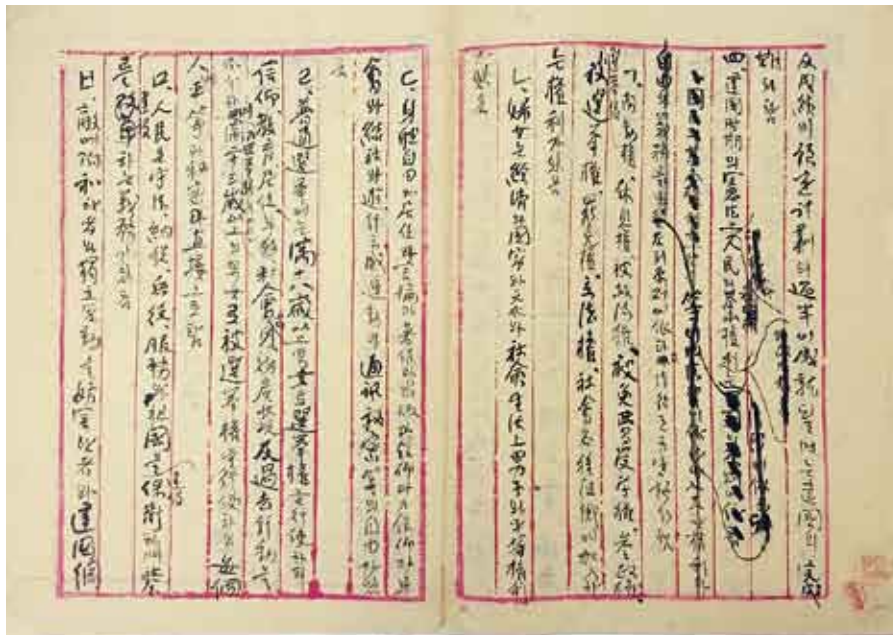
제2장 복국 1항~3항

- 一. 독립을 선포하고 국호를 일정히 하여 행사하고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세우고 임시약법과 기타 법규를 반포하고 인민의 납세와 병역의 의무를 행하며 군력과 외교와 당무와 인심이 서로 배합하여 적에 대한 혈전을 정부로서 계속하는 과정을 복국의 제일기라 할 것임
- 二. 일부 국토를 회복하고 당·정·군·黨·政·軍의 기구機構가 국내에 전전轉轉하여 국제적 지위를 본질적으로 취득함에 충족한 조건이 성숙할 때를 복국의 제이기라 할 것임
- 三. 적의 세력에 포위된 국토와 부노된 인민과 침점된 정치·경제와 말살된 교육과 문화 등을 완전히 탈환奪還하고 평등지위와 자유 의지로서 각국 정부와 조약을 체결할 때를 복국의 완성기라 할 것임

제3장 건국 4항

- 四. 건국기의 헌법상 인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는 좌열 원칙에 의지하고 법률로 규정 시행함

- 가. 뇌동권·휴식권·피구제권·피보험권·면비수학권·참정권·선거권·피선거권·파면권·립법권과 사회 각 조직에 가입하는 권리가 있음
- 나. 부녀는 경제와 국가와 문화와 사회 생활상 남자와 평등 권리가 있음
- 다. 신체 자유와 거주·언론·저작·출판·신앙·집회·결사·유행·시위 운동·통신 비밀 등의 자유가 있음
- 라. 보통선거에는 만 십팔세 이상 남녀로 선거권을 행사하되 신앙·교육·거주년수·사회출신·재산상황과 과거 행동을 분별치 아니하며 선거권을 가진 만 이십삼세 이상의 남녀는 피선거권이 있으되 매 개인이 평등과 비밀과 직접으로 함
- 마. 인민은 법률을 직히며 세금을 받으며 병역에 응하며 공무에 복하고 조국을 건설 보위하며 사회를 시설 지지하는 의무가 있음
- 바. 적에 부화한 자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건국강령을 반대한 자와 정신이 흠결된 자와 범죄 판결을 받은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없음



1	2
	3

1. 제2장 복국 1항~3항, 2018. 문화재청
 2. 제3장 건국 4항, 2018. 문화재청
 3. 제3장 건국 7항, 2018. 문화재청

제3장 건국 7항

- 라. 지방의 인구·교통·문화·경제 등 정형을 따라 일정한 균형적 비례로 교육기관을 설치하되 최저한도 때 일읍 일면에 오개 소학과 이개 중학 때 일군 일도 일부에 이개 전문학교 때 일도에 일개 대학을 설치함
- 마. 교과서의 편집과 인쇄발행을 국영으로 하고 학생에게 무료로 분급함
- 바. 국민병과 상비병의 기본 지식에 관한 교육은 전문훈련으로 하는 이외에 매 중등학교와 전문학교의 필수과목으로 함
- 사. 공사학교는 일닐로 국가의 감독을 받고 국가의 규정한 교육정책을 준수케 하며 한교韓僑의 교육에 대하여 국가로서 교육정책을 취행함

※ 국사편찬위원회 우리역사넷(contents.history.go.kr)

<교양우리역사<사료로본한국사<근대<정치<대한민국 임시 정부와 한국 광복군>에서 본문 내용 발췌



— 5 —

시·군별 문화재 목록

고양시

고양 행주산성	사적 제56호	12
고양 벽제관지	사적 제144	28
북한산성	사적 제162	32
고양 공양왕릉	사적 제191	34
고양 서오릉	사적 제198	48
고양 서삼릉	사적 제200	52
북한산성 행궁지	사적 제479	164
삼각산	명승 제10호	188
고양 송포 백송	천연기념물 제60호	202
고양 구 일산역사	등록문화재 제294호	254
고양 행주성당	등록문화재 제455호	300
개성 복식부기 장부	등록문화재 제587호	350
고양 흥국사 대방	등록문화재 제592호	352
고양 행주수위관측소	등록문화재 제599호	362
색복장려깃발	등록문화재 제615호	372
고양 대성암 아미타삼존괘불도	등록문화재 제649호	376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초안	등록문화재 제740호	406

과천시

부채를 든 자화상	등록문화재 제487호	306
초동	등록문화재 제532호	318
시골소녀	등록문화재 제533호	320
론도	등록문화재 제535호	322
남향집	등록문화재 제536호	324
통일버 유물	등록문화재 제555호	336
일제 주요감시대상 인물카드	등록문화재 제730호	404

과명시

광명 영회원	사적 제357호	108
--------	----------	-----

광주시

남한산성	사적 제57호	14
광주 조선백자 요지	사적 제314호	94
남한산성 행궁	사적 제480호	168

구리시

구리 동구릉	사적 제193호	36
구리 명빈묘	사적 제364호	118
구리 한용운 묘소	등록문화재 제519호	310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오세창 묘소	등록문화재 제691-1호	384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문일평 묘소	등록문화재 제691-2호	386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방정환 묘소	등록문화재 제691-3호	388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오기만 묘소	등록문화재 제691-4호	390
망우 독립유공자 묘역-유상규 묘소	등록문화재 제691-8호	392

군포시

군포 산본동 조선백자 요지	사적 제342호	100
----------------	----------	-----

김포시

김포 문수산성	사적 제139호	24
김포 장릉	사적 제202호	54
김포 덕포진	사적 제292호	90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천연기념물 제250호	208
구 김포성당	등록문화재 제542호	332

남양주시

남양주 광릉	사적 제197호	46
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제207호	66
남양주 사릉	사적 제209호	70
남양주 순강원	사적 제356호	106
남양주 휘경원	사적 제360호	114
남양주 광해군묘	사적 제363호	116
남양주 성묘	사적 제365호	120
남양주 안빈묘	사적 제366호	122
남양주 영빈묘	사적 제367호	124
남양주 운길산 수종사 일원	명승 제109호	194
광릉크낙새서식지	천연기념물 제11호	198
남양주 양지리 향나무	천연기념물 제232호	206
남양주 구 팔당역	등록문화재 제295호	256
남양주 흥국사 대방	등록문화재 제471호	302
남양주 봉선사 큰법당	등록문화재 제522호	312
남양주 고안수위관측소	등록문화재 제593호	354

부천시

토끼와 원숭이	등록문화재 제537호	326
엄마찾아 삼만리 원화	등록문화재 제539호	330
만화 코주부 삼국지	등록문화재 제605호	364

성남시

국문정리	등록문화재 제528-2호	314
전보장정	등록문화재 제529-2호	316
백용성 선사 만일선회 방함록	등록문화재 제637호	374

수원시

수원 화성	사적 제3호	10
수원 화령전	사적 제115호	16
수원 화성행궁	사적 제478호	162
구 수원문화원	등록문화재 제597호	358
구 수원시청사	등록문화재 제598호	360
경기도청사 구관	등록문화재 제688호	380

경기도청사 구 관사	등록문화재 제689호	382
수원 구 소화초등학교	등록문화재 제697호	394
수원 구 부국원	등록문화재 제698호	396

시흥시

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 요지	사적 제413호	136
시흥 오이도 유적	사적 제441호	146

안산시

고바우영감 원화	등록문화재 제538-2호	328
----------	---------------	-----

안성시

안성 도기동 산성	사적 제536호	182
구 안성군청	등록문화재 제709호	400

양주시

양주 회암사지	사적 제128호	18
양주 운릉	사적 제210호	72
양주 대모산성	사적 제526호	176
양주 황방리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제278호	212

양평군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30호	200
양평 구 구둔역	등록문화재 제296호	258
양평 지평양조장	등록문화재 제594호	356
여운형 혈의	등록문화재 제608호	366

여주시

여주 영릉(英陵)과 영릉(寧陵)	사적 제195호	42
여주 파사성	사적 제251호	82
여주 고달사지	사적 제382호	126
여주 신접리 백로와 왜가리 번식지	천연기념물 제209호	204
여주 효종대왕릉(영릉) 회양목	천연기념물 제459호	224
상주의용소방대소방차	등록문화재 제399호	276
신진 퍼블리카	등록문화재 제401호	278
현대자동차 포니 1	등록문화재 제553호	334

연천군

연천 송의전지	사적 제223호	78
연천 경순왕릉	사적 제244호	80
연천 전곡리 유적	사적 제268호	84
연천 호로고루	사적 제467호	154
연천 당포성	사적 제468호	158
연천 은대리성	사적 제469호	160
연천은대리물거미서식지	천연기념물 제412호	218
연천역 급수탑	등록문화재 제45호	238

연천 유엔군 화장장 시설	등록문화재 제408호	284
---------------	-------------	-----

오산시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사적 제140호	26
--------------	----------	----

용인시

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사적 제329호	98
용인 보정동 고분군	사적 제500호	172
용인 심곡서원	사적 제530호	180
용인 장욱진 가옥	등록문화재 제404호	280
홍남파 동요 약보 원판	등록문화재 제479호	304
삼성전자 64K DRAM	등록문화재 제563호	346
석주명 유품	등록문화재 제610호	368
용인 고초골 공소	등록문화재 제708호	398

의왕시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등록문화재 제417호	286
협계증기기관차 13호	등록문화재 제418호	288
대통령 전용 객차	등록문화재 제419호	290
주한 유엔군사령관 전용 객차	등록문화재 제420호	292
협계무개화차	등록문화재 제421호	294
협계유개화차	등록문화재 제422호	295
대한제국기 철도 통표	등록문화재 제423호	296
대한제국기 경인철도 레일	등록문화재 제424호	297
쌍신페색기	등록문화재 제425호	298

이천시

이천 설봉산성	사적 제423호	142
이천 신대리 백송	천연기념물 제253호	210
이천 도립리 반룡송	천연기념물 제381호	216
금성 라디오 A-501	등록문화재 제559-1호	338
금성 냉장고 GR-120	등록문화재 제560호	340
금성 텔레비전 VD-191	등록문화재 제561-1호	342
금성 세탁기 WP-181	등록문화재 제562호	344
이천 수광리 오름가마	등록문화재 제657호	378

파주시

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	사적 제148호	30
파주 장릉	사적 제203호	56
파주 삼릉	사적 제205호	58
파주 윤관장군묘	사적 제323호	96
파주 오두산성	사적 제351호	102
파주 소령원	사적 제358호	110
파주 수길원	사적 제359호	112
파주 가월리와 주월리 유적	사적 제389호	130
파주 칠중성	사적 제437호	144

파주 혜음원지	사적 제464호	152
파주 이이 유적	사적 제525호	174
파주 덕진산성	사적 제537호	184
한강 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천연기념물 제250호	208
파주 무건리 물푸레나무	천연기념물 제286호	214
파주 구 장단면사무소	등록문화재 제76호	240
파주 경의선 구 장단역 터	등록문화재 제77호	244
경의선 장단역 증기기관차	등록문화재 제78호	246
파주 경의선 장단역 죽음의 다리	등록문화재 제79호	248
미동	등록문화재 제342호	260
자유만세	등록문화재 제343호	262
검사와 여선생	등록문화재 제344호	264
마음의 고향	등록문화재 제345호	266
피아골	등록문화재 제346호	268
자유부인	등록문화재 제347호	270
시집가는 날	등록문화재 제348호	272
파주 영국군 설마리전투비	등록문화재 제407호	282
청춘의 십자로	등록문화재 제488호	308
파주 구 교하면사무소	등록문화재 제729호	402

포천시

포천 반월성	사적 제403호	132
포천 화적연	명승 제93호	190
포천 한탄강 명우리협곡	명승 제94호	192
한탄강 대교천 현무암 협곡	천연기념물 제436호	222
포천 직두리 부부송	천연기념물 제460호	226
포천 한탄강 현무암 협곡과 비둘기낭 폭포	천연기념물 제537호	232
포천 아우라지 배개용암	천연기념물 제542호	234
구 포천성당	등록문화재 제271호	252
포천 방어벽커	등록문화재 제578호	348

하남시

하남 미사리 유적	사적 제269호	88
하남 동사지	사적 제352호	104
하남 이성산성	사적 제422호	140
미 해병대원 버스비어(A.W.Busbea) 기증 태극기	등록문화재 제383호	274

화성시

화성 용릉과 건물	사적 제206호	62
화성 당성	사적 제217호	74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 유적	사적 제299호	92
화성 마하리 고분군	사적 제451호	150
화성 고정리 공룡알화석 산지	천연기념물 제414호	220
화성 전곡리 물푸레나무	천연기념물 제470호	228
화성 용릉 개비자나무	천연기념물 제504호	230

총괄

김성명 | 경기문화재단연구원장
박종달 | 경기도 문화유산과장

기획

김영화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팀장
이재복 |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장
김선미 | 경기도 문화유산과 문화유산정책팀 학예연구사

진행

김영화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팀장
김다혜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진행보조

강미숙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박한별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전재희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사진촬영

오세윤 | 문화재사진연구소
김다혜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팀 연구원
김종헌 | 경기문화재단연구원 조사연구팀 선임연구원
경기도지적연구회

사진촬영 협조

개인소장자
국립과천과학관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사(남양주)
대한불교조계종 흥국사(남양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남양주)
수원시 화성사업소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양평군)
육군 제1보병사단
유엔사령부
조선왕릉 동부지구 관리소
조선왕릉 서부지구 관리소
충현박물관
포천시 한탄강사업소 지질공원팀

사진제공 협조

경기도문화재돌봄사업단
경기도박물관
경희대학교 혜정박물관
광명시 문화체육과
국립무형유산원
국립문화재단연구소
국립여성사전시관
국립중앙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기남문화재단연구원
단국대학교매장문화재단연구소
단국대학교석주선기념박물관
대한불교조계종 청룡사
명지대학교박물관
문화재청
미래엔·교과서박물관
반남박씨 금계군종택
반남박씨 서계종택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서울대학교박물관
성공회대학교박물관
성보문화재단연구원
성호기념관
수원박물관
수원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활용팀
수원화성박물관
숭실대학교한국기독교박물관
시흥시 관광과 오이도박물관팀
여주박물관
연천군 문화체육과
오산시 문화체육관광과
용인대학교 박물관·우학문화재단
용인시 문화예술과
의왕시 문화체육과
전곡선사박물관
전주이씨 완양부원군 종택
중부고고학연구소
지평의병·지평리전투기념관
철도박물관
파주시 문화예술과
하남역사박물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박물관
한백문화재단연구원
한양대학교박물관
한양문화재단연구원
환기재단·환기미술관
LG인화원

경기도 문화재 총 램

국가지정편 _ 2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등록문화재

발행일 2019년 3월 31일

발행 경기도
경기문화재연구원

편집디자인 칼라뱅크
인쇄·제작 경인M&B

ISBN 979-11-88858-31-6 (제2권)
979-11-88858-29-3 (전2권 세트)

발간등록번호 71-6410000-000243-14

(비매품)
이 도서의 전자와 복제를 금합니다.
이 도서에 수록된 사진자료의 사용권한은 경기도와 각 소장처에 있습니다.

비매품
94080

9 791188 858316
ISBN 979-11-88858-31-6
ISBN 979-11-88858-29-3(전2권 세트)

